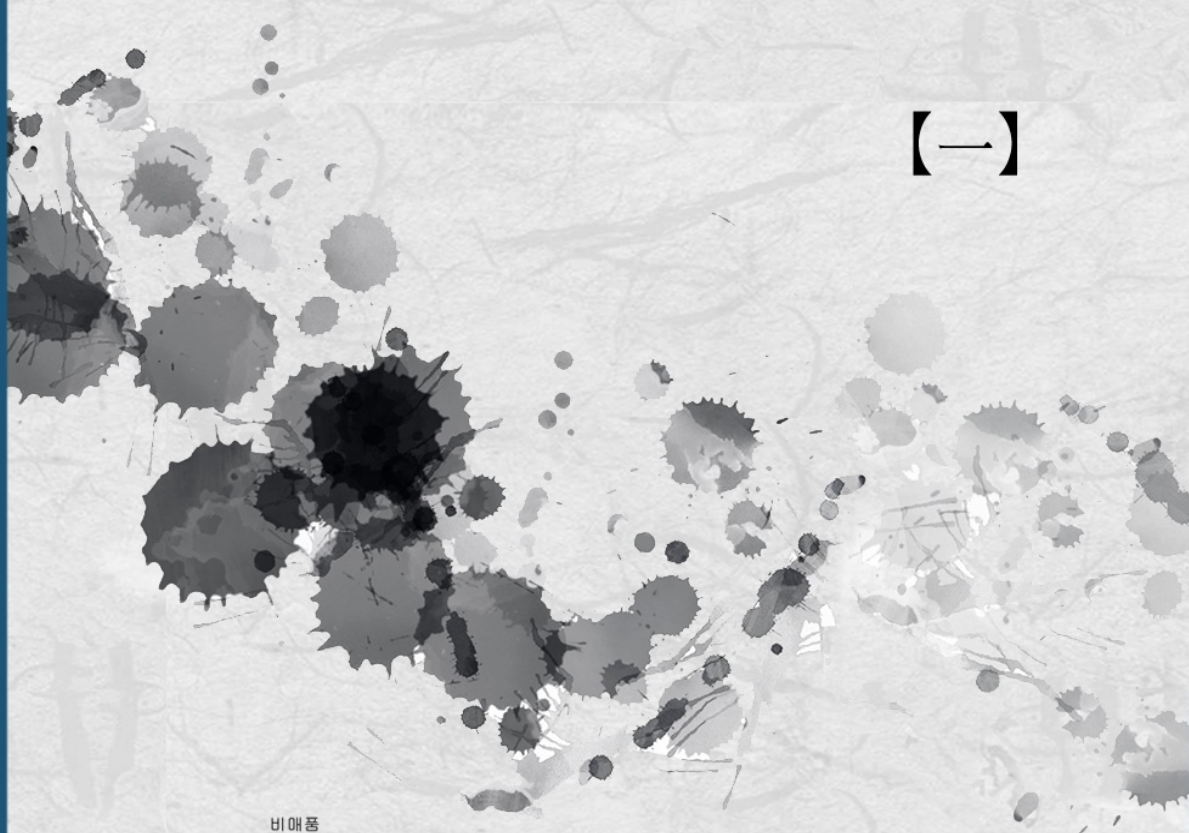


저자 김홍제  
국역 오준호  
해제 오준호

국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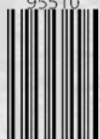
# 一金方

【一】



비매품

95510



9 788959 705740

ISBN 978-89-5970-574-0 (PDF)



한국한의학연구원

---

# Table of Contents

## 원문·국역

일금방 권1 一金方 卷之一	1.1
정 精	1.1.1
기 氣	1.1.2
신 神	1.1.3
혈 血	1.1.4
진액 津液	1.1.5
담음 痰飲	1.1.6
오장육부 五臟六腑	1.1.7
오장 五臟	1.1.7.1
육부 六腑	1.1.7.2
포락 胞絡	1.1.8
충 蟲	1.1.9

---

---

## 해제·출판

해제	2.1
----	-----

일러두기	2.2
------	-----

출판사항	2.3
------	-----



## 一金方 卷之一

### 일금방 권1

內景篇

내경편



## 精 精

精爲身本 [靈樞曰, 兩神相薄, 合而成形, 常先身生, 是謂精, 精者身之本也。又曰, 五穀之津液, 和合而爲膏, 內滲入骨空, 補益髓腦, 而下流于陰股。陰陽不和, 則使液溢而下流于陰, 下過度則虛, 虛則腰背痛而脛酸。又曰, 髓者骨之充, 腦爲髓海, 髓海不足, 則腦轉耳鳴, 筋痠眩冒。]

정(精)은 몸의 근본 [《영추(靈樞)》에서 말하였다. "두 개의 신(神)이 서로 부딪쳐 결합하여 형체를 이루며 항상 몸보다 먼저 생겨나는 것을 정(精)이라고 하니, 정(精)은 몸의 근본이다." 또 말하였다. "곡식의 진액(津液)이 잘 섞여 고(膏)처럼 되고 이것이 빠속 빈 공간으로 스며들어 골수(骨髓)와 뇌(腦)를 만들고 사타구니로 흘러내린다. 음양(陰陽)이 조화롭지 못하면 정액이 넘쳐 성기(性器)에서 흘러나오는데 지나치게 흘러나오면 부족하게 되고 부족하게 되면 허리와 등이 아프고 다리가 시큰거린다." 또 말하였다. "수(髓)는 뼈를 채우고, 뇌(腦)는 수(髓)가 모인 바다와 같아 수해(髓海)가 된다. 수해(髓海)가 부족하면 머리가 어지럽고 이명(耳鳴)이 생기며 다리가 시큰하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

五臟皆有精 [難經曰, 心盛精汁三合, 脾有散膏半斤, 膽盛精汁三合。 ○內經曰, 腎者主水, 受五臟六府之精而藏之。註云, 腎爲都會關司之所, 非腎一臟獨有之精也。 ○五臟各有精, 并無停泊于其所。盖人未交感, 精涵于血中, 未

有形狀，交感之後，慾火動極，而周身流行之血至命門，而變爲精以泄焉。故以人所泄之精貯于器，拌少鹽酒露一宿，則復爲血矣。（眞詮）]

오장(五臟)에는 모두 정(精)이 있음 [《난경(難經)》에서 말하였다. "심(心)은 정즙(精汁) 3홉이 담겨 있고, 비(脾)에는 산고(散膏) 반 근이 있으며, 담(膽)에는 정즙(精汁) 3홉이 담겨 있다." ○《내경(內經)》에서 말하였다. "신(腎)은 수(水)를 주관하고 오장(五臟)과 육부(六腑)의 정(精)을 받아 저장한다." 주석에서 말하였다. "신(腎)은 창고 관리소로서 신(腎) 한 장기만 정(精)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장(五臟)은 각각 정(精)을 가지고 있으나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대개 사람이 성관계를 하기 전에는 정(精)이 혈(血) 속에 녹아 형체가 없다. 그러나 성관계를 한 뒤에는 욕정이 불처럼 활활 타올라서 온 몸을 흐르던 혈(血)이 명문(命門)에 이르러 정(精)으로 변하여 배출된다. 그러므로 사람 몸에서 나온 정액을 그릇에 담아 약간의 소금과 술을 넣고 섞은 뒤 하룻밤 두면 다시 혈(血)로 변한다. (《진전(眞詮)》)]

如人病夢遺者，人以爲心氣之虛，不知非心也。蓋腎水耗竭，上不能通於心，中不能潤於肝，下不能生於脾土，以致玉關不閉，無夢且遺，徒責夢中之冤業，誰任其咎。法當大劑補腎，而少佐以益肝脾心之品，自然漸漸成功，不止而止也。方用安夢止遺丹。[熟地黃一兩，生棗仁、薏苡仁各五錢，山茱萸四錢，白茯苓、當歸、白芍各三錢，白茯神二錢，五味子、白芥子各一錢，肉桂、黃連各三分。水煎服。一劑即止夢遺，十劑全愈。（偏治）]

사람이 몽유(夢遺)를 앓을 때 사람들은 심기(心氣)가 허하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심(心) 때문이 아닌 경우는 알지 못한다. 신수(腎水)가 고갈되면, 위로는 심(心)과 소통할 수 없고 가운데로는 간(肝)을 적셔주지 못하며 아래로는 토(土)에 해당하는 비(脾)를 살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옥관(玉關)<sup>1</sup>이 닫히지 못하여 꿈과 상관 없이 정액이 흘러나오는데, 꿈 속의 악업을 책망하고만 있으니 누가 그 잘못을 책임져야 하겠는가. 마땅히 성질이 강한 약재로 신(腎)을 보하면서 간(肝)·비(脾)·심(心)을 이롭게 하는 약재로 살짝 보좌하면 절로 점차 효과가 나타나 정액을 멈추지 않아도 그치게 된다. 처방으로 안몽지유단(安夢止遺丹)을 쓴다. [ 숙지황(熟地黃) 1냥, 산조인(山棗仁) ( 날것 ) · 의이인(薏苡仁) 각 5돈, 산수유(山茱萸) 4돈, 백복령(白茯苓) · 당귀(當歸) · 백작약(白芍藥) 각 3돈, 백복신(白茯神) 2돈, 오미자(五味子) · 백개자(白芥子) 각 1돈, 육계(肉桂) · 황련(黃連) 각 3푼.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1제(劑) 복용하면 곧 몽유(夢遺)가 멈추고, 10제(劑) 복용하면 완치된다. (<편치(偏治)>) ]

治腎方者，精滑夢遺，與見色倒戈，關門不守，腎無開闔之權矣。誰知皆心君之虛，而相火奪權，以致如此。方用 [ 熟地半斤，鹿茸、紫河車各一部，山藥、山茱、白朮各四兩，茯苓、人蔘、巴戟天、麥門冬、肉蓯蓉各三兩，肉桂、遠志、五味子、炒棗仁、柏子仁、杜冲、破古紙各一兩，附子一箇，砂仁五錢，各爲末，蜜丸梧子大。 ] 蓋此方用 [ 熟地、杜冲、山藥、山茱 ] 之類，補腎也。

[ 巴戟、附子、蓯蓉、鹿茸 ]，補腎中之火也。可以已矣，血<sup>2</sup>必加 [ 人蔘、麥冬、柏子仁、茯苓、遠志、山棗仁 ] 之類者，是也。[ 本治 ]

신(腎)을 치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정액이 이유 없이 흘러 나오거나, 몽정을 하거나, 이성을 보면 의지가 꺾이는 증상은 관문이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로, 신(腎)이 열고 닫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모두 심군(心君)이 허한 틈에 상화(相火)가 권력을 빼앗아 이렇게 되었음을 누가 알 것인가. 다음과 같은 처방을 사용한다. [ 숙지황(熟地黃) 반 근, 녹용(鹿茸)·자하거(紫河車) 각 1개, 산약(山藥)·산수유(山茱萸)·백출(白朮) 각 4냥, 복령(茯苓)·인삼(人蔘)·파극천(巴戟天)·맥문동(麥門冬)·육종용(肉蓯蓉) 각 3냥, 육계(肉桂)·원지(遠志)·오미자(五味子)·산조인(山棗仁) ( 볶은 것 )·백자인(柏子仁)·두충(杜仲)·파고지(破故紙) 각 1냥, 부자(附子) 1개(箇), 사인(砂仁) 5돈. 이 약재를 각기 가루내어 꿀로 오동자(梧桐子) 크기만 하게 환(丸)을 빚는다. ] 이 처방에서 사용한 [ 숙지황·두충·산약·산수유는 ] 신(腎)을 보한다. [ 파극천·부자·육종용·녹용은 ] 신(腎) 속의 화(火)를 보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더해야 할 약재가 [ 인삼·맥문동·백자인·복령·원지·산조인 ] 이다. [ <본치(本治)> ]

見色倒戈，方用 [ 熟地黃、白朮各八兩，黃芪、巴戟、肉蓯蓉、麥門冬、覆盆子各五兩，人蔘、山茱萸各三兩，肉桂二兩，五味子一兩。各爲末，蜜丸。每日半飢，酒送下一兩。 ] 一月後，房事即改觀。但不可傳與匪人耳。[ 本治 ]

이성을 보면 의지가 꺾일 때 다음 처방을 사용한다. [ 숙지황(熟地黃)·백출(白朮) 각 8냥, 황기(黃芪)·파극(巴戟)·육종용(肉蓯蓉)·맥문동(麥門冬)·복분자(覆盆子) 각 5냥, 인삼(人蔘)·산수유(山茱萸) 각 3냥, 육계(肉桂) 2냥, 오미자(五味子) 1냥. 이 약재를 각기 가루 내어 꿀로 환(丸)을 빚는다. 매일 반



썸 소화되었을 때 술로 1냥을 삼킨다. ] 1개월이 지나면 성관계를 할 때 변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적합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 처방을 전해서는 안된다.

[ 〈본치(本治)〉 ]

遺精下病也，健忘上病也，何以分治之，而咸當乎。方用遺忘雙治湯。[ 熟地黃五兩，山藥四兩，人蔘、芡實、麥門冬、生棗仁、當歸、山茱萸各三兩，五味子、遠志、石菖蒲各一兩，柏子仁去油五錢，蓮鬚二兩。各爲末，蜜丸。每日早晚，白滾水送下各五錢。半料而兩症俱痊。( 分治 ) ]

유정(遺精)은 아랫 부분의 병이고 건망(健忘)은 윗 부분의 병이니 어찌 나누어 치료하고도 모두 합당할 수 있겠는가. 처방으로 유망쌍치탕(遺忘雙治湯)을 쓴다. [ 숙지황(熟地黃) 5냥, 산약(山藥) 4냥, 인삼(人蔘)、검실(芡實)、맥문동(麥門冬)、산조인(山棗仁) ( 날것 )、당귀(當歸)、산수유(山茱萸) 각 3냥, 오미자(五味子)、원지(遠志)、석창포(石菖蒲) 각 1냥, 백자인(柏子仁) ( 기름을 뺀다 ) 5돈, 연수(蓮鬚) 2냥. 이 약재를 각기 가루내어 꿀로 환(丸)을 빚는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백곤수(白滾水)로 5돈 씩 삼킨다. 만든 약을 절반 정도 복용하면 두 증상이 모두 나을 것이다. ( 〈분치(分治)〉 ) ]

夢遺之症，久則玉關不閉，精盡而亡矣。世人往往用澁精之藥，所以不救，倘於未曾太甚之時，大用補精補氣之藥，何至於此哉。我有奇方傳世，名保精湯。

[ 芡實、山藥各一兩，蓮子五錢，炒棗仁三錢，白茯神二錢，人蔘一錢。水煎服之。 ] 先將湯飲之，後加白糖五錢，拌勻連渣同服。每日如此，不須十日即止夢不遺矣。[ 內傷 ]

몽유(夢遺)의 증상이 오래되면 옥관(玉關)이 닫히고 정액이 다하여 고갈된다. 세상 사람들은 정(精)을 잘 나가지 않게 하는 약재를 종종 사용하지만 치료되지 않는 이유는 시기를 놓쳐 너무 심해진 때에 사용하기 때문이니 정(精)과 기(氣)를 보하는 약을 많이 사용했다면 어찌 이 지경이 되었겠는가. 나에게 신기한 처방이 있어 세상에 전하니 이름은 보정탕(保精湯)이다. [ 검실(芡實) · 산약(山藥) 각 1냥(兩), 연자(蓮子) 5돈, 산조인(山棗仁) ( 볶은 것 ) 3돈, 백복신(白茯神) 2돈, 인삼(人蔘) 1돈.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 처음에는 보정탕만 복용하고, 나중에는 백당(白糖) 5돈을 넣고 잘 섞어 찌꺼기까지 함께 복용한다. 매일 이렇게 하면 10일이 못되어 몽유가 멎는다. [ <내상(內傷)> ]

乃虛極下脫，關門不閉而閉之也。如人交感樂極，男女脫精而死者，或夢遺精滑不守者，是也。男女走精而亡，[ 名曰走陽 ]，亦因氣虛不能自禁。一時男貪女愛，盡情恣慾，以致虛火沸騰，下元盡失，先泄者陰精，後泄者純乎血，血盡繼之以氣而已。當此之時，切不可離爐，仍然抱住，男脫則女以口哺送其熱氣，女脫則男以哺送其熱氣，一連數口呵之，則必悠悠忽忽，陽氣重回，陰精不盡全流出。倘一出玉爐，則彼此不相交接，必立時身死。然苟能以獨蔘湯數兩，急煎之內，加附子一錢，乘熱灌之，亦有已死重生者。蓋脫症而一時暴亡，陽氣未絕，止陰精脫絕耳。故急補其眞陽，則陽能生陰，可以回絕，續於無何有之鄉。方中 [ 人蔘 ] 純是補氣之劑，[ 附子 ] 乃追亡逐失之妙藥，相濟易於成功。倘無蔘而徒用附子，則陽旺而陰愈消，故必用人蔘爲君。既用蔘矣，而珍惜不肯多加，終亦無效。蓋陰精盡泄，一身之中，已爲空谷者，若不多加人蔘，何以生津，以長其再造之陰哉。故必多加蔘而收功耳。[ 閉治 ]

폐치(閉治)<sup>3</sup>는, 매우 지쳤는데 정(精)이 빠져나가서 관문이 닫히지 않을 때 이것을 닫는 방법이다. 성관계로 절정에 이르러 남자나 여자가 정(精)이 모두 탈진되어 죽는 경우, 또는 몽유(夢遺)가 있거나 정액이 뜻하지 않게 흘러나오는 경우가 그러하다. 남녀가 정을 통하다가 죽는 것도 [ 주양(走陽)이라고 한다. ] 기(氣)가 허하여 멈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때 남녀가 서로를 탐닉하여 애정을 다해 내키는 대로 욕정을 일으키면, 허화(虛火)가 끓어 오르고 하원(下元)이 모두 고갈된다. 그러면 처음에는 음정(陰精)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순수한 혈(血)만 나오게 된다. 혈(血)이 모두 다하면 이를 잇는 것은 기(氣) 뿐이다. 이러한 때에는 절대 남녀의 교접을 풀어서는 안되고 계속 끌어안고 있게 한다. 남자의 정(精)이 탈진되었을 때는 여자가 입으로 자신의 뜨거운 숨결을 보내 주고, 여자의 정이 탈진되었을 때는 남자가 자신의 뜨거운 숨결을 보내준다. 연이어 수차례 입으로 숨을 불어넣어 주면 반드시 어렴풋이 정신을 차리게 되고 양기(陽氣)가 다시 돌아와 음정(陰精)이 모두 다 흘러나가지는 않게 된다. 만약 일단 교접을 풀게 되면 남녀가 서로 교접할 수 없게 되어 반드시 즉시 몸이 죽게 된다. 그러나 만약 독삼탕(獨蔘湯) 몇 냥(兩)에 부자(附子) 1돈을 더하여 급히 달여 뜨거울 때 목구멍으로 넘겨주면 이미 죽어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대개 탈증(脫症)일 때 갑자기 죽는 것은 양기(陽氣)는 아직 끊어지지 않았지만 음정(陰精)만 탈진하여 끊어졌을 뿐이다. 그러므로 급히 환자의 진양(眞陽)을 보하면 양(陽)은 음(陰)을 살릴 수 있으므로 끊어진 것을 되돌려 생명력을 이어준다. 처방 가운데 인삼(人蔘)은 순전히 기(氣)를 보하는 약재이고, 부자(附子)는 죽음을 내쫓는 오묘한 약이다. 이 둘이 서로 도와 쉽게 효과를 낸다. 만약 인삼 없이 부자(附子)만 사용하면 양(陽)이 왕성하고 음(陰)은 더욱

쇠락하므로 반드시 인삼을 군약(君藥)으로 삼아야 한다. 처음부터 인삼을 썼어도 아까워 많이 넣지 않으면 결국 효과가 없다. 대개 음정(陰精)이 모두 빠져나가 온몸 속이 이미 비었을 때 만약 인삼을 많이 더하여 쓰지 않는다면 어찌 진액(津液)을 만들어 다시 회복할 음(陰)을 기를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반드시 인삼을 많이 더해 써야만 효과가 있다. [〈폐치(閉治)〉]

似是而非，此喻嘉言之臆說耳。蓋陰精盡出，用補陰之味，內無根源，何從補人。故必補陽以生陰，而不可補陰以引陽也。論理陰精脫盡，宜用滋精之藥，以閉之，殊不知內已無陰，何從閉滋，獨用人蔘補氣，氣足而陰自生，陰生而關自閉，此不閉之閉，正妙於閉也。[閉治] ○至於夢遺脫精，又不可執此法而治之。夢遺之病，多成於讀書飄蕩之子，或見色而思，或已洩而戰，或用心作文，以取快於一時，或夜臥不安而漁色，遂至風情太勝，心氣不寧，操守全無，玉關不閉。往往少年坐困，老大徒傷，爲可歎也。今立一方[熟地黃、山藥、白朮各八兩，山茱萸、炒棗仁各四兩，五味子、麥門冬、車前子、白茯苓各三兩，遠志一兩，芡實半斤。各爲末，蜜丸。每日白滾湯送下一兩。]一料全愈不再發。

[閉治]

음(陰)에 속하는 약재로 양(陽)을 끌어낸다는 말은<sup>4</sup> 옳은 것 같지만 틀리다. 이 말은 유가언(喻嘉言)의 억측일 뿐이다. 음정(陰精)이 모두 빠져나갔을 때 음(陰)을 보하는 약재를 사용해도 몸속에 근원이 없으니 어떻게 환자를 보하겠는가. 그러므로 반드시 양(陽)을 보하여 음(陰)이 생겨나도록 해야 하며 음(陰)을 보하여 양(陽)을 끌어내려 해서는 안된다. 음정(陰精)이 탈진했을 때 정(精)을 붙잡는 약을 사용하여 막아버려야 한다는 주장도, 몸속에 이미 음(陰)이 없

어 붙잡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말이다. 오직 인삼(人蔘)으로 기(氣)를 보해야 하니, 기(氣)가 충족되면 음(陰)이 절로 생겨나고, 음(陰)이 생겨난 뒤에 열린 곳이 절로 닫히게 된다. 이것이 닫지 않고 닫는 방법이니 실로 오묘한 달음이다. [〈폐치(閉治)〉] ○몽유(夢遺)로 정(精)이 탈진되었을 때에는 이 방법에 얽매어서 치료해서는 안된다. 몽유(夢遺)라는 병은, 책만 읽고 감정이 들뜬 남자에게 주로 생긴다. 이성을 보고 그리워하게 되었거나, 이미 사정하고 나서 다시 흥분하였거나, 감정을 실어 글을 짓다 한 순간 즐거움에 취했거나, 밤에 편안히 자지 못하고서 여색을 탐했거나 하여, 마침내 욕정이 너무 심해 심기(心氣)가 안정되지 못하고 이를 전혀 절제하지 못하여 옥관(玉關)이 닫히지 않는 병이다. 종종 젊은이는 건강을 잃고 늙은이는 헛되이 몸을 상하니 탄식할만한 일이다. 여기 처방 하나를 남긴다. [ 숙지황(熟地黃)·산약(山藥)·백출(白朮) 각 8냥, 산수유(山茱萸)·산조인(山棗仁) ( 볶은 것 ) 각 4냥, 오미자(五味子)·맥문동(麥門冬)·차전자(車前子)·백복령(白茯苓) 각 3냥, 원지(遠志) 1냥, 검실(芡實) 반 근. 이 약재를 각기 가루내어 꿀로 환(丸)을 빚는다. 매일 백곤탕(白滾湯)으로 1냥 복용한다. ] 약을 다 쓰면 모두 나아 재발하지 않는다. [〈폐치(閉治)〉]

男女脫精，以口送氣固佳。然而不知其法，以冷氣送之，亦是徒。然必須閉口，先提關元之氣，盡力嘔於口中，而後送下喉，可救於垂絕之頃，否則適所以害之也。但不可遽然離爐，即欲離爐，亦須緩緩取出，不可見其死去，驚走下床也。慎勿離爐，抱住其身，尚不至死。此等症富貴人多，而貧賤人小，富貴人，自宜獨蔘三兩，或四兩或半斤或一斤，愈妙，煎湯灌之，可以重甦。若貧窮之士，荊布之婦，亦得此病，急用 [ 黃芪四兩，當歸二兩，附子二錢。水五碗煎一碗，急

灌之，亦有生者。】又有不可不知，即死在床褥之內，亦可以藥灌之而生。大約夜死者，晝救之則生，晝死者，夜救則亡。夢遺之症，予尙有一方，至妙可佐天師之不言。有人夢遺日日遺者，有不須夢而遺者，俱效。方用 [山藥、生棗仁各十兩，芡實八兩，蓮子心五錢，將蓮子劈開，肉不用單用綠芽，焙乾爲末。前藥俱爲末。米湯打糊爲丸如梧子大。每日早晚，白滾水送下五錢。(閉治)]

남녀가 탈정(脫精)했을 때 입으로 숨을 불어넣으면 매우 좋다. 그러나 그 방법을 알지 못하고 냉기(冷氣)를 불어넣으면 역시 헛수고가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입을 닫고 먼저 관원(關元)의 기(氣)를 끌어 올려 온힘을 다해 환자 입속에 불어넣은 뒤에 목구멍으로 넘어가도록 해야 죽음에서 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것이다. 그러나 갑자기 교접을 풀어서는 안되며, 교접을 풀고자 하여도 반드시 천천히 풀어야 한다. 상대가 죽은 것을 보고 놀라 침대에서 뛰어나와서는 안된다. 삼가 교접을 풀지 말고 상대의 몸을 끌어안고 있어야 오히려 죽지 않는다. 이러한 증상은 부귀한 사람에게 많고 빈천한 사람에게 적다. 부귀한 사람은 독삼(獨蔘) 3냥을 써야 하는데, 4냥이나 반 근이나 1근을 쓰면 더욱 좋다. 탕(湯)으로 달여 환자에게 먹으면 목숨을 살릴 수 있다. 만약 가난한 선비나 부인이 이 병에 걸렸다면 급히 [황기(黃芪) 4냥, 당귀(當歸) 2냥, 부자(附子) 2돈을 물 5주발로 1주발이 되도록 달여 급히 복용시키면 또한 살아날 것이다.] 또한 몰라서는 안되는 것이 있으니, 침대 이불 속에서 죽었을 때도 약을 먹여주면 살아날 수 있다. 대개 밤에 죽은 자를 낮에 구하면 살고, 낮에 죽은 자를 밤에 구하면 살리지 못한다. 몽유(夢遺) 증상에 쓰는 처방이 나에게도 있는데 매우 효과가 좋아 천사(天師)께서 하지 않으신 말씀을 보충할 만 하다. 환자가 날마다 몽정을 하는 경우와, 꼭 꿈을 꾸지 않더라도 정액이 나

오는 경우에 모두 효과가 있다. 처방은 다음과 같다. [ 산약(山藥)·산조인(山棗仁) ( 날것 ) 각 10냥, 검실(芡實) 8냥, 연자심(蓮子心) 5돈. 연자(蓮子)를 쪼개어 살은 쓰지 않고 푸른 싹만을 불에 쪄어 말린 뒤 가루 내고 나머지 약도 모두 가루낸 다음 쌀을 끓여 쓴 풀로 오동자(梧桐子) 크기만 하게 환(丸)을 빚는다. 매일 아침저녁에 백곤수(白滾水)로 5돈 씩 복용한다. (〈폐치(閉治)〉) ]

我亦有夢遺方最妙. 方用 [ 白朮、山藥各八兩, 生棗仁、麥門冬、芡實各四兩, 人蔘二兩, 遠志、五味子、車前子各一兩。各爲末, 蜜丸。每日白滾水送下五錢, 自愈。 ] 此亦補心腎之法也。 [ 閉治 ]

내게 또 효과가 가장 좋은 몽유(夢遺) 처방이 있다. 처방은 다음과 같다. [ 백출(白朮)·산약(山藥) 각 8냥, 산조인(山棗仁) ( 날것 )·맥문동(麥門冬)·검실(芡實) 각 4냥, 인삼(人蔘) 2냥, 원지(遠志)·오미자(五味子)·차전자(車前子) 각 1냥. 이 약재를 각기 가루내어 꿀로 환(丸)을 빚는다. 매일 백곤수(白滾水)로 5돈 씩 복용하면 절로 낫는다. ] 이 역시 심(心)과 신(腎)을 보하는 방법이다. [ 〈폐치(閉治)〉 ]

遇交感脫精, 急以人蔘三兩煎湯灌之, 固是奇妙方法。然貧家何以救之。我有法, 用人抱起坐之, 以人之口氣哈其口, 又恐不能入喉, 以筆管通其兩頭, 入病人喉內, 使女子呵之, 不必其妻妾也, 凡婦人皆可, 盡力呵之, 雖死去者, 亦能生妙法也。吾今日, 泄天地之奇妙也。 [ 閉治 ]   ○陰陽脫 [ 方見救急 ]

성관계로 탈정(脫精)하게 되었을 때는 급히 인삼(人蔘) 3냥을 달여 입에 넣어 주는 것이 참으로 탁월한 방법이다. 그러나 가난한 집이라면 어떻게 살릴 수 있겠는가. 나에게 방법이 있으니, 환자를 부축해 앉히고 다른 사람의 입김을

환자의 입에 붙어 넣어 준다. 입김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을 염려가 있으니, 붓대롱의 양쪽 끝을 서로 통하게 하여 환자 목구멍 속에 넣고 여인이 숨을 붙어 넣는다. 꼭 아내일 필요는 없고 부인(婦人)이면 모두 가능하다. 온 힘을 다해 불도록 한다.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내 이제 천하의 신묘한 방법을 공개하노라. [〈폐치(閉治)〉] ◦음양탈(陰陽脫) [처방은 〈구급(救急)〉에 나온다.]

[人有小便之時，忽昏眩而倒者，亦陰陽之氣脫也。此症多得之入內過於縱慾。夫縱慾宜即亡於男女之身，乃泄精甚<sup>5</sup>，樂極情濃使然也。離男女而亡者，乃泄精未暢，平日腎氣銷亡，腎火衰弱，既泄其精，更加虛極，故氣隨小便而俱絕，二症雖異而實同，救法亦不必大異，惟死於男女之身，桂附可不必重，而脫於小便之頃，桂附斷須多用，至人蔘則二症，皆當用至二三兩。予有一方，名逢生丹。人蔘三兩，生棗仁一兩，附子二錢，石菖蒲、半夏各一錢。水煎服。(內傷)]

[사람이 소변을 볼 때 갑자기 현기증이 나면서 쓰러지는 것도 음(陰)과 양(陽)의 기(氣)가 탈진했기 때문이다. 이 증상은 대개 절제 없이 지나치게 성관계를 하여 생긴다. 성욕을 절제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다 쓰러진 경우는, 정(精)을 매우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즐거움이 지나치고 감정이 농밀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 성관계가 끝나고 소변을 보다 쓰러진 경우는, 정(精)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소 신기(腎氣)가 녹아내려 신화(腎火)가 쇠약해진다. 이미 정(精)이 배출된 상태에서 한층 더 지쳐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기(氣)가 소변을 따라 나가 음(陰)과 양(陽)이 모두 끊어지게 된다. 이 2가지 증



상은 비록 다르지만 본질은 같으므로 치료법도 크게 다를 이유가 없다. 다만 성관계를 하다 쓰러진 경우는 육계(肉桂)와 부자(附子)를 많이 쓸 필요가 없다. 그러나 소변을 보다 쓰러진 경우에는 육계와 부자를 반드시 많이 써야 한다. 인삼(人蔘)의 경우에는 2가지 증상에 모두 2~3냥 사용해야 한다. 나에게 달생단(逢生丹)이라고 이름 붙인 처방이 있다. 인삼(人蔘) 3냥, 산조인(山棗仁) ( 날것 ) 1냥, 부자(附子) 2돈, 석창포(石菖蒲)·반하(半夏) 각 1돈. 이상을 물에 달여 복용한다. (〈내상(內傷)〉) ]

走陽病 [ 更有久曠之人，與女交合，泄而不止，謂之走陽。其女抱之，勿使陰莖出陰戶，急呵熱氣於口中，以指捻住尾閭穴即救矣。若女人驚而脫去者，十有九死。亟令童女以口對口補氣接氣，再灌以大劑獨蔘湯，亦有腹上死者可活也。

○亦有夢色腹上死者，雖死喜色滿面，以此知之。( 錦囊 ) ]

주양병(走陽病) [ 또한 오랫동안 성관계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여인과 성관계를 하고 정액이 멈추지 않는 것을 "주양병"이라고 한다. 그 여인을 부축하여 음호에서 음경을 빼지 않도록 하고 급히 뜨거운 숨을 남자의 입 속에 불어넣고 손가락으로 미려혈(尾閭穴)을 꼬집으면 곧 구할 수 있다. 만약 여인(女人)이 놀라 음경을 빼면 9할은 죽게 된다. 이때는 빨리 처녀를 데려와 처녀의 입을 환자에 입에 대고 숨을 불어 넣어 기(氣)를 불어주고, 많은 양의 독삼탕(獨蔘湯)을 입에 흘려넣어 준다. 성관계 도중 죽은 경우도 이 방법으로 살릴 수 있다.

○또 꿈 속에서 성관계를 하다 죽은 경우도 있으니, 비록 죽었더라도 희색이 얼굴에 가득한 것으로 이를 알 수 있다. (《금낭(錦囊)》) ]

1. 옥관(玉關) : 정액이 나오는 통로 ←

2. 血 而 ※《석실비록》←

3. 《석실비록》을 참고하여 번역을 보충하였다. ←

4. 《석실비록》을 참고하여 번역을 보충하였다. ←

5. 甚怯 甚酣 ※《석실비록》←



## 氣 기

氣爲精神之根蒂 [ 東垣曰, 氣者神之祖, 精乃氣之子, 氣者精神之根蒂也。 ○

茅眞君曰, 氣是添年藥, 心爲使氣神, 若知行氣主, 便是得仙人云。( 養性 ) ]

기(氣)는 정(精)과 신(神)의 토대 [ 동원(東垣)이 말하였다. "기(氣)는 신(神)의 조상이고 정(精)은 기(氣)의 자손이니 기(氣)는 정(精)과 신(神)의 토대이다." ○모진군(茅眞君)이 말하였다. "기(氣)는 삶을 유지시켜주는 약이고 심(心)은 기(氣)와 신(神)을 부리니, 기(氣)를 움직이는 주체를 안다면 그것이 바로 선인(仙人)의 경지이다." (《양성(養性)》) ]

肺主氣 [ 內經曰, 肺主氣。又曰, 諸氣皆屬於肺。註曰, 肺有六葉兩耳, 葉中有二十四孔行列, 分布陰陽清濁之氣。 ○又曰, 肺藏氣, 氣有餘則喘、咳、上氣, 氣不足則息利<sup>1</sup>少氣也 ]

폐(肺)는 기(氣)를 주관함 [ 《내경(內經)》에서 말하였다. "폐(肺)는 기(氣)를 주관한다." 또 말하였다. "모든 기(氣)는 폐(肺)에 속한다." 주석에서 말하였다. "폐(肺)에는 6개의 잎과 2개의 귀가 있다. 잎 속에는 24개의 구멍이 줄지어 있고 음양(陰陽)과 청탁(淸濁)의 기(氣)가 퍼져 있다. ○또 말하였다. "폐(肺)는 기(氣)를 저장한다. 저장된 기(氣)가 지나치면 숨을 헐떡이거나 기침을 하거나 숨이 차오른다. 기(氣)가 부족하면 숨이 미세하고 얇다." ]

七氣 [ 七氣者，喜、怒、悲、思、憂、驚、恐。 ○直指曰，人有七情，病生七氣。氣結則生痰，痰盛則氣愈結，故調氣必先豁痰。如七氣湯以半夏主治，而官桂佐之，蓋良法也。 ○又曰，七氣相干，痰涎疑結，如絮如膜，甚如梅核，窒碍於咽喉之間，咯不出嚥不下，或中滿艱食，或上氣喘急，曰氣隔，曰氣滯，曰氣秘，曰氣中。以至五積、六聚、疝癖、癥瘕，心痛氣痛塊痛<sup>2</sup>，發則欲絕，殆無往而不至矣。宜服七氣湯、四七湯。(方見下) ]

칠기(七氣) [ 칠기(七氣)는 기쁨(喜)、성냄(怒)、슬픔(悲)、고민(思)、근심(憂)、놀람(驚)、두려움(恐)이다. ○《직지(直指)》에서 말하였다. "사람에게 칠정(七情)이 있으니 병이 되면 칠기(七氣)가 된다. 기(氣)가 맏히면 담(痰)이 생기고, 담(痰)이 차오르면 기(氣)가 더욱 맏힌다. 그러므로 반드시 먼저 기(氣)를 다스린 뒤에 담(痰)을 삭인다. 칠기탕(七氣湯)의 경우 반하(半夏)를 위주로 치료하면서 관계(官桂)로 이를 보좌하였으니 좋은 방법인 듯하다." ○또 말하였다. "칠기(七氣)가 서로 얹혀 담연(痰涎)이 맏히는데 숨이나 막갈고 심하면 매실 씨 같다. 이것이 목구멍 속을 막아 뱉으려 해도 나오지 않고 삼키려 해도 내려가지 않는다. 더러 속이 그득하여 음식을 잘 먹지 못하거나, 숨이 차올라 숨을 헐떡이기도 한다. 이것을 기격(氣隔)、기체(氣滯)、기비(氣秘)、기중(氣中)이라고 한다. 오적(五積)、육취(六聚)、산벽(疝癖)、징가(癥瘕)가 되었을 때는 가슴이나 배 속에 덩어리가 생겨 아픈데, 통증이 발작하면 죽을 것 같고 거의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 칠기탕(七氣湯)、사칠탕(四七湯)을 복용해야 한다. (처방은 아래에 나온다.) ]

九氣 [ 黃帝問曰, 余知百病生於氣也。怒則氣上, 喜則氣緩, 悲則氣消, 恐則氣下, 寒則氣收, 暑則氣泄, 驚則氣亂, 勞則氣耗, 思則氣結。九氣不同, 何病之生。岐伯對曰, 怒則氣逆, 甚則嘔血及飧泄, 故氣上矣。喜則氣和志達, 榮衛通利, 故氣緩矣。悲則心系急, 肺布葉舉, 而上焦不通, 榮衛不散, 熱氣在中, 故氣消矣。恐則精却, 却則上焦閉, 閉則氣還, 還則下焦脹, 故氣不行矣。寒則腠理閉, 氣不行, 故氣收。暑則腠理開, 榮衛通, 汗大泄, 故氣泄矣。驚則心無所依, 神無所歸, 慮無所定, 故氣亂矣。勞則喘息汗出, 內外皆越, 故氣耗矣。思則心有所存, 神有所歸, 正氣留而不行, 故氣結矣。 ( 內經 ) 又有九氣曰, 隔氣、風氣、寒氣、熱氣、憂氣、喜氣、驚氣、怒氣、山嵐瘴氣。積聚如盃, 心腹刺痛, 發則欲死, 宜神仙九氣湯、正氣天香湯。 ( 方見下 ) ]

구기(九氣) [ 황제(黃帝)가 물었다. "내가 알기로 모든 병은 기(氣)에서 생겨납니다. 성내면(怒) 기(氣)가 솟구치고, 기쁘면(喜) 기(氣)가 느슨해지며, 슬프면(悲) 기(氣)가 사라지고, 두려우면(恐) 기(氣)가 가라앉고, 추우면(寒) 기(氣)가 움츠러들며, 더우면 기(氣)가 새나가고, 놀라면(驚) 기(氣)가 날뛰며, 애쓰면(勞) 기(氣)가 소모되고, 고민하면(思) 기(氣)가 맏힙니다. 구기(九氣)가 모두 다르니 어떤 병이 생겨납니까." 기백(岐伯)이 대답하였다. "성내면(怒) 기(氣)가 거슬러 올라 심하면 피를 토하거나 먹은 음식을 그대로 설사합니다. 그러므로 기(氣)가 솟구칩니다. 기쁘면(喜) 기(氣)가 조화롭고 뜻대로 되어 영위(榮衛)가 잘 통하므로 기(氣)가 느슨해집니다. 슬프면(悲) 심계(心系)가 긴장되고 폐포엽(肺布葉)이 들려서 상초(上焦)가 소통되지 않고 영위(榮衛)가 흩어지지 않아서 열기(熱氣)가 속에 머무르므로 기(氣)가 사라집니다. 두려우면(恐) 정(精)이 움츠러드는데 움츠러들면 상초(上焦)가 막히고, 막

하면 기(氣)가 되돌아오고, 되돌아오면 하초(下焦)가 창만해지므로 기(氣)가 흐르지 못합니다. 추우면 주리(腠理)가 닫혀 기(氣)가 흐르지 못하므로 기(氣)가 움츠러듭니다. 더우면 주리(腠理)가 열려 영위(榮衛)가 통하여 땀이 많이 나므로 기(氣)가 새나갑니다. 놀라면(驚) 마음이 붙어있지 못하고 정신이 돌아오지 못하며 생각이 안정되지 못하므로 기(氣)가 날뛵니다. 애쓰면(勞) 숨이 차고 땀이 나서 안팎으로 모두 한계를 넘게 되므로 기(氣)가 소모됩니다. 고민하면(思) 마음이 붙어있고 정신이 돌아와서 정기(正氣)가 머물러 흐르지 움직이지 않으므로 기(氣)가 맏힙니다." (《내경(內經)》) 또 구기(九氣)가 있으니, 격기(隔氣)、풍기(風氣)、한기(寒氣)、열기(熱氣)、우기(憂氣)、희기(喜氣)、경기(驚氣)、노기(怒氣)、산람장기(山嵐瘴氣)이다. 적취(積聚)가 사발을 엮어놓은 것과 같이 생겨 가슴이나 배가 찌르는 듯이 아프며 발작하면 죽을 것 같을 때는 구기탕(九氣湯)、정기천향탕(正氣天香湯)을 써야 한다. (처방은 아래 나온다.) ]

凡有人病氣虛者，乃身子羸弱，飲食不進，或大便溏泄，小便艱澀。方用 [ 人蔘一兩，白朮、五錢，茯苓三錢，陳皮、澤瀉、車前子、甘草各一錢。水煎服。 ] 此乃病欲下行，而隨其性而下補也。 [ 順治 ]

기(氣)가 허한 사람은 몸이 수척해지고 음식을 먹지 못하며 더러 대변이 풀어지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 치료 처방은 다음과 같다. [ 인삼(人蔘) 1냥, 백출(白朮) 5돈, 복령(茯苓) 3돈, 진피(陳皮)、택사(澤瀉)、차전자(車前子)、감초(甘草) 각 1돈. 이상을 물에 달여 복용한다. ] 이것은, 병이 아래로 진행되려는 것을 병의 성질에 맞게 아래에서 보해주는 방법이다. [ 順治 ]

此方生胃土，以消水穀，雖<sup>3</sup>曰不然，然而不止生胃土也，且能健脾。脾健則胃氣益開而益壯。方中最妙用白朮也。白朮上利胃，而下健脾，且能去濕，以生腎。有此大功，則大小便得脾腎之氣，而能開能闔，下既通達，又何患飲食之不進乎。吾見其飽飧而無碍也。服前方而不愈者，兼服八味丸。〔順治〕

이 처방은 토(土)의 성질을 가진 위(胃)를 살려 음식을 소화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누가 그렇지 않다고 하겠는가. 그러나 토의 성질을 가진 위(胃)를 살릴 뿐만 아니라 비(脾)를 튼튼히 한다. 비(脾)가 튼튼해지면 위기(胃氣)가 더욱 열리고 더욱 굳세진다. 처방에서 가장 오묘한 점은 백출(白朮)의 사용이다. 백출(白朮)은 위로 위(胃)를 이롭게 하고 아래로 비(脾)를 튼튼히 하며 또 습(濕)을 제거하여 신(腎)을 살려준다. 이 방법이 매우 효과가 좋은 것은 대소변이 비(脾)와 신(腎)의 기(氣)를 얻어서, 나올 때 나오고 그칠 때 그치며 아래로 잘 통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음식(飲食)을 먹지 못하는 문제가 어떻게 있겠는가. 나는 배불리 먹어도 소화장애가 없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 처방을 복용해도 낫지 않을 때는 팔미환(八味丸)을 함께 복용한다.〔順治〕

虛症亦多，我舉一二，以槩其餘。虛治者，非氣虛即血虛也。如氣虛者，不能飲食，食之而不能化者，是也。血虛者，面色黃瘦，或出汗盜汗，或夜眠常醒，不能潤色以養筋者，是也。蓋飲食入胃，必須胃氣充足，始能化糟粕，而生津液，氣既自餒，何能化飲食。方用〔黃芪、伏苓、白朮各三錢，人蔘二錢，甘草炮、乾薑各一錢，陳皮、麥芽、神麴各五分，山查肉五粒。水煎服。〕氣虛方中，傷米食加〔麥芽五分〕，肉食加〔山查十粒〕，麵食加〔蘿菔五分〕，有痰加〔半

夏、白芥子各一錢] , 咳嗽加 [ 蘇子一錢, 桔梗二錢 ] , 傷風加 [ 蘇子二錢 ] ,  
夜臥不安加 [ 山棗仁二錢 ] , 胸中微痛加 [ 枳殼五分 ] , 血虛症用方加法亦同。

[ 虛治 ]

허증(虛證)도 다양하지만, 내 한두 가지를 거론하여 나머지를 아울러 보겠다.  
허증 치료는 기허(氣虛) 아니면 혈허(血虛)이다. 기허(氣虛)는 음식(飮食)을  
먹지 못하고 먹더라도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혈허(血虛)는 낮빛이 누렇  
고 수척하며 더러 자한(自汗)이나 도한(盜汗)을 흘리거나 불면증이 있으니, 혈  
(血)이 얼굴을 윤택하게 하고 근육을 기르지 못하는 것이다. 음식(飮食)이 위  
(胃)로 들어가면 반드시 위기(胃氣)가 충분해야 비로소 소화를 시키고 진액(津  
液)을 만든다. 기(氣)가 이미 부족한데 어떻게 음식을 소화시키겠는가. 기허를  
치료하는 처방은 다음과 같다. [ 황기(黃芪)、복령(茯苓)、백출(白朮) 각 3돈,  
인삼(人蔘) 2돈, 감초(甘草)、건강(乾薑) ( 잿불에 묻어 구운 것 ) 각 1돈, 진피  
(陳皮)、맥아(麥芽)、신국(神麴) 각 5푼, 산사육(山査肉) 5알. 이상을 물에 달  
여 복용한다. ] 기허(氣虛) 처방 중에, 곡식을 먹고 속을 버렸을 때는 [ 맥아  
(麥芽) 5푼을 더하고 ], 고기가 원인일 때는 [ 산사(山査) 10알을 더하며 ], 밀  
가루가 원인일 때는 [ 나복(蘿蔔) 5푼을 더하고 ], 담(痰)이 있을 때는 [ 반하  
(半夏)、백개자(白芥子) 각 1돈을 더하며 ], 해수(咳嗽)가 있을 때는 [ 소자  
(蘇子) 1돈, 길경(桔梗) 2돈을 더하고 ], 상풍(傷風)일 때는 [ 소자(蘇子) 2돈  
을 더하고 ], 잠을 잘 자지 못할 때는 [ 산조인(酸棗仁) 2돈을 더하며 ], 가슴  
속이 조금 아플 때는 [ 지각(枳殼) 5푼을 더하여 쓴다 ]. 혈허(血虛)에 쓰는 처  
방에도 가감법은 이와 같다. [ <허치(虛治)> ]



凡人飢飽勞役，內傷正氣，以致氣乃下行，脾胃不能剋化，飲食不能運動，往往變成勞瘵。若疑飲食不進，爲是脾胃之火，或疑肉黍所傷，謂是水穀之積，輕則 [ 山查、砂仁、麥芽、枳殼 ] 之類，重則 [ 大黃、巴豆、芒硝、黑丑 ] 之品，紛然雜進，必致膨脹不已。倘先以升提之藥治之，何成此等症哉。方用補中益氣湯 [ 黃芪、白朮、當歸各三錢，人蔘、柴胡、陳皮、甘草各一錢，升麻三分。煎服。 ] 余爲之增定其輕重，以爲萬世不刪之定則，東垣一生學問，全在此方。凡人右手寸脉，大於左手寸口之脉，無論其左右關脉，與左右尺脉之大與小沈與浮，即以此方投之 無不神效。蓋右寸之脉，大於左寸口，即內傷之症也。

[ 升治 ] ○如陰虛下陷，脾泄歲久不止，或食而不能化，或化而瀉泄，是也。方用 [ 白朮一兩，熟地黃、山茱萸各五錢，山藥、茯苓各三錢，五味子、車前子、肉桂各一錢，升麻三分。 ] 水煎服。 [ 升治 ]

사람이 배를 주리거나 배불리 먹거나 과로하거나 하여 안으로 정기(正氣)를 손상시켜서 기(氣)가 아래로 내려가면 비위(脾胃)가 소화시키지 못하고 음식(飲食)이 내려가지 못해 종종 변질되어 노채(勞瘵)가 된다. 또 음식(飲食)을 먹지 못하는 것을 의심하여 비위(脾胃)에 화(火)가 있다고 여기거나, 음식에 상한 것을 의심하여 수곡의 적(積)이 있다고 말하며, 가벼울 때는 [ 산사(山查) · 사인(砂仁) · 맥아(麥芽) · 지각(枳殼) ] 등을 쓰고, 심할 때는 [ 대황(大黃) · 파두(巴豆) · 망초(芒硝) · 흑축(黑丑) ] 등을 쓰니, 원칙 없이 치료하여 반드시 창만이 낫지 않게 된다. 만약 먼저 기운을 끌어 올리는 약으로 치료하면 어찌 이런 증상이 생겨나겠는가. 처방으로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을 쓴다.

[ 황기(黃芪) · 백출(白朮) · 당귀(當歸) 각 3돈, 인삼(人蔘) · 시호(柴胡) · 진피(陳皮) · 감초(甘草) 각 1돈, 승마(升麻) 3푼. 이상을 달여 복용한다. ] 내가

이런 경우를 위해 경증을 증보하고 확정하여 영원히 수정하지 못할 규칙을 만들었으니, 동원(東垣)<sup>4</sup>의 한 평생 학문이 모두 이 처방에 있도다. 무릇 환자의 오른손 촌맥(寸脈)이 왼손 촌구맥(寸口脈)보다 클 때는, 왼쪽과 오른쪽 관맥(關脈)과 왼쪽과 오른쪽 척맥(尺脈)의 대소(大小)나 부침(浮沈)과 상관 없이 이 처방을 투여하면 신기한 효과가 있다. 오른쪽 촌맥(寸脈)이 왼쪽 촌구맥(寸口脈)보다 큰 것은 내상(內傷)의 증상이다. [〈승치(升治)〉] 음(陰)이 허하여 아래로 무너진 경우는, 비설(脾泄)이 오래도록 멈추지 않거나, 음식을 먹어도 소화되지 않거나, 소화 되더라도 설사를 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처방을 사용한다. [ 백출(白朮) 1냥, 숙지황(熟地黃)·산수유(山茱萸) 각 5돈, 산약(山藥)·복령(茯苓) 각 3돈, 오미자(五味子)·차전자(車前子)·육계(肉桂) 각 1돈, 승마(升麻) 3푼. ] 이상을 물에 달여 복용한다. [〈승치(升治)〉]

肥人多痰乃氣虛也。虛則氣不能運行，故痰生，痰生則治痰，焉可僅治痰哉。必須補其氣，而後消其痰爲常耳。然而氣之補法，又不可純補脾胃之土，而當兼補其命門之火。蓋火能生土，而土自生氣，氣足而痰自消，不治痰正所以治痰也。方用 [ 熟地八兩，白朮、薏仁、芡實各五兩，山茱四兩，人蔘、杜沖、白芥子各三兩，白茯苓、肉桂各二兩，五味、益智仁、橘紅各一兩，砂仁五錢。右末蜜丸。每日白滾湯送下五錢。(肥治) ]

살찐 사람에게 담(痰)이 많은 것은 기(氣)가 허하기 때문이다. 허하면 기(氣)가 운행되지 못하므로 담(痰)이 생겨난다. 담(痰)이 생겨나면 담(痰)을 치료해야 하나 어찌 담(痰)만 치료할 수 있겠는가. 반드시 기(氣)를 보한 뒤에 담(痰)을 삭이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기(氣)를 보할 때도 비위(脾胃)의 토

(土)만 보해서는 안되고 명문(命門)의 화(火)도 아울러 보해야 한다. 대개 화(火)는 토(土)를 살릴 수 있고, 토(土)는 절로 기(氣)를 생겨나게 하며, 기(氣)가 충분하면 담(痰)이 절로 녹으니, 담(痰)을 치료하지 않아도 바로 담(痰)이 치료되는 방법이다. 다음과 같은 처방을 사용한다 [ 숙지황(熟地黃) 8냥, 백출(白朮)·익지인(薏苡仁)·검실(芡實) 각 5냥, 산수유(山茱萸) 4냥, 인삼(人蔘)·두충(杜仲)·백개자(白芥子) 각 3냥, 백복령(白茯苓)·육계(肉桂) 각 2냥, 오미자(五味子)·익지인(益智仁)·귤홍(橘紅) 각 1냥, 사인(砂仁) 5돈. 이상을 가루내어 꿀로 환(丸)을 빚는다. 매일 백곤탕(白滾湯)으로 5돈 씩 삼킨다.

(〈비치(肥治)〉) ]

若有人不肯服丸藥，當用煎方，余定一方，名補氣定痰飲。[ 熟地黃一兩，白朮五錢，山茱萸四錢，白茯苓、人蔘各三錢，肉桂、砂仁、益智仁、半夏、神麴各一錢，陳皮五分。水煎服。(肥治) ]

만약 환자가 환약(丸藥)을 복용하지 않으려 한다면 달이는 처방을 사용해야 한다. 내가 처방 하나를 만들고 보기정담음(補氣定痰飲)이라고 이름 붙였다.

[ 숙지황(熟地黃) 1냥, 백출(白朮) 5돈, 산수유(山茱萸) 4돈, 백복령(白茯苓)·인삼(人蔘) 각 3돈, 육계(肉桂)·사인(砂仁)·익지인(益智仁)·반하(半夏)·신국(神麴) 각 1돈, 진피(陳皮) 5푼. 물에 달여 복용한다. (〈비치(肥治)〉) ]

乃氣沈而不能上，血滯而不能行，是也。氣得揚而展舒，血得揚而活動。倘沈抑不揚，則必有呃逆蹇癢之症。必用藥而揚之，則氣舒展而血活動也。方用八珍湯 [ 熟地黃五錢，當歸、白芍藥、白朮各三錢，黃芪二錢，人蔘、白茯苓、川芎各一錢，柴胡、升麻各五分。右剉水煎服。(楊治) ]

양치(揚治)는<sup>5</sup> 기(氣)가 잠겨 오르지 못하고 혈(血)이 막혀 운행하지 못할 때 사용한다. 기(氣)가 힘을 받으면 퍼져나가고 혈(血)이 힘을 받으면 활발히 움직인다. 만약 잠기고 억눌려 힘을 받지 못하면 반드시 딸꾹질하거나 다리를 쓰지 못하는 병이 생긴다. 반드시 약을 써서 힘을 북돋우면 기(氣)는 퍼져나가고 혈(血)은 활발히 움직인다. 처방으로 팔진탕(八珍湯)을 사용한다. [ 숙지황(熟地黃) 5돈, 당귀(當歸)、백작약(白芍藥)、백출(白朮) 각 3돈, 황기(黃芪) 2돈, 인삼(人蔘)、백복령(白茯苓)、천궁(川芎) 각 1돈, 시호(柴胡)、승마(升麻) 각 5푼. 이상을 썰어서 물에 달여 복용한다. (〈양치(楊治)〉) ]

若病在上焦，若大其劑，則勢不行<sup>6</sup>，反爲不美，如胸膈不利，或痰盛閉塞，或一時中風不語，皆當以小劑治之。小劑方甚多，舉三四之病，可悟其餘，譬如胸膈不利，此氣不順也。可用順氣湯。[ 蘇葉、半夏、桔梗、甘草各一錢，百部根五分。 ] 一劑快然無碍矣。如痰盛閉塞作痛者，乃痰在上焦也。用化痰飲 [ 天花粉、柴胡、半夏、蘇子、甘草各一錢，陳皮五分。 ] 治之。或用 [ 苈薈一錢，或用皂角一箇 ] 以水煎湯吐之。[ 小治 ]

만약 병이 상초(上焦)에 있을 때 대제(大劑)를 사용하면 병세가 아래로 내려가 도리어 좋지 않게 된다. 흉격(胸膈)이 불편하거나, 담(痰)이 차올라 막혔거나, 갑자기 중풍(中風)으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모두 소제(小劑)로 치료해야 한다. 소제(小劑)에 해당하는 처방은 매우 많으나 서너 가지 병을 설명하면 나머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흉격(胸膈)이 불편한 것은 기(氣)가 순조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순기탕(順氣湯)을 써야 한다. [ 소엽(蘇葉)、반하(半夏)、길경(桔梗)、감초(甘草) 각 1돈, 백부근(百部根) 5푼. ] 1제(劑)로

문제 없이 잘 낫는다. 또 담(痰)이 차올라 막히고 아픈 것은 담(痰)이 상초(上焦)에 있기 때문이다. 화담음(化痰飲)으로 [ 천화분(天花粉)·시호(柴胡)·반하(半夏)·소자(蘇子)·감초(甘草) 각 1돈, 진피(陳皮) 5푼 ] 치료한다. 또는 [ 과체(瓜蒂) 1돈, 혹은 조각(皂角) 1개(箇) ] 를 물에 달여 토하게 한다.

[ 〈소치(小治)〉 ]

氣病實多，吾亦舉其大者言之。如氣逆痰滯，是也。夫痰之滯，非痰之故，乃氣之滯也。苟不利氣，而惟治痰，吾未見痰祛而病消也。方用順氣祛痰湯。[ 茯苓三錢，白朮二錢，人蔘、陳皮、天花粉、白芥子、神麴、蘇子各一錢，草薢三粒。水煎服。(氣治) ] ○張公再傳二方，可以悟治法矣。氣虛痰多之症，痰多本是濕也。而治痰之法，又不可徒去其濕，必須補氣爲先，而佐以消痰之品。方用 [ 薏苡仁五錢，人蔘、茯苓、半夏各三錢，神麴、陳皮、甘草各一錢。水煎服。 ] 更有氣虛痰寒者，前方加 [ 肉桂三錢，乾薑五分。 ] 有氣虛痰熱者，不可用此方 [ 麥門冬、白芍藥、當歸各三錢，茯苓二錢，天花粉、白芥子、陳皮、甘草各一錢，神麴三分。水煎服。(氣治) ]

실로 많은 기병(氣病) 가운데 나 역시 대표적인 것을 들어 말하자면, 기(氣)가 거슬러 올라 담(痰)이 정체된 경우이다. 담(痰)이 정체된 것은 담(痰) 때문이 아니고 기(氣)가 정체되었기 때문이다. 기(氣)를 놓아두고 오직 담(痰)만 치료해서 담(痰)이 물러나고 병이 낫는 경우를 나는 보지 못하였다. 처방으로 순기거담탕(順氣祛痰湯)을 사용한다. [ 복령(茯苓) 3돈, 백출(白朮) 2돈, 인삼(人蔘)·진피(陳皮)·천화분(天花粉)·백개자(白芥子)·신국(神麴)·소자(蘇子) 각 1돈, 초두구(草豆蔻) 3알. 이상을 물에 달여 복용한다. (〈기치(氣

治)》) ] ○장공(張公)께서 다시 2가지 처방을 전하였으니 치법을 일깨워 줄 만 하다. 기(氣)가 허하고 담(痰)이 많은 증상에서 담(痰)의 뿌리는 대체로 습(濕)이다. 그러나 담(痰)을 치료하는 방법에서 습(濕)만 제거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먼저 기(氣)를 보하고 담(痰)을 삭이는 약재로 보좌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처방을 사용한다. [ 의이인(薏苡仁) 5돈, 인삼(人蔘)、복령(茯苓)、반하(半夏) 각 3돈, 신국(神麴)、진피(陳皮)、감초(甘草) 각 1돈. 이상을 물에 달여 복용한다. ] 또 기(氣)가 허하고 담(痰)이 한(寒)할 때는 앞의 처방에 [ 육계(肉桂) 3돈, 건강(乾薑) 5푼을 더한다. ] 기(氣)가 허하고 담(痰)이 열(熱)할 때는 이 처방을 써서는 안된다. [ 맥문동(麥門冬)、백작약(白芍藥)、당귀(當歸) 각 3돈, 복령(茯苓) 2돈, 천화분(天花粉)、백개자(白芥子)、진피(陳皮)、감초(甘草) 각 1돈, 신국(神麴) 3푼. 이상을 물에 달여 복용한다. (〈기치(氣治)〉) ]

猝倒之病，如一時眼花猝倒，不省人事，一時心痛暴亡，一時腹痛手足青而欲死者，是也。此等之症，如風雨驟至，如駿馬奔馳，不可一時止遏，不可少緩須臾以治之也。眼花猝倒，非中於惡，則中於痰，然中惡中痰，實可同治。蓋正氣之虛而後，可以中惡中氣之餒而後，可以痰迷。然則二症，皆氣虛之故，補其氣而中氣，正氣自回，或加以祛痰之品逐邪之藥，無有不奏功。頃刻者，方用消惡湯。

[ 白朮五錢，人蔘三錢，附子、南星、陳皮、白薇各一錢。 ] 水煎服。下喉即愈。 [ 近治 ]

갑자기 쓰러지는 병. 한 순간 눈 앞에 무언가 어른거리다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거나, 한 순간 가슴이 아프다가 갑자기 죽거나, 한 순간 배가 아프고 손발이 푸르스름해져 죽을 것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병증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고 빠른 말이 내달리는 것 같아서, 잠깐도 지체할 수 없고 여유롭게 치료할 수도 없다. 눈 앞에 무언가 어른거리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것은 사악한 기운에 적중된 경우가 아니면 담(痰)에 적중된 경우이다. 그러나 중악(中惡)과 중담(中痰)은 사실 똑같이 치료한다. 대개 정기(正氣)가 허한 뒤에야 중악(中惡)이 생길 수 있고, 중기(中氣)<sup>7</sup>가 부족한 뒤에야 담(痰)이 들끓는다. 2가지 증상 모두 기(氣)가 허하기 때문이니, 기(氣)를 보하여 중기(中氣)와 정기(正氣)가 절로 회복되게 하고 또한 담(痰)을 제거하는 약과 사기(邪氣)를 몰아내는 약을 더한다면 효과가 없을 수 없다. 시급한 경우에는 소악탕(消惡湯)을 쓴다. [ 백출(白朮) 5돈, 인삼(人蔘) 3돈, 부자(附子)·남성(南星)·진피(陳皮)·백미(白薇) 각 1돈. ] 물에 달여 복용한다. 약을 먹자마자 낫는다. [ 近治 ]

凡人忽然猝倒不知，口中痰聲作響，人以爲中風也，誰知是氣虛，若作風治之，未有不死者。蓋因平日不慎女色精虧，以致氣衰，又加起居不慎，故一時猝倒，有似乎風之吹倒也。方用培氣湯 [ 人蔘、白朮、黃芪各一兩，茯神五錢，白芥子三錢，半夏二錢，菖蒲、附子各一錢。水煎服。 ( 內傷 ) ]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고 입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나면 사람들은 중풍(中風)이라고 여기는데, 누가 이것이 기허(氣虛)라는 것을 알겠는가. 만약 풍(風)으로 보고 치료하면 죽게 된다. 대개 평소 여색을 삼가지 않아 정(精)이 부족해져서 기(氣)까지 쇠약해지고 게다가 생활도 조심하지 않은 까닭에 한

순간 갑자기 쓰러지게 된 것으로 풍사(風邪)를 쏘여 쓰러진 것과 비슷하다. 배기탕(培氣湯)을 쓴다. [ 인삼(人蔘)·백출(白朮)·황기(黃芪) 각 1냥, 복신(茯神) 5돈, 백개자(白芥子) 3돈, 반하(半夏) 2돈, 창포(菖蒲)·부자(附子) 각 1돈. 이상을 물에 달여 복용한다. ( 內傷 ) ]

中氣而又有中痰，雖若中之異，而實皆中於氣之虛也。氣虛自然多痰，痰多必然耗氣，雖分而實合耳。方用 [ 人蔘一兩，半夏、南星、茯苓各三錢，附子、甘草各一錢。 ] 水煎服。中氣中痰之症俱愈。 [ 分治 ]

기(氣)에 적중된 경우(中氣)도 있고 담(痰)에 적중된 경우(中痰)도 있다. 비록 적중된 것은 다르지만 사실 허해진 기(氣) 때문에 적중된 것이다. 기(氣)가 허하면 절로 담(痰)이 많아지고, 담(痰)이 많아지면 반드시 기(氣)가 소모되므로 비록 구분하지만 사실 한 가지일 뿐이다. 다음과 같은 처방을 사용한다. [ 인삼(人蔘) 1냥, 반하(半夏)·남성(南星)·복령(茯苓) 각 3돈, 부자(附子)·감초(甘草) 각 1돈. ] 이상을 물에 달여 복용한다. 복용하면 중기(中氣)와 중담(中痰)의 증상이 모두 낫는다. [ 分治 ]

氣治者，氣實氣虛而不可不平之也。氣實者，非氣實，方<sup>8</sup>正氣虛而邪氣實也。若作正氣之實，而用消氣之藥，使正氣益虛，而邪氣益實，害且不可救藥。方用補正之藥，而佐以祛邪之品，則正氣自旺邪氣自消矣。方用 [ 柴胡、白芍藥各三錢，人蔘、白朮、甘草、半夏、麻黃各一錢。 ] 水煎服。 [ 氣治 ]

기치(氣治)는 기(氣)가 실하기도 하고 허하기도 하여 고르게 하지 않을 수 없을 때 사용한다. 기(氣)가 실하다는 것은 기(氣)가 실한 것이 아니고 정기(正氣)가 허하고 사기(邪氣)가 실한 것이다. 만약 정기(正氣)가 실하다고 보고 기



(氣)를 소모하는 약을 써서 정기(正氣)를 더욱 허하게 하고 사기(邪氣)를 더욱 실하게 하면 해롭거니와 이를 구할 수 있는 약이 없게 된다. 정기를 보하는 약을 쓰고 사기를 제거하는 약으로 도우면 정기(正氣)는 절로 왕성해지고 사기(邪氣)는 절로 사그러든다. 다음과 같은 처방을 사용한다. [ 시호(柴胡)·백작약(白芍藥) 각 3돈, 인삼(人蔘)·백출(白朮)·감초(甘草)·반하(半夏)·마황(麻黃) 각 1돈. ] 이상을 물에 달여 복용한다. [ 〈기치(氣治)〉 ]

氣治法甚多，天師止言一條，似乎未備。余更廣之，氣陷補中益氣湯，氣衰六君子湯，氣寒人蔘白朮附子湯，氣虛則四君子湯，氣鬱則歸脾湯，氣熱則生脉散，氣喘則獨蔘湯，氣動則二陳湯加人蔘，氣壅滯則射干湯，氣逸則逍遙散。余廣至此，氣治之法，庶幾全乎，人人可因症而施治也。 [ 氣治 ]

기(氣)의 치료법은 매우 많으나 천사(天師)께서는 단지 한 마디 말만 하셨으니 부족한 듯하다. 내 다시 이를 보충하노라. 기함(氣陷)에는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 기쇠(氣衰)에는 육군자탕(六君子湯), 기한(氣寒)에는 인삼백출부자탕(人蔘白朮附子湯), 기허(氣虛)에는 사군자탕(四君子湯), 기울(氣鬱)에는 귀비탕(歸脾湯), 기열(氣熱)에는 생맥산(生脉散), 기천(氣喘)에는 독삼탕(獨蔘湯), 기동(氣動)에는 이진탕(二陳湯)에 인삼(人蔘)을 더한 것, 기옹체(氣壅滯)에는 사간탕(射干湯), 기일(氣逸)에는 소요산(逍遙散). 내가 이와 같이 보충하여 기(氣)를 치료하는 방법이 거의 온전해졌을 터이니 사람들이 증상에 따라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치(氣治)〉 ]

予更有論，氣虛氣實原有分別，氣虛則羸弱而難施，氣實則壯盛而易察。虛者用天師之方，實者別有一方，名陰實湯。〔白芍藥、茯苓各三錢，白朮、柴胡、甘草、炒梔子各一錢，陳皮、枳殼各五分，山楂十枚。水煎服之。〕亦可佐天師之未逮也。〔氣治〕

나 역시 할 말이 있다. 기허(氣虛)와 기실(氣實)은 본래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기(氣)가 허하면 수척하고 허약하여 다스리기 어렵고, 기(氣)가 실하면 튼튼하고 건장하여 쉽게 알 수 있다. 기허에는 천사(天師)의 처방을 쓰고, 기실에는 따로 처방 하나를 두었으니 음실탕(陰實湯)이라고 이름 붙였다. 〔백작약(白芍藥)、복령(茯苓) 각 3돈, 백출(白朮)、시호(柴胡)、감초(甘草)、치자(梔子) (볶은 것) 각 1돈, 진피(陳皮)、지각(枳殼) 각 5푼, 산사(山楂) 10개. 이상을 물에 달여 복용한다.〕이 처방 또한 천사(天師)께서 미처 말씀하지 못하신 것을 보충한 것이다. 〔〈기치(氣治)〉〕

平治者，平常之病也。用平常之法也。氣虛者六君子湯、四君子湯，血虛者四物湯，腎虛無火者八味湯，腎虛有火者六味地黃湯，肺虛者生脉散，心虛者歸脾湯或天王補心丹，肝虛者建中湯，胃虛者四君子湯，脾虛者補中益氣湯，鬱症逍遙散，傷風小柴胡湯或蔘蘇飲，有熱者地黃湯，胃熱者竹葉石膏湯。諸如此類，俱可以平常治之，何必出奇眩異哉。〔平治〕

평치(平治)는 일반적인 병에 일반적인 치료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기허(氣虛)에는 육군자탕(六君子湯)、사군자탕(四君子湯), 혈허(血虛)에는 사물탕(四物湯), 신허(腎虛)한데 화(火)가 없을 때는 팔미탕(八味湯), 신허(腎虛)한데 화(火)가 있을 때는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 폐허(肺虛)에는 생맥산(生脈散),

심허(心虛)에는 귀비탕(歸脾湯)이나 천왕보심단(天王補心丹), 간허(肝虛)에는 건중탕(建中湯), 위허(胃虛)에는 사군자탕(四君子湯), 비허(脾虛)에는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 울증(鬱證)에는 소요산(逍遙散), 상풍(傷風)에는 소시호탕(小柴胡湯)이나 삼소음(蔘蘇飲), 열(熱)이 있을 때는 지황탕(地黃湯), 위열(胃熱)에는 죽엽석고탕(竹葉石膏湯)을 쓴다. 이와 같을 때에는 모두 일반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으니, 어찌 특별한 치료법을 꺼낼 필요가 있겠는가.

[〈평치(平治)〉]

#### 七氣湯 칠기탕

- [ 治七情鬱結，心腹絞痛。半夏製三錢，人蔘、肉桂、甘草炙各七分。入薑三片，水煎服。（局方） ]
- [ 칠정(七情)이 울결되어 가슴과 배가 쥐어짜듯 아픈 것을 치료한다. 반하(半夏) ( 법제한 것 ) 3돈, 인삼(人蔘)、육계(肉桂)、감초(甘草) ( 구운 것 ) 각 7푼. 생강(生薑) 3쪽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국방(局方)》) ]

#### 四七湯 사칠탕

- [ 治七情凝結，狀如破絮，或如梅核塞，噎咽喉，咯不出嚥不下，或胸膈痞滿，痰涎壅盛。半夏製二錢，赤茯苓一錢六分，厚朴製一錢二分，紫蘇葉八分。薑七棗二，煎服（局方） ]
- [ 칠정(七情)이 울결되어 헌숨이나 매핵(梅核) 같은 모양으로 목구멍을 막아 뱉어도 뱉어지지 않고 삼켜도 삼켜지지 않는 경우, 또는 흉격(胸膈)이 막혀 그

득하고 담연(痰涎)이 가득 찬 경우를 치료한다. 반하(半夏) ( 법제한 것 ) 2돈, 적복령(赤茯苓) 1돈 6푼, 후박(厚朴) ( 법제한 것 ) 1돈 2푼, 자소엽(紫蘇葉) 8푼. 생강(生薑) 7쪽, 대추 2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국방(局方)》) ]

### 神仙九氣湯 신선구기탕

- [ 治九氣作痛，香附子、片子薑黃、甘草炙各等分。右末，每服二錢，鹽湯點服。( 得效 ) ]
- [ 구기(九氣) 때문에 통증이 생긴 것을 치료한다. 향부자(香附子)·강황(薑黃) ( 저민 것 )·감초(甘草) ( 구운 것 ) 각 같은 양. 이상을 가루 내어 복용할 때 마다 2돈을 염탕(鹽湯)에 타서 복용한다. (《득효(得效)》) ]

### 正氣天香湯 정기천향탕

- [ 治同上. 亦治婦人氣痛。香附子三錢，烏藥、陳皮、蘇葉各一錢，乾薑、甘草各五分。右剉作，水煎服。或爲末，鹽湯點服二錢亦可也。( 經驗方<sup>9</sup> ) ]
- [ 위와 같은 것을 치료한다. 또 부인(婦人)의 기통(氣痛)<sup>10</sup>도 치료한다. 향부자(香附子) 3돈, 오약(烏藥)·진피(陳皮)·소엽(蘇葉) 각 1돈, 건강(乾薑)·감초(甘草) 각 5푼. 이상을 썰어 물에 달여 복용한다. 또는 가루 내어 염탕(鹽湯)에 2돈 씩 타서 복용해도 좋다. (《단계》) ]

氣絶候 [ 靈樞曰，五陰氣俱絶，則目系轉，轉則目運，目運者爲志先死，志先死，則遠一日半死矣。六陽氣俱絶，則陰與陽相離，離則腠理發泄，絶汗乃出，故早<sup>11</sup>歿<sup>12</sup>夕死，夕歿<sup>12</sup>旦死。 ○絶汗者，大如珠，出而不流也。 ○又曰，六府

氣絶于外者，上氣脚縮。五臟氣絶于內者，下利不禁，甚者手足不仁。 ○又  
 曰，若陽氣前絶，陰氣後竭者，其人死，身色必靑。陰氣前絶，陽氣後竭者，其  
 人死，身色必黃，腋下溫，心下有熱也。（仲景）]

기(氣)가 끊어진 증후 [《영추(靈樞)》에서 말하였다. "오장(五臟)의 음기(陰氣)가 모두 끊어지면 목계(目系)가 돌아가고, 목계가 돌아가면 눈도 따라 돌아간다. 눈이 돌아간 것은 정신이 먼저 죽는 것이다. 정신이 먼저 죽으면 하루 반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 육부(六腑)의 양기(陽氣)가 모두 끊어지면 음(陰)과 양(陽)이 분리되고, 분리되면 주리(腠理)로 새나가서 절한(絶汗)이 난다. 그러므로 아침에 끊어지면 저녁에 죽을 징조이고, 저녁에 끊어지면 다음날 아침에 죽을 징조이다." ○절한이란 크기가 구슬만 한데 나오지만 흘러내리지는 않는다. ○또 말하였다. "겉에서 육부(陽氣)의 기(氣)가 끊어지면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오그라든다. 속에서 오장(五臟)의 기(氣)가 끊어지면 설사가 멎지 않고, 심하면 손발에 감각이 없어진다." ○또 말하였다. "만약 양기(陽氣)가 먼저 끊어진 다음에 음기(陰氣)가 고갈되면 그 사람이 죽을 때 반드시 몸이 푸르다. 음기(陰氣)가 먼저 끊어진 다음에 양기(陽氣)가 고갈되면 그 사람이 죽을 때 반드시 몸이 누렇게 겨드랑이가 따뜻하며 명치는 뜨겁다." (중경(中景)) ]

1. 息利：息微 ※문맥 ←

2. 心痛氣痛塊痛 心腹塊痛 ※《동의보감》 ←

3. 雖 誰 ※《석실비록》 ←

4. 동원(東垣) : 이고(李杲)의 자호(自號) ←

5. 《석실비록》을 참고하여 번역을 보충하였다. ←

6. 不行 ㄱ 下行 ※《석실비록》 ←

7. 중기(中氣) : 여기서 문맥상 "중초(中焦)의 기운"을 의미한다. ←

8. 方 ㄱ 乃 ※《석실비록》 ←

9. 經驗方 ㄱ 丹溪 ※《동의보감》 ←

10. 기통(氣痛) : 기(氣)가 막혀 생긴 통증 ←

11. 点 ㄱ 占 ※《동의보감》 ←

12. 點 ㄱ 占 ※《동의보감》 ←

## 神 神

神爲一身之主 [ 內經曰, 心者君主之官, 神明出焉。 ○無名子曰, 天一生水, 在人曰精, 地二生火, 在人曰神。 ○回春曰, 心者一身之主, 清淨之府, 外有包絡以羅之。其中精華之聚萃者, 名之曰神, 通陰陽, 察纖毫, 無所紊亂。 ○邵子曰, 神統於心, 氣統於腎, 形統於首, 形氣交而神主乎其中, 三才之道也。 ]

신(神)은 온몸의 주인 [ 《내경(內經)》에서 말하였다. "심(心)은 관직 가운데 군주에 해당하며 신명(神明)이 나온다." ○무명자(無名子)가 말하였다. "천일(天一)이 수(水)를 낳으니 사람에게서는 정(精)이라고 하고, 지이(地二)가 화(火)를 낳으니 사람에게서는 신(神)이라고 한다." ○《회춘(回春)》에서 말하였다. "심(心)은 온몸의 주인으로 청정한 곳인데 포락(胞絡)이 겉에서 감싸고 있다. 그 속에서 고갱이만 농축된 것을 신(神)이라 한다. 신은 음양을 소통시키고 아주 미세한 것까지 구분하며 어지럽혀지지 않는다." ○소자(邵子)가 말하였다. "신(神)은 심(心)에서 다스리고, 기(氣)는 신(腎)에서 다스리며, 형(形)은 머리에서 다스린다. 형과 기가 교류할 때 신이 그 사이에서 주관하니 이것이 삼재(三才)의 도(道)이다." ]

五臟藏七神 [ 內經曰, 五臟所藏, 心藏神, 肺藏魄, 肝藏魂, 脾藏意, 腎藏志。又曰, 脾藏意與智, 腎藏精與志, 是謂七神。註云, 神者精氣之化成也, 魄者精氣之匡佐也, 魂者神氣之輔弼也, 意者記而不忘者也, 志者專意而不移者

也。]

오장(五臟)은 칠신(七神)을 간직한다. [《내경(內經)》에서 말하였다. "오장(五臟)이 간직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심(心)은 신(神)을 간직하고, 폐(肺)는 백(魄)을 간직하며, 간(肝)은 혼(魂)을 간직하고, 비(脾)는 의(意)를 간직하며, 신(腎)은 지(志)를 간직한다." 또 말하였다. "비(脾)는 의(意)와 지(智)를 간직하고 신(腎)은 정(精)과 지(志)를 간직하니, 이것을 칠신(七神)이라고 한다." 주석에서 말하였다. "신(神)은 정기(精氣)가 변화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백(魄)은 정기를 바르게 도와주는 것이다. 혼(魂)은 신기(神氣)를 보필하는 것이다. 의(意)는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다. 지(志)는 한결같이 마음을 두고 바꾸지 않는 것이다." ]

心經之病，怔忡不寐等症，乃心血少也。方用安寐丹 [ 生棗仁、熟棗仁各五錢，人蔘、茯神、麥門冬、當歸各三錢，丹蔘二錢，甘草、菖蒲、五味子各一錢。 ] 水煎服。 [ 正治 ]

심경(心經)의 병은 정충(怔忡)이나 불면 등이 증상인데 심(心)의 혈(血)이 적기 때문이다. 처방으로 안상단(安寐丹)을 쓴다. [ 산조인(山棗仁) ( 날것 ) 、※※숙조인(熟棗仁) 각 5돈, 인삼(人蔘)、복신(茯神)、맥문동(麥門冬)、당귀(當歸) 각 3돈, 단삼(丹蔘) 2돈, 감초(甘草)、창포(菖蒲)、오미자(五味子) 각 1돈. ] 이상을 물에 달여 복용한다. [ <정치(正治)> ]

怔忡之症，擾擾不寧，心神恍惚，驚悸不已，此肝腎之虛，而心氣之弱也。若作痰治，往往殺人。蓋腎虛以致心氣不交，心虛以致肝氣益耗，不治虛而反攻痰，安得不速死乎。吾有一方寧靜湯，[ 人蔘、白芍藥、熟地黃、玄蔘各一兩，生棗



仁、麥門冬各五錢，白芥子、白朮各三錢。水煎服。 ] 此方一派補心肝腎之藥，三經同治，則陰陽之氣自交，上下相資，怔忡自定，而驚悸恍惚之症，亦盡除矣。怔忡治之不得法，多致危亡。此症乃因泄精之時，又得氣惱，更不慎色而成者也。似乎宜准腎爲主，不知愈補腎而心氣愈加怔忡者何故，因肝得氣惱，肝氣大旺，補腎則肝氣更旺 反去增心之火，故愈加怔忡也。然則心不可補乎，心不補則火不能息，補心而又加去火之藥，則得生矣。方用化忡丹 [ 麥門冬、白芍藥、元蓼、茯神各五錢，人蓼、生棗仁各二錢，白芥子、黃芪各一錢，甘草五分。水煎服。 ( 內傷 ) ]

정충(怔忡)이라는 증상은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며 정신이 혼미하며 계속 겁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다. 이것은 간(肝)과 신(腎)이 허한 상태에서 심기(心氣)가 약하기 때문에 생긴다. 담(痰) 때문이라고 보고 치료하여 환자를 죽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신(腎)이 허하여 심기(心氣)와 교류하지 못하고 심(心)이 허하여 간기(肝氣)가 더욱 소모되었는데, 허증(虛證)을 치료하지 않고 도리어 담(痰)을 공격하면 어찌 죽음을 재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에게 영정탕(寧靜湯)이라는 처방이 있다. [ 인삼(人蔘)、백작약(白芍藥)、숙지황(熟地黃)、현삼(玄蓼) 각 1냥, 산조인(山棗仁) ( 날것 ) 、맥문동(麥門冬) 각 5돈, 백개자(白芥子)、백출(白朮) 각 3돈. 이상을 물에 달여 복용한다. ] 이 처방은 주로 심(心)、간(肝)、신(腎)을 보한다. 3가지 경맥(經脈)이 모두 치료되면 음양(陰陽)의 기(氣)가 절로 교류하고 상부와 하부가 서로 돕기 때문에 정충(怔忡)이 절로 안정되어 가슴이 두근거리고 정신이 혼미한 증상도 모두 사라진다. 정충(怔忡)을 치료할 때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여 환자가 위독해지거나 죽는 경우가 많다. 이 증상은 사정할 때 마음이 복잡한데도 성관계를 삼가지 않아

생긴 것이다. 신(腎) 치료를 위주로 해야할 것 같지만, 신(腎)을 보할 수록 심기(心氣)에 정충(怔忡)이 심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니 어째서인가. 마음이 복잡하면 간(肝)이 영향을 받아 간기(肝氣)가 매우 왕성해진다. 이때 신(腎)을 보하면 간기(肝氣)가 더욱 왕성해져 도리어 심(心)의 화(火)를 증가시키므로 정충(怔忡)이 심해진다. 그렇다면 심(心)을 보해서는 안되는가. 심을 보하지 않으면 화(火)가 식지 않는다. 따라서 심(心)을 보하고 아울러 화(火)를 제거하는 약을 쓰면 환자가 살 것이다. 처방으로는 화충단(化忡丹)을 쓴다. [ 맥문동(麥門冬)、백작약(白芍藥)、원삼(元蔘)、복신(茯神) 각 5돈, 인삼(人蔘)、산조인(山棗仁) ( 날것 ) 각 2돈, 백개자(白芥子)、황기(黃芪) 각 1돈, 감초(甘草) 5푼. 이상을 물에 달여 복용한다. (〈내상(內傷)〉) ]

治心腎之法，人非心不能寧靜致遠，非腎不能作強生育，故補心法當補腎，補腎即當補心也。是二經，一身之主宰，臟腑之根本也。故人病心驚不安，或夜臥不睡者，人以爲心之病也，誰知非心病也腎病也。人見色而思戰，入門倒戈者，或精滑夢遺者，人以爲腎之病也，誰知非腎病也心病也。然則欲安心者當治腎，欲治腎者當治心。治心方用 [ 人蔘、茯苓、茯神、熟地黃、山茱萸、當歸、麥門冬各三兩，遠志二兩，生棗仁、白芥子各一兩，黃連、肉桂、砂仁各五錢，菖蒲三錢。各爲末，蜜丸。每日送下五錢，或酒或湯皆可。(本治) ] ○凡人臥枕不安，方用寧神安臥丸 [ 熟地黃八兩，人蔘五兩，山茱四兩，茯神、麥門冬各三兩，炒棗仁、遠志各二兩，柏子仁一兩，陳皮二錢。各爲末，蜜丸。每日白滾水送下一兩。五日即安，一料全愈。(本治) ] ○人有夢遺者，益心止遺丸 [ 熟地黃、山藥、芡實各一斤，蓮子不去心半斤，生棗仁五兩，麥門冬、五味子各三兩，天巴戟二兩。各爲末，蜜丸。每日白滾水送下一兩式。(本治) ]

심(心)과 신(腎)을 치료하는 방법. 사람은 심(心)이 아니면 마음을 편안히 하거나 큰 뜻을 품을 수 없고, 신(腎)이 아니면 생식과 출산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심(心)을 보할 때는 마땅히 신(腎)을 보해야만 하고, 신(腎)을 보할 때는 마땅히 심(心)을 보해야 한다. 이 2가지 경맥(經脈)이 온몸을 다스리고 장부(臟腑)의 근본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해 하거나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사람들은 심(心)의 병이라고 여기지만 심의 병이 아니라 신(腎)의 병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 것인가. 사람이 여색을 보고 성관계를 할 생각이지만 막상 방에 들면 의지가 꺾이거나, 정활(精滑)이나 몽유(夢遺)가 있을 때, 사람들은 신(腎)의 병이라고 여기지만 신의 병이 아니라 심(心)의 병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 것인가. 그러므로 심(心)을 안정시키려면 신(腎)을 치료해야만 하고, 신(腎)을 치료하려면 심(心)을 치료해야만 한다. 다음과 같은 처방을 사용한다. [ 인삼(人蔘)·복령(茯苓)·복신(茯神)·숙지황(熟地黃)·산수유(山茱萸)·당귀(當歸)·맥문동(麥門冬) 각 3냥, 원지(遠志) 2냥, 산조인(山棗仁) ( 날것 )·백개자(白芥子) 각 1냥, 황련(黃連)·육계(肉桂)·사인(砂仁) 각 5돈, 창포(菖蒲) 3돈. 이 약재를 각기 가루내어 꿀로 환(丸)을 빚는다. 매일 5돈 씩 삼키는데 술이나 끓인 물로 복용해도 좋다. (〈본치(本治)〉) ] ○ 잠자리에서 불안할 때는 영신안와환(寧神安臥丸)을 쓴다. [ 숙지황(熟地黃) 8냥, 인삼(人蔘) 5냥, 산수유(山茱萸) 4냥, 복신(茯神)·맥문동(麥門冬) 각 3냥, 산조인(山棗仁) ( 볶은 것 )·원지(遠志) 각 2냥, 백자인(柏子仁) 1냥, 진피(陳皮) 2돈. 이 약재를 각기 가루내어 꿀로 환(丸)을 빚는다. 매일 백곤수(白滾水)로 1냥 씩 삼킨다. 5일 복용하면 병세가 안정되고 만든 약을 다 먹으면 모두 낫는다. (〈본치(本治)〉) ] ○ 몽유(夢遺)에는 익심지유환(益心止遺丸)을 쓴

다. [ 숙지황(熟地黃)·산약(山藥)·검실(芡實) 각 1근, 연자(蓮子) ( 심을 제거하지 않은 것 ) 반 근, 산조인(山棗仁) ( 날것 ) 5냥, 맥문동(麥門冬)·오미자(五味子) 각 3냥, 파극천(巴戟天) 2냥. 이 약재를 각기 가루내어 꿀로 환(丸)을 빚는다. 매일 백곤수(白滾水)에 1냥 씩 삼킨다. (〈본치(本治)〉) ]

治心驚不安方。心驚非心病也，乃肝血虛，而不能養心也。方用 [ 生棗仁一兩，當歸、熟地黃、麥門冬、白芍藥各五錢，人蔘二錢，五味子、遠志各一錢，茯神三錢。水煎服。此方之妙，全不盡去治心，治心正所以治肝也，治肝亦所以益心也。 ( 本治 ) ]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한 것을 치료하는 처방.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은 심(心)의 병이 아니다. 이것은 간(肝)의 혈(血)이 허하여 심(心)을 기를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처방을 사용한다. [ 산조인(山棗仁) ( 날것 ) 1냥, 당귀(當歸)·숙지황(熟地黃)·맥문동(麥門冬)·백작약(白芍藥) 각 5돈, 인삼(人蔘) 2돈, 오미자(五味子)·원지(遠志) 각 1돈, 복신(茯神) 3돈. 이상을 물에 달여 복용한다. 이 처방의 묘미는 심(心)을 치료하데 그치지 않는다. 심(心)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간(肝)을 치료는 방법이고, 간(肝)을 치료하는 것도 심(心)을 돕는 방법이다. (〈본치(本治)〉) ]

狂病有傷寒得之者，此一時之狂也。照仲景張公傷寒門，治之用白虎湯，以瀉火矣。更有終年狂病而不愈者，或欲拿刀以殺人，或欲見官而大罵，親戚之不認，兒女之不知，見水則大喜，見食則大怒。此乃心氣之虛，而熱邪乘之，痰氣侵之，遂成爲狂矣。此等症欲瀉火，而火在心之中不可瀉也，欲消痰，而痰在心之

中不易消也。惟有補脾胃之氣，則心得養，不必祛痰而痰自化，不必瀉火而火自無矣。方用化狂丹。 [ 白朮、人蔘、茯苓各一兩，兔絲子、半夏各三錢，菖蒲、甘草各一錢，附子一分。水煎服。 ] 一劑狂定，再劑病痊。 [ 四卷 ]

상한(傷寒)에서 생겨난 광병(狂病)은 일시적으로 미친 경우이다. <sup>1</sup>중경(中景) 장공(張公)의 《상한론(傷寒論)》을 보면 이를 치료할 때 백호탕(白虎湯)으로 화(火)를 꺼뜨렸다. 하지만 평생 광병이 낫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경우, 벼슬아치를 보고 심한 욕설을 하는 경우, 친인척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 나이와 성별을 모르는 경우, 물을 보면 매우 기뻐하는 경우, 음식을 보면 매우 화내는 경우 등이 있다. 이들은 심기(心氣)가 허한데 열사(熱邪)가 침범하고 담기(痰氣)가 침입하여 결국 미치게 된 경우이다. 이들 증상에서는 화(火)를 꺼뜨리려 하여도 화(火)가 심(心) 속에 있어 꺼뜨릴 수 없고, 담(痰)을 삭이려 하여도 담(痰)이 심(心) 속에 있어 삭이기 쉽지 않다. 오직 비위(脾胃)의 기(氣)를 보할 뿐이니 그렇게 하면 심(心)이 절로 길러져 담(痰)을 제거하지 않아도 담(痰)이 절로 녹고, 화(火)를 꺼뜨리지 않아도 화(火)가 사라진다. 처방으로는 화광단(化狂丹)을 쓴다. [ 백출(白朮)·인삼(人蔘)·복령(茯苓) 각 1냥, 토사자(菟絲子)·반하(半夏) 각 3돈, 창포(菖蒲)·감초(甘草) 각 1돈, 부자(附子) 1푼. 이상을 물에 달여 복용한다. ] 1제(劑)를 쓰면 광증(狂證)이 안정되고, 다시 1제(劑)를 쓰면 병이 낫는다. [ 사권(四卷) ]

狂病多是熱症，然亦有不全是熱者，不可不辨也。狂之症同，而寒熱各異，熱症發狂，如岐天師之方，治之可也，倘寒症發狂，又將何以治之。凡人發狂，而止罵詈人，不口渴索飲，與之水不飲者 乃寒症之狂也。此得之氣鬱不舒，怒氣不能

發洩，其人平日必懦弱不振，今一日而狂病發作矣。治之法宜祛痰爲主，而佐以補氣之藥。方用速救寒狂丹 [ 人蔘、茯神各一兩，白朮五錢，半夏、南星、附子各一錢，菖蒲三分。水煎服。 ] 此方之妙，全在補氣，而不十分祛痰。蓋寒症發狂，與癇症同治，方內再加柴胡一錢，以舒其旺木之鬱氣，尤易奏效。 [ 生治 ]

광병(狂病)은 열증(熱證)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모두 열증은 아니므로 판별해야만 한다. 같은 광증(狂證)이라도 한증(寒證)과 열증(熱證)의 차이가 있다. 열증으로 미친 경우는 기천사(岐天師)의 처방 등으로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한증(寒證)으로 미친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가. 사람이 미쳤지만 남에게 욕하지 않고 입이 말라 물을 찾지도 않으며 물을 주어도 마시지 않는 것이 한증의 광병이다. 이것은 기울(氣鬱)이 풀어지지 않고 분노가 해소되지 않아 생긴다. 환자는 평소 유약하고 조용한 편이지만 하루 아침에 광병(狂病)이 발작한다. 치료법은 담(痰) 제거를 위주로 하고 기(氣)를 보하는 약으로 돕는다. 처방으로는 속구한광단(速救寒狂丹)을 쓴다. [ 인삼(人蔘)、복신(茯神) 각 1냥, 백출(白朮) 5돈, 반하(半夏)、남성(南星)、부자(附子) 각 1돈, 창포(菖蒲) 3푼. 물에 달여 복용한다. ] 이 처방의 오묘함은 전부 기(氣)를 보한다는 점에 있으니 담(痰)을 제거하는데 주력하지 않는다. 한증의 광병은 간증(癲證)과 같은 방법으로 치료한다. 처방 속에 다시 시호(柴胡) 1돈을 더하여 왕성한 목(木)의 울결된 기운을 풀어주면 더욱 쉽게 효과를 볼 것이다. [ <생치(生治)> ]

痰結在胃，不能吐出，狂言如見鬼狀，時發時止，氣塞胸堂。以牛肉五斤，水二斗煎湯飲之，至不食而止，以鵝翎吞吐，必大吐，必吐至如塊黃色頑痰而後止。若不吐出，再飲之，必以吐盡而止。前病既失，後以〔陳皮、茯苓、甘草、白朮〕，湯徐徐飲之。平復如故。〔倒治〕

담(痰)이 위(胃)에 맏혀 뱉을 수 없고, 귀신을 보았다는 등 미친 말을 하는데 발작했다 그쳤다 하며, 가슴 속에 기(氣)가 막혔을 때. 우육(牛肉) 5근을 물 2말에 넣고 달여 마신다. 더 마실 수 없을 때까지 마시고 멈춘다. 그런 뒤에 오리 깃털로 목구멍을 자극하여 구토시키면 반드시 심하게 토한다. 반드시 덩어리처럼 단단하게 엉겨붙은 누런 담(痰)을 토한 뒤에 그만둔다. 만약 나오지 않으면 다시 마시게 하고 반드시 모두 토하게 한 뒤에 그만둔다. 앞의 병이 모두 사라진 뒤에 〔진피(陳皮)、복령(茯苓)、감초(甘草)、백출(白朮)〕을 달여 천천히 마시게 된다. 그러면 평상시처럼 회복된다. 〔〈도치(倒治)〉〕

乃人未死而若死者，用藥而生之者也，譬如發狂呆病是也。發狂多是熱病，登高而歌，棄衣而走，見水而入，罵詈之聲，叫喊殺人之語，不絕於口，舌上生芒刺，飲水不休，痰色光亮，面目火腫，是也。方用散胃白芥湯 〔石膏半斤，竹葉數百片，元蓼一斤，麥門冬五兩，白芥子、半夏各三兩，知母、人蓼、甘草各一兩。〕 先用糯米半斤煎湯一鍋，去其米粒，用湯半鍋，將前藥煎之，取數碗，彼索水時與之飲，隨索隨飲，飲盡必睡。急再用 元蓼至神湯 〔元蓼一斤，麥門冬半斤。〕 煎湯候之，一醒呼水，卽以此湯與之，彼亦欣然自飲，服完必又睡，又將渣煎湯候之，醒後再與，彼則不若從前之肯服，亦不必強，聽其自然而可也。後用 勝火神丹 〔元蓼六兩，熟地黃、麥門冬各三兩，山茱萸一

兩。] 煎三碗與之，一劑必愈，不必再與。 ○呆病，又不如是法治之。呆病，鬱抑不舒，憤怒而成者有之，羞恚而成者有之。方用治呆至神丹 [白芍藥四兩，茯苓三兩，人蔘、當歸、柴胡、半夏、生棗仁、菖蒲各一兩，甘草、神麴、南星、鬱金各五錢，附子炮一錢。] 水十碗煎一碗灌之。彼不肯服，以雙手執其頭髮，兩人拿其左右手，以一人托住下頰，一人將羊角去尖插入其口，一人以手拿住其頭，一人傾藥入羊角內灌之。倘或吐出不妨益妙，盡灌完爲主。彼必罵詈，少頃人困欲睡，聽其自醒，切勿驚動，使之<sup>2</sup>自醒來則全愈，驚醒來則半愈矣。 ○呆病無熱症，不必重說。 [生治]

생치(生治)라는 것은<sup>3</sup> 환자가 아직 죽지 않았으나 죽을 것 같을 때 약을 써서 살려내는 방법이다. 발광(發狂)이나 매병(呆病)과 같은 경우가 그것이다. 발광(發狂)은 주로 열병(熱病)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거나, 옷을 벗고 뛰어 다니거나, 물을 보면 뛰어 들거나, 욕설이나 죽이겠다는 고함소리가 입에서 끊이지 않거나, 허 위에 헛바늘이 돋거나, 쉬지 않고 물을 마시거나, 가래 색이 밝게 빛나거나, 얼굴과 눈이 충혈되고 붓는 증상이 나타난다. 처방으로는 산위백개탕(散胃白芥湯)을 쓴다. [석고(石膏) 반 근, 죽엽(竹葉) 수백 쪽, 원삼(元蔘) 1근, 맥문동(麥門冬) 5냥, 백개자(白芥子)·반하(半夏) 각 3냥, 지모(知母)·인삼(人蔘)·감초(甘草) 각 1냥.] 먼저 작은 술 1개 만큼의 물에 찹쌀 반 근을 넣고 끓인 뒤 쌀알을 제거하고 작은 술 절반 만큼의 찹쌀 끓인 물로 앞의 약재를 달여 몇 사발의 탕약을 만든다. 환자가 물을 찾을 때 이것을 마시게 한다. 물을 찾을 때마다 마시게 하는데 다 마시고 나면 반드시 잠을 잔다. 급히 다시 원맥지신탕(元麥至神湯)을 쓴다. [원삼(元蔘) 1근, 맥문동(麥門冬) 반 근.] 이 약재를 달여 두었다가 환자가 잠에서 깨어나 물을 찾으면 이 탕약을



주는데 환자가 또한 흔쾌히 스스로 마시고 다 마시고 나면 반드시 또 잔다. 다시 달이고 남은 약 찌꺼기를 달여 두었다가 환자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다시 준다. 만약 환자가 전처럼 기꺼이 복용하지 않으면 강요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된다. 그런 뒤에 승화신단(勝火神丹)을 쓴다. [ 원삼(元蔘) 6냥, 숙지황(熟地黃)·맥문동(麥門冬) 각 3냥, 산수유(山茱萸) 1냥. ] 이 약재를 3사발 달여 복용시킨다. 1제(劑)를 쓰면 반드시 나을 것이고 다시 쓸 필요가 없다. ○매병(呆病)은 이렇게 치료하지 않는다. 매병은 억울함이 풀리지 않은 것으로, 분노로 생긴 경우가 있고 치욕으로 생긴 경우가 있다. 처방으로는 치매지신단(治呆至神丹)을 쓴다. [ 백작약(白芍藥) 4냥, 복령(茯苓) 3냥, 인삼(人蔘)·당귀(當歸)·시호(柴胡)·반하(半夏)·산조인(山棗仁) ( 날것 )·창포(菖蒲) 각 1냥, 감초(甘草)·신국(神麴)·남성(南星)·울금(鬱金) 각 5돈, 부자(附子) ( 잿불에 묻어 구운 것 ) 1돈. ] 이 약재를 물 10사발에 넣고 1사발이 될 때까지 달여 복용시킨다. 환자가 먹으려하지 않으면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두 사람이 환자의 왼손과 오른손을 붙잡고, 한 사람이 아래턱을 벌리고, 한 사람은 뽕족한 끝을 잘라낸 양뿔을 환자의 입에 넣으며, 한 사람은 손으로 환자의 머리를 고정하고, 한 사람은 약을 기울여 양뿔 속에 부어준다. 만약 환자가 약을 토해도 상관 없고 효과가 더 좋다. 약을 다 부을 때까지 한다. 환자가 분명 욕을 할 것이나 조금 지나 피곤해 하며 잠을 잘 것이다. 스스로 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려야 하며 절대로 놀라게 해서는 안된다. 환자가 스스로 잠에서 깨어나면 모두 낫지만, 놀라서 깨어나면 반만 낫는다. ○매병(呆病)은 열증(熱證)이 없다. 중복하여 설명하지 않겠다. [ 〈생치(生治)〉 ]

呆病如癡而默默不言也，如飢而悠悠如失也。意欲癲而不能，心欲狂而不敢。有時睡眠數日不醒，有時坐數日不眠，有時將已身衣服密密縫補，有時將他人物件深深藏掩，與人言則煎語<sup>4</sup>而神遊，背人言則低聲而泣訴，與之食則厭薄而不吞，不與食則吞炭而若快。此等症雖有崇憑之，實亦胸腹之中，無非痰氣，故治呆無奇法，治痰即治呆也。然而痰勢最重，呆勢最甚，若以尋常二陳湯治之，安得有效。方用逐呆仙丹。〔茯神三兩，白朮二兩，人蔘、白芥子、兔絲子各一兩，半夏五錢，白薇、丹參各三錢，附子五分。〕研末，先將各藥煎湯，調朱砂末。與半碗，彼不肯服，以炭詒之，欣然服之。又詒之又服半碗，然後聽其自便，彼必倦怠欲臥矣。乘其熟睡，將其衣服被褥盡行火化，單留身上所服之衣，別用新被蓋之，切不可驚醒。此一睡有睡至數日者，醒來必覓衣而衣無，覓被而被非故物，彼必大哭，然後又以前藥一劑與之，彼不肯服，即詒之以炭，亦斷不肯矣。不妨以鞭責之，動其怒氣，用有力人，將前藥執而灌之，彼必大怒，已而又睡去矣。此時斷須預備新鮮衣服被褥等頃<sup>5</sup>。俟其半日即醒，彼見滿房皆是親人，心中恍惚如悟，必又大哭不已，諸人當以好言勸之，彼必說出鬼神之事，親人說幸某人治療，已將鬼神盡行祛遣，不必再慮，彼聽之忻然而病亦痊愈。〔四卷〕

매병(呆病)은, 바보처럼 멍하게 말을 하지 않거나 굶어서 정신이 나간 듯 한 것이다. 정신이 전증(癲證)과 같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광증(狂證)과 같지만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 어떤 때는 며칠을 깨지 않고 잠만 자고, 어떤 때는 며칠을 잠들지 않고 깨어있으며, 어떤 때는 자기 몸을 옷으로 껴매고, 어떤 때는 남의 물건을 깊이 숨겨 둔다. 대화를 하려고 하면 말하지 않고 정신이 나간 듯하고, 대화를 멈추려 하면 낮은 목소리로 울먹이며 하소연한다. 음식을 주면 싫어하며 먹지 않고, 음식을 주지 않으면 재를 먹고 기뻐한다. 이 증상은

귀신 들린 듯하지만 사실은 가슴과 배 속에 담기(痰氣)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매병 치료에 특별한 방법이 없고 담(痰)을 치료하는 것이 매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그러나 담기(痰氣)의 세력이 매우 강력하고 매병의 병세가 매우 심각하니 어찌 이진탕(二陳湯) 같이 보통 담병(痰病)에 쓰는 처방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겠는가. 처방으로 축매선단(逐呆仙丹)을 쓴다. [ 복신(茯神) 3냥, 백출(白朮) 2냥, 인삼(人蔘)·백개자(白芥子)·토사자(菟絲子) 각 1냥 반, 반하(半夏) 5돈, 백미(白薇)·단삼(丹蔘) 각 3돈, 부자(附子) 5푼. ] 이 약들을 가루낸다. 먼저 이 약재들을 달인 다음 주사(朱砂) 가루를 탄 뒤 반 사발을 복용시킨다. 환자가 먹으려 하지 않을 때 재라고 속이면 기쁘게 복용한다. 다시 속이고 반 사발씩 복용시킨 뒤에 환자가 안정되기를 기다리면 환자는 반드시 나른하여 잠을 잘 것이다. 환자가 깊이 잠든 사이에 환자의 옷과 이불을 모두 태워버리되 몸에 걸친 옷만 남겨두고 따로 새로운 이불로 덮어준다. 이때 절대로 환자를 깨워서는 안된다. 이렇게 한 번 잠이 들어 며칠 동안 잠을 잔 뒤에 깨어나서 반드시 옷을 찾으냐 옷이 없고 이불을 찾으냐 전의 이불이 아니므로 환자는 분명 크게 울 것이다. 그런 뒤에 앞의 약 1제(劑)를 복용시키는데 환자가 복용하려하지 않을 때 재라고 속여도 먹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채찍을 들고 야단쳐서라도 환자의 화를 돋우고 힘 센 이에게 앞의 약을 억지로 먹이게 하면 환자가 반드시 크게 화를 낼 것이고 화가 가라앉으면 또 잠을 잘 것이다. 이때 반드시 새 옷과 이불 등을 준비해야 한다. 반나절을 기다리면 환자가 곧 깨어나는데, 친한 사람들이 방에 모여 있는 것을 환자에게 보여주면 환자는 무언가 깨달은 듯 가슴 속에서 어슴푸레 떠오르는 것이 있어 반드시 그칠 줄 모르고 크게 울 것이다. 사람들이 좋은 말로 환자를 격려해주어야 한다. 그러면 환자

는 분명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꺼낼 것이다. 가까운 사람들이 다행스럽게도 그가 치료되어 이미 귀신이 다 물러갔으므로 다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고, 환자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병도 다 낫는다. [사권(四卷)]

子<sup>6</sup> 癰癩之症，亦累歲經年而未愈，乃痰入心竅之間而不能出。喜食炭者，蓋心火爲痰所迷，不得發洩，炭乃火之餘，與心火氣味相投，病人食之，竟甘如飴也。方用啓迷奇效湯。[人蔘二兩，朱砂末五錢，南星、鬼箭羽、柴胡、白芍各三錢，半夏、菖蒲各二錢，附子、肉桂各一錢。] 先將前藥煎湯。飲之二碗，丹砂末一半調入藥中，與病人服之。彼不肯服，即以炭詒之，服了與汝炭吃，彼必欣然服後索炭也，不妨仍與之炭。第二服亦如前法，彼不若前之欣然，當令人急灌之，不聽，不妨打之以動其怒氣，氣怒則肝木火起，以生心火，反能祛痰矣。○別有一方，亦奇妙方。[白芍藥三兩，人蔘一兩，白芥子、柴胡各五錢，半夏、膽南星、茯神、菖蒲各三錢，附子一錢] 水十碗煎至二碗。先與一碗服之，必倦怠急再灌一碗，必睡熟，有睡至一二日者，切不可驚醒，如死人一般，任其自醒。醒來病如失，即索飲食，說從前之病，不可即與飲食，飢半日，與之米粥，湯加[白芥子五錢，人蔘、陳皮各五分]，水煎<sup>7</sup>與之。彼亦欣然自服，服後再睡，亦聽其自醒，則永不再發矣。[遠治]

전간(癰癩)이라는 증상도, 오랜 세월 동안 병이 낫지 않아서 담(痰)이 심구(心竅) 사이로 들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 재를 먹으려 하는 것은, 심화(心火)가 담(痰) 때문에 막혀서 빠져나가지 못하는데, 재는 불이 타고 남은 것으로 심화(心火)와 기미(氣味)가 서로 통하므로 환자가 먹으면 도리어 옛처럼 맛이 달다고 느낀다. 처방으로는 계미기효탕(啓迷奇效湯)을 쓴다. [인삼(人

蓼) 2냥, 주사(朱砂) ( 가루 낸 것 ) 5돈, 남성(南星)·귀전우(鬼箭羽)·시호(柴胡)·백작약(白芍藥) 각 3돈, 반하(半夏)·창포(菖蒲) 각 2돈, 부자(附子)·육계(肉桂) 각 1돈. ] 먼저 앞의 약재를 달여 2사발 마시게 하는데, 단사(丹砂) 가루를 절반 씩 약에 섞어 환자에게 복용시킨다. 환자가 마시려고 하지 않으면 재로 회유하는데, 약을 복용하고 나면 재를 먹게 해주겠다고 하면 환자는 분명 기쁘게 약을 마신 후 재를 달라고 할 것이다. 재를 주어도 상관 없다. 2번째도 이 방법으로 복용시킨다. 환자가 전처럼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사람을 시켜 재 빨리 입에 넣어 주어야 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때려서 화를 내게 해도 상관 없다. 화를 내면 간목(肝木)의 화(火)가 일어나 심화(心火)를 살리고 반대로 담(痰)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처방 하나가 있으니 이 역시 효과가 좋다. [ 백작약(白芍藥) 3냥, 인삼(人蔘) 1냥, 백개자(白芥子)·시호(柴胡) 각 5돈, 반하(半夏)·우담남성(牛膽南星)·복신(茯神)·창포(菖蒲) 각 3돈, 부자(附子) 1돈. ] 이 약재를 물 10사발에 넣고 2사발이 되도록 달인다. 먼저 1사발을 주어 복용시키면 분명 나른해 할 것이고, 이때 급히 다시 1사발을 입에 넣어 주면 분명 깊이 잠들 것이다. 하루 이를 동안 잠자는 경우도 있다. 절대로 놀래켜 깨워서는 안되며 죽은 사람처럼 보이더라도 환자가 스스로 깨어나기를 기다린다. 깨어나면 병이 없어진 듯하고, 곧 음식(飮食)을 찾을 것이다. 이전 병에 대해 설명하고 바로 음식(飮食)을 주지 말고 반나절 굶게 한 뒤에 미음을 주되, 미음에 [ 백개자(白芥子) 5돈, 인삼(人蔘)·진피(陳皮) 각 5푼 ] 을 넣고 끓여 준다. 환자가 또한 기쁘게 스스로 먹고 먹은 뒤에 다시 잠이 들 것인데, 환자가 스스로 잠이 깨기를 기다리면 영원히 재발하지 않는다. [ 〈원치(遠治)〉 ]

癲病之生，多於脾胃之虛寒，脾胃虛寒，則所養水穀不爲精，而反變爲痰，痰凝胸膈之間不得流<sup>8</sup>，化<sup>9</sup>於心而癲症生矣。苟徒治痰而不補氣，則未有不速死者矣。當用祛癲湯。〔白朮一兩，人蔘、白芥子各五錢，半夏三錢，肉桂、乾薑、陳皮各一錢，菖蒲、甘草各五分。〕水煎服。○惟是花癲之症，乃女子思想其人，而心邪之所祟，然而亦因脾胃之寒，而邪入之故也。本方加〔白芍藥一兩，炒梔子三錢，柴胡二錢，去肉桂〕，治之最神。一劑而癲止矣。〔花癲治法見下〕

전병(癲病)은 비위(脾胃)가 허한(虛寒)하여 생겨나는 경우가 많다. 비위(脾胃)가 허한(虛寒)하면 소화된 음식이 정(精)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담(痰)으로 변질되게 되고, 담(痰)이 흉격(胸膈) 속에 엉겨붙어 사라지지 않고 심(心)으로 흘러들어 전증(癲證)이 생겨난다. 만약 담(痰)만 치료하고 기(氣)를 보하지 않으면 바로 죽게 된다. 거전탕(祛癲湯)을 써야 한다. [ 백출(白朮) 1냥, 인삼(人蔘)、백개자(白芥子) 각 5돈, 반하(半夏) 3돈, 육계(肉桂)、건강(乾薑)、진피(陳皮) 각 1돈, 창포(菖蒲)、감초(甘草) 각 5푼.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오직 이 화전(花癲)이라는 증상은 여자가 누군가를 그리워하여 심(心)에 샅된 기운이 든 것이지만, 또한 비위(脾胃)의 한(寒) 때문에 샅된 기운이 들어온 것이다. 본래 처방에 [ 백작약(白芍藥) 1냥, 치자(梔子) ( 볶은 것 ) 3돈, 시호(柴胡) 2돈을 더하고, 육계(肉桂)를 빼고 ] 치료하면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 1제(劑)를 쓰면 전증(癲證)이 그친다. [ 화전(花癲)의 치료법은 뒤에 나온다. ]

癲癇之症，多因氣虛有痰，一時如暴風疾雨，猝然而倒，口吐白沫，作牛羊馬聲，種種不同，治之不得法，往往有死者。吾今留一方，名祛痰定癲湯。〔白朮、白芍藥各五錢，茯神、人蔘半夏各三錢，甘草、陳皮、菖蒲各一錢，附子一片。水煎服。〕

전간(癲癇)의 증상은 기(氣)가 허한데 담(痰)이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폭풍우가 내리듯이 단번에 갑자기 쓰러져 입에 흰 거품을 물고 소나 양이나 말의 울음 소리를 내는데 증세가 다양하여 적당한 치법을 쓰지 못해 종종 죽게 된다. 지금 나에게는 거담정전탕(祛痰定癲湯)이라는 이름의 처방이 있다. [ 백출(白朮)、백작약(白芍藥) 각 5돈, 복신(茯神)、인삼(人蔘)、반하(半夏) 각 3돈, 감초(甘草)、진피(陳皮)、창포(菖蒲) 각 1돈, 부자(附子) 1쪽.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

我亦有方，治牛馬之癲，雖與羊癲同治，而証實各異。方用 〔白朮五兩，人蔘三兩，生南星、半夏、甘草各一兩，陳皮三錢，附子一錢。〕 右爲末蜜丸。須病未發前服之。永不再發。大畧，羊癲小兒居多，牛馬癲大人居多也。〔生治〕

나에게도 우전(牛癲)、마전(馬癲)을 치료하는 처방이 있다. 비록 양전(羊癲)도 똑같이 치료하지만 증상은 실제로 다르다. 다음과 같은 처방을 사용한다. [ 백출(白朮) 5냥, 인삼(人蔘) 3냥, 남성(南星) ( 날것 )、반하(半夏)、감초(甘草) 각 1냥, 진피(陳皮) 3돈, 부자(附子) 1돈. ] 이 약재를 가루 내어 꿀로 환(丸)을 빚는다. 반드시 병이 발작하기 전에 복용해야 한다. 약을 쓰면 영원히 재발하지 않는다. 대체로 양전(羊癲)은 어린이에게 많고, 우전(牛癲)、마전(馬癲)은 어른에게 많다. [〈생치(生治)〉]

舉二以類推，不必盡傳也。如人病花癲，婦人忽然癲癇，見男子則抱住不肯放。此乃思慕男子不得，忽然得病，如暴風疾雨，罔識羞恥，見男則以爲情人也。此肝木枯槁，內火燔盛，脉必弦出寸口。法當用平肝散鬱祛邪之味。一方亦天師所傳，用散花怯癲湯。〔白芍藥一兩，白芥子、柴胡、麥門冬、當歸各五錢，炒山梔子、玄蔘、茯神各三錢，菖蒲、甘草各一錢。水煎服。〕 如不肯服藥，用人灌之，彼必罵詈，不休久之，人倦欲臥。臥後醒來，自家羞恥，緊閉房門者，三日少少與之飲食，自愈。一劑後，不必更與之藥也。〔生治〕 ○更有羊癲之症，忽然臥倒，作羊馬之聲，口中吐痰如湧多<sup>10</sup>，痰迷心竅，因寒而成，感寒則發也。方用回癲湯。〔白朮一兩，茯神、薏苡仁各五錢，人蔘、山藥、半夏各三錢，肉桂、附子各一錢。〕 水煎服。〔生治〕

2가지 예시를 들면 나머지도 알 수 있으므로 모두 전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화전(花癲)을 앓으면 부인(婦人)이 갑자기 전간(癲癇) 증세가 나타나고 남자를 보면 끌어안고 놓아주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모하는 남자와 이루어지지 않아 폭풍우 치듯 갑자기 병이 생겨난 것으로 수치스러움을 알지 못하고 남자를 보면 정인으로 여긴다. 이것은 간목(肝木)이 시들어 안에서 화(火)가 치성했기 때문으로, 맥(脈)을 보면 반드시 촌구(寸口) 부위에서 현맥(弦脈)이 나타난다. 치료에는 간기(肝氣)를 고르게 하고 울체된 것을 풀어주며 사된 기운을 몰아내는 약재를 써야 한다. 천사(天師)께서 전하진 산화겁전탕(散花怯癲湯)이 있다. [ 백작약(白芍藥) 1냥, 백개자(白芥子)、시호(柴胡)、맥문동(麥門冬)、당귀(當歸) 각 5돈, 산치자(山梔子) ( 볶은 것 )、현삼(玄蔘)、복신(茯神) 각 3돈, 창포(菖蒲)、감초(甘草) 각 1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약을 복용하려고 하지 않으면 사람을 시켜 입 안에 넣어준다. 그러면 환자



는 분명 욕을 하는데 쉬지 않고 오래 하고 나서 지쳐 잠을 자려 할 것이다. 잠에서 깨어나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방문을 닫아버리는데 3일째 되었을 때 천천히 음식을 주면 절로 낫는다. 1제(劑)를 복용시킨 뒤에 다시 쓸 필요가 없는 약이다. [〈생치(生治)〉] ○다른 예로 양전(羊癲)의 증상이 있다. 갑자기 쓰러져 양이나 말 울음 소리를 내고 입속의 가래를 뱉어내듯 토하는 증상이다. 담(痰)이 심규(心竅)를 막은 상태에서 한(寒)하여 병이 생기므로 한사(寒邪)를 만나면 증상이 발작한다. 처방으로는 회전탕(回癲湯)을 쓴다. [백출(白朮) 1냥, 복신(茯神)·익이인(薏苡仁) 각 5돈, 인삼(人蔘)·산약(山藥)·반하(半夏) 각 3돈, 육계(肉桂)·부자(附子) 각 1돈.]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생치(生治)〉]

神病不治症 [內經曰, 得神者昌, 失神者亡。失神者, 謂失精神而昏亂者也。○靈樞曰, 癲疾, 嘔多沃沫, 氣下泄, 不治。○癲癇之病, 乍作乍醒者甦, 不食迷痴者死。(得效) ○凡癲狂癇之病, 若神脫而目瞪如愚痴者, 不可治。(正傳) 靈樞曰, 癲疾者, 疾發如狂, 死不治。]

신병(神病)의 불치증 [《내경(內經)》에서 말하였다. "신(神)을 얻은 자는 살고, 신을 잃은 자는 죽는다." 신을 잃는다는 것은 정신을 잃어 의식이 온전치 못한 것을 말한다. ○《영추(靈樞)》에서 말하였다. "전질(癲疾)을 앓을 때 거품을 많이 토하고 방귀가 나오면 치료할 수 없다." ○전간(癲癇)을 앓을 때 발작했다 깨어났다 하면 살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바보처럼 행동하면 죽는다.

(《득효(得效)》) ○전(癲)·광(狂)·간(癇)을 앓을 때 정신이 나가서 바보처

럼 눈을 멍하니 뜨고 있으면 치료할 수 없다. (《정전(正傳)》) 《영추(靈樞)》에서 말하였다. "전질(癲疾)을 앓았을 때 광병(狂病)처럼 발작하면 치료하지 못하고 죽는다." ]

1. 중경(中景) : 중국 후한(後漢) 시대 의학자 장기(張機)의 자(字) <

2. 使之 : 使彼 ※《석실비록》 <

3. 《석실비록》을 참고하여 번역을 보충하였다. <

4. 煎語 : 無語 ※《석실비록》 <

5. 頃 ⇨ 頃 ※《석실비록》 <

6. 子 : 《석실비록》에 없다. 연문으로 보고 번역하지 않았다. <

7. 水煎 : 煎粥 ※《석실비록》 <

8. 流 ⇨ 化 ※《석실비록》 <

9. 化 ⇨ 流 ※《석실비록》 <

10. 多 ⇨ 者 ※《석실비록》 <

## 血 혈

陰血生於水穀 [ 血乃水穀之精變成，生化於脾，生息<sup>1</sup>於心，藏於肝，布於肺，施於腎，脉絡臟腑耳目手足，資爲運用。然陰道易虧，一有感傷，調理失宜，以致陽盛陰虛，錯經妄行，火載則上升，挾濕則下行，是以上溢清道，從鼻而出，爲衄，留滯濁道，從胃脘而出，爲血唾，滲入腸間，從下部而出，爲血痢，結於腸胃，則成積而爲血瘕。分經言之，嘔吐，胃也，咳唾衄，脾也，痰帶血，脾也，咯血衄<sup>2</sup>，腎也，溺血，小腸膀胱也，下血，大腸也，牙宣，胃或腎虛炎也。又血從汗孔出者，謂之肥衄<sup>3</sup>，從舌出者，謂之舌衄，心與肝也，從委中出者，謂之臑血，腎與膀胱<sup>4</sup>也。大槩逆行難治，順行易治也。(醫鑑) ]

음혈(陰血)은 음식에서 생김 [ 혈(血)은 음식의 고갱이가 변하여 이루어진다. 비(脾)에서 생겨나 변하고, 심(心)에서 조절되고 증식되며, 간(肝)에 저장되고, 폐(肺)에서 퍼뜨리며, 신(腎)에서 이 내보낸다. 경락·장부·눈·귀·손·발이 혈 덕분에 기능한다. 그렇지만 음(陰)은 쉽게 이지러지니 한번 손상되거나 조리를 잘 하지 못하면 양(陽)은 치성해지고 음(陰)은 허해지기 때문에 혈액에서 벗어나 함부로 돌아다닌다. 화(火)와 만나면 위로 올라가고 습(濕)과 만나면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므로 호흡기 쪽으로 넘치면 코를 통해 나와 코피가 된다. 소화기 쪽에 정체되면 위완(胃脘)을 통해 나와 침에 피가 섞인다. 장(腸) 속에 스며들면 항문을 통해 나와 피가 섞인 이질(痢疾)이 된다. 위(胃)와 장(腸)에 맏히면 적(積)을 이루게 되어 혈가(血瘕)가 된다. 경락을 구분하여 말하

면 다음과 같다. 구토할 때 피가 나오는 것은 위(胃)에 속한다. 기침할 때 침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은 폐(肺)에 속한다. 가래에 피가 있는 것은 비(脾)에 속한다. 각혈(咯血)은 신(腎)에 속한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은 소장(小腸)·방광(膀胱)에 속한다. 항문으로 피가 나오는 것은 대장(大腸)에 속한다. 잇몸이 들려 피가 나는 것은 위(胃)에 속하거나 신(腎)이 허하여 화(火)가 타오른 것이다. 피가 땀구멍에서 나는 것을 기누(肌衄)이라고 한다. 피가 혀에서 나는 걸 설누(舌衄)이라고 하니 심(心)과 간(肝)에 속한다. 피가 위중혈(委中穴)에서 나는 것을 곽혈(脇血)이라 하니 신(腎)과 방광(膀胱)에 속한다. 대체로 피가 날 때 위로 역행하여 나면 치료하기 힘들고 아래로 순행하여 나면 쉽게 치료된다. (《의감(醫鑑)》) ]

血爲氣配 [ 夫血譬則水也。氣譬則風也。風行水上，有血氣之狀焉。蓋氣者，血之師也。氣行則血行，氣止則血止，氣<sup>5</sup>濕則血滑，氣寒則血澁，氣有一息之不振，則血有一息之不行。病出於血，調其氣，猶可以導達，病源於氣，區區調血，何加焉。故人之一身，調氣爲上，調血次之，是亦先陽後陰之理也。(直指) ]

혈(血)은 기(氣)의 짝이 됨 [ 혈(血)은 물과 같고 기(氣)는 바람과 같다. 바람이 물 위로 부는 것이 혈과 기의 모습이다. 기는 혈을 이끌고 다닌다. 기가 흐르면 혈이 흐르고 기가 멈추면 혈이 멈추며, 기가 따뜻하면 혈이 매끄럽게 흐르고 기가 차가우면 혈이 잘 흐르지 못한다. 기가 잠시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혈도 그만큼 흐르지 못한다. 병이 혈에서 생겼을 때는 기를 다스려도 치료할 수 있

지만, 병이 기에서 생겼을 때 혈만 다스린다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러므로 사람의 몸에서는 기를 다스리는 것이 우선이고 혈을 다스리는 것이 그 다음이다. 이것이 바로 '선양후음(先陽後陰)'의 뜻이다. (《직지(直指)》) ]

人有病吐血者，似乎胃經之病，而不知非胃乃腎太<sup>6</sup>之冲上也。若只治胃則胃氣益傷，胃傷則無以輸精於腎，而腎水益虛腎火愈熾，吐血無已也。法當補腎水，水足而火不上沸矣。方用六味地黃湯加麥門冬、五味子。大劑吞飲，則血症可痊。否則用寒涼之品，暫時止血，而血之冲上，安能止抑哉。〔偏治〕

토혈(吐血)은 위경(胃經)의 병처럼 보이지만 위(胃)가 아니라 신화(腎火)가 치밀어 올라 생겼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만약 위(胃)만 치료하면 위기(胃氣)가 더욱 손상되고, 위(胃)가 손상되면 신(腎)으로 정(精)을 운반할 수 없어서 신수(腎水)가 더욱 허해지고 신화(腎火)가 더욱 치성하여 토혈(吐血)이 그치지 않게 된다. 마땅히 신수(腎水)를 보해야 하니 신수가 충분해진 뒤에 화(火)가 끓어오르지 않게 된다. 처방으로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에 맥문동(麥門冬)、오미자(五味子)를 더하여 쓴다. 이 처방을 많이 쓰면 토혈 증상이 모두 낫는다. 그렇지 않으면 한량(寒涼)한 성질의 약재가 잠시 혈(血)을 그치게 하겠지만 치밀어 오르는 혈(血)을 어찌 억누를 수 있겠는가. [〈편치(偏治)〉]

凡人感傷暑氣，忽傾盆吐血<sup>7</sup>，人皆謂是陰虛，不知陰虛吐血與陽虛吐血不同也。陰虛吐血者，人必安定，不似陽虛之燥動<sup>8</sup>不寧也。陽虛，必大熱作渴，欲飲凉水者，舌必有刺，不似陰症之口不渴而舌胎滑也。法當清胃火，不必止其血。方用

祛暑吐血湯。〔青蒿五錢，石膏、香薷、當歸、人蔘各三錢，荊芥一錢。水煎服。〕 但此方，只可用一二劑，即以改用六味地黃湯，以滋其陰水，水足則陽火自消耳。〔陽治〕

사람이 서기(暑氣)에 손상되어 갑자기 심하게 피를 토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들은 모두 음허(陰虛)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음허(陰虛)의 토혈(吐血)과 양허(陽虛)의 토혈(吐血)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다. 음허(陰虛)로 인한 토혈(吐血)일 때는 환자가 반드시 안정하니, 양허(陽虛)로 인한 경우에 환자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불안한 것과 다르다. 양허(陽虛)는 반드시 열이 많이 나고 갈증이 나서 차가운 물을 마시려 하며 반드시 헛바늘이 돋는다는 점이 입이 마르지 않고 설태(舌苔)가 미끈한 음증(陰證)과 다르다. 마땅히 위화(胃火)를 식혀야 하며 혈(血)을 멈추게 할 필요는 없다. 처방으로는 거서토혈탕(祛暑吐血湯)을 쓴다. 〔청호(靑蒿) 5돈, 석고(石膏)、향유(香薷)、당귀(當歸)、인삼(人蔘) 각 3돈, 형개(荊芥) 1돈.〕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다만 이 처방은 1~2제(劑)만 사용해야 하며 바로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으로 바꾸어 신(腎)의 음수(陰水)를 보충해야 한다. 신수(腎水)가 충분해지면 양화(陽火)가 절로 꺼지게 될 뿐이다. 〔〈양치(陽治)〉〕

吐血之症，或傾盆，或盈碗，若不急以收斂，則吐將安底。然而一味酸收寒遏，則血勢更旺，愈足以恣其崩騰之勢。不若從其性，而少加以收斂之品，則火寢息而血歸經也。方用 〔人蔘、當歸各一兩，酸棗仁、三七根各三錢。〕 水煎服。  
〔斂治〕

토혈(吐血)을 할 때 쏟아붓는 듯 격렬하거나 주발을 채울 만큼 양이 많은 경우도 있다. 이때 급히 수렴시키지 않는다면 토혈이 어찌 멈추겠는가. 그러나 약을 쓸 때 신 맛으로 수렴시키고 차가운 성질로 틀어막으면 혈(血)의 세력이 더욱 왕성해져서 터져나오는 형세를 더욱 부추긴다. 병의 성질에 따르고 여기에 수렴시키는 약재를 조금 더하여 화(火)를 식히고 혈(血)이 경맥(經脈)으로 돌아 가게 하는 것만 못하다. 다음과 같은 처방을 사용한다. [ 인삼(人蔘)·당귀(當歸) 각 1냥, 산조인(酸棗仁)·삼칠근(三七根) 각 3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서 복용한다. [ 〈염치(斂治)〉 ]

失血之症，有從口鼻出者，有從九竅出者，有從手足皮毛之孔而出者，症似各異，吾有一方可統治，名收血湯。[ 熟地黃二兩，生地黃、當歸、黃芪各一兩，三七根末三錢，荊芥一錢。 ] 水煎服。[ 內傷 ]

실혈(失血)의 증상은, 입이나 코에서 피가 나는 경우, 구구(九竅)에서 피가 나는 경우, 팔다리 피모(皮毛)의 구멍에서 피가 나는 경우 등 증상이 각각 다른 듯하다. 하지만 나에게 있는 수혈탕(收血湯)이라는 이름의 처방으로 모두 치료할 수 있다. [ 숙지황(熟地黃) 2냥, 생지황(生地黃)·당귀(當歸)·황기(黃芪) 각 1냥, 삼칠근(三七根) ( 가루 낸 것 ) 3돈, 형개(荊芥) 1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 〈내상(內傷)〉 ]

人有大怒而吐血者，或傾盆而出，或冲口而來，一時昏暈，亦生死頃刻也。倘以止血藥治之，則氣悶而不能安，倘以補血藥治之，則胸痛而不可受，往往有變症蜂起而斃者，不可不治之得法也。方用解血平氣湯。[ 白芍藥、當歸各二兩，荊

芥炒黑、梔子炒各三錢，紅花二錢，甘草一錢，柴胡八分。水煎服。】 一劑而  
氣舒，二劑而血止，三劑而病全愈矣。【內傷】

사람이 크게 화를 내고 나서 피를 토하면, 사발을 채울 만큼 양이 많거나 입에  
서 뽀뽀 격렬하게 나오며, 한 순간 정신을 잃고 생사가 경각에 달리게 된다. 만  
약 혈(血)을 그치게 하는 약으로 치료하면 숨쉬기 갑갑해지고 안정되지 않는  
다. 만약 혈(血)을 보하는 약으로 치료하면 가슴이 아프고 회복되지 않는다. 이  
렇게 종종 번질된 증상이 마구 일어나 죽는 경우가 있으므로 치법이 이치에 부  
합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처방으로는 해혈평기탕(解血平氣湯)을 쓴다. 【백작  
약(白芍藥)、당귀(當歸) 각 2냥, 형개(荊芥) (검게 되도록 볶은 것)、치자  
(梔子) (볶은 것) 각 3돈, 홍화(紅花) 2돈, 감초(甘草) 1돈, 시호(柴胡) 8푼. 이  
상을 물에 달여 복용한다.】 1제(劑)를 복용하고 나서 기분이 풀리고, 2제(劑)  
를 복용하고 나서 혈(血)이 멈추며, 3제(劑)를 복용하고 나서 병이 완전히 낫는  
다. 【〈내상(內傷)〉】

人病目痛口舌生瘡，鼻中出血，口中吐血，是也。此等之症，乃火氣鬱勃于上  
焦，不能分散，故重則上冲，而爲吐血衄血，輕則目痛，而口舌生瘡也。法當用  
寒涼之品，以清其火熱燎原之勢，并瀉其炎上巔頂之威。方用 【生地黃、當歸  
各一兩，川芎、元蓼各五錢，黃芩、三七根末各三錢，甘草、荊芥炒各一錢。水  
煎服。】

눈이 아프고 입과 혀가 험며 코 속에서 피가 나고 입으로 피를 토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증상은 화기(火氣)가 상초(上焦)에 울체되어 흩어지지 못한 것이  
다. 그러므로 심하면 치솟아 올라 토혈(吐血)이나 육혈(衄血)이 생기고, 가벼



우면 눈이 아프고 입과 혀가 험다. 마땅히 한량(寒凉)한 성질의 약재를 써서 불  
이 타오르는 기세를 식히고 아울러 정수리로 타오르는 세력을 꺾어야 한다. 다  
음과 같은 처방을 사용한다. [ 생지황(生地黃)·당귀(當歸) 각 1냥, 천궁(川  
芎)·원삼(元蔘) 각 5돈, 황금(黃芩)·삼칠근(三七根) ( 가루 낸 것 ) 각 3돈,  
감초(甘草)·형개(荊芥) ( 볶은 것 ) 각 1돈. 이상을 물에 달여 복용한다. ]

予有吐血治方傳之。生地黃汁一碗 [ 若無生地黃，則用乾地黃一兩，濃煎湯半  
碗。 ]，調三七根末三錢，炮薑作炭末五分，服之。一劑即止。血<sup>9</sup>神效，衄血亦  
可治。妙哉此方。 [ 寒治 ]

토혈(吐血)을 치료하는 나의 처방을 공개한다. 생지황(生地黃) 즙 1사발 [ 만  
약 생지황이 없으면 건지황(乾地黃) 1냥을 진하게 달여 반 사발 쓴다. ], 여기  
에 삼칠근(三七根) ( 가루 낸 것 ) 3돈, 생강(生薑) ( 숯이 되도록 잿불에 묻어  
구운 뒤 가루낸 것 ) 5푼을 타서 복용한다. 1제(劑) 복용하면 혈(血)이 멈춘다.  
토혈(吐血)에 효과가 매우 좋고, 육혈(衄血)도 치료할 수 있다. 참으로 신기한  
처방이로다. [ 〈한치(寒治)〉 ]

凡人一時有忽吐狂血者，人以爲火也。多用寒涼藥瀉火，乃火愈退而血愈多，或  
用止血藥治之而仍不效，此乃血不歸經之故。若再以瀉火寒涼之藥而重瀉之，未  
有不死者矣。當用補氣之藥，佐之歸經之味，不必止而自止矣。方用引血湯。

[ 當歸一兩，人蔘五錢，荊芥炒黑三錢，牡丹皮二錢。水煎服。 ] 一劑而血無  
不止矣。 [ 內傷 ]

어떤 사람이 한 순간 갑자기 맹렬히 피를 토하는 것을 사람들은 화(火)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주로 한량(寒凉)한 성질의 약재로 화(火)를 사하지만 화(火)가 물러날 수록 피를 더 많이 토한다. 또한 피를 멈추는 약재로 치료한 뒤에도 효과가 없다. 이는 혈(血)이 경맥(經脈)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다시 화(火)를 끄는 한량(寒凉)한 성질의 약재로 거듭 사하면 죽지 않는 경우가 없다. 마땅히 기(氣)를 보하는 약재를 쓰고 혈(血)을 경맥으로 돌려보내는 약재로 도와야 하니, 그렇게 하면 피를 멈추게 하지 않아도 절로 멈춘다. 처방으로는 인혈탕(引血湯)을 쓴다. [ 당귀(當歸) 1냥, 인삼(人蔘) 5돈, 형개(荊芥) ( 검게 되도록 볶은 것 ) 3돈, 목단피(牡丹皮) 2돈.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 1제(劑)를 쓰고 나서 혈(血)이 그치지 않는 경우가 없다. [ <내상(內傷)> ]

下血之症，其人之血虛，不言可知，似乎宜補其血矣。然血之下也，必非無故，非濕熱之相侵，即酒毒之深結。若不逐去其濕熱酒毒，而徒用止澁之味，則吾未見其下血之能止也。方用解酒散火湯。[ 熟地黃一兩，地榆、白芍藥、當歸、黃連各三錢，苦楝枝（即柞木）五錢，葛根、甘草各一錢。剉之。 ] 水煎服。一劑必下血更多，二劑畧少，三劑全愈。[ 通治 ]

하혈(下血)의 증상은, 환자의 혈허(血虛)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으니 혈(血)을 보해야 할 것만 같다. 그러나 혈(血)이 항문으로 나오는 것은 이유가 없지 않으니 습열(濕熱)이 함께 침입한 것이 아니라면 주독(酒毒)이 깊이 맺힌 결과이다. 습열(濕熱)과 주독(酒毒)을 몰아내지 않고 피를 멈추게 하는 약재만 사용했을 때 하혈(下血)이 멈추게 되는 경우를 나는 보지 못하였

다. 처방으로는 해주산화탕(解酒散火湯)을 쓴다. [ 숙지황(熟地黃) 1냥, 지유(地榆)、백작약(白芍藥)、당귀(當歸)、황련(黃連) 각 3돈, 고련지(苦楝枝) ( 곧 작목(柞木)이다. ) 5돈, 갈근(葛根)、감초(甘草) 각 1돈. 이 약재를 썰어 ] 물에 달여 복용한다. 1제(劑)를 쓰면 반드시 하혈(下血)이 더욱 심해지고, 2제(劑)를 쓰면 조금 줄어들며, 3제(劑)를 쓰면 모두 낫는다. [ 〈통치(通治)〉 ]

下血之症，多因酒成病，用解酒之品，可以成功，而殊不盡然也。世醫所用解酒之品，無過葛根、桑白皮而已。然而葛根不多服，而桑白皮又氣味輕清，不可專任此二味，所以解酒，而酒病終難去也。況中酒之病，終難去也。<sup>10</sup> 況中酒之病，其來已素非一朝一夕之有，豈是輕清不可久服之藥，可能治之乎。余故皆棄而不取。方用生新湯。[ 當歸一兩，生地黃五錢，地榆、三七根各三錢，人蔘二錢。 ] 水煎服。[ 斂治 ]

하혈(下血)의 증상은 주로 술 때문에 생긴 경우가 많아서 주독(酒毒)을 풀어주는 약재를 써야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요즘 의원들이 주독(酒毒)을 풀려고 쓰는 약재는 갈근(葛根)이나 상백피(桑白皮)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갈근(葛根)은 많이 복용해서는 안되고 상백피(桑白皮)도 기미(氣味)가 가볍고 맑다. 그러므로 이 2가지 약재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다. 주독(酒毒)을 풀어도 술로 인한 병이 끝내 잘 치료되지 않는 이유이다. 하물며 술 기운에 적중되어 생긴 병은 하루 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니 어찌 기미(氣味)가 가볍고 맑거나 오래 먹을 수 없는 약으로 치료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

는 이 약재를 놓아두고 쓰지 않는다. 대신 생신탕(生新湯)을 쓴다. [ 당귀(當歸) 1냥, 생지황(生地黃) 5돈, 지유(地榆)·삼칠근(三七根) 각 3돈, 인삼(人蔘) 2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 〈염치(斂治)〉 ]

凡人有血崩不止者，婦人病居多。亦一時昏暈，或有不知人而死者，此病多起於貪慾。若治之不得法，日用止澁之藥，未有不輕變重而重變死者。方用安崩湯。

[ 人蔘、白朮、黃芪各一兩，三七根末五錢。 ] 水煎和三七根末服之。一劑即止崩。[ 內傷 ]

혈붕(血崩)이 멈추지 않는 것은 부인(婦人)의 병이 대부분이다. 또 한 순간 어지럽거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다. 이 병은 주로 탐욕 때문에 생겨난다. 만약 치료 방법이 합당하지 않아서 흔히 피를 멈출 때 쓰는 약재를 사용하면 가벼운 상태가 심한 상태로 변하고 심한 상태가 죽음에 이르는 상태로 변하게 된다. 처방으로는 안붕탕(安崩湯)을 쓴다. [ 인삼(人蔘)·백출(白朮)·황기(黃芪) 각 1냥, 삼칠근(三七根) ( 가루 낸 것 ) 5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삼칠근(三七根) 가루와 섞어 복용한다. 1제(劑)를 쓰면 바로 혈붕(血崩)이 멈춘다. [ 〈내상(內傷)〉 ]

血崩之後，口舌燥裂，不能飲食者，死。蓋亡血自然無血以生精，精涸則津亦涸，必然之勢也。欲使口舌之乾者，重潤，必使精血之竭者，重生，補精之方，六味丸最妙，然而六味丸單補腎中之精，而不能上補口舌之津也。雖補腎於下，亦能通津於上，然終覺緩不濟急，我今定一方，上下兼補，名上下相資湯。[ 熟地黃、麥門冬各一兩，山茱萸、葳蕤、沙蔘、當歸、牛膝各五錢，人蔘、元蔘各三錢，五味子二錢，車前子一錢。 ] 水煎服。[ 燥症 ]

혈붕(血崩)이 있는 이후 입과 혀가 말라 찢어져 음식을 먹지 못하는 환자는 죽는다. 망혈(亡血)이 되면 자연히 혈(血)이 정(精)을 만들지 못하고 정(精)이 마르면 침도 마르는 것이 틀림없는 과정이다. 입과 혀가 마른 것을 다시 촉촉하게 하려면 반드시 고갈된 정(精)과 혈(血)을 다시 생겨나도록 해야 한다. 정(精)을 보하는 처방으로 육미환(六味丸)이 가장 탁월하지만 육미환은 신(腎) 속의 정(精)만 보할 뿐 위로 입과 혀의 진액(津液)을 보충하지는 못한다. 비록 아래에 있는 신(腎)을 보하여도 위에 있는 진액을 소통시킬 수 있으나 효과가 느려서 위급한 병을 구할 수 없다. 내 이제 처방 하나를 만들어 위와 아래를 모두 보하노니 상하상자탕(上下相資湯)이라고 이름 붙였다. [ 숙지황(熟地黃)·맥문동(麥門冬) 각 1냥, 산수유(山茱萸)·위유(萎蕤)·사삼(沙蔘)·당귀(當歸)·우슬(牛膝) 각 5돈, 인삼(人蔘)·원삼(元蔘) 각 3돈, 오미자(五味子) 2돈, 차전자(車前子) 1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 〈조증(燥症)〉 ]

如便血與溺血，不可同論也，然而總之，出血於下也。用兩地丹。[ 生地黃一兩，地榆三錢。 ] 治之則二症自愈。[ 分治 ]

변혈(便血)과 요혈(尿血)은 함께 다룰 수 없다. 그러나 크게 보아 아래쪽으로 피가 나오는 병이다. 양지단(兩地丹)을 쓴다. [ 생지황(生地黃) 1냥, 지유(地榆) 3돈. ] 이 처방으로 치료하면 2가지 증상이 절로 낫는다. [ 〈분치(分治)〉 ]

血燥乃血熱之故也。往往鼻衄血，心煩不寐，不能安枕，怔忡等症，亦宜以靜待之。方用 [ 地骨皮、熟地黃各五錢，當歸、白芍藥、生地黃、沙蔘、甘草各三錢，牡丹皮、白芥子、棗仁炒各一錢。 ] 水煎服。此方亦無驚張之氣。又加荊

芥五分。血動者，最宜服之。〔靜治〕

혈조(血燥)는 혈열(血熱) 때문이다. 종종 코피가 나거나, 가슴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편히 자지 못하며, 정충(怔忡) 같은 증상이 생긴다. 이때도 고요히 기다리는 정치(靜治)의 방법을 써야 한다.<sup>11</sup> 처방은 다음과 같다. [ 지골피(地骨皮)、숙지황(熟地黃) 각 5돈, 당귀(當歸)、백작약(白芍藥)、생지황(生地黃)、사삼(沙蔘)、감초(甘草) 각 3돈, 목단피(牡丹皮)、백개자(白芥子)、산조인(酸棗仁) ( 볶은 것 ) 각 1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이 처방도 특별히 알아차릴만한 반응 없이 점차 좋아진다.<sup>12</sup> 형개(荊芥) 5푼을 더하기도 한다. 혈(血)이 동요한 경우에 가장 좋은 처방이다. [ 〈정치(靜治)〉 ]

虛症亦多，我舉一二以槩其餘。虛治者，非氣虛卽血虛也。〔方見氣門〕

허증(虛症)도 여러가지이다. 내 한두 가지를 설명하여 나머지를 아우르고자 한다. 허증 치료는 기허(氣虛) 아니면 혈허(血虛)이다. [ 처방은 〈기문(氣門)〉에 나온다. ]

血虛自當補血，舍四物湯更何求耶。余今不用四物湯，用 [ 熟地黃一兩，麥門冬三錢，當歸五錢，枸杞子三錢，茜草一錢，桑葉一片。 ] 水煎服。 ○別有加減之法。傷米食加 [ 麥芽五分 ]，肉食加 [ 山楂十粒 ]，麵食加 [ 蘿菔五分 ]，有痰加 [ 半夏、白芥子各一錢 ]，咳嗽加 [ 蘇子、桔梗各一錢 ]，傷風加 [ 柴胡二錢 ]，夜臥不安加 [ 炒棗仁二錢 ]，胸中有痛加 [ 枳殼麩炒五分 ]。氣虛方中，亦同前加減法治之。〔虛治〕

혈허(血虛)에는 마땅히 혈(血)을 보해야 하니 사물탕(四物湯)을 두고 또 무엇을 찾을 것인가. 내 이제 사물탕(四物湯)을 쓰지 않고 다음 처방을 쓰노라.

[ 숙지황(熟地黃) 1냥, 맥문동(麥門冬) 3돈, 당귀(當歸) 5돈, 구기자(枸杞子) 3돈, 서초(茜草) 1돈, 상엽(桑葉) 1쪽.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따로 가감법을 두었다. 곡식 음식을 먹고 상했을 때는 [ 맥아(麥芽) 5푼을 ] 더한다. 고기 음식을 먹고 상했을 때는 [ 산사(山査) 10알을 ] 더한다. 밀가루 음식을 먹고 상했을 때는 [ 낙복(蘿蔔) 5푼을 ] 더한다. 담(痰)이 있을 때는 [ 반하(半夏)·백개자(白芥子) 각 1돈을 ] 더한다. 해수(咳嗽)가 있을 때는 [ 소자(蘇子)·길경(桔梗) 각 1돈을 ] 더한다. 상풍(傷風)에는 [ 시호(柴胡) 2돈을 ] 더한다. 잠을 편히 자지 못할 때는 [ 산조인(山棗仁) ( 볶은 것 ) 2돈을 ] 더한다. 가슴 속에 통증이 있을 때는 [ 지각(枳殼) ( 밀기울에 볶은 것 ) 5푼을 ] 더한다. 기허(氣虛) 처방을 쓸 때도 이 가감법을 똑같이 사용하여 치료한다.  
[ 〈허치(虛治)〉 ]

尙有一方傳予。有氣血兩虛人，飲食不進，形容枯槁，補其氣而血益燥，補其血而氣益餒，助胃氣而盜汗難止，補血脈而胸膈阻滯。法當氣血雙治。方用 [ 麥門冬五錢，熟地黃、白芍藥各三錢，茯神、當歸各二錢，人蔘、白朮、川芎、麥芽各一錢，甘草八分，陳皮、神麴各五分。 ] 水煎服。[ 虛治 ]

또한 내가 받은 처방 하나가 있다. 기(氣)와 혈(血)이 모두 허한 사람이 음식(飮食)을 먹지 못하고 몸이 수척한 경우가 있다. 이때 기(氣)를 보하면 혈(血)이 더욱 마르고, 혈(血)을 보하면 기(氣)가 더욱 부족해지며, 위기(胃氣)를 도우면 도한(盜汗)을 멈추기 어렵고, 혈맥(血脈)을 보하면 흉격(胸膈)이 막힌다. 마땅

히 기(氣)와 혈(血)을 함께 치료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처방을 사용한다. [ 맥문동(麥門冬) 5돈, 숙지황(熟地黃)·백작약(白芍藥) 각 3돈, 복신(茯神)·당귀(當歸) 각 2돈, 인삼(人蔘)·백출(白朮)·천궁(川芎)·맥아(麥芽) 각 1돈, 감초(甘草) 8푼, 진피(陳皮)·신곡(神麴) 각 5푼.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 〈허치(虛治)〉 ]

治血，卽以四物湯爲主，加荊芥、茜草，更妙，順其性而引其歸經也。然用六味丸湯，治血症，亦妙。蓋血病，最忌寒涼之品，寒則凝滯不行，難以歸經。六味丸湯，妙在不寒不熱，補腎水以滋肝木，肝木得養，則血有可藏之經，自然不致外泄，何至上吐。方用 [ 熟地黃五錢，山茱萸、牡丹皮各三錢，山藥、澤瀉、茯苓各二錢。 ] 此六味湯方也。又加 [ 麥門冬三錢，五味子一錢。 ] 最妙。又別有一方，名曰止血湯。[ 生地黃一兩，麥門冬、元蔘各三錢，荊芥一錢。 ] 水煎服。一劑血止，後用六味湯調之。○血症，又有奇方用 [ 生地黃一兩，三七根末、人蔘各三錢，荊芥末一錢。 ] 水煎調末服。一劑卽止血，後亦用六味湯調理。[ 血治 ]

혈(血)을 치료할 때 사물탕(四物湯)을 위주로 하고 형개(荊芥)·서초(茜草)를 더하면 효과가 더욱 좋으니, 경맥(經脈)을 흐르는 혈(血)의 성질을 따라 혈(血)을 인도하여 경맥(經脈)으로 되돌리기 때문이다.<sup>13</sup> 그러나 육미지황환(六味地黃丸)이나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으로 혈증(血證)을 치료해도 효과가 좋다. 혈병(血病)에는 한량(寒涼)한 약재를 가장 멀리해야 한다. 한량한 성질은 정체시키고 움직이지 않게 하므로 혈(血)이 경맥(經脈)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육미지황환이나 육미지황탕의 오묘함은 성질이 한(寒)하지도



열(熱)하지도 않고 신수(腎水)를 보하여 간목(肝木)을 길러준다는 점으로, 간목(肝木)이 길러지면 혈(血)이 경맥에 저장되어 자연히 밖으로 세지 못하게 되니 어찌 입으로 나올 수 있겠는가. 다음과 같은 처방을 사용한다. [ 숙지황(熟地黃) 5돈, 산수유(山茱萸)·목단피(牡丹皮) 각 3돈, 산약(山藥)·택사(澤瀉)·복령(茯苓) 각 2돈. ] 이것은 육미지황탕 처방이다. 또 [ 맥문동(麥門冬) 3돈, 오미자(五味子) 1돈을 ] 더하면 매우 좋다. 또 따로 지혈탕(止血湯)이라는 이름의 처방 하나를 둔다. [ 생지황(生地黃) 1냥, 맥문동(麥門冬)·원삼(元蔘) 각 3돈, 형개(荊芥) 1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1제(劑)를 쓰면 혈(血)이 멎는다. 그런 뒤에 육미지황탕으로 조리한다. ○혈증(血證)에 쓰는 다른 신기한 처방도 있다. [ 생지황(生地黃) 1냥, 삼칠근(三七根) ( 가루 낸 것 )·인삼(人蔘) 각 3돈, 형개(荊芥) ( 가루 낸 것 ) 1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가루낸 약재를 섞어 복용한다. 1제(劑)를 쓰면 혈(血)이 멎는다. 그런 뒤에 또 육미지황탕으로 조리한다. [ <혈치(血治)> ]

血治者，乃血不肯歸經，或上或下，或四肢皮毛，各處出血者，是也。血循經絡，外行於皮毛，中行於臟腑，內行於筋骨，上行於頭目兩手，下行於二便兩足一臍。是周身無非血路，一不歸經，自然妄行各處，有孔則鑽，有通則泄，甚則嘔吐，標出毛孔，流出於齒縫，滲出於腹臍，而不止大小便之出也。然則血宜順其性，而不宜拂逆。方用 [ 生地黃、熟地黃各五錢，當歸、白芍藥、麥門冬各三錢，川芎、荊芥末、茜草根、甘草各一錢。 ] 水煎服。[ 血治 ]

혈치(血治)는, 혈(血)이 경맥(經脈)으로 돌아가려하지 않고 위나 아래나 팔다리의 피모(皮毛) 등 각 부분으로 혈(血)이 나갈 때 쓰는 방법이다. 혈(血)이 경락(經絡)을 순행하다 밖으로는 피모(皮毛)로 가고, 가운데로는 장부(臟腑)로 가며, 안으로는 근골(筋骨)로 가고, 위로는 머리·눈과 두 팔로 가고, 아래로는 전음(前陰)·후음(後陰)과 두 다리와 배꼽으로 간다. 이렇게 온몸에 혈(血)이 가지 않는 곳이 없으니 한 번 경맥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자연히 멋대로 여기저기 다니다가 구멍이 있으면 뚫고 나가고 통로가 있으면 빠져나간다. 심하면 피를 토하거나 피가 땀구멍으로 나가거나 잇몸 사이로 흘러나가거나 배꼽으로 새 나가니, 대소변에 피가 섞여 나가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혈(血)은 경락(經絡)을 순행하는 성질을 따라야 하며 거슬러서는 안된다. 다음과 같은 처방을 사용한다. [ 생지황(生地黃)·숙지황(熟地黃) 각 5돈, 당귀(當歸)·백작약(白芍藥)·맥문동(麥門冬) 각 3돈, 천궁(川芎)·형개(荊芥) ( 가루 낸 것 )·서초근(茜草根)·감초(甘草) 각 1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혈치(血治)〉]

血病吉凶 [ 凡血逆行難治，順行易治。無潮熱者輕，有朝熱者重，潮盛脉大者死。 ○又有九竅出血，身熱，不得臥者，即死。 ○又曰，凡血症，陽盛則身熱多渴，陰盛則身凉不渴，然而血者陰也，身凉者易愈。 ○又曰，如心肺脉大破，血若涌泉口鼻俱是湧泉<sup>14</sup>出者，不治。(入門) ○靈樞曰，淫而脫血<sup>15</sup>，身熱，色夭然白，及下<sup>16</sup>血衄，血衄篤重，是爲逆。又曰，衄而不止，脉大，是爲逆。又曰，咳且溲血，脫肉，其脉小勁，是爲逆。又曰，嘔血，胸滿引背，脉小而疾，是爲逆。又曰，腹脹便血，其脉大而時絕，是爲逆。又曰，咳血<sup>17</sup>溲血，形槁肉脫，脉博，是爲逆。 ○東垣曰，諸見血，身熱脉大者，難治。難治者，邪

勝也。身凉脉靜者，易治。易治者，正氣復也。又曰，血溢上行，或唾或嘔或吐，皆凶也。若變下行爲惡痢者，順也。上行爲逆，其治難，下行爲順，其治易。故仲景云，蓄血症，下血者，當自愈。若無病之人，忽然作下痢<sup>18</sup>者，其病進也。今病血症，上行而復下行爲惡痢者，其邪欲去，是知其吉也。 ○仲景曰，吐血，咳逆上氣，脉數而有熱，不得臥者死。 ○無故忽然瀉下惡血，名曰心絕，多難治。 ○傷寒太陽症，衄血者，病欲愈。熱結膀胱，而血自下者，亦欲愈。以此觀之，則他病伏熱之人，上焦瘀熱<sup>19</sup>而作吐者，亦其病之有瘳也。雖然血既吐而自止則可矣。（直指）]

혈병(血病)의 예후 [ 혈(血)이 역행하면 치료하기 어렵고, 순행하면 치료하기 쉽다. 조열(潮熱)이 없으면 가벼운 경우이고 조열이 있으면 중한 경우이다. 조열이 심하고 맥이 대(大)하면 죽는다. ○또 몸의 구규(九竅)에서 피가 나고 몸에서 열이 나며 잠들지 못하면 죽는다. ○또 말하였다. "혈증(血證)에 양(陽)이 성하면 몸에서 열이 나고 갈증이 심하며, 음(陰)이 성하면 몸이 차갑고 갈증이 없다." 혈은 음이므로 몸이 차가울 때 쉽게 낫는다. ○또 말하였다. "심맥(心脈)과 폐맥(肺脈)이 크게 파손되어 코와 입에서 샘솟듯 피가 나면 치료할 수 없다." 《입문(入門)》 ○《영추(靈樞)》에서 말하였다. "병이 들어 몸이 마르고 몸에서 열이 나며 안색이 창백하고 대변에 핏덩어리가 나오는 경우, 핏덩어리가 나오는 것은 병이 위독한 것이므로 역증(逆證)이다." 또 말하였다. "코피가 멎지 않고 맥(脈)이 대(大)하면 역증이다." 또 말하였다. "기침하고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며 몸이 야위는데, 그 맥(脈)이 작고 단단하면 역증이다." 또 말하였다. "피를 토하고 가슴이 그득하여 등까지 당기는데, 맥(脈)이 작고 빠르면 역증이다." 또 말하였다. "배가 창만하고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데, 그 맥

(脈)이 대(大)하면서 때때로 끊어지면 역증이다." 또 말하였다. "기침하고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며 몸이 심하게 마르는데, 맥(脈)에 힘이 있으면 역증이다." ○동원(東垣)이 말하였다. "피가 나는 온갖 병증(病證)에서, 몸에서 열이 나고 맥(脈)이 대(大)하면 치료하기 어렵다. 치료하기 어려운 것은 사기(邪氣)가 왕성하기 때문이다. 몸이 차갑고 맥이 안정되면 치료하기 쉽다. 치료하기 쉬운 것은 정기(正氣)가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또 말하였다. "혈(血)이 위로 넘쳐흘러 생겨나는 타혈(唾血)·구혈(嘔血)·토혈(吐血) 등은 모두 예후가 좋지 않다. 만약 증상이 변하여 혈(血)이 아래로 내려가 심한 이질(痢疾)이 되면 순증(順證)이다. 위로 오르는 것은 거스르는 것이므로 치료하기 어렵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순응하는 것이므로 치료하기 쉽다. 그래서 중경이 '축혈증(蓄血證)에 하혈(下血)이 있으면 저절로 낫게 된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병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피 섞인 이질을 한다면 병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혈증(血證)으로 혈(血)이 위로 올랐다가 되돌아 내려가서 심한 이질이 된 경우는 사기(死氣)가 빠져나가는 것이므로 좋은 징조임을 알 수 있다." ○중경이 말하였다. "피를 토하고 딸꾹질을 하며 숨이 차는데, 맥이 삭(數)하고 열이 나며 잠들지 못하면 죽는다." ○까닭 없이 갑자기 나쁜 피를 설사하는 것을 '심절(心絶)'이라 하는데 치료하기 어렵다. ○상한 태양증에 코피가 나면 병이 나으려는 것이다. 열이 방광(膀胱)에 뭉쳐있는데 피가 대변으로 나올 때도 병이 나으려는 것이다. 이런 예를 통해 보면, 다른 병으로 열이 잠복되어 있는 환자가 상초(上焦)의 어혈(瘀血)을 토해내면 그 또한 병이 나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피를 토한 뒤 피가 저절로 멎어야 나올 것이다. 《직지(直指)》]

1. 生息 主息 ※의학입문

2. 系 絲 ※의학입문

3. 肥衄 飢衄 ※의학입문

4. 膀胱 膀胱 ※의학입문

5. 濕 溫 ※《동의보감》

6. 大 火 ※《석실비록》

7. 忽傾盆吐血：忽然吐血傾盆 ※《석실비록》

8. 燥動：躁動 ※《석실비록》

9. 血 吐血 ※《석실비록》

10. 《석실비록》을 근거로 연문으로 보고 번역하지 않았다.

11. 《석실비록》을 참고하여 번역을 보충하였다.

12. 《석실비록》을 참고하여 번역을 보충하였다.

13. 《석실비록》을 참고하여 번역을 보충하였다.

14. 是湧泉：《동의보감》을 근거로 연문으로 보고 번역하지 않았다.

15. 血 形 ※《동의보감》

16. 下 後下 ※《동의보감》

17. 咳血 咳 ※《동의보감》

18. 痢 血痢 ※《동의보감》↩

19. 痧熱 痧血 ※인재직지방 ↩



## 津液 진액

身中津液 [靈樞曰, 腠理發泄, 汗出溱溱, 是謂津。津脫者, 腠理開, 汗大泄。○穀入氣滿, 淖澤注於骨, 骨屬屈伸, 淖澤<sup>1</sup>補益腦髓, 皮膚潤澤, 是謂液。液脫者, 骨屬屈伸不利, 色夭, 腦髓消, 脛痠耳數鳴。(資生) ○大腸主津, 小腸主液, 大腸小腸受胃之榮氣, 乃能行津液於上焦, 灌溉皮毛, 充實腠理<sup>2</sup>。若飲食不節, 胃氣不足, 大腸小腸無所稟受, 故津液涸竭焉。(東垣)]

몸 속의 진액(津液) [《영추(靈樞)》에서 말하였다. "주리(腠理)가 열려 축축하게 땀이 날 때 이것을 진(津)이라고 한다. 진탈(津脫)은 주리가 열려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이다."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르면 뼈를 충실히 하여 관절이 움직이게 되고 뇌수(腦髓)를 축축히 보충하며 피부가 윤택하게 된다. 이것을 액(液)이라고 한다. 액탈(液脫)은 관절을 잘 움직이지 못하고 안색이 좋지 못하며 뇌수가 줄어들고 정강이가 시리며 귀가 자주 우는 것이다." 《자생》 ○대장(大腸)은 진(津)을 주관하고 소장(小腸)은 액(液)을 주관한다. 대장·소장이 위(胃)의 영기(榮氣)를 받아 진액을 상초(上焦)로 보내 피부와 터럭을 적셔주고 주리를 충실하게 한다. 만약 음식이 적절하지 않아 위기(胃氣)가 부족해지면 대장·소장이 받을 것이 없으므로 진액이 마른다. 《동원》]

腎主液 [難經曰, 腎主五液, 分化五臟, 入肝爲淚, 入心爲汗, 入脾爲涎, 入肺爲涕, 自入爲唾。]

신(腎)은 액(液)을 주관함 [《난경(難經)》에서 말하였다. "신(腎)은 오액(五液)을 주관하고 오장(五臟)으로 나누어 보내니, 간(肝)에 들어가면 눈물이 되고, 심(心)에 들어가면 땀이 되며, 비(脾)에 들어가면 군침이 되고, 폐(肺)에 들어가면 콧물이 되며, 신(腎)에 들어가면 가래침이 된다" ]

大汗之症。汗出如雨，不止抑<sup>3</sup>，氣息又復奄奄，不是發狂熱症。若不急用大補之藥，則頃刻亡陽而死矣。方用止汗定神丹。[ 麥門冬、當歸、黃芪各三兩，白朮四錢，桑葉十斤 五味子三錢。水煎服。( 大治 ) ]

땀이 많이 나는 증상. 땀이 비 오듯 나는데 멈추지 않고 숨도 끊어질 듯 미미한 것은 발광(發狂)의 열증(熱證)이 아니다. 급히 강하게 보하는 약을 쓰지 않으면 순식간에 망양(亡陽)이 되어 죽는다. 지한정신단(止汗定神丹)을 쓴다. [ 맥문동(麥門冬)·당귀(當歸)·황기(黃芪) 각 3냥, 백출(白朮) 4돈, 상엽(桑葉) 10근, 오미자(五味子) 3돈.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대치(大治)〉) ]

大汗之病，陽氣盡隨汗而外越，若不急爲止抑，則陽氣立散，即時見死。法當以大補之劑煎飲，一線之氣可留，而大汗可止。方用止汗神丹。[ 當歸、人蔘各一兩 ( 或黃芪二兩代人蔘用 )，五味子一錢，桑葉七片。] 急爲煎服。此方則補血湯之變也。[ 收治 ]

땀이 많이 나는 병은 양기(陽氣)가 모두 땀을 따라 밖으로 흘러나가므로 만약 급히 땀을 멈추지 않으면 양기(陽氣)가 바로 흩어져 곧바로 죽게된다. 마땅히 크게 보하는 처방을 달여 복용시켜야 한 가닥의 기(氣)라도 붙들 수 있고 많은 땀을 멈출 수 있다. 처방으로는 지한신단(止汗神丹)을 쓴다. [ 당귀(當歸)·인



삼(人蔘) 각 1냥 ( 또는 황기(黃芪) 2냥을 인삼 대신 쓴다. ), 오미자(五味子) 1돈, 상엽(桑葉) 7쪽. ] 급히 달여 복용한다. 이 처방은 보혈탕(補血湯)의 변방(變方)이다. [ 〈수치(收治)〉 ]

大汗方。[ 人蔘四兩，麥門冬三兩，生地黄二兩，五味子三錢。 ] 水煎服。一劑即愈。 ○更有奇方，以救貧乏之人也。[ 黃芪三兩，當歸二兩，麥門冬一兩，五味子三錢，竹葉十四片。 ] 水煎服。一劑即能止汗。[ 重治 ]

대한방(大汗方) [ 인삼(人蔘) 4냥, 맥문동(麥門冬) 3냥, 생지황(生地黄) 2냥, 오미자(五味子) 3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1제(劑)를 쓰면 낫는다. ○또한 가난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효과 좋은 처방이 있다. [ 황기(黃芪) 3냥, 당귀(當歸) 2냥, 맥문동(麥門冬) 1냥, 오미자(五味子) 3돈, 죽엽(竹葉) 14쪽.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1제(劑) 복용하면 땀이 그친다. [ 〈중치(重治)〉 ]

大汗勢，必用補氣之藥，以救亡陽之症。然而過用補氣之藥，則恐陽旺而陰消，服數劑補氣之後，即宜改用補陰之品。況亡陽之後，陰血正枯，進以補水之藥，正投其所好也。陰定則陽生，而陰陽無偏勝之弊矣。[ 重治 ]

땀을 많이 흘릴 때는 반드시 기(氣)를 보하는 약을 써서 망양(亡陽) 증세에서 구해내야 한다. 그러나 기(氣)를 보하는 약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양(陽)은 치성하고 음(陰)은 쇠퇴할 염려가 있으니 기(氣)를 보하는 약을 몇 제(劑) 복용한 뒤에 곧 음(陰)을 보하는 약으로 바꾸어 써야 한다. 하물며 망양(亡陽)이 생긴

뒤에는 음혈(陰血)이 곧장 마르므로 수(水)를 보하는 약을 주는 것이 바로 원하는 것을 주는 방법이다. 그제야 음(陰)이 안정되면 양(陽)이 생겨나서 음(陰)이나 양(陽)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폐단이 없게 된다. [〈중치(重治)〉]

凡人無論有病無病，一旦汗出如雨不止者，名曰亡陽，汗盡則止，有氣未絕者，最危之症也。若因汗出而用止汗之藥，則汗不能止，若因汗盡而用補血之藥，則血難驟生，當急補其氣，尚可挽回。然而補氣之藥，舍人蔘實無他味。可用 [人蔘、麥門冬、黃芪、熟地黃各一兩，當歸、炒棗仁各五錢，五味子三錢，甘草一錢。] 水煎服。一劑而汗收，再劑而氣復，三劑而氣旺，四劑而身健矣。

[ 亡陽一方見暑門 ]

병이 있든 없든 하루 아침에 땀이 비오듯 흘러고 멈추지 않는 것을 망양(亡陽)이라고 부른다. 땀이 모두 다 나와만 땀이 멈추고,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경우로, 가장 위급한 증상이다. 만약 땀이 나는 것을 보고 땀을 멈추는 약을 사용해도 땀을 멈출 수 없고, 만약 땀이 다한 것을 보고 혈(血)을 보하는 약을 사용해도 혈(血)을 갑자기 생겨나게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급히 기(氣)를 보해야 오히려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러나 기(氣)를 보하는 약 중에서 인삼 외에는 쓸 수 있는 약이 사실상 없다. 다음과 같은 처방을 쓸 수 있다. [인삼(人蔘)、맥문동(麥門冬)、황기(黃芪)、숙지황(熟地黃) 각 1냥, 당귀(當歸)、산조인(山棗仁) ( 볶은 것 ) 각 5돈, 오미자(五味子) 3돈, 감초(甘草) 1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1제(劑)를 쓰고 나면 땀이 그치고, 2제(劑)를 쓰고 나면 기

(氣)가 회복되며, 3제(劑)를 쓰고 나면 기(氣)가 왕성해지고, 4제(劑)를 쓰고 나면 몸이 건강해진다. [ 망양(亡陽)에 관한 처방 하나는 <서문(暑門)>에 있다. ]

凡人頭頂出汗，乃腎火有餘，而腎水不足。若不知其故，而徒用止汗之藥，必致目昏，而耳痛。法當滋其腎，而清肺金之化源，自易效功如響。方用止汗湯。

[ 熟地黃二斤，桑葉一斤，麥門冬六兩，五味子三兩。 ] 各爲末蜜丸，每日白滾水送下五錢，或一兩。一月後，永不出汗矣。 ○每<sup>4</sup>有人每飯之時，頭汗如雨落者，此又胃火勝，而非腎火餘也。法當用積陽湯。[ 天門冬二斤，麥門冬、生地黃、元蔘各一斤，山棗仁半斤，五味子四兩。 ] 爲末蜜丸。每日白滾湯送下一兩。三月必愈矣。 [ 斂治 ]

어떤 사람이 머리 정수리에서 땀이 나는 것은 신(腎)의 화(火)가 넉넉하지만 신(腎)의 수(水)는 부족한 것이다. 만약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땀을 멈추게 하는 약만 사용하면 반드시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아프게 될 것이다. 마땅히 신수(腎水)를 길러서 폐금(肺金)의 근원을 맑게 해주면 메아리가 응답하듯 절로 쉽게 효과를 볼 것이다. 처방으로는 지한탕(止汗湯)을 쓴다. [ 숙지황(熟地黃) 2근, 상엽(桑葉) 1근, 맥문동(麥門冬) 6냥, 오미자(五味子) 3냥. ] 이 약재를 각각 가루내어 꿀로 환(丸)을 빚는다. 매일 백곤수(白滾水)로 5돈이나 1냥(兩)을 복용한다. 1개월 복용하면 영영 땀이 나지 않는다. ○또 식사할 때마다 비가 오듯 머리에서 땀이 나는 것은 위(胃)의 화(火)가 치성한 것으로 신(腎)의 화가 넉넉해서가 아니다. 마땅히 적양탕(積陽湯)을 써야 한다. [ 천문동(天門冬) 2근, 맥문동(麥門冬)、생지황(生地黃)、원삼(元蔘) 각 1근, 산조인(酸棗

仁) 반 근, 오미자(五味子) 4냥. ] 이 약재를 가루 내어 꿀로 환(丸)을 빚어 매일 백곤탕(白滾湯)으로 1냥 씩 삼킨다. 3개월 복용하면 반드시 낫는다. [ <염치(斂治)> ]

如人汗出不已，氣散僅有一線之陽，倘<sup>5</sup>令其奔越，則陽脫而死，所不免也。崱<sup>6</sup>而治脫之法，惟在斂其肺氣，使皮毛腠理固密，則陽從何散也。然而徒斂肺氣，而不大補元陽，則元氣仍然欲脫，即不脫出於皮毛腠理，必然脫出於口鼻耳目，故必以補爲斂之爲得當也。方用 [ 桑葉五斤，人蔘、當歸、黃芪各一兩，山茱萸四錢，麥門冬三錢，山棗仁、五味子各一錢。 ] 水煎服。[ 中暑亡陽見暑 ]

만약 환자가 땀이 그치지 않을 때, 기(氣)가 흩어져 한 가닥 양기(陽氣)만 겨우 남았는데 만일 다시 양기를 자극하면 양기가 탈진되어 죽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탈진되려는 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오직 폐기(肺氣)를 수렴시켜 피모(皮毛)의 주리(腠理)를 꼭 닫아주는데 있으니, 이렇게 하면 양기가 어디로 흩어지겠는가. 그러나 폐기(肺氣)만 수렴시키고 원양(元陽)을 보하지 않으면 원기(元氣)가 탈진되려고 할 때 피모(皮毛)의 주리(腠理)로 빠져나가지 못하므로 반드시 입、코、귀、눈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보함으로써 수렴시켜야 옳게 된다. 다음과 같은 처방을 사용한다. [ 상엽(桑葉) 5근, 인삼(人蔘)、당귀(當歸)、황기(黃芪) 각 1냥, 산수유(山茱萸) 4돈, 맥문동(麥門冬) 3돈, 산조인(酸棗仁)、오미자(五味子) 각 1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 중서(中暑)、망양(亡陽)은 <서문(暑門)>을 보라. ]

人有手汗出者，〔黃芪二兩，葛根一兩，荊芥、防風各三錢。〕 水煎湯一盆，熱薰而溫洗。三次即無汗，神方也。即是此湯亦可，然不若每日一換藥之爲妙也。〔浴治〕

손에서 땀이 날 때는 〔 황기(黃芪) 2냥, 갈근(葛根) 1냥, 형개(荊芥)·방풍(防風) 각 3돈. 〕 이 약재를 물로 한 동이 달여 뜨거운 김을 쏘여주고 따뜻하게 씻어준다. 3차례 시행하면 땀이 나지 않는다. 효과가 매우 좋은 방법이다. 한 번 달인 약을 계속 써도 좋지만, 매일 새 약재로 바꾸어 치료하는 효과보다는 못한다. 〔〈욕치(浴治)〉〕

泄治者，汗之也。邪居於腠理之間，不肯自出，必用汗藥，以疏泄之。方用去消散邪湯。〔白朮五錢，茯苓三錢，荊芥、桔梗、防風、蘇葉、甘草各一錢，陳皮五分。〕 水煎服。 〇倘治冬月之泄汗，或加桂枝五分可乎，或加麻黃五分亦可乎。〔泄治〕

설치(泄治)는 땀을 내는 치료법이다. 사기(邪氣)가 주리(腠理) 사이에 머물러 스스로 나가려고 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땀을 내는 약재로 사기를 내보내야 한다. 처방으로는 거소산사탕(去消散邪湯)을 쓴다. 〔 백출(白朮) 5돈, 복령(茯苓) 3돈, 형개(荊芥)·길경(桔梗)·방풍(防風)·소엽(蘇葉)·감초(甘草) 각 1돈, 진피(陳皮) 5푼.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〇만약 겨울에 땀을 내야 할 때는 계지(桂枝) 5푼을 더하면 좋을 것ियो, 마황(麻黃) 5푼을 더해도 좋을 것이다. 〔〈설치(泄治)〉〕

汗出凶證 [ 傷寒熱病, 汗出髮潤, 一不治也。汗出如油, 二不治也。汗凝如珠, 三不治也。 (直指) ]

○傷寒熱病, 頭汗如珠不流者, 陽脫即死。 (入門)

○傷寒, 汗出髮潤, 與其出如油, 或大如貫珠着身出而不流, 皆爲不治之症。

(明理) ○傷寒, 脉浮洪, 汗出如油, 髮潤, 喘不休, 爲命絕不治。 (仲景)

○傷寒陽病, 自汗有九症, 皆有治法。陰病不得有汗, 惟陰毒則額上手背有冷汗, 甚者如水洗。此是陽虛陰盛, 亡陽而將脫也。其死必矣。 (活人) ]

땀이 날 때 예후가 좋지 않은 증상 [ 상한(傷寒) 열병에 땀이 나서 머리카락이 축축한 것이 첫 번째 불치증이다. 땀이 기름처럼 나는 것이 두 번째 불치증이다. 땀이 구슬처럼 엉기는 것이 세 번째 불치증이다. (《직지》) ]

○상한 열병에 머리에 땀이 구슬처럼 맺혀 흐르지 않는 것은 양(陽)이 고갈된 것이므로 곧 죽는다. (《입문》)

○상한에 땀이 나서 머리카락이 축축해지는 경우와 땀이 기름처럼 나오는 경우, 또는 염주만 하게 나서 몸에 붙어 흐르지 않는 경우는 모두 치료하지 못하는 증상이다. (《명리》)

○상한에 맥이 부(浮)·홍(洪)하고 기름 같은 땀이 나며 머리가 축축하고 계속 숨을 헐떡이는 경우는 목숨이 다한 것으로 치료하지 못한다. (《중경》)

○상한 양병에 자한(自汗)이 있는 경우는 9가지로 모두 고칠 수 있다. 음병(陰病)에는 땀이 나지 않지만 음독(陰毒)만은 이마와 손등에 식은땀이 나고 심하면 물로 씻은 것 같다. 이것은 양(陽)이 허하고 음(陰)이 성한 까닭에 망양(亡陽)이 되어 모두 빠져나간 것으로 반드시 죽는다. (《활인》) ]

1. 淖澤 ⇨ 洩澤 ※《동의보감》⇨

2. 溱理 𩵵 腠理 ※《동의보감》↩

3. 不止抑 : 不可止抑 ※《석실비록》↩

4. 每 𩵵 更 ※《석실비록》↩

5. 倘 𩵵 倘再 ※《석실비록》↩

6. 崙 : 然 ※《석실비록》↩



## 痰飲 담음

痰涎飲三者不同 [ 痰者，津液之異名，人之所恃，而以潤養肢體者也。曰痰，曰涎，曰飲，又有理一分殊之別。伏於胞絡<sup>1</sup>，隨氣上浮，客肺壅，嗽而發動者，是痰也。聚於脾元，隨氣上溢，口角流出而不禁者，涎也。惟飲生於胃腑，爲嘔爲吐，此則胃家之病，不可不知也。(直指) ]

담(痰)·연(涎)·음(飲) 3가지는 같지 않음 [ 담(痰)은 진액(津液)의 다른 이름이니, 사람은 이것 덕택에 몸을 윤택하게 기른다. 담(痰)이라고도 하고 연(涎)이라고도 하며 음(飲)이라고도 하는데, 하나의 이치에서 다르게 나뉘어진 것이다. 포락(包絡)에 숨었다가 기(氣)를 따라 올라와서 폐(肺)로 들어가 막았다가 기침하면 요동치는 것이 담(痰)이다. 비원(脾元)에 모여 있다가 기(氣)를 따라 위로 넘쳐서 입가로 흘러 나와 그치지 않는 것이 연(涎)이다. 음(飲)만이 위부(胃府)에서 생겨나 구토하게 하니, 이것이 위(胃)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생기는 병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직지》 ]

痰病有十 [ 有風痰、寒痰、濕痰、熱痰、鬱痰、氣痰、食痰、酒痰、驚痰。痰之源不一，有因熱而生者，有因氣而生者，有因風而生者，有因驚而生者，有因飲而生者，有因食而成者，有因暑而生者，有傷冷而成者，有脾虛而成者，有因酒而成者，有腎虛而生者。(丹溪) 見下<sup>2</sup> ]



10가지 담병(痰病) [ 병(痰病)에는 풍담(風痰)、한담(寒痰)、습담(濕痰)、열담(熱痰)、울담(鬱痰)、기담(氣痰)、식담(食痰)、주담(酒痰)、경담(驚痰)이 있다. 담병의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다. 열(熱)로 인해서 생기는 것, 기(氣)로 인해서 생기는 것, 풍(風)으로 인해 생기는 것, 놀라서 생기는 것, 물을 마셔 생기는 것, 먹어서 생기는 것, 더워서 생기는 것, 찬것에 상해 생기는 것, 비(脾)가 허하여 생기는 것, 술 때문에 생기는 것, 신(腎)이 허하여 생기는 것 등이 있다. (《단계》) 처방은 뒤에 나온다. ]

飲病有八 [ 有留飲、癖飲、痰飲、溢飲、流飲、懸飲、支飲、伏飲等症，皆因飲酒冒寒，或飲水過多所致也。(仲景) 方見下 ]

8가지 음병(飲病) [ 유음(留飲)、벽음(癖飲)、담음(痰飲)、일음(溢飲)、유음(流飲)、현음(懸飲)、지음(支飲)、복음(伏飲) 등의 병증은 모두 술을 마시고 찬 기운을 맞았거나 물을 많이 마셔서 생기는 것이다. 《중경》 처방은 뒤에 나온다. ]

痰治者，痰塞於咽喉之間，雖是小病，而大病實成。於此古人，所以別立門以治之。然而所立之方，皆是治痰之表，不足治痰之本也。故立二陳湯，以治上中下新暫久之病，通治之而無實效也。今別立三方，一治初起之痰，一治已病之痰，一治久病之痰。痰病雖多，要不能越吾之範圍也。初起者，傷風咳嗽是也。用 [ 半夏、茯苓、陳皮、蘇子、天花粉、甘草各一錢。 ] 水煎服。二劑可消痰矣。 [ 痰治 ] ○已病之痰，痰在中焦也。必觀其色之白與黃而辨之，最宜分明。黃者，乃火已將退也。白者，火正熾也。火熾者，宜用寒涼之品，火將退者，宜加祛逐之品。吾今立一方，俱可治之。 [ 茯苓五錢，白朮、白芥子各三錢，陳皮

、梔子、甘草各一錢，作一貼。】 火痰，加枳殼五分。水煎服。 ○至於久病之痰，切不可以作脾濕生痰論之。蓋久病不愈，末有不腎水虧損者，非腎水泛上爲痰，即腎水沸騰爲痰。此久病之痰，當補腎以祛逐之。方用，〔熟地黃、薏苡仁、芡實各五錢，茯苓、山藥、山茱萸、麥門冬各三錢，五味子、車前子各一錢，益智仁五分也。〕 水煎服。〔痰治〕

담치(痰治)는 담(痰)이 목구멍 속을 막을 때 쓰는 치료법으로, 이것은 비록 작은 병이지만 이로부터 참으로 큰 병이 생겨난다. 이 때문에 옛사람이 따로 분류하여 치료하였다. 그러나 만들어진 처방이 모두 담(痰)의 말단만 치료하고 담(痰)의 근본을 치료하기는 부족하였다. 그러므로 이진탕(二陳湯)을 두어 상초(上焦)、중초(中焦)、하초(下焦)의 병과 급성과 만성의 병을 치료하였으나 두루 치료하여도 실제로 효과는 없었다. 이제 따로 3가지 처방을 만들었으니, 하나는 막 생겨난 담(痰)을 치료하고, 다른 하나는 이미 생겨난 담(痰)을 치료하며, 마지막 하나는 오래된 담(痰)을 치료한다. 담병(痰病)이 비록 많지만 반드시 내가 말한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막 생겨난 담(痰)은 상풍(傷風)과 해수(咳嗽)이다. [ 반하(半夏)、복령(茯苓)、진피(陳皮)、소자(蘇子)、천화분(天花粉)、감초(甘草) 각 1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2제(劑)를 쓰면 담(痰)을 녹일 수 있다. [ 〈담치(痰治)〉 ] ○이미 생겨난 담(痰)은 담(痰)이 중초(中焦)에 있다. 반드시 얼굴 색이 흰색인지 누런색인지를 보아 판별하는 것이 가장 분명하다. 누런색이면 화(火)가 이미 물러난 뒤이고, 흰색이면 화(火)가 치성한 상태이다. 화가 치성했을 때는 차가운 성질의 약재를 사용해야 하며, 화가 이미 물러난 뒤에는 몰아내는 효능의 약재를 더해야 한다. 이제 내가 만든 처방 하나로 모두 치료할 수 있다. [ 복령(茯苓) 5돈, 백출(白朮)、백

개자(白芥子) 각 3돈, 진피(陳皮)·치자(梔子)·감초(甘草) 각 1돈. 이 약재를 1첩(貼)으로 한다. ] 화담(火痰)에는 지각(枳殼) 5푼을 더한다.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오래된 담(痰)의 경우, 비습(脾濕)이 담(痰)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설명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대개 오래된 병이 낫지 않는 것은 신수(腎水)가 휴손되지 않은 경우가 없으니, 신수(腎水)가 넘쳐 올라 담(痰)이 된 것이 아니라면 신수(腎水)가 끓어 올라 담(痰)이 된 경우이다. 이 오래된 담(痰)에는 신(腎)을 보해서 담(痰)을 몰아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처방을 사용한다. [ 숙지황(熟地黃)·익이인(薏苡仁)·검실(芡實) 각 5돈, 복령(茯苓)·산약(山藥)·산수유(山茱萸)·맥문동(麥門冬) 각 3돈, 오미자(五味子)·차전자(車前子) 각 1돈, 익지인(益智仁) 5푼.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 [ <담치(痰治)> ]

上焦痰氣甚盛，而下焦又虛者，不可下之。乃令其飽食後，以藥服之即吐，吐至飲食即止。在下無碍，而上焦之痰火，一吐而愈，此治法之巧者也。方用 [ 菰蒂七個，人蔘二錢。水三碗煎 ]，數沸飲之，即大吐。[ 飽治 ] ○人患痰病，久不愈，乃用猪肺頭一箇，以蘿菔子五錢，研碎白芥子一兩。研碎，五味子調和<sup>3</sup>，飯鍋蒸熟。飯後頓食之。一箇即愈。[ 飽治 ]

상초(上焦)에 담기(痰氣)가 매우 심한데 하초(下焦)가 허하다면 하법(下法)을 쓸 수 없다. 이때는 환자를 배불리 먹게 한 뒤에 약을 복용시켜 곧 토하게 하는데, 먹은 음식까지 다 토하면 멈춘다. 하초에 문제가 없고 상초에 담화(痰火)가 있을 때는 1번 토하고 나서 낫는다. 이것은 매우 오묘한 치법이다. 다음과 같은 처방을 사용한다. [ 과체(瓜蒂) 7개, 인삼(人蔘) 2돈. 이 약재를 물 3사발에 넣

고 달이는데 ] 몇 소끔 꿀을 때 마시게 하면 많이 토한다. [ 〈포이(飽治)〉 ]

○환자가 담병(痰病)을 앓아 오래도록 낫지 않을 때는 돼지 허파 1개에 나복자(蘿蔔子) ( 으깬 것 ) 5돈, 백개자(白芥子) ( 으깬 것 ) 1냥, 그리고 양념을 넣고 섞은 뒤 밥술에 찐다. 밥을 먹고 나서 이것을 모두 먹는다. 이렇게 만든 돼지 허파 1개를 모두 먹으면 병이 낫는다. [ 〈포치(飽治)〉 ]

吐治者, 病在胃口之間, 不能下, 則必上越而吐之. 如入<sup>4</sup>上焦, 壅滯痰塊, 不上不下, 塞在胸間, 氣喘, 欲嘔不能, 欲吐不肯者, 是也. 法當用陰陽水探吐之, 或用瓜蒂藜蘆煎汁, 飲之即吐. 然必痰氣與火, 結住<sup>5</sup>在胸間作痛者, 始可用此法吐之, 否則斷斷不可. 蓋人之元氣, 不可一傷, 吐一次, 則五臟反覆, 必損壽元, 故必問其人胸痛否, 氣塞否, 喉間有所碍否, 痰吐出黃否, 有此數種, 始可用前藥以吐之. 苟或不盡然, 即病人自家欲吐, 亦須慎之, 況行醫者乎. [ 吐治 ]

토치(吐治)는 병이 위(胃) 입구 속에 있어 내려보낼 수 없으므로 마땅히 위로 올려 토하게 하는 방법이다. 담(痰) 덩어리가 상초(上焦)를 막고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으며 가슴 속을 막아 기(氣)가 막혀 숨이 차고 토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때는 음양수(陰陽水)를 쓰고 목구멍을 자극해 토하게 하거나, 과체(瓜蒂)와 여로(藜蘆) 달인 물을 마시게 하면 곧 토한다. 그러나 담기(痰氣)가 화(火)와 함께 가슴 속에 맺혀 통증을 나타낼 때만 비로소 이 방법으로 구토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대개 사람의 원기(元氣)는 한 번이라도 손상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번 토하면 오장이 뒤집혀 분명 생명의 근원을 손상시키므로 반드시 환자에게 가슴에 통증이 있는

지 숨이 막히는지 목구멍 속에 막힌 것이 있는지 뱀은 가래가 누런지를 물어야 하며 이 몇 가지 경우에만 비로소 앞의 약으로 구토시킬 수 있다. 만약 다 해결되지 않아 환자가 자기 스스로 토하려고 해도 조심해야 하거늘 하물며 의업(醫業)을 하는 사람이야 어떻겠는가. [〈토치(吐治)〉]

更有一法教人，宜吐之症，必須看其痰，吐在壁上，有光亮者，放心吐之，餘則皆忌。光亮者，如蝸牛之涎一樣光亮也。但觀其光亮者，無論其痰在上中下。此光亮之色，必須俟其痰蹟乾而分辨之，不可據其濕痰時，而即爲光亮也。[吐治]

또 사람들을 일깨워줄 방법 하나가 있다. 토법을 써야 하는 증상은 반드시 그 가래 색을 보아야 한다. 가래를 벽에 뱀었을 때 가래에서 윤기가 흐른다면 안심하고 구토시킬 수 있지만 나머지 경우는 모두 토법을 삼가야 한다. 윤기가 흐른다는 것은 달팽이의 점액과 같이 윤기가 흐른다는 뜻이다. 윤기가 흐르는지 볼 때는 담(痰)이 상초(上焦)·중초(中焦)·하초(下焦) 어디에 있는지 상관 없다. 윤기가 흐르는 빛깔은 반드시 가래를 뱀고 나서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판별해야 하며 축축할 때를 기준으로 윤기가 흐른다고 여겨서는 안된다. [〈토치(吐治)〉]

如痰盛閉塞作痛者，乃痰在上焦也。用化痰飲。[天花粉、甘草、柴胡、半夏、蘇子各一錢，陳皮五分]，治之。或用苡薈七枚，或用皂角一個，水煎湯，吐之。

담(痰)이 많아 꼭 막고 통증을 일으키는 것은 담(痰)이 상초(上焦)에 있는 경우이다. 화담음(化痰飲)을 쓴다. [ 천화분(天花粉)·감초(甘草)·시호(柴胡)·반하(半夏)·소자(蘇子) 각 1돈, 진피(陳皮) 5푼. ] 이 약재로 치료한다. 또는 과체(瓜蒂) 7개나 조각(皂角) 1개를 물에 달여 구토시킨다.

三方極妙，可爲治痰之聖方也。余嘗<sup>6</sup>有方在。初起之痰，用天師方可也。已病之痰，余方亦佳，并附於後，用 [ 白朮·茯苓·薏苡仁各三錢，天花粉二錢，陳皮一錢，益智仁·人蔘各三分。 ] 有火者，加黃芩一錢，無火者，乾薑一錢。水煎服。 ○此方，亦健脾而祛濕，且不耗氣，不助火之沸騰。二劑而痰症自消。久病之痰，用予六味丸湯，加麥門冬·五味子。實有奇功，可與天師方，并傳萬古也。無火者，加附子·肉桂可耳。 [ 痰治 ]

천사(天師)의 3가지 처방은 매우 효과가 좋아서 담(痰)을 치료하는 신령한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나에게도 처방이 있다. 막 생겨난 담(痰)을 치료할 때 천사(天師)의 처방을 써야 하지만, 이미 생겨난 병의 담(痰)은 나의 처방도 좋으니 아울러 뒤에 덧붙인다. [ 백출(白朮)·복령(茯苓)·익이인(薏苡仁) 각 3돈, 천화분(天花粉) 2돈, 진피(陳皮) 1돈, 익지인(益智仁)·인삼(人蔘) 각 3푼. ] 화(火)가 있을 때는 황금(黃芩) 1돈을 더하고, 화(火)가 없을 때는 건강(乾薑) 1돈을 더한다.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이 처방 또한 비(脾)를 건강하게 하고 습(濕)을 제거하면서, 또한 기(氣)를 소모시키지 않고 화(火)가 끓도록 돕지 않는다. 2제(劑)를 쓰면 담(痰)의 증상이 절로 사라진다. 오래된 병의 담(痰)에 나는 육미환탕(六味丸湯)에 맥문동(麥門冬)·오미자(五味子)를 더하

여 사용하는데 정말 효과가 좋아서 천사(天師)의 처방과 함께 영원히 전할 만하다. 화(火)가 없을 때는 부자(附子)·육계(肉桂)를 더해야 좋다. [〈담치(痰治)〉]

予尚有二方，治痰之久，而盛<sup>7</sup>老痰者。方用消渴散。[白芥子、薏苡仁各五錢，白芍藥、茯苓各三錢，牡丹皮二錢，柴胡、甘草各一錢，天花粉八分，陳皮三分。] 水煎服。○又方，治頑痰成塊，而塞在咽喉者，爲頑痰留在胸膈，而不化者，爲老痰也。方用還頑湯。[貝母、桔梗、半夏、茯苓、白朮、神麴各三錢，紫菀二錢，白礬、甘草各一錢。] 水煎服。[痰治]

나에게도 2가지 처방이 있다. 담(痰)이 오래되어 노담(老痰)이 된 것을 치료한다. 소갈산(消渴散) [백개자(白芥子)·의이인(薏苡仁) 각 5돈, 백작약(白芍藥)·복령(茯苓) 각 3돈, 목단피(牡丹皮) 2돈, 시호(柴胡)·감초(甘草) 각 1돈, 천화분(天花粉) 8푼, 진피(陳皮) 3푼.]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또 다른 처방은 완담(頑痰)<sup>8</sup>이 덩어리를 만들어 목구멍을 막은 것과, 완담(頑痰)이 흉격(胸膈)에 머물러 사라지지 않고 노담(老痰)이 된 것을 치료한다. 환완탕(還頑湯) [패모(貝母)·길경(桔梗)·반하(半夏)·복령(茯苓)·백출(白朮)·신곡(神麴) 각 3돈, 자완(紫菀) 2돈, 백반(白礬)·감초(甘草) 각 1돈.]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담치(痰治)〉]

#### 靑州白圓子 청주백원자

- [治風痰壅盛。嘔吐眩暈，及癱瘓風。半夏七兩，南星、白附子各二兩，川烏五錢。右爲末，清水侵春五夏三秋七冬十日，朝夕換水。候臼數足，乃取

納生絹袋中，濾過其滓。再研濾過，以盡爲度。澄清，去水晒乾。又爲末，以糯米粥清和丸菉荳大。羌湯<sup>9</sup>下三五十丸。(局方) ]

- [ 풍담(風痰)이 꼭 막혀서 구토하고 어지럽거나 반신불수가 된 것을 치료한다. 반하(半夏) 7냥, 남성(南星)·백부자(白附子) 각 2냥, 천오(川烏) 5돈. 이 약들을 가루 내어 봄에는 5일, 여름에는 3일, 가을에는 7일, 겨울에는 10일 동안 맑은 물에 담그고 아침저녁으로 물을 갈아준다. 날수가 차면 생사로 찐 주머니 속에 넣고 찌꺼기를 걸러 낸다. 다시 갈아서 거르는데 찌꺼기가 없어질 때까지 한다. 가라앉혀서 물을 버리고 볶에 말린다. 이것을 다시 가루내어 찹쌀 죽 윗물로 녹두 크기만 하게 환(丸)을 빚는다. 생강 달인 물로 30 - 50알씩 삼킨다. (《국방(局方)》) ]

#### 溫中和痰丸 온중화담환

- [ 治冷痰，嘔噦瀉心<sup>10</sup>。青皮、陳皮、良薑、乾薑各等分。右爲末，醋糊和丸梧子大。米飲下五十丸。(局方) ]
- [ 냉담(冷痰)으로 구역질을 하고 속이 메스꺼리는 것을 치료한다. 청피(靑皮)·진피(陳皮)·양강(良薑)·건강(乾薑) 각 같은 양. 이 약재를 가루 내어 식초를 넣고 쉰 밀가루풀로 오동자(梧桐子) 크기만 하게 환(丸)을 빚는다. 미음에 50알씩 먹는다. (《국방(局方)》) ]

#### 山精丸 산정환

- [ 燥濕痰，健脾，清火。蒼朮，米泔浸三日，竹刀刮去皮，陰乾，二斤，黑



桑椹一斗取汁去渣。將蒼朮浸於汁晒乾，如此九次，搗爲細末。枸杞子、地骨皮各一斤。右爲末蜜丸梧子大。每百丸溫湯下之。（必用方）]

- [ 습담(濕痰)을 말리고 비(脾)를 튼튼하게 하며 화(火)를 끈다. 창출(蒼朮)을 쌀뜨물에 3일 동안 담갔다가 대나무칼로 긁어 껍질을 벗긴 뒤 그늘에서 말린 것 2근. 검은 상심(桑椹) 1말을 즈내고 찌꺼기는 버린다. 창출(蒼朮)을 이 즈에 담갔다가別に 말리기를 9차례 한 뒤 곱게 가루 낸다. 구기자(枸杞子)·지골피(地骨皮) 각 1근. 이 약재를 가루 내어 꿀로 오동자(梧桐子) 크기만 하게 환(丸)을 빚는다. 100알씩 따뜻한 물로 삼킨다. (《필용방(必用方)》) ]

#### 清氣和痰丸 청기화담환

- [ 治熱痰。半夏製二兩，陳皮、赤茯苓各一兩五錢，黃芩、連翹、梔子、桔梗、甘草各一兩，薄荷、荊芥各五錢。右爲末，薑汁糊和丸梧子大。薑湯下五十丸。此方乃二陳湯合涼膈散也。（丹心）]
- [ 열담(熱痰)을 치료한다. 반하(半夏) ( 법제한 것 ) 2냥, 진피(陳皮)、적복령(赤茯苓) 각 1냥 5돈, 황금(黃芩)、연교(連翹)、치자(梔子)、길경(桔梗)、감초(甘草) 각 1냥, 박하(薄荷)、형개(荊芥) 각 5돈. 이 약재를 가루 내어 생강즙(生薑汁)을 넣고 쏜 풀로 반죽하여 오동자(梧桐子) 크기만 하게 환(丸)을 빚는다. 강탕(薑湯)에 50알씩 먹는다. 이 처방은 이진탕(二陳湯)과 양격산(涼膈散)을 합한 것이다. (丹心) ]

#### 節齋化痰丸 절재화담환

- [ 專治鬱痰、老痰，膠固稠粘，難於咯唾。天門冬、片苓酒炒、瓜婁仁、橘紅、海粉各一兩，芒硝、香附子鹽水炒、桔梗、連翹各五錢，青黛二錢。右爲末，煉蜜入薑汁少許和丸櫻桃大。細嚼一丸，清湯送下。或如黍米大淡薑湯下五七十丸。 ( 雜著 ) ]
- [ 울담(鬱痰)이나 노담(老痰)이 끈적하게 딱 달라붙어 뱉기 어려운 것을 주로 치료한다. 천문동(天門冬)、편금(片苓) ( 술에 축여 볶은 것 )、과루인(瓜婁仁)、귤홍(橘紅)、해분(海粉) 각 1냥, 망초(芒硝)、향부자(香附子) ( 소금물에 축여 볶은 것 )、길경(桔梗)、연교(連翹) 각 5돈, 청대(靑黛) 2돈. 이 약재를 가루 낸 뒤 줄인 꿀에 생강(生薑) 약간을 넣은 것으로 반죽하여 앵도(櫻桃) 크기만 하게 환(丸)을 빚는다. 1알을 꼭꼭 씹어서 끓인 물로 삼킨다. 혹은 기장 크기만 하게 환(丸)을 빚어 묽은 강탕(薑湯)으로 50 - 70알씩 삼킨다. ( 《잡저(雜著)》 ) ]

#### 加味四七湯 가미사칠탕

- [ 治痰氣鬱結，窒碍於咽喉之間，咯之不出，嚥之不下，謂之梅核氣者。半夏、陳皮、赤茯苓各一錢，神麴炒、只實、南星炮各七分，青皮、厚朴、紫蘇葉、檳榔、砂仁各五分，白豆蔻、益智仁各三分。右剉作一貼，入薑五片水煎服。 ( 醫鑑 ) ]
- [ 담기(痰氣)가 맏혀 목구멍 속을 막아서 뱉어도 나오지 않고 삼켜도 내려가지 않는 것을 매핵기(梅核氣)라고 하는데, 이것을 치료한다. 반하(半夏)、진피(陳皮)、적복령(赤茯苓) 각 1돈, 신국(神麴) ( 볶은 것 )、지실(枳實)、남성(南星) ( 잿불에 묻어 구운 것 ) 각 7푼, 청피(靑皮)、후박(厚朴)、자소엽(紫蘇葉)、

빈랑(檳榔)·사인(砂仁) 각 5푼, 백두구(白豆蔻)·익지인(益智仁) 각 3푼. 이 약재를 썰어서 1첩(貼)으로 삼아 생강(生薑) 5쪽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의감(醫鑑)》) ]

#### 靑礞石丸 청몽석환

- [ 去食積，治濕熱痰。靑礞石二兩，同焰硝二兩，入罐內，鹽泥固濟，晒乾，火煨紅，候冷取出。南星二兩，白礬末五錢和，水浸二日。半夏皂角水浸二日，片芩薑汁炒、赤茯苓、只實、麥夫炒各三兩。風化硝，用蘿菈同煮，硝化去蘿菈濾淨，入牛膽內，風乾，取五錢。右爲末，薑汁煮神麴爲糊和丸梧子大。白湯下三五十丸。此藥妙在風化硝。(入門) ]
- [ 식적(食積)을 제거하고 습열담(濕熱痰)을 치료한다. 청몽석(靑礞石) 2냥을 염초(焰硝) 2냥과 함께 단지에 넣고 소금 섞은 진흙으로 틈을 막은 뒤 벌에 말린다. 붉게 되도록 불에 달구었다 식혀서 꺼낸다. 남성(南星) 2냥을 백반(白礬) 가루 5돈과 섞어 2일 동안 물에 담군다. 반하(半夏) (조각 우린 물에 2일 동안 담군 것), 편금(片芩) (강즙(薑汁)에 축여 볶은 것), 적복령(赤茯苓), 지실(枳實) (밀기울에 볶은 것) 각 3냥. 풍화초(風化硝)를 무와 함께 달이다가 풍화초가 녹으면 무를 빼내고 찌꺼기를 걸러낸 뒤 소 쓸개 속에 넣고 바람 부는 곳에서 말린다. 이것을 5돈 마련한다. 이상의 약재를 가루 낸 다음 강즙(薑汁)으로 신국(神麴)을 달여 쏘 풀로 반죽하여 오동자(梧桐子) 크기만 하게 환(丸)을 빚는다. 끓인물에 50알을 삼킨다. 이 처방의 오묘함은 풍화초(風化硝)에 있다. (《입문(入門)》) ]

### 瑞竹堂化痰丸 서죽당화담환

- [ 治酒痰。消食快脾順氣。南星、半夏、生薑、白礬、皂角各四兩，同入炒鍋<sup>11</sup>內水煮，以南星無白點爲度，去皂角不用，入青皮、陳皮、乾葛、蘇子、神麴、麥芽、山查肉、蘿菔子、香附子、杏仁各一兩。右爲末，薑汁浸蒸餅和丸梧子大。每五七十丸，食後臨臥茶酒任意吞下。 ( 入門 ) ]
- [ 주담(酒痰)을 치료한다. 음식을 소화시키고 비(脾)를 상쾌하게 하며 기(氣)를 순조롭게 한다. 남성(南星)、반하(半夏)、생강(生薑)、백반(白礬)、조각(皂角) 각 4냥. 이상을 함께 사기 단지에 넣고 남성(南星)의 흰 점이 없어질 때까지 물로 달인다. 조각(皂角)은 빼고 쓰지 않으며, 청피(靑皮)、진피(陳皮)、건갈(乾葛)、소자(蘇子)、신국(神麴)、맥아(麥芽)、산사육(山查肉)、나복자(蘿菔子)、향부자(香附子)、행인(杏仁) 각 1냥을 넣는다. 이상을 가루 내어 강즙(薑汁)에 담갔던 증병(蒸餅)으로 반죽하여 오동자(梧桐子) 크기만 하게 환(丸)을 만든다. 식사 후와 잠들기 전에 50~70알씩 기호에 따라 차나 술로 삼킨다. ( 《입문(入門)》 ) ]

### 妙應丹 묘응단

- [ 治驚痰。一身牽引，隱痛不可忍，走易不定，或疑風毒，或爲癱瘓，或爲癰疽，皆非也，乃痰涎伏在心膈，變爲此疾，但服此藥，其疾如失。 ○一名控涎丹 ( 河澗 ) ]
- [ 경담(驚痰)을 치료한다. 온몸이 당기고 은근한 통증을 참을 수 없으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아픈 것을 풍독(風毒)이나 반신불수나 옹저라고 하지만 모두 틀

렸다. 이것은 담연(痰涎)이 흉격(胸膈)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변한 것이다. 이 약만 먹으면 씻은 듯이 낫는다. ○공연단(控涎丹)이라고도 한다. ( 하간(河澗) ) ]

### 導痰湯 도담탕

- [ 治留飲。水停心下，背冷如手掌大，或短氣而渴，四肢歷節疼痛，氣短<sup>12</sup>脉沈細。痛因缺盆<sup>13</sup>，咳嗽轉甚，久則令人骨節蹉跎，恐爲癰瘤，皆因飲酒冒寒，飲水過多所致。半夏製二錢，南星炮、橘紅、枳殼、赤茯苓、甘草各一錢。右剉作一貼，薑五片水煎服。( 得效 ) ]
- [ 유음(留飲)을 치료한다. 유음이 있으면 수기(水氣)가 명치에 머물러 등이 손바닥 크기만큼 차다. 더러 숨이 짧고 갈증이 나며 팔다리 관절이 돌아가며 아프고 맥(脈)이 침세(沈細)하다. 옆구리 통증이 결분(缺盆)까지 미치고 기침을 하면 더욱 심해진다. 오래되면 관절이 어긋나고 전간(癰瘤)이 될 염려가 있다. 이는 모두 술을 마시고 찬기운을 쏘였거나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셨기 때문이다. 반하(半夏) ( 법제한 것 ) 2돈, 남성(南星) ( 잿불에 묻어 구운 것 )、귤홍(橘紅)、지각(枳殼)、적복령(赤茯苓)、감초(甘草) 각 1돈. 이 약재를 썰어 1첩으로 만든 뒤 생강(生薑) 5쪽과 함께 물에 달여 복용한다. ( 《득효(得效)》 ) ]

### 三花神祐丸 삼화신우환

- [ 水癖在兩脇下，動搖有聲。治一切水濕成病。黑丑頭末二兩，大黃一兩，芫花、甘遂、紫大戟各五錢，輕粉一錢。右末，水丸小豆大。初服五丸，每

服加五丸，以溫水送下。（宣明）]

- [ 물 덩어리가 양쪽 옆구리 아래에 있어 움직이면 소리가 날 때 쓴다. 수습(水濕)으로 생겨난 온갖 병을 치료한다. 흑축(黑丑) (말물가루) 2냥, 대황(大黃) 1냥, 원화(芫花)·감수(甘遂)·자대극(紫大戟) 각 5돈, 경분(輕粉) 1돈. 이 약재를 가루 내어 물로 소두(小豆)만 하게 환(丸)을 빚는다. 처음 5알을 시작으로 복용할 때마다 5알씩 더하면서 먹는다. 따뜻한 물로 삼킨다. (《선명(宣明)》) ]

#### 苓桂朮甘湯 영계출감탕

- [ 治痰飲。赤茯苓二錢，桂枝、白朮各一錢半，甘草一錢。右剉作一貼，水煎服。（仲景） ]
- [ 담음(痰飲)을 치료한다. 적복령(赤茯苓) 2돈, 계지(桂枝)·백출(白朮) 각 1돈 반, 감초(甘草) 1돈. 이 약재를 썰어 1첩으로 만든 뒤 물에 달여 복용한다. (중경(中景)) ]

#### 小青龍湯 소청룡탕

- [ 治溢飲。飲水流行，歸於四肢，當汗而不汗出，身體重痛。麻黃、白芍藥、五味子、半夏製各一錢半，細辛、乾薑、桂枝、甘草炙各一錢。右剉作一貼，水煎服。此渴者<sup>14</sup>，裏氣溫水欲散也。 ]
- [ 일음(溢飲)을 치료한다. 마신 물이 팔다리로 흘러들어 땀으로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고 몸이 무겁고 아픈 것이 일음이다. 마황(麻黃)·백작약(白芍藥)·오미자(五味子)·반하(半夏) (법제한 것) 각 1돈 반, 세신(細辛)·건강(乾薑)

· 계지(桂枝)· 감초(甘草) ( 구운 것 ) 각 1돈. 이 약재를 썰어 1첩으로 만든 뒤 물에 달여 복용한다. 이 약을 먹고 갈증이 생기는 것은 속이 따뜻해져서 수(水)가 흠어지려 하기 때문이다. ]

#### 十棗湯 십조탕

- [ 治懸飲。飲後水流在脇下，動搖漉漉有聲。芫花微炒、甘遂、紫大戟炒。右等分爲末，別取大棗十枚，水一盞煎至半盞，去棗調藥末。壯大者，一錢式，弱人半錢服。大便利下水，以稀粥補之。 ( 入門 ) ]
- [ 현음(懸飲)을 치료한다. 물을 마신 후 물이 옆구리 아래로 흘러들어 출렁거리며 꾸룩꾸룩 소리가 나는 것이 현음이다. 원화(芫花) ( 약간 볶은 것 ) · 감수(甘遂) · 자대극(紫大戟) ( 볶은 것 ) . 이 약재를 같은 양씩 가루 낸다. 따로 대조(大棗) 10개를 물 1잔(盞)에 넣고 반 잔이 되도록 달인 뒤 대추를 제거하고 가루냈던 약재를 넣는다. 건장한 사람은 1돈을, 약한 사람은 반 돈을 복용한다. 대변으로 물설사를 하고 나면 묽은 죽으로 보해준다. (《입문(入門)》) ]

#### 茯苓五味子湯 복령오미자탕

- [ 治支飲。咳逆依息，短氣不得臥，其形如腫。手足冷痺，多唾，止臭<sup>15</sup>氣上衝胸咽，面熱如醉，時復眩冒。赤茯苓二錢，桂心、甘草各一錢半，五味子一錢二分半。右剉作一貼，水煎服。支飲，法當冒，冒者必嘔。嘔者，復滿加半夏<sup>16</sup>，以去其飲，飲去則嘔止。 ( 仲景 ) ]
- [ 지음(支飲)을 치료한다. 기침을 하고 기대어 숨을 쉬며 숨이 가빠 누울 수 없

고 몸이 부은 듯한 것이 지음이다. 손발이 차고 저리며, 침을 많이 뱉고 아랫배에서 가슴과 목구멍까지 기운이 치솟아 오르며 얼굴이 술에 취한 듯 붉고 때때로 어지럽다. 적복령(赤茯苓) 2돈, 계심(桂心)·감초(甘草) 각 1돈 반, 오미자(五味子) 1돈 2푼 반. 이 약재를 썰어 1첩으로 만든 뒤 물에 달여 복용한다. 지음(支飲)이 있으면 분명 어지럽고, 어지러움은 반드시 구역질을 동반한다. 구역질이 날 때는 다시 반하(半夏)를 더하여 그 지음(支飲)을 제거한다. 지음이 제거되면 구역질이 멎는다. ( 중경(中景) ) ]

或妙應丹 [ 方見上 ] 、三花神祐丸 [ 方見上 ] ○治伏飲。膈上痰滿，喘咳或吐，發則寒熱，背痛腰痛，目淚自出，其人振振身瞤，必有伏飲者也。 ( 仲景 ) ]

또는 묘응단(妙應丹) [ 처방은 앞에 나온다. ] ·삼화신우환(三花神祐丸) [ 처방은 앞에 나온다. ] ○복음(伏飲)을 치료한다. 흉격(胸膈) 위에 담(痰)이 차 있으면 숨이 차고 기침을 하며 더러 토하기도 한다. 증상이 발작하면 오한과 발열이 나타나고 등이나 허리가 아프며 눈에서 절로 눈물이 나온다. 환자의 살이 심하게 부들부들 떨리면 반드시 복음(伏飲)이 있는 것이다. ( 중경(中景) ) ]

辨痰色法 [ 寒痰清，濕痰白，火痰黑，熱痰黃，老痰膠。 ( 入門 ) ]

담(痰)의 색을 변별하는 방법 [ 한담(寒痰)은 맑고, 습담(濕痰)은 희며, 화담(火痰)은 검고, 열담(熱痰)은 누르며, 노담(老痰)은 끈적거린다. ( 《입문(入門)》 ) ]

#### 痰飲治法 담음(痰飲) 치법



- 熱痰清之 [ 用石膏、青黛、梔子、黃芩、黃連 ]。寒痰溫之 [ 用半夏、乾薑、附子、肉桂 ]。燥痰潤之 [ 用瓜婁仁、杏仁、五味子、天花粉 ]。濕痰燥之 [ 用蒼朮、白朮、厚朴、茯苓 ]。風痰散之 [ 用南星、皂角、白附子、竹瀝 ]。老痰軟之 [ 用海石、芒硝、瓜婁仁、枳殼、便香附子 ]。食積痰消之 [ 用山查子、神麴、麥芽 ]。大要以人蔘、甘草補脾，以白朮、半夏燥濕，以青皮、陳皮利氣，以茯苓、澤瀉滲水也。( 丹心 )
- 열담(熱痰)은 열을 내려 준다. [ 석고(石膏)、청대(靑黛)、치자(梔子)、황금(黃芩)、황련(黃連)을 쓴다. ] 한담(寒痰)은 따뜻하게 해준다. [ 반하(半夏)、건강(乾薑)、부자(附子)、육계(肉桂)를 쓴다. ] 조담(燥痰)은 축축하게 해준다. [ 과루인(瓜婁仁)、행인(杏仁)、오미자(五味子)、천화분(天花粉)을 쓴다. ] 습담(濕痰)은 말려준다. [ 창출(蒼朮)、백출(白朮)、후박(厚朴)、복령(茯苓)을 쓴다. ] 풍담(風痰)은 흩어준다. [ 남성(南星)、조각(皂角)、백부자(白附子)、죽력(竹瀝)을 쓴다. ] 노담(老痰)은 불러준다. [ 해석(海石)、망초(芒硝)、과루인(瓜婁仁)、지각(枳殼)、향부자(香附子) ( 동변에 법제한 것 ) 을 쓴다. ] 식적담(食積痰)은 삭여준다. [ 산사자(山查子)、신국(神麴)、맥아(麥芽)를 쓴다. ] 중요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인삼(人蔘)、감초(甘草)로 비(脾)를 보하고, 백출(白朮)、반하(半夏)로 습(濕)을 말리며, 청피(靑皮)、진피(陳皮)로 기(氣)를 잘 흐르게 하고, 복령(茯苓)、택사(澤瀉)로 물을 흘려보낸다. ( 《단심(丹心)》 )

痰病難治症 [ 氣實熱痰，吐難得出，或成塊，吐咯不出，氣鬱滯者，難治。又曰，氣實痰熱結者，難治。( 丹心 ) ○喉中漉漉有聲，喘急，咯痰不出者，難治。( 回春 ) ○痰涎等病，不一而是<sup>17</sup>，惟勞瘵有痰爲難治，最宜早灸膏盲、四

花穴。詳見鍼灸（資生經） ○肺胃經虛，則生粘痰。痰者，肺胃所出也。痰涎凝滯在於咽喉，如牽鉅之聲，時復痰癰，或因吐瀉所致，脾虛肺亦虛，痰涎流溢，變成癰癩，尤爲難治。（全鑑方<sup>18</sup>）]

치료하기 어려운 담병(痰病) 증후 [ 기(氣)가 실한데 열담이 생겨 토해도 잘 나오지 않거나, 담(痰)이 덩어리를 만들어 뱉어도 나오지 않는 것은 기(氣)가 울체된 경우로 치료하기 어렵다. 또, 기(氣)가 실한데 담열(痰熱)이 뭉친 것은 치료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단심》) ○목구멍에서 그러그렁 소리가 나고 숨이 차며 가래를 뱉어도 잘 나오지 않는 것은 치료하기 어렵다. (《회춘》) )  
○담연(痰涎) 등의 병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채(勞瘵)로 담이 있는 경우만은 치료하기 어렵다. 빨리 고향(膏肓)·사화혈(四花穴)에 뜸을 떼야 한다. 자세한 것은 침구편에 나온다. (《자생경》) ○폐경(肺經)·위경(胃經)이 허하면 끈적한 담이 생긴다. 담은 폐(肺)와 위(胃)에서 나온다. 담연이 목구멍에 엉겨 톹질하는 듯한 소리가 나고 때로 경련이 생기는 경우, 또는 토하고 설사하여 비(脾)가 허해지고 폐도 허해져서 담연이 넘쳐 전간(癲癇)으로 변한 경우는 더욱 치료하기 어렵다. (《전영방》) ]

1. 胞絡 ⇨ 包絡 ※《동의보감》↩
2. 見下 ⇨ 方見下 ※문맥상 ↩
3. 五味子調和 ⇨ 五味調和 ※《석실비록》↩
4. 入 ⇨ 人 ※《석실비록》↩

5. 結住 ㄱ 結在 ※《석실비록》↩

6. 嘗 : 尙 ※《석실비록》↩

7. 盛 ㄱ 成 ※《석실비록》↩

8. 완담(頑痰) : 단단하게 엉겨붙은 담(痰) ↩

9. 羌湯 ㄱ 薑湯 ※《동의보감》↩

10. 瀉心 ㄱ 惡心 ※《동의보감》↩

11. 炒鍋 ㄱ 砂鍋 ※《동의보감》↩

12. 氣短 : 《동의보감》을 근거로 연문으로 보고 번역하지 않았다. ↩

13. 痛因缺盆 ㄱ 脇痛引缺盆 ※《동의보감》↩

14. 此渴者 ㄱ 服此渴者 ※《동의보감》↩

15. 止臭 ㄱ 小腹 ※《동의보감》↩

16. 復滿加半夏 ㄱ 復內半夏 ※금궤요략 ↩

17. 是 ㄱ 足 ※《동의보감》↩

18. 全鑑方 ㄱ 全嬰方 ※《동의보감》↩

## 五臟六腑 오장육부

臟腑陰陽 [ 言人身之藏府中陰陽，則臟爲陰腑爲陽也。肝、心、脾、肺、腎五臟皆爲陰，膽、胃、大腸、小腸、膀胱、三焦六腑皆爲陽。 ( 內經 ) ]

장부의 음양 [ 사람의 장부(臟腑)를 음양(陰陽)으로 구분하자면, 장(臟)은 음(陰)에 해당하고 부(腑)는 양(陽)에 해당한다. 간(肝)、심(心)、비(脾)、폐(肺)、신(腎) 오장(五臟)은 모두 음(陰)에 해당한다. 담(膽)、위(胃)、대장(大腸)、소장(小腸)、방광(膀胱)、삼초(三焦) 육부(六腑)는 모두 양(陽)에 해당한다. ( 《내경(內經)》 ) ]

## † 五臟 오장

## 肝臟 간장

肝病證 [ 邪在肝, 則兩脇中痛, 寒中, 惡血在內。 ( 靈樞 ) ○肝病在<sup>1</sup>, 兩脇下痛引小腹, 令人善怒。 ○肺傳之肝病, 名曰肝痺, 一名厥, 脇痛出食。 ○肝熱者, 色蒼而爪枯。 ( 內經 ) ○外證, 善潔, 面青, 善怒。內證, 臍左有動氣, 按之牢若痛。其病四肢滿閉, 淋瀝便難, 轉筋。有是者, 肝也, 無是者, 非也。 ( 難經 ) ○大骨枯槁, 大肉陷下, 胸中氣滿, 腹內痛, 心中不便, 肩項身熱, 破脰脫肉, 目眶陷, 眞藏見, 目不見人立死, 其見人者, 至其所不勝之時則死。註曰, 此肝之臟也, 所不勝之時, 謂庚辛之月也。 ( 內經 ) ]

간병증 [ 사기(邪氣)가 간(肝)에 있으면 양 옆구리 속이 아프고 속이 차며 몸 안에 나쁜 피가 있다. (《영추(靈樞)》) ○간병(肝病)은, 양 옆구리의 통증이 아랫배까지 미치고 화를 잘 낸다. ○폐(肺)의 병사(病邪)가 간(肝)으로 전해진 것을 간비(肝痺)라 하며 궤병(厥病)이라고도 하는데, 옆구리가 아프고 먹은 것을 토한다. ○간(肝)에 열이 있으면 안색이 푸르고 손발톱이 마른다. (《내경(內經)》) ○간병(肝病)의 외증(外證)은, 깔금떨고 얼굴이 푸르며 화를 잘 내는 것이다. 내증(內證)은, 배꼽 왼쪽에 동기(動氣)가 있고 누르면 단단하여 아픈 듯 느껴지는 것이다. 간병이 들면 팔다리를 모두 쓰지 못하며 소변이 찝끔 찝끔 잘 나오지 않고 대변도 보기 어려우며 굳이 뒤틀린다.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간병이고 이러한 증상이 없으면 간병이 아니다. (《난경(難經)》) ○큰

뼈가 드러나고 살이 많아야 할 곳이 움푹해지며, 가슴속에 기(氣)가 그득하고  
 뱃속이 아프며, 가슴속이 불편하고, 어깨와 목덜미와 몸에 열이 있으며, 근육  
 (肌肉)이 빠지고, 눈자위가 함몰되면서 진장맥이 나타난 경우, 눈으로 사람을  
 보지 못하면 바로 죽고 사람을 볼 수 있으면 자신을 이기는 때에 이르러 죽는  
 다. 주석에서 말하였다. "이것은 간장(肝臟)이므로 자신을 이기는 때란 경신월  
 (庚辛月)을 말한다." (《내경(內經)》) ]

肝病虛實 [ 肝藏血，血舍魂。肝氣虛則恐，實則怒。 ○肝實則兩脇下痛引小  
 腹，善怒。虛則目眈眈無所見，耳無所聞，善恐如人將捕之。(靈樞) ○肝藏  
 血，血有餘則怒，不足則恐。(內經) ○人動則血運於諸經，靜則血歸於肝臟，  
 肝主血海故也。(入門) ○肝虛宜清肝湯，肝實宜瀉青丸。(方見下) ]

간병(肝病)의 허증(虛證)과 실증(實證) [ 간(肝)은 혈(血)을 저장하고, 혈에 혼  
 (魂)이 깃든다. 간기(肝氣)가 허하면 두려워하고 실하면 화를 낸다. ○간이 실  
 하면 양 옆구리 아래 통증이 아랫배까지 미치고 화를 잘 낸다. 허하면 눈이 희  
 미하여 잘 보지 못하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잡으려 오는 것처  
 럼 쉽게 두려워한다. (《영추(靈樞)》) ○간은 혈을 저장한다. 혈이 남아돌면  
 화를 내고 부족하면 두려워한다. (《내경(內經)》) ○사람이 움직일 때는 혈  
 이 여러 경맥을 흘르고, 가만히 있을 때는 혈이 간장(肝臟)으로 돌아간다. 간이  
 혈해(血海)를 주관하기 때문이다. (《입문(入門)》) ○간이 허하면 청간탕(淸  
 肝湯)을 쓰고, 간이 실하면 사청환(瀉靑丸)을 쓴다. (처방은 뒤에 나온다.) ]

春宜理氣<sup>2</sup>，舒發之中，宜用理氣之藥。方名迎春湯。〔白芍藥三錢，當歸二錢，人蔘、黃芪、柴胡、甘草各一錢，陳皮、神麴冬<sup>3</sup>五分。水煎服。○見下三卷。〕

봄에는 소통시켜 내보내야 하니, 퍼뜨리는 중에 기(氣)를 다스리는 약을 써야 한다. 이 처방 이름은 영춘탕(迎春湯)이다. [ 백작약(白芍藥) 3돈, 당귀(當歸) 2돈, 인삼(人蔘)、황기(黃芪)、시호(柴胡)、감초(甘草) 각 1돈, 진피(陳皮)、신곡(神麴) 각 5푼. 물에 달여 복용한다. ○처방은 뒤의 권3에 나온다. ]

肝木之盛，抑之之法，必須和解。然和解之中，而不用抑之之法，則火愈盛，木愈旺矣。方用散風湯。〔白芍藥五錢，炒梔子、當歸各三錢，白芥子、甘草、柴胡、荊芥、澤瀉各一錢。水煎服。（抑治）〕

목(木)에 해당하는 간(肝)의 기운이 왕성할 때 이를 억누르는 방법은 분명 화해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화해시키면서 억누르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화(火)가 왕성해짐에 따라 목(木)도 왕성해진다. 산풍탕(散風湯)을 쓴다. [ 백작약(白芍藥) 5돈, 치자(梔子) ( 볶은 것 )、당귀(當歸) 각 3돈, 백개자(白芥子)、감초(甘草)、시호(柴胡)、헝개(荊芥)、택사(澤瀉) 각 1돈. 물에 달여 복용한다. (〈억치(抑治)〉) ]

疏通肝邪，發治者也。邪入皮毛腠理，將入榮衛，而急發散之謂也。方用〔白朮三錢，蘇葉、柴胡、荊芥、半夏、蒼朮、牡丹皮、甘草各一錢。〕水煎服。  
[ 發治 ]

간(肝)의 사기(邪氣)를 배출시키는 것은 발치(發治)에 해당한다. 사기(邪氣)가 피모(皮毛)와 주리(腠理)에 들어가서 장차 영위(榮衛)에 침입할 것 같을 때 급히 발산(發散)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다음과 같은 처방을 쓴다. [ 백출(白朮) 3돈, 소엽(蘇葉)、시호(柴胡)、형개(荊芥)、반하(半夏)、창출(蒼朮)、목단피(牡丹皮)、감초(甘草) 각 1돈. ] 물에 달여 복용한다. [ 〈발치(發治)〉 ]

病在左者，如兩脇脹滿不可左臥者，此病在肝也，法宜專治肝也。今偏不治肝而兼治肺。蓋肝木之旺，由於肺金之虛，金不制木，則木愈盛，木盛則脾土更無所養，肺金益虛，則肝木益旺，而病無已時也。方用 [ 黃芩、麥門冬、白芍藥、當歸各三錢，人蔘、柴胡、甘草、白茯苓各一錢，陳皮五分。水煎服。 ] 一劑止 二劑愈 三劑全愈。[ 偏治 ]

양쪽 옆구리가 창만하면서 왼쪽으로 눕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병이 왼쪽에 있을 때는 병이 간(肝)에 있는 것이므로 보통 간(肝)에 집중해서 치료한다. 그러나 이제는 간만 치료하지 않고 폐(肺)도 치료한다. 대개 간(肝)의 목(木) 기운이 왕성한 것은 폐(肺)의 금(金) 기운이 허하기 때문이다. 금(金)이 목(木)을 억제하지 못하면 목(木)의 기운이 더욱 왕성해지고, 목의 기운이 왕성해지면 비(脾)의 토(土) 기운 역시 길러지지 못하여 폐(肺)의 금(金) 기운이 더욱 허약해진다. 그렇게 되면 간(肝)의 목(木) 기운이 더욱 왕성해져서 병이 낫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처방을 쓴다. [ 황금(黃芩)、맥문동(麥門冬)、백작약(白芍藥)、당귀(當歸) 각 3돈, 인삼(人蔘)、시호(柴胡)、감초(甘草)、백복령(白茯苓) 각



1돈, 진피(陳皮) 5푼. 물에 달여 복용한다. ] 1제(劑)를 복용하면 증상이 그치고, 2제(劑)를 복용하면 나아지며, 3제(劑)를 복용하면 완치된다. [ 〈편치(偏治)〉 ]

如人病身痛，雙手、兩足、腹痛、心痛。上下中央，治肝爲主，肝氣一舒，則諸症自愈。方用加減逍遙散。[ 白芍藥、茯苓、薏苡仁各五錢，當歸、蒼朮各二錢，柴胡、陳皮、梔子、甘草各一錢。 ] 水煎服。[ 單治 ]

환자가 몸이 아플 때 두 팔이 아프거나, 두 다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프거나, 가슴이 아픈 경우처럼 한 곳만 아픈 경우가 있다. 그러나 몸의 상부·하부·중앙이 모두 아프다면 간(肝)을 중심으로 치료해야 한다.<sup>4</sup> 간기(肝氣)가 일단 풀리면 온갖 증상이 절로 낫는다. 가미소요산(加減逍遙散)을 쓴다. [ 백작약(白芍藥)、복령(茯苓)、의이인(薏苡仁) 각 5돈, 당귀(當歸)、창출(蒼朮) 각 2돈, 시호(柴胡)、진피(陳皮)、치자(梔子)、감초(甘草) 각 1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 〈단치(單治)〉 ]

#### 淸肝湯 청간탕

- [ 治肝虛。方見火門 ]
- [ 간허(肝虛)를 치료한다. 처방은 〈화문(火門)〉에 나온다. ]

#### 瀉靑丸 사청환

- [ 治肝實。當歸、草龍膽、川芎、梔子、大黃煨、羌活、防風各等分。右爲末，蜜丸芡實大。每一丸，竹葉湯同砂糖溫水和下。 ○一名凉肝丸。(綱

目 ) ]

- [ 간실(肝實)을 치료한다. 당귀(當歸)·초용담(草龍膽)·천궁(川芎)·치자(梔子)·대황(大黃) (젓불에 묻어 구운 것)·강활(羌活)·방풍(防風) 각 같은 양. 이 약재를 가루 내어 꿀로 검실(芡實) 크기만 하게 환(丸)을 빚는다. 복용할 때마다 1알을 죽엽탕(竹葉湯)이나 따뜻한 설탕물에 녹여 먹는다. ○양간환(涼肝丸)이라고도 한다. (《강목(綱目)》) ]

肝絶候 [ 足厥陰氣絶, 則筋絶. 厥陰者, 肝脉也. 肝者, 筋之合也. 筋者, 聚于陰器而絡于舌本也. 故脉不榮則筋急, 筋急則引舌與卵. 故唇青舌卷卵縮, 則筋先死. 庚曰篤, 辛日死. ○厥陰終者, 中熱, 噤乾, 善尿, 心煩. 甚則舌卷囊上縮而終矣. (靈樞) ○唇吻反青, 四肢皴習, 汗出者, 此爲肝絶也. (仲景) ○肝絶八日死, 何以知之. 面青, 但欲伏眼, 目示而不見人, 汗出如不止. ○八日一作三日. (脉經) ]

간기(肝氣)가 끊어진 징후 [ 족궤음(足厥陰)의 기(氣)가 끊어지면 근(筋)이 끊어진다. 궤음(厥陰)은 간맥(肝脈)이고, 간(肝)은 근(筋)과 서로 짝을 이룬다. 근(筋)은 생식기에 모였다가 허뿌리에 이른다. 그러므로 간맥에 자양되지 못하면 근이 당기고, 근이 당기면 허와 음낭이 당긴다. 그러므로 입술이 퍼렇게 혀가 말리며 음낭이 오그라들면 근이 먼저 죽은 것이다. 이런 경우 경일(庚日)에 위독해지고 신일(辛日)에 죽는다. ○궤음맥(厥陰脈)의 기(氣)가 끊어지면, 속에서 열이 나고 목구멍이 마르며 소변이 잦고 가슴이 답답하다. 심하면 혀가 말리고 음낭이 위로 오그라붙어서 죽는다. (《영추(靈樞)》) ○입술이 뒤집혀 퍼렇게 되고, 사지가 퍼졌다 오그라들었다 하며 땀이 나는 것은 간기(肝氣)

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 중경(仲景) ) ○간기(肝氣)가 끊어지면 8일 만에 죽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얼굴이 퍼렇고 엎드려 자려고만 하며, 눈은 떴으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물 같은 땀이 그치지 않는다. ○'8일'을 '3일'이라고 한 곳도 있다. (《맥경(脈經)》) ]

## 心臟 심장

心病症 [ 邪在心,則病心痛,喜悲,時眩仆. ( 靈樞 ) ○腎傳之心,病筋脉相引而急,病名曰癰. ○心熱者,色赤而絡脉溢也. ( 內經 ) ○外症,面赤,口乾,善笑. 內症,臍上有動氣,按之牢若痛. 其病煩心心痛,掌中熱而暈. 有是者心也,無是者非也. ( 難經 ) ○大骨枯槁,大肉陷下,胸中氣滿,喘息不便,內痛引肩項,期一月死. 眞臟見,乃與之期日. 註曰,此心之藏也. 期後三十日內死. ( 內經 ) ○健忘失記,驚悸不安,心內懊懣不樂,皆心血少故也. ( 入門 ) ]

심병증(心病症) [ 사기(邪氣)가 심(心)에 있으면 가슴이 아프고 잘 슬퍼하며 때로 어지러워 쓰러진다. (《영추(靈樞)》) ○신(腎)의 사기(邪氣)가 심(心)에 전해지면 근맥이 서로 팽팽하게 당긴다. 이 병을 계(癰)라고 한다. ○심(心)에 열이 있으면 안색이 붉고 낙맥으로 피가 넘친다. (《내경(內經)》) ○외증은 얼굴이 붉고 입이 마르며 잘 웃는 것이다. 내증은 배꼽 위에 동기(動氣)가 있고 누르면 단단하여 아픈 듯 느껴지는 것이다. 심병이 들면 가슴이 답답하고 심통이 있으며 손바닥 가운데에서 열이 나고 헛구역질을 한다.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심병이고 이러한 증상이 없으면 심병이 아니다. (《난경(難經)》) ○

큰 뼈가 드러나고 살이 많아야 할 곳이 움푹해지며, 가슴속에 기(氣)가 그득하고 숨이 차서 불편하며, 가슴속이 아프면서 어깨와 목덜미까지 당기면 한 달 안에 죽는다. 진장맥이 나타나면 죽는 날이 머지 않은 것이다. 주석에서 말하였다. "이것은 심장(心臟)이므로 30일 안에 죽는다." (《내경(內經)》) ○견망증으로 잘 기억하지 못하고 놀라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며 가슴이 답답하여 즐겁지 않은 것은 모두 심(心)에 혈(血)이 적기 때문이다. (《입문(入門)》) ]

心病虛實 [ 心藏脉, 脉舍神, 心氣虛則悲, 實則笑不休。 ○心實則胸中痛, 脇支滿, 脇下痛, 膺背肩胛間痛, 兩臂內痛。 心虛則胸腹大, 脇下與腰背相引而痛。 (靈樞) ○心藏神, 神有餘則笑不休, 不足則悲。 (內經) ○心虛宜錢氏安神丸, 心實宜瀉心湯。 方見下 ]

심병(心病)의 허증(虛證)과 실증(實證) [ 심(心)은 맥(脉)을 간직하고, 맥(脈)에 신(神)이 머문다. 심기(心氣)가 허하면 슬퍼하고 실하면 웃음이 그치지 않는다. ○심(心)이 실하면 가슴속이 아프고, 옆구리가 결리면서 갑갑하며 옆구리 아래가 아프고, 가슴·등·견갑골 속이 아프며 양 팔뚝 안쪽이 아프다. 심이 허하면 가슴과 배가 커지고 옆구리 아래와 허리·등이 당기면서 아프다. (《영추(靈樞)》) ○심은 신(神)을 간직한다. 신이 남아돌면 웃음이 멈추지 않고 신이 부족하면 슬퍼한다. (《내경(內經)》) ○심(心)이 허하면 전씨안신환(錢氏安神丸)을 쓰고, 심이 실하면 사심탕(瀉心湯)을 쓴다. 처방은 뒤에 나온다. ]

心痛之症，有二。一則寒氣侵心而痛，一則火氣焚心而痛。寒氣侵心者，手足反溫，火氣焚心者，手足反冷。以此辨之最得。寒痛與火痛不同，而能死人則一也。吾得二方，一治寒，一治熱，無不應效如響。治寒痛者，名散寒止痛湯。

[ 良干、白朮、蒼朮、貫衆各三錢，肉桂、茯神、草烏各一錢。 ] 水煎服

[ ( 內傷 ) ] ○治熱痛者，名瀉火止痛湯。 [ 白芍藥二兩，炒梔子三錢，半夏、柴胡、甘草各一錢。 ] 水煎服 [ ( 內傷 ) ]

심통(心痛)의 증상에는 2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한기(寒氣)가 심(心)에 침입하여 아픈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화기(火氣)가 심(心)을 불태워 아픈 것이다. 한기(寒氣)가 심(心)에 침입했을 때는 손발이 도리어 따뜻하고, 화기(火氣)가 심(心)을 불태워 아플 때는 손발이 도리어 차가우니 이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한(寒)으로 인한 통증과 화(火)로 인한 통증은 서로 다르지만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나에게 2가지 처방이 있는데, 하나는 한(寒)으로 인한 심통을 치료하고, 다른 하나는 열(熱)로 인한 심통을 치료하니, 즉각 효과를 나타낸다. 한(寒)으로 인한 심통을 치료하는 처방은 산한지통탕(散寒止痛湯)이라고 부른다. [ 양강(良薑)、백출(白朮)、창출(蒼朮)、관중(貫中) 각 3돈, 육계(肉桂)、복신(茯神)、초오(草烏) 각 1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 (〈내상(內傷)〉) ] ○열(熱)로 인한 심통을 치료하는 처방은 사화지통탕(瀉火止痛湯)이라고 부른다. [ 백작약(白芍藥) 2냥, 붉은 치자(梔子) 3돈, 반하(半夏)、시호(柴胡)、감초(甘草) 각 1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 (〈내상(內傷)〉) ]

人病心痛，世皆以爲病在心，不知心乃神明之宰，一毫邪氣不可干犯，犯則立死。人病心痛，終年累歲而不愈者，非心痛也。乃胞絡<sup>5</sup>爲心之膜，以障心宮，邪犯胞絡，則心必痛。包絡名爲膻中 乃心之臣也。相爲賊所攻，君有不振怒者乎。臣辱則君憂，此心之所以痛而不寧也。然則宜治胞絡，何以必責之肝也。肝屬木，胞絡屬火，肝木生心火，治其肝木之寒，則心火有養，而包絡之寒邪自散。況肝之氣既溫，生心之餘，必能來生胞絡，故不必救胞絡，而必先救肝。肝木得寒，則瀋而不舒。散肝木之邪，即所以散胞絡之邪也。方用定痛至聖湯。〔當歸一兩，白芍藥五錢，蒼朮、肉桂各二錢，良薑一錢。〕 水煎服。此寒邪犯胞絡之方。如此更有熱邪來犯胞絡奈何。寒邪之犯，必惡寒，見水則如仇讐，手火燭之則快也。熱邪之犯，見水喜悅，手按之轉痛是也。故熱痛之病，必然呼號痛，不能安於床，治法亦責之肝。蓋胞絡之熱，由於肝經之熱也。瀉其肝木之旺，而去其鬱熱之火，不必救胞絡之焚，而胞絡之火自衰矣。方用解熱至聖丹。〔白芍藥一兩，生地黃五錢，炒梔子、當歸各三錢，甘草一錢，陳皮八分。〕 水煎服。二劑即安然如故矣。〔偏治〕

환자가 심통(心痛)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병이 심(心)에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심(心)은 신명(神明)이 주재하는 곳으로 조금의 사기(邪氣)도 침입할 수 없으며 만약 침입하면 환자가 죽게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하는 말이다. 환자가 1년 내내 여러해 동안 심통(心痛)이 있어 낫지 않는 것은 심통(心痛)이 아니다. 포락(包絡)은 심(心)을 싸고 있는 막으로 심(心)을 보호하는 직책이다. 사기(邪氣)가 포락에 침입하면 심은 반드시 아프게 된다. 포락(包絡)은 전중(膻中)이라고 부르는데 심(心)의 신하이다. 재상이 도적의 공격을 받으면 임금 이 어찌 화내지 않겠는가. 신하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임금은 걱정하게 된다.

이것이 심(心)이 아프고 편하지 않은 이유이다. 그렇다면 포락(包絡)을 치료해야 하는데 어째서 간(肝)을 책망하는가. 간(肝)은 목(木)에 속하고, 포락(包絡)은 화(火)에 속한다. 간목(肝木)은 심화(心火)를 낳으므로 간목(肝木)의 한(寒)을 치료하면 심화(心火)가 길러지고 포락(包絡)의 한사(寒邪)가 절로 흩어진다. 하물며 간(肝)의 기(氣)가 이미 따뜻하다면 심(心)을 기르고 남은 힘으로 반드시 포락(包絡)을 기를 것이다. 그러므로 포락(包絡)을 치료할 필요 없이 먼저 간(肝)을 치료해야 한다. 간목(肝木)에 한(寒)이 침입하면 기운이 막혀 펼쳐지지 못한다. 간(肝)의 사기(邪氣)를 몰아내는 것은 곧 포락(包絡)의 사기를 몰아내는 일이다. 처방으로는 정통지성탕(定痛至聖湯)을 쓴다. [ 당귀(當歸) 1냥, 백작약(白芍藥) 5돈, 창출(蒼朮)·육계(肉桂) 각 2돈, 양강(良薑) 1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이 처방은 한사(寒邪)가 포락(包絡)에 침입하였을 때 쓰는 처방이다. 그렇다면 열사(熱邪)가 포락(包絡)에 침입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사(寒邪)가 침입했을 때는 반드시 오한(惡寒)이 생기고 물을 원수처럼 매우 싫어하며 손으로 따뜻하게 해주면 좋아한다. 열사(熱邪)가 침입했을 때는 물을 보면 기뻐하고 손으로 누르면 아파한다. 그러므로 열(熱)로 인해 심통을 앓는 환자는 반드시 아프다고 소리치르며 침상에 편안히 있지 못한다. 치료할 때는 역시 간(肝)을 다스린다. 대개 포락(包絡)의 열은 간경(肝經)의 열(熱)에서 말미암는다. 왕성해진 간목(肝木)을 사하여 그곳에 열이 울체되어 생긴 화(火)를 제거하면 타오르는 포락(包絡)을 반드시 치료하지 않아도 포락(包絡)의 화(火)가 절로 쇠퇴한다. 처방으로는 해열지성단(解熱至聖丹)을 쓴다. [ 백작약(白芍藥) 1냥, 생지황(生地黃) 5돈, 치자(梔子) ( 볶은

것 ) 、당귀(當歸) 각 3돈, 감초(甘草) 1돈, 진피(陳皮) 8푼.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2제(劑)를 복용하면 병이 없었던 때처럼 편안해진다. [ 〈편치(偏治)〉 ]

人病心痛，理宜治心，而今不治心者，何也。蓋心氣之傷，由於肝氣之不足，補其肝，而心君安其位矣。方用心肝雙解飲。[ 白芍藥、當歸各五錢 ]。有火加 [ 梔子二錢 ]，無火加 [ 肉桂二錢 ]。水煎服。疼勢立止矣。[ 雙治 ]

환자가 심통(心痛)이 있을 때 심(心)을 치료해도 바로 심(心)이 치료되지 않는 것은 어째서인가. 대개 심기(心氣)의 손상은 간기(肝氣)가 부족하기 때문이니, 간(肝)을 보하면 군주에 해당하는 심(心)이 자신의 자리에서 편안히 있을 수 있다. 처방은 심간쌍해음(心肝雙解飲)을 쓴다. [ 백작약(白芍藥)、당귀(當歸) 각 5돈 ]. 화(火)가 있을 때는 [ 치자(梔子) 2돈을 ] 더한다. 화(火)가 없을 때는 [ 육계(肉桂) 2돈을 ] 더한다.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그렇게 하면 통증이 바로 멎는다. [ 〈쌍치(雙治)〉 ]

又有治心痛方。[ 貫衆、白芍藥各三錢，乳香末、梔子各二錢，甘草五分。 ] 水煎服。一劑即愈。[ 急治 ]

또 심통(心痛)을 치료하는 처방이 있다. [ 관중(貫中)、백작약(白芍藥) 각 3돈, 유향(乳香) ( 가루 낸 것 )、치자(梔子) 각 2돈, 감초(甘草) 5푼. ] 물에 달여 복용한다. 1제(劑)를 복용하면 낫는다. [ 〈급치(急治)〉 ]



心腎治法, 二臟合而治之者, 其義又何居. 腎水藏也, 心火藏也, 是心腎二經爲二敵<sup>6</sup>, 似乎不宜牽連而一治之. 不知心腎雖相克, 其實相須. 無心之火, 則成死灰, 無腎之水, 則成冰炭, 心必得腎水以滋養, 腎必得心火而溫煖<sup>7</sup>. 如人驚惕不安者, 夢遺精泄, 豈非心神<sup>8</sup>不交乎. 人以爲腎之病, 我以爲心之病, 非顛倒之也, 實至當不易之理. 方用心腎同源湯. [ 熟地黃、芡實、白朮各五兩, 人蔘、炒棗仁、山茱萸、麥門冬、山藥、柏子仁去油、茯神各三兩, 五味子、菖蒲、橘紅各一兩, 砂仁三錢. ] 各爲末, 蜜丸. 白滾水送下五錢. [ 藏治 ]

심(心)과 신(腎)을 치료할 때 2가지 장기를 함께 치료하는데 그 뜻은 어디에 있는가. 신(腎)은 수(水)에 해당하는 장기이고, 심(心)은 화(火)에 해당하는 장기이다. 심(心)과 신(腎) 2가지 경맥(經脈)은 원수 사이와 같아서 연관지어 함께 치료해서는 안될 것만 같다. 그러나 심(心)과 신(腎)이 비록 상극(相克) 관계이나 실상은 서로 의지하는 관계임을 알지 못해서 하는 착각이다. 심(心)의 화(火)가 없으면 불이 꺼진 재가 될 것이요, 신(腎)의 수(水)가 없으면 하얗게 타 버린 숯이 될 것이다. 심(心)은 반드시 신수(腎水)를 얻어야 길러지고, 신(腎)은 반드시 심화(心火)를 얻어야 따뜻해진다.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고 불안하며 몽정(夢精)을 한다면 어찌 심(心)과 신(腎)이 교류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다른 사람이 이것을 신(腎)의 병이라고 여기고 내가 이것을 심(心)의 병으로 여겨도 뒤바뀐 것이 아니니, 사실 바꿀 수 없는 매우 당연한 이치이다. 처방은 심신동원탕(心腎同源湯)을 쓴다. [ 숙지황(熟地黃)、검실(芡實)、백출(白朮) 각 5냥, 인삼(人蔘)、산조인(山棗仁) ( 볶은 것 )、산수유(山茱萸)、맥문동(麥門冬)、산약(山藥)、백자인(柏子仁) ( 기름을 뺀 것 )、복신(茯神)

각 3냥, 오미자(五味子)·창포(菖蒲)·굴홍(橘紅) 각 1냥, 사인(砂仁) 3돈.]

이 약재를 각기 가루내어 꿀로 환(丸)을 빚는다. 끓인 물로 5돈씩 삼킨다.

[〈장치(藏治)〉]

心中之焰，非黃連不可遏，徒用黃連，而不加瀉木之品，則火雖暫瀉而又旺。方

用 [白芍藥三錢 黃連柴胡菖蒲半夏各一錢] 治之。[抑治]

심(心) 속의 불꽃은 황련(黃連)이 아니면 막을 수 없지만 황련(黃連)만 쓰고 목(木)의 기운을 사하는 약재를 더하지 않는다면 화(火)가 비록 잠시 사그라지더라도 다시 치성하게 된다. 다음과 같은 처방을 쓴다. [백작약(白芍藥) 3돈, 황련(黃連)·시호(柴胡)·창포(菖蒲)·반하(半夏) 각 1돈.] 이 처방으로 치료한다. [〈억치(抑治)〉]

#### 瀉心湯 사심탕

- [治心實。方見火門。]
- [심(心)이 실(實)한 것을 다스린다. 처방은 〈화문(火門)〉에 있다.]

#### 錢氏安神丸 전씨안신환

- [補心虛。朱砂水飛一兩，麥門冬、馬牙硝、白茯苓、山藥、寒水石、甘草各五錢，龍腦二分半。右爲末，蜜和，一兩作三十丸。每一丸砂糖水化下。(錢乙)]
- [허해진 심(心)을 보한다. 주사(朱砂) (수비(水飛)를 한 것) 1냥, 맥문동(麥門冬)·마아초(馬牙硝)·백복령(白茯苓)·산약(山藥)·한수석(寒水石)·감

초(甘草) 각 5돈, 용뇌(龍腦) 2푼 반. 이 약재를 가루 내고 꿀로 반죽하여 1냥으로 30알을 빚는다. 복용할 때마다 1알을 설탕 녹인 물에 녹여 삼킨다. ( 전을(錢乙) ) ]

心絶候 [ 手少陰氣絶, 則脉不通, 脉不通, 則血不流, 血不流, 則色不澤。故其面黑如漆漆者, 血先死, 壬日篤, 癸日死。 ( 靈樞 )   ○形體如烟煤, 直視搖頭者, 此爲心絶。 ( 仲景 )   ○心絶一日死, 何以知之。肩息回視立死。一云二日死。 ( 脉經 ) ]

심(心)의 기운이 끊어진 증후 [ 수소음(手少陰)의 기(氣)가 끊어지면 맥(脈)이 통하지 않고, 맥이 통하지 않으면 혈(血)이 흐르지 않으며, 혈(血)이 흐르지 않으면 안색이 윤택하지 않다. 그러므로 안색이 윗칠한 듯 검게 된 경우는 혈(血)이 먼저 죽은 것이니 임일(壬日)에 위독해지고 계일(癸日)에 죽는다. (《영추(靈樞)》)   ○몸이 연기에 그을린 듯하고 눈을 곧추뜨고 머리를 흔드는 것은 심(心)의 기운이 끊어진 경우이다. ( 중경(中景) )   ○심(心)의 기운이 끊어지면 하루 만에 죽으니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숨을 쉴 때 어깨를 들썩거리고 눈이 돌아가면 곧 죽는다. "이틀 만에 죽는다."라고 한 곳도 있다. (《맥경(脉經)》) ]

## 脾臟 비장

脾病證 [ 邪在脾胃, 則病肌肉痛。陽氣有餘, 陰氣不足, 則熱中善飢。陽氣不足, 陰氣有餘, 則寒中腸鳴腹痛。 ( 靈樞 )   ○外症, 面黃, 善噫, 善思, 善味。內症, 當臍有動氣, 按之牢若痛。其病腹脹滿, 食不消, 體重節痛, 惰怠嗜臥,

四肢不收。有是者脾也，無是者非也。（難經） ○大骨枯槁，大肉陷下，胸中氣滿，喘息不便，內痛引肩項，身熱，脫肉破脛，眞藏見，十月之內死。註曰，此脾之藏也。期後三百日內死。 ○肝傳之脾，病名曰脾風，發癰，腹中熱，煩心，出黃。 ○脾熱者，色黃而肉蠕動。（內經）]

비병증(脾病證) [ 사기(邪氣)가 비위(脾胃)에 있으면 기육이 아프다. 양기(陽氣)는 남는데 음기(陰氣)가 부족하면 속에 열이 나서 자주 배가 고프다. 양기는 부족한데 음기가 남으면 속이 차서 뱃속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며 배가 아프다. (《영추(靈樞)》) ○외증(外證)은 얼굴이 누렇고 트림을 자주 하며 생각이 많고 맛을 잘 보는 것이다. 내증(內證)은 배꼽에 동기(動氣)가 있고 누르면 단단하여 아픈 듯 느껴지는 것이다. 비병(脾病)이 들면 배가 불러 오르고 소화 안 되며 몸이 무겁고 관절이 아프며 나른하여 눕기를 좋아하고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한다.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비병이고 이러한 증상이 없으면 비병이 아니다. (《난경(難經)》) ○큰 뼈가 드러나고 살이 많아야 할 곳이 움푹해지며, 가슴속에 기(氣)가 그득하고 숨이 차서 불편하며, 안쪽의 통증이 어깨와 목덜미까지 미치고 몸에서 열이 나며 군육(脛肉)이 빠지고 진장맥이 나타나면, 열 달 안에 죽는다. 주석에서 말하였다. "이것은 비장(脾藏)을 말한 것이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300일 안에 죽는다." ○간(肝)의 사기(邪氣)가 비(脾)로 전해진 것을 비풍(脾風)이라 하는데, 황달이 생기고 뱃속에서 열이 나며 가슴이 답답하고 소변이 누렇다. ○비(脾)에 열이 있으면 안색이 누렇고 살이 꿈틀거린다. (《내경(內經)》) ]

脾病虛實 [脾藏榮, 榮舍意, 脾氣虛則四肢不用, 五臟不安, 實則腹脹, 溼洩不利。註曰, 溼大便也, 洩小便也。(靈樞) ○脾實則身重, 善飢, 肉痿, 足不收行, 善癰, 腳下痛。虛則腹滿, 腸鳴, 飧泄, 食不化。 ○脾有餘則腹脹溼洩不利, 不足則四肢不用。(內經) 脾虛宜益黃散, 脾實宜瀉黃散。(方見下)]

비병(脾病)의 허증(虛證)과 실증(實證) [비(脾)는 영(榮)을 간직하고, 영에 의(意)가 깃든다. 비기(脾氣)가 허하면 팔다리를 쓰지 못하고 오장이 안정되지 않는다. 실하면 배가 창만하고 경수(溼洩)가 잘 나오지 않는다. 주석에서 말하였다. "경(溼)은 대변이고 수(洩)는 소변이다." (《영추(靈樞)》) ○비(脾)가 실하면 몸이 무겁고 배가 자주 고프며 살이 위축되고, 다리를 가누어 걷지 못하며 자주 오그라들고 발바닥이 아프다. 허하면 배가 창만하고 뱃속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며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섞여 나오는 설사를 하고 음식을 소화하지 못한다. ○비기(脾氣)가 남아돌면 배가 창만하고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며, 부족하면 팔다리를 쓰지 못한다. (《내경(內經)》) 비(脾)가 허하면 익황산(益黃散)을 써야 하고, 비(脾)가 실하면 사황산(瀉黃散)을 써야 한다. (처방은 뒤에 나온다.)]

夏宜健脾, 清涼之內, 宜兼健脾。方用 [白朮五錢, 茯苓、麥門冬各三錢, 元蓼二錢, 五味子、甘草各一錢, 香薷八分, 陳皮五分, 神麴三分。] 水煎服。

여름에는 비(脾)를 강건하게 해야 하므로 시원하게 식히는 성질의 약재 속에 비(脾)를 강건하게 하는 약재를 함께 써야 한다. 다음과 같은 처방을 쓴다.

[백출(白朮) 5돈, 복령(茯苓)·맥문동(麥門冬) 각 3돈, 원삼(元蓼) 2돈, 오미

자(五味子)·감초(甘草) 각 1돈, 향유(香薷) 8푼, 진피(陳皮) 5푼, 신국(神麴) 3푼.]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凡病在上者，俱宜飽後服之。惟飽食用鴨治胃，實所創聞，眞神仙之治法也。

[ 方見胃部 ] 必飽食之以治病于脾病也。胃寒而痛者，在心之上也。脾寒而痛者，痛在心之下與左右也。方用蓮花散。[ 猪肚一個，蓮肉、紅棗各一兩，小茴香三錢，肉桂一錢，糯米一合。 ] 將各藥及米，俱入猪肚中，以線縫住口外，用清水煮之。猪肚入藥之前，先用清水照常洗去穢氣，後入藥煮熟，以極爛爲主。一氣頓食，醋醬油食之。如未飽，再用米飯壓之，而痛勢如失。[ 飽治 ]

병(病)이 상부에 있을 때는 음식을 배불리 먹은 뒤에 약을 복용한다. 약재를 넣고 삶은 오리를 배불리 먹어 위(胃)를 치료하는 것은<sup>9</sup> 사실 드문 방법으로 참으로 신령스러운 치료법이다. [ 처방은 〈위부(胃部)〉에 나온다. ] 반드시 배불리 먹어서 비(脾)의 병을 치료한다. 위(胃)가 차가우면서 아플 때는 통증이 명치 위에 있다. 비(脾)가 차가우면서 아플 때는 통증이 명치 아래와 그 주변에 있다. 처방은 연화산(蓮花散)을 쓴다. [ 저두(猪肚) 1개, 연육(蓮肉)·홍조(紅棗) 각 1냥, 소회향(小茴香) 3돈, 육계(肉桂) 1돈, 나미(糯米) 1홉. ] 이제 약재와 쌀을 모두 돼지 밥통(저두) 속에 넣고 실로 입구 밖을 봉한 다음 맑은 물로 이것을 삶는다. 돼지 밥통에 약재를 넣기 전에 먼저 맑은 물로 보통 방법대로 돼지 밥통을 씻어 더러운 기운을 제거한다. 그런 뒤에 약재를 넣고 완전히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삶아 익힌다. 양념장에 찍어서 단숨에 다 먹는다. 배가 부르지 않으면 다시 밥을 먹어 약재가 내려가도록 하면 통증이 사라진 듯할 것이다. [ 〈포치(飽治)〉 ]

### 瀉黃散 사항산

- [ 治脾實。方見火門 ]
- [ 비(脾)의 실증(實證)을 치료한다. 처방은 <화문(火門)>에 나온다. ]

### 益黃散 익황산

- [ 治脾臟虛冷，腹痛泄痢。陳皮一兩，青皮、訶子肉、甘草炙各五錢，丁香二錢。右爲末，每二錢或三錢，水煎服。或剉，五錢作一貼，亦可。一名補脾散。（出海藏方） ]
- [ 비장(脾臟)이 허랭(虛冷)하여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는 것을 치료한다. 진피(陳皮) 1냥, 청피(靑皮)、가자육(訶子肉)、감초(甘草) ( 구운 것 ) 각 5돈, 정향(丁香) 2돈. 이 약재를 가루내어 2돈이나 3돈씩 물에 달여 복용한다. 또는 약재를 썰어서 5돈을 1첩으로 만들어 복용해도 좋다. 보비산(補脾散)이라고도 부른다. ( 해장(海藏)의 방서에 나온다. ) ]

脾絕候 [ 足太陰氣絕，則脉不榮肌肉。脣舌者，肌肉之本也。脉不榮，則肌肉軟，肌肉軟，則舌痿人中滿，人中滿，則脣反，脣反者，肉先死。甲日篤，乙日死。 ○太陰終者，腹脹閉，不得息，善噫善嘔，嘔則逆，逆則面赤。不逆則上下不通，上下不通，則面黑皮毛焦而終矣。（靈樞） ○脾絕十二日死，一云五日，何以知之。口冷足腫，腹熱臘脹，泄利不覺出時無度。（脉經） ○環口鰲黑，柔汗發黃者，此謂脾絕。（仲景） ]

비(脾)의 기운이 끊어진 증후 [ 족태음(足太陰)의 기운이 끊어지면 경맥(經脈)이 기육(肌肉)을 기르지 못한다. 입술과 혀는 기육(肌肉)의 표본이다. 기육이 길러지지 못하면 기육(肌肉)이 물컹해지고, 기육이 물컹해지면 혀가 위축되고 인중(人中) 부위가 부어오르며, 인중 부위가 부어오르면 입술이 뒤집힌다. 입술이 뒤집힌 것은 기육이 먼저 죽은 경우이다. 갑일(甲日)에 위독해지고 을일(乙日)에 죽는다. ○태음(太陰)의 기운이 끊어지면 배가 창만하고 막히며, 숨을 쉬지 못하고, 자꾸 트림하거나 구역질한다. 구역질하면 기운이 거슬러 오르고 거슬러 오르면 얼굴색이 붉어진다. 거슬러 오르지 않으면 위아래가 소통되지 못하고 위아래가 소통되지 못하면 얼굴색이 검어지고 터력이 마르면서 죽는다. (《영추(靈樞)》) ○비(脾)의 기운이 끊어지며 12일째에 죽는다. "5일째"라고 한 곳도 있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입안이 차갑고 다리가 부으며, 배에 열이 나고 창만해지며, 아무때고 자기도 모르게 설사한다. (《맥경(脈經)》) ○입 주위가 까맣고 식은땀이 나며 황달이 생겼을 때 비(脾)의 기운이 끊어졌다고 한다. (중경(中景)) ]

## 肺臟 폐장

肺病證 [ 邪在肺, 則病皮膚痛, 寒熱, 上氣喘, 汗出, 咳動肩背痛<sup>10</sup>。 (靈樞) ○風寒入舍於肺, 名曰肺痺, 發咳上氣。 ○肺病者, 喘咳逆氣, 肩背痛, 汗出, 尻陰股膝髀腠脇足皆痛。虛則少氣不能報息, 耳聾喑乾。 ○肺熱者, 色白而毛敗。 (內經) ○外證, 面白, 善嚏, 悲愁不樂欲哭。內證, 臍右有動氣,



按之牢若痛。其病喘咳，洒淅寒熱。（難經） ○大骨枯槁，大肉陷下，胸中氣滿，喘息不便，其氣動形，期六月死，眞藏脉見，乃予之期日。此肺之藏也，一百八十日內死。（內經）]

폐병증(肺病證) [ 사기(邪氣)가 폐(肺)에 있으면 피부가 아프고 오한과 발열이 있으며, 숨이 차올라 숨을 헐떡이고 땀이 나며 기침할 때 어깨와 등을 들썩인다. (《영추(靈樞)》) ○풍한(風寒)이 폐(肺)에 침입하여 머무는 것을 폐비(肺痺)라 하는데, 기침을 하고 숨이 차오른다. ○폐병(肺病)은, 숨을 헐떡이고 기침하며 기(氣)가 치밀어오르고 어깨와 등이 아프며 땀이 난다. 또 영치、허벅지、무릎、넓적다리、장딴지、정강이、발이 모두 아프다. 허하면 숨이 얹아 호흡을 이어가기가 어려우며 귀가 먹고 목구멍이 마른다. ○폐(肺)에 열이 있으면 안색이 희고 터럭이 푸석해진다. (《내경(內經)》) ○외증(外證)은, 얼굴이 희고 자주 재채기하며 우울하여 즐거워하지 않으며 울고 싶어하는 것이다. 내증(內證)은, 배꼽 오른쪽에 동기(動氣)가 있고 누르면 단단하여 아픈 듯 느껴지는 것이다. 폐병(肺病)이 들면 숨을 헐떡이고 기침을 하며 오싹오싹 오한과 발열이 있다. (《난경(難經)》) ○큰 뼈가 드러나고 살이 많아야 할 곳이 움푹해지며, 가슴속에 기(氣)가 그득하고 숨이 차서 불편하여 숨을 쉴 때 어깨를 들썩인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6개월 안에 죽는다. 진장맥이 나타나면 죽는 날이 머지않은 것이다. 이것은 폐장(肺臟)을 말한 것이다. 180일 안에 죽는다. (《내경(內經)》) ]

肺病虛實 [ 肺氣虛則鼻息不利少氣，實則喘喝胸憑仰息。(靈樞) 肺藏氣，氣有餘則喘咳上氣，氣不足則息利少氣。○肺實則令人逆氣，而背痛愠愠然。虛則令人喘，呼吸少氣而咳，上氣見血，下聞病音。(內經) ○肺虛宜補肺散，肺實宜瀉白散。方見下 ]

폐병(肺病)의 허증(虛證)과 실증(實證) [ 폐기(肺氣)가 허하면 코로 숨을 잘 쉬지 못하여 숨이 얇다. 실하면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여 고개를 젖혀 숨을 쉰다. (《영추(靈樞)》) 폐(肺)는 기(氣)를 간직한다. 기(氣)가 남아돌면 숨을 헐떡이고 기침을 하며 숨이 차오르고, 부족하면 숨을 잘 쉬지만 숨이 얇다. ○ 폐(肺)가 실하면 기(氣)가 치밀어 오르고 등이 아프며 답답하다. 허하면 숨을 헐떡이고 호흡이 얇으면서 기침을 하며 위로는 기(氣)가 거슬러 올라 혈증(血證)이 나타나고 아래에서는 폐가 병든 소리가 난다. (《내경(內經)》) ○폐허(肺虛)에는 보폐산(補肺散)을 쓰고, 폐실(肺實)에는 사백산(瀉白散)을 쓴다. 처방은 뒤에 나온다. ]

秋宜潤肺者，以順秋氣之肅，無過於肅殺矣。法當用和平之藥以調之，使肅者不過於肅也。方用順秋湯。[ 麥門冬、百合各五錢，五味子、人蔘、甘草、款冬花、天花粉、蘇子各一錢。 ] 水煎服。[ 三卷 ]

가을에 폐(肺)를 촉촉하게 축여주어야 하는 것은 서늘한 가을의 날씨를 따른 방법이지만 서늘한 기운이 지나쳐서는 안된다. 마땅히 화평한 성질의 약재로 조화롭게 해야 하며 서늘하게 식히더라도 지나치게 해서는 안된다. 처방은 순

추탕(順秋湯)을 쓴다. [ 맥문동(麥門冬)、백합(百合) 각 5돈, 오미자(五味子)、인삼(人蔘)、감초(甘草)、관동화(款冬花)、천화분(天花粉)、소자(蘇子) 각 1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 삼권(三卷) ]

肺有忽感風寒邪，而鼻塞出嚏，咳嗽不已，吐痰如敗絮，乃肺經獨病也，不必兼治於脾。予有一方。[ 桔梗三錢，半夏、射干、甘草各一錢。 ] 水煎服。[ 藏治 ]

폐(肺)에 갑자기 풍한(風寒)의 사기(邪氣)가 침입하여 코가 막히고 재채기가 나며 기침이 그치지 않고 헌숨 같은 가래를 뱉는 것은 폐경(肺經)이 홀로 병든 것이므로 비(脾)를 함께 치료할 필요는 없다. 내 이를 치료할 처방을 남긴다. [ 길경(桔梗) 3돈, 반하(半夏)、사간(射干)、감초(甘草) 각 1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 〈장치(藏治)〉 ]

抑治者，抑之使不旺也。或瀉其肺中之火，或遏其心中之焰，或止其胃中之氣，或平其肝木之盛，是也。此四經最多火，而最難治者。肺金之火，散之則火愈甚，抑之則反勝於散之也。蓋肺金之氣，實則成頑金，頑金非火不煉，然而肺乃嬌藏，終不可以煉法治之，故用抑之之法。方用 [ 天花粉二錢，山豆根、黃芩、青黛、百部根、桑白皮各一錢。 ] 水煎服。[ 抑治 ]

억치(抑治)는 억눌러 왕성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왕성해진 폐(肺) 속의 화(火)를 사하거나, 왕성해진 심(心) 속의 불길을 막거나, 왕성해진 위(胃) 속의 기운을 멈추거나, 왕성해진 간(肝)의 목(木) 기운을 고르게 하는 것 등이다. 이 4가지 경맥(經脈)은 화(火)가 가장 많아서 치료하기도 가장 어렵다. 금(金)의 기운을 가진 폐(肺)의 화(火)의 경우, 풀어주면 화(火)가 더욱 심해지므로 억누

르는 방법이 흠는 방법보다 도리어 낫다. 대개 폐(肺)가 가진 금(金)의 기운은, 실패지면 단단한 금속처럼 되는데 단단한 금속은 화(火) 없이 단련되지 않는다. 그러나 폐(肺)는 연약한 장기이므로 절대로 화(火)로 단련하는 방법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 따라서 억누르는 방법을 사용한다. 다음과 같은 처방을 쓴다.

[ 천화분(天花粉) 2돈, 산두근(山豆根)·황금(黃芩)·청대(靑黛)·백부근(百部根)·상백피(桑白皮) 각 1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 〈억치(抑治)〉 ]

肺氣之傷，必補脾氣。脾氣既傷，肺氣亦困，故補肺必須補脾，而補脾必須補肺。如人或咳嗽不已，吐瀉不已，此肺脾之傷。人以爲咳嗽宜治肺，吐瀉宜治脾，殊不知咳嗽由於脾氣之衰，而嘔吐由於肺金之衰也。蓋肺金無清肅之下行，始上嘔而下瀉，脾氣斡旋之令不行，則上爲咳嗽矣。方用肺脾雙解湯。[ 薏苡仁五錢，麥門冬、茯苓各三錢，人蔘、柴胡、車前子、甘草各一錢，神麴五分。 ] 水煎服。[ 藏治 ]

폐기(肺氣)가 손상되면 반드시 비기(脾氣)를 보해야 한다. 비기(脾氣)가 이미 손상되면 폐기(肺氣)도 곤궁해진다. 그러므로 폐(肺)를 보할 때는 비(脾)도 반드시 보해야 하며, 비(脾)를 보할 때는 폐(肺)도 반드시 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환자에게 기침이 멈추지 않거나 구토와 설사가 멈추지 않는 것은 폐(肺)와 비(脾)가 손상된 경우이다. 사람들은 기침을 하면 폐(肺)를 치료해야 하고 구토와 설사를 하면 비(脾)를 치료해야 한다고 여기지만 비(脾)의 기운이 쇠약하기 때문에 기침을 하고 폐(肺)의 금기(金氣)가 쇠약하기 때문에 구토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대개 폐(肺)의 금기(金氣)가 식혀서 내려보내지 않으면 비로

소 위로는 구토하고 아래로는 설사하게 되며, 비(脾)의 기운이 장기의 기운을 두루 운행시키지 않으면 위로 기침을 하게 된다. 처방으로는 폐비쌍해탕(肺脾雙解湯)을 쓴다. [ 의이인(薏苡仁) 5돈, 맥문동(麥門冬)·복령(茯苓) 각 3돈, 인삼(人蔘)·시호(柴胡)·차전자(車前子)·감초(甘草) 각 1돈, 신국(神麴) 5푼.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 <장치(藏治)> ]

#### 瀉白散 사백산

- [ 治肺實。方見火門。 ]
- [ 폐(肺)의 실증(實證)을 치료한다. 처방은 <화문(火門)>에 나온다. ]

#### 補肺散 보폐산

- [ 一名阿膠散。治肺虛一名阿膠散。治肺虛。阿膠珠二錢，鼠粘子、糯米炒各一錢二分，馬兜鈴炒七分，甘草炙五分，杏仁麯炒九個。右作一貼，水煎服。糯米一作粳米。(錢乙) ]
- [ 아교산(阿膠散)이라고도 한다. 폐(肺)의 허증(虛證)을 치료한다. 아교주(阿膠珠) 2돈, 서점자(鼠粘子)·나미(糯米) ( 볶은 것 ) 각 1돈 2푼, 마두령(馬兜鈴) ( 볶은 것 ) 7푼, 감초(甘草) ( 구운 것 ) 5푼, 행인(杏仁) ( 밀기울에 볶은 것 ) 9개. 이 약재를 1첩으로 하여 물에 달여 복용한다. 나미(糯米)를 출미(粳米)라고 한 곳도 있다. ( 전을(錢乙) ) ]

肺絶候 [ 手太陰氣絶，則皮毛焦。太陰者，行氣，溫于皮毛者也。故氣不榮則皮毛焦，皮毛焦則津液去皮節傷，皮節傷則瓜枯毛折。毛折者毛先死。丙日篤，丁日死。 ○肺絶者，三日死，何以知之。口張（一云口鼻虛張短氣），但氣出而不返。（脉經） 汗出髮潤，喘不休者，此爲肺絶也。（仲景） ]

폐(肺)의 기운이 끊어진 증후 [ 수태음(手太陰)의 기(氣)가 끊어지면 피모가 마른다. 태음(太陰)은 기(氣)를 운행시켜 피모를 따뜻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기(氣)가 부족하면 피모가 마르고, 피모가 마르면 혈액이 없어지고 피부와 관절이 손상되며, 피부와 관절이 손상되면 손발톱이 마르고 털이 끊어진다. 털이 끊어지는 것은 털이 먼저 죽기 때문이다. 병일(丙日)에 위독해지고 정일(丁日)에 죽는다. ○폐기가 끊어지면 3일 만에 죽는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입을 벌리고 ("코와 입을 힘 없이 벌리고 숨을 짧게 쉰다."라고 한 곳도 있다. ) 숨을 내쉬기만 하고 들이쉬지 못한다. (《맥경(脈經)》) 땀이 나서 모발이 축축하고 계속 숨을 헐떡이는 것은 폐기가 끊어진 것이다. ( 중경(中景) ) ]

## 腎臟 신장

腎病證 [ 邪在腎，則病骨痛陰痺。陰痺者，按之而不得，腹脹腰痛，大便難，肩背頸項痛，時眩。（靈樞） ○脾傳之腎病，名曰疝瘕，少腹冤熱而痛，出白液<sup>11</sup>。一名曰蠱。註曰，出白謂洩出白液也。 ○腎熱者，色黑而齒枯。 ○大骨枯槁，大肉陷下，肩髓內消，動作益衰，眞藏來見，期一年死，見其眞藏，乃予之

期日。註曰，此腎之藏也，期後三百六十五日內死。（內經） ○外證，面黑，善恐，數欠。內證，臍下有動氣，按之牢若痛。其病逆氣，小腹急痛，泄如下重，足脛寒而逆。（難經）]

신병증(腎病證) [ 사기(邪氣)가 신(腎)에 있으면 뼈가 아프고 음비(陰痺)가 된다. 음비란 눌러도 아픈 곳을 알 수 없고 복창과 요통이 있으며 대변이 잘 나오지 않고 어깨、등、목、목덜미가 아프며 때때로 어지러운 것이다. (《영추(靈樞)》) ○비(脾)의 병사(病邪)기 신(腎)으로 전해진 것을 산가(疝瘕)라고 한다. 아랫배에 열(熱)이 울체되면서 아프고 흰 것이 나온다. 이것을 고(蠱)라고 한다. 주석에서 말하였다. "흰 것이 나온다"는 것은 소변으로 흰 액체가 나온다는 말이다." ○신(腎)에 열이 있으면 안색이 검고 치아가 마른다. ○큰 뼈가 드러나고 살이 많아야 할 곳이 움푹해지며, 골수가 안에서 마르고<sup>12</sup> 동작이 더욱 쇠약해지는데, 진장맥이 나타나면 1년 안에 죽게 된다. 진장맥이 나타나면 죽는 날이 머지않은 것이다. 주석에서 말하였다. "이것은 신장(腎臟)을 말한 것이다. 365일 안에 죽는다." (《내경(內經)》) ○외증(外證)은, 얼굴이 검고 겁이 많으며 하품을 자주 하는 것이다. 내증(內證)은, 배꼽 아래에 동기(動氣)가 있고 누르면 단단하여 아픈 듯 느껴지는 것이다. 신병이 들면 기가 치밀어 오르고 아랫배가 당기고 아프며, 뒤가 목직한 설사를 하고 정강이에서 찬 기운이 올라온다. (《난경(難經)》) ]

腎病虛實 [ 腎氣虛則厥，實則脹。 ○腎實則腹大脛腫，喘咳身重，寢汗出憎風。虛則胸中痛，大腹小腹疼，清厥，意不樂。（靈樞） ○腎虛則心懸如飢，善恐。（入門） ○左腎屬水，水不足則陰虛，宜補腎丸。右腎屬火，火不足則陽

虛，宜八味丸。方并見下。 ○腎本無實，不可瀉，錢氏只有補腎地黃元，無瀉腎之藥。(綱目)]

신병(腎病)의 허증(虛證)과 실증(實證) [ 신기(腎氣)가 허하면 몸이 싸늘하고, 실하면 배가 창만해진다. ○신(腎)이 실하면 배가 창만하고 정강이가 부으며, 숨이 차거나 기침을 하고 몸이 무거우며, 도한이 나고 바람을 싫어한다. 허하면 가슴속이 아프고 윗배·아랫배가 옥신거리며, 손발이 싸늘하고 마음이 즐겁지 못하다. (《영추(靈樞)》) ○신허(腎虛)하면 배가 고플 때처럼 명치가 불편하고 겁이 많다. (《입문(入門)》) ○왼쪽 신(腎)은 수(水)에 속하니, 수(水)가 부족한 것은 음허(陰虛)이므로 보신향환(補腎丸)을 써야 한다. 오른쪽 신(腎)은 화(火)에 속하니, 화(火)가 부족한 것은 양허(陽虛)이므로 팔미환(八味丸)을 써야 한다. 처방은 모두 뒤에 보인다. ○신(腎)은 본디 실증(實證)이 없으므로 사법(瀉法)이 없다. 그래서 전을(錢乙)은 보신향황환(補腎地黃元)만을 남기고 신(腎)을 사하는 약을 두지 않았다. (《강목(綱目)》) ]

冬氣之嚴也，順其氣寒。方用 [ 熟地黃、白朮各五錢，茯苓、薏苡仁各三錢，山茱萸二錢，生棗仁、枸杞子、菟絲子各一錢，肉桂三分。 ] 水煎服。

겨울의 날씨는 매섭게 추우니, 매섭게 추운 겨울의 날씨를 따른다. 다음과 같은 처방을 쓴다. [ 숙지황(熟地黃)、백출(白朮) 각 5돈, 복령(茯苓)、익이인(薏苡仁) 각 3돈, 산수유(山茱萸) 2돈, 산조인(山棗仁) ( 날것 )、구기자(枸杞子)、토사자(菟絲子) 각 1돈, 육계(肉桂) 3푼.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陰治者，病症乃陰氣不足，而陰邪又犯之也。如腎水虛寒，又感寒者，或腎水虧渴，夜熱晝寒，是也。此等病，若認成陽症而治之，則口渴益熾<sup>13</sup>，必致削盡陰水，吐痰如絮，咳嗽不已，聲啞聲嘶，變成勞瘵。法當峻補其眞陰，則陰水足而火焰自消，骨髓清泰，上熱餘火，俱歸烏有矣。方用反火至聖丹<sup>14</sup>。〔熟地黃一兩，山茱萸、五味子、沙蔘、芡實、麥門冬各五錢，元蔘、地骨皮各三錢，白芥子、車前子、牡丹皮各一錢，桑葉七片。〕水煎服。○又治陰火自動者神效。若陰寒無火者，不宜此方矣。用祛寒至聖丹。〔熟地黃一兩，山茱萸四錢，人蔘、白朮各三錢，肉桂、附子各一錢，柴胡五分。〕水煎服。〔陰治〕

음치(陰治)는 음기(陰氣)가 부족한데 다시 음사(陰邪)가 침입하여 생긴 병증에 쓴다. 예를 들어 신수(腎水)가 허한(虛寒)한데 다시 한사(寒邪)에 감촉된 경우, 혹은 신수(腎水)가 손상되고 고갈되어 밤에 열이 나고 낮에 추위를 다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병증을 양증(陽證)으로 보고 치료하면 갈증이 생기고 열이 더욱 심해지며, 결국 반드시 음수(陰水)를 모두 소진시켜 헌숨 같은 가래를 뱉고 기침이 멎지 않으며 목소리가 나오지 않거나 목이 쉬고 노채(勞瘵)로 악화된다. 마땅히 진음(眞陰)을 강력하게 보해주어야 하니, 그렇게 하면 음수(陰水)가 충분해지고 화(火)가 절로 사그라져서 골수가 식어 편안해지고 오르던 열과 남은 화(火)가 모두 빠짐없이 되돌아온다. 처방으로 안화지성단(安火至聖丹)을 쓴다. 〔숙지황(熟地黃) 1냥, 산수유(山茱萸)、오미자(五味子)、사삼(沙蔘)、검실(芡實)、맥문동(麥門冬) 각 5돈, 원삼(元蔘)、지골피(地骨皮) 각 3돈, 백개자(白芥子)、차전자(車前子)、목단피(牡丹皮) 각 1돈, 상엽(桑葉) 7쪽.〕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또 음화(陰火)가 절로 동요한 것을 치료할 때도 효과가 매우 좋다. 음(陰)이 차갑고 화(火)가 없을 때는 이 처방을 쓸

수 없다. 겁한지성단(祛寒至聖丹)을 써야 한다. [ 숙지황(熟地黃) 1냥, 산수유(山茱萸) 4돈, 인삼(人蔘)·백출(白朮) 각 3돈, 육계(肉桂)·부자(附子) 각 1돈, 시호(柴胡) 5푼.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 <음치(陰治)> ]

尙有一方以參之。前症乃陰虛火動也，用六味湯似亦相宜，後症乃陰寒無火也，八味湯似亦可用，然而終不及天師二方。蓋治陰之內，則留以治陽，而治陽之中，即藏於補陰也。有貧不能用人蔘者，用予方可也。[ 方在下。陰治 ]

나도 한 가지 처방을 두어 참견해 본다. 앞의 증상은 음(陰)이 허하여 화(火)가 동요한 경우로 육미탕(六味湯)을 써야할 것 같고, 뒤의 증상은 음(陰)이 차갑고 화(火)가 없는 경우로 팔미탕(八味湯)을 써야할 것 같다. 그러나 결국 천사(天師)의 2가지 처방에는 미치지 못한다. 대개 음(陰)을 치료하는 중에 양(陽)을 치료하는 방법을 두었고, 양(陽)을 치료하는 중에 음(陰)을 보하는 방법을 숨겨두었다. 가난하여 인삼(人蔘)을 쓸 수 없는 이는 나의 처방을 사용하면 좋다. [ 처방은 뒤에 있다. <음치(陰治)> ]

腎中之水，有火則安，無火則泛。倘人過於用色，則水去而火亦去矣。久之水虛而火亦虛，水無可藏之地，則必上泛，而爲痰矣。治之法，欲抑水之下降，必先使火之下溫。法當仍以補水之中，而用火熱之藥，使水足以制火，而火足以生水，則水火有相得之美也。用 [ 熟地黃三兩，山茱萸、茯苓各一兩，牛膝、肉桂各三錢，五味子一錢。 ] 水煎服。一劑而痰卽下行，二劑而痰消無迹矣。

[ 抑治 ]

신(腎) 속의 수(水)는 화(火)가 있어야 안정되고 화(火)가 없으면 범람한다. 어떤 사람이 성관계를 지나치게 하면 수(水)가 사라지고 화(火)도 사라진다. 이것이 오래되면 수(水)가 허해지고 화(火)도 허해진다. 수(水)는 저장될 수 있는 땅이 없으면 반드시 위로 범람하여 담(痰)을 만든다. 치료할 때 수(水)를 억눌러 내려보내려 한다면 반드시 이에 앞서 화(火)가 아래를 따뜻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마땅히 수(水)를 보하는 중에 뜨거운 화(火)의 성질을 가진 약재를 사용함으로써 수(水)를 충분하게 만들어 화(火)를 제어하고 화(火)를 충분하게 만들어 수(水)를 생겨나게 한다. 그렇게 하면 수(水)와 화(火)가 서로 돕는 좋은 상태가 된다. [ 숙지황(熟地黃) 3냥, 산수유(山茱萸)·복령(茯苓) 각 1냥, 우슬(牛膝)·육계(肉桂) 각 3돈, 오미자(五味子) 1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1제(劑)를 복용하면 담(痰)이 내려가고, 2제(劑)를 복용하면 담(痰)이 흔적 없이 사라진다. [ 〈억치(抑治)〉 ]

腎虛而火沸騰，如白虎湯症者。[ 方見火門 ]

신(腎)이 허(虛)한데 백호탕(白虎湯)을 써야할 것 같이 화(火)가 끓어오르는 경우가 있다. [ 처방은 〈화문(火門)〉에 나온다. ]

肝腎同治者，腎水不能滋肝，則肝木抑鬱而不舒，必有兩脇飽悶之症。肝木不能生腎中之火，則腎水日寒，必有腰脊難於俯仰之症。故補肝，必須補腎中之水，又不可不補肝木。倘補肝而不補腎，則邪痛<sup>15</sup>何以頓除，補腎而不補肝，則腰脊何以立愈。方用腎肝同補湯。[ 熟地黃一兩，山茱萸、白芍藥、當歸各五錢，柴胡二錢，肉桂一錢。 ] 水煎服。[ 藏治 ]

간(肝)과 신(腎)을 함께 치료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신수(腎水)가 간(肝)을 기르지 못하면 간(肝)의 목(木) 기운이 억눌려 펼쳐지지 못하므로 반드시 양쪽 옆구리가 그득하고 답답한 증상이 있게 된다. 간(肝)의 목(木) 기운이 신(腎) 속의 화(火)를 기르지 못하면 신(腎)의 수(水) 기운이 날로 차가워져 반드시 허리와 등줄기를 굽히고 펴지 못하는 증상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간(肝)을 보할 때는 반드시 신(腎) 속의 수(水)를 보하고 또 간(肝)의 목(木) 기운을 보해야 한다. 만약 간(肝)만 보하고 신(腎)을 보하지 않으면 옆구리 통증이 어떻게 말끔히 사라지겠는가. 신(腎)만 보하고 간(肝)을 보하지 않으면 허리와 등줄기가 어떻게 곧바로 낫겠는가. 처방으로 신간동보탕(腎肝同補湯)을 쓴다. [ 숙지황(熟地黃) 1냥, 산수유(山茱萸)·백작약(白芍藥)·당귀(當歸) 각 5돈, 시호(柴胡) 2돈, 육계(肉桂) 1돈.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 <장치(藏治)> ]

#### 補腎丸 보신환

- [ 治腎水不足陰虛。龜板酒炙四兩，知母、黃柏並酒浸炒各三兩，乾薑一兩。右爲末，粥丸梧子大。空心鹽湯下五七十丸可也。 ( 東垣 ) ]
- [ 신(腎)의 수(水)가 부족하여 음허(陰虛)한 것을 치료한다. 구판(龜板) ( 술에 축여 구운 것 ) 4냥, 지모(知母)·황백(黃柏) ( 모두 술에 담가 두었다가 볶은 것 ) 각 3냥, 건강(乾薑) 1냥. 이 약재를 가루 내어 죽으로 오동자(梧桐子) 크기 만 하게 환(丸)을 빚는다. 빈속에 염탕(鹽湯)으로 50~70알씩 삼키면 좋다. ( 동원(東垣) ) ]

## 八味丸 팔미환

- [ 治命門火不足陽虛。熟地黃八兩，山藥、山茱萸各四兩，牡丹皮、白茯苓、澤瀉各三兩，肉桂、附子炮各一兩。右爲末，蜜丸梧子大。空心溫酒或鹽湯下五七十丸。若加五味子，名曰腎氣丸。( 仲景 ) 又治老年水火俱虧，腎氣虛乏，下元冷憊，腰痛脚軟，夜多漩尿，面黑口乾耳焦枯。( 入門 ) ]
- [ 명문(命門)의 화(火)가 부족하여 양허(陽虛)한 것을 치료한다. 숙지황(熟地黃) 8냥, 산약(山藥)、산수유(山茱萸) 각 4냥, 목단피(牡丹皮)、백복령(白茯苓)、택사(澤瀉) 각 3냥, 육계(肉桂)、부자(附子) ( 잿불에 묻어 구운 것 ) 각 1냥. 이 약재를 가루 내어 꿀로 오동자(梧桐子) 크기만 하게 환(丸)을 빚는다. 빈속에 따뜻한 술이나 염탕(鹽湯)으로 50~70알씩 삼키면 좋다. 오미자(五味子)를 더한 처방을 신기환(腎氣丸)이라고 부른다. ( 중경(中景) ) 또 노년에 수화(水火)가 모두 사그라져 신기(腎氣)가 허하고 하원(下元)이 차가워서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없으며 밤에 자주 소변을 보고 얼굴이 검으며 입이 건조하고 귀가 마르는 것을 치료한다. ( <입문(入門)> ) ]

腎絶候 [ 少陰終者，面黑，齒長而垢，腹脹閉塞，上下不通而終矣。( 內經 ) ○足少陰氣絶，則骨枯。少陰者，冬脉也，伏行而濡骨髓者也。故骨不濡則肉不能着也。骨肉不相親則肉軟却，肉軟却故齒長而垢，髮無澤。髮無澤者，骨先死。戊日篤，己日死。( 靈樞 ) ○洩便遺失，狂言，目反直視者，此爲腎絶也。脉浮而洪，身汗如油，喘不休，水漿不下，形體不仁，乍靜乍亂者，此爲命門絶也。( 仲景 ) ○腎絶，四日死，何以知之。齒爲暴枯，面爲正黑，目中黃色，腰中欲折，自汗如流水。一云人中平十日死。( 脉經 ) ]

신(腎)의 기운이 끊어진 증후 [ 소음(少陰)의 기(氣)가 끊어지면, 얼굴색이 검게 되고, 치아가 길게 드러나고 때가 끼며, 배가 불러 오르고 대변이 막혀 위아래가 통하지 못하여 죽는다. (《내경(內經)》) ○족소음(足少陰)의 기(氣)가 끊어지면 뼈가 마른다. 소음(少陰)은 겨울에 해당하는 경맥(經脈)으로 깊이 숨어 흐르면서 골수를 적셔준다. 그러므로 골수를 적셔주지 못하면 살이 뼈에 붙어 있을 수 없고, 뼈와 살이 서로 붙지 않으면 살이 연약하고 위축되며, 살이 연약하고 위축되면 치아가 드러나고 때가 끼며 머리카락에 윤기가 사라진다. 머리카락에 윤기가 없는 것은 뼈가 먼저 죽은 것이다. 무일(戊日)에 위독해지고 기일(己日)에 죽는다. (《영추(靈樞)》) ○대소변이 저절로 나오고 미친 소리를 하며 눈을 뒤집고 곧추 뜨는 것은 신(腎)의 기운이 끊어진 것이다. 맥(脈)이 부(浮)하면서 홍(洪)하고, 몸에서 기름 같은 땀이 나며 쉬지 않고 숨을 헐떡이고 물을 넘기지 못하며, 몸에 감각이 없고 잠시 안정되었다가 어지러워졌다 하는 것은 명문(命門)의 기운이 끊어진 것이다. ( 중경(中景) ) ○신기가 끊어지면 4일 만에 죽는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치아가 갑자기 마르고 얼굴색이 검게 되며 눈은 누렇게 되고 허리가 꺾어질 듯 하며 자한이 물 흐르듯 나오는 증상으로 알 수 있다. "인중이 평평해지면 10일 안에 죽는다."라고 한 곳도 있다. (《맥경(脈經)》) ]

1. 在 者 ※《동의보감》←

2. 理氣 疏泄 ※《석실비록》←

3. 冬 各 ※문맥상←

4.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석실비록》을 참고하여 번역을 보충하였다. ←
5. 胞絡 ㄹ 包絡 ※《석실비록》 이하 같음 ←
6. 一敵 ㄹ 仇敵 ※《석실비록》 ←
7. 濕煖 ㄹ 溫暖 ※《석실비록》 ←
8. 心神 ㄹ 心腎 ※《석실비록》 ←
9. 〈위부(胃部)〉의 내용을 참고하여 번역을 보충하였다. ←
10. 咳動肩背痛 ㄹ 咳動肩背 ※《동의보감》 ←
11. 出白液 ㄹ 出白 ※《동의보감》 ←
12. 골수가 안에서 마르고 : 《소문석의(素問釋義)》의 견해에 따라 "骨髓內消"로 보고 번역하였다. ←
13. 益熾 ㄹ 熱益熾 ※《석실비록》 ←
14. 反火至聖丹 ㄹ 安火至聖丹 ※《석실비록》 ←
15. 邪痛 ㄹ 脇痛 ※《석실비록》 ←

## † 六腑 육부

### 膽腑 담부

膽病證 [ 膽病者, 善太息, 口苦, 嘔有苦汁, 心中澹澹, 恐如人將捕之, 噦中  
哕然數睡。 ( 靈樞 ) ○痛悶左邊五肋之中, 血瘀生癭馬刀。又膽候咽門, 故  
熱壅則生瘡腫痛。 ( 入門 ) ○膽病多寒熱。 ( 入門 ) ]

담병증(膽病證) [ 담(膽)에 병이 들면 한숨을 자주 쉬고 입이 쓰며 쓴 물을 게  
우고, 가슴이 두근두근하며 다른 사람이 잡으려 올까 두려워하고, 목구멍 안이  
갈갈하여 침을 자주 뱉는다. (《영추(靈樞)》) ○왼쪽 5번째 늑골 속이 아프  
고 답답하니 혈(血)이 멎쳐 영(癭)이나 마도(馬刀)가 생긴 것이다. 또한 담(膽)  
이 밖으로 드러나는 곳은 목구멍이기 때문에 열이 쌓이면 목구멍이 헐거나 부  
어 아프다. (〈입문(入門)〉) ○담병(膽病)에는 한열왕래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입문(入門)〉) ]

膽病虛實 [ 膽虛則恐懼不能獨臥, 膽實則怒。 ○膽實則怒而勇敢, 膽虛則善  
恐而不敢也。 ○膽虛則不眠, 膽實則多睡。 ( 入門 ) ○膽虛宜仁熟散, 膽實宜  
半夏湯。方見下 ]

담병(膽病)의 허증(虛證)과 실증(實證) [ 담(膽)이 허하면 무서워서 혼자 자지  
 못하고, 담(膽)이 실하면 성을 낸다. ○담(膽)이 실하면 성을 내고 용감하며,  
 담(膽)이 허하면 겁이 많아 용기를 내지 못한다. ○담(膽)이 허하면 잠을 자지



못하고, 담(膽)이 실하면 잠을 많이 잔다. (〈입문(入門)〉) ○담(膽)이 허할 때는 인숙산(仁熟散)을 쓰고, 담(膽)이 실할 때는 반하탕(半夏湯)을 쓴다. 처방은 뒤에 나온다. ]

凡人膽怯不敢見人者，少陽膽經虛也，而所以致少陽膽經之虛者，肝木之虛也，而肝木之衰，又因腎水不足。法當補腎，以生肝木。方用 [ 熟地黃一兩，白芍藥、茯神各五錢，山茱萸四錢，柴胡、肉桂、白芥子、生棗仁各一錢，當歸五分。 ] 水煎服。 [ 府治 ]

대개 사람이 담(膽)이 작아 다른 사람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것은 소양(少陽)의 담경(膽經)이 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양(少陽) 담경(膽經)이 허하게 된 이유는 간목(肝木)이 허하기 때문이고, 간목(肝木)이 쇠약해진 것은 또 신수(腎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마땅히 신(腎)을 보하여 간목(肝木)을 살려야 한다. 다음과 같은 처방을 쓴다. [ 숙지황(熟地黃) 1냥, 백작약(白芍藥)、복신(茯神) 각 5돈, 산수유(山茱萸) 4돈, 시호(柴胡)、육계(肉桂)、백개자(白芥子)、산조인(山棗仁) ( 날것 ) 각 1돈, 당귀(當歸) 5푼. ]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 〈부치(府治)〉 ]

#### 仁熟散 인숙산

- [ 治膽虛恐懼不能獨臥。柏子仁、熟地黃各一錢，人蔘、枳殼、五味子、桂心、山茱萸、甘菊、茯神、枸杞子各七分。半右剉作一貼，水煎服，或爲末，溫酒調二錢服之。 ( 入門 ) ]
- [ 담(膽)이 허하면 무서워서 혼자 자지 못하데, 이것을 치료한다. 백자인(柏子

仁)·숙지황(熟地黃) 각 1돈, 인삼(人蔘)·지각(枳殼)·오미자(五味子)·계심(桂心)·산수유(山茱萸)·감국(甘菊)·복신(茯神)·구기자(枸杞子) 각 7푼 반. 이 약재를 썰어 1첩으로 만든 뒤 물에 달여 복용한다. 또는 약재를 가루 내어 따뜻한 술에 2돈씩 타서 복용한다. (〈입문(入門)〉) ]

### 半夏湯 반하탕

- [ 治膽實熱煩悶。生地黃、山棗仁炒各五錢，半夏、生薑各三錢，遠志、赤茯苓各二錢，黃芩一錢，黍米一合。右剉，每一兩，長流水煎，澄清服。(入門) ]
- [ 담(膽)의 실열(實熱)로 가슴이 답답한 것을 치료한다. 생지황(生地黃)·산조인(酸棗仁) ( 볶은 것 ) 각 5돈, 반하(半夏)·생강(生薑) 각 3돈, 원지(遠志)·적복령(赤茯苓) 각 2돈, 황금(黃芩) 1돈, 서미(黍米) 1홉. 이 약재를 썰어 1냥씩 장류수에 달여 가라앉힌 뒤 윗물만 복용한다. (〈입문(入門)〉) ]

膽絶候 [ 膽爲足少陽，其終者，耳聾，百節皆縱，目覘 ( 音경直視如驚貌 ) 絶系，絶系者一日半死矣。色先青白乃死矣。(靈樞) ○膽絶七日死，何以知之。眉爲之傾。(脉經) ]

담(膽)의 기운이 끊어진 증후 [ 담(膽)은 족소양(足少陽) 경맥(經脈)이다. 이 기운이 끊어지면 귀가 들리지 않고, 온몸의 관절을 모두 가누지 못하며, 놀랄 듯 눈을 곧추뜨고 ( '覘'의 음은 '경'이다. 놀란 듯 눈을 곧추뜨다는 뜻이다. ) 목계(目系)가 끊어진다. 목계가 끊어지면 하루 반만에 죽는다. 얼굴색이 먼저 창

백하고 푸르게 되고 나서 죽는다. (《영추(靈樞)》) ○담(膽)의 기운이 끊어지면 7일이 되어 죽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눈썹이 기울어지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맥경(脈經)》) ]

## 胃腑 위부

胃病證 [ 胃病者, 腹臌脹, 胃脘當心而痛, 上支兩脇, 膈噎不通, 飲食不下。 ○胃中寒, 則手魚際之絡脉多青, 胃中熱, 則手魚際之絡脉多赤。 ○面熱者, 足陽明病。 兩跗之上脉堅堅者, 足陽明病, 此胃脉也。 ( 靈樞 ) ]

위병증(胃病證) [ 위(胃)가 병들면 배가 창만하고 위완(胃脘)에서 명치까지 아프며, 양쪽 옆구리가 결리고 식도가 막혀 음식(飲食)이 내려가지 않는다. ○ 위(胃) 속이 차가우면 손에 있는 어제(魚際)의 낙맥(絡脉)이 주로 푸른 빛을 띠고, 위(胃) 속이 뜨거우면 손에 있는 어제의 낙맥이 주로 붉은 빛을 띤다. ○얼굴이 뜨거운 것은 족양명(足陽明)의 병이다. 양쪽 발등 위에서 뛰는 맥(脈)이 단단한 것은 족양명(足陽明)의 병이다. 위(胃)의 경맥(經脉)이 지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영추(靈樞)》) ]

胃病虛實 [ 胃脉實則脹, 虛則泄。 ( 內經 ) ○胃中元氣盛, 則能食而不傷, 過時而不飢。脾胃俱旺, 則能食而肥, 脾胃俱虛, 則不能食而瘦, 或少食而肥, 雖肥而四肢不舉。 ( 東垣 ) ○置宜<sup>1</sup>宜異功散, 胃實宜平胃散。 方見下 ]

위병(胃病)의 허증(虛證)과 실증(實證) [ 위맥(胃脈)이 실하면 배가 창만하고, 허하면 설사한다. (《내경(內經)》) ] 위(胃) 속의 원기(元氣)가 왕성하면 음식을 잘 먹고도 속을 상하지 않고 식사할 때가 지나도 배가 고프지 않다. 비(脾)와 위(胃)의 기운이 모두 왕성하면 음식을 잘 먹고 살집이 있다. 비(脾)와 위(胃)의 기운이 모두 허하면 음식을 먹지 못하고 말랐다. 또 음식을 적게 먹고 살집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비록 살집이 있더라도 팔다리를 잘 움직이지 않는다. ( 동원(東垣) ) 위(胃)가 허할 때는 이공산(異功散)을 쓰고, 위(胃)가 실할 때는 평위산(平胃散)을 쓴다. 처방은 뒤에 나온다. ]

- 右病治左，可以悟矣。人病胃氣痛，或脾氣不好，不能飲食，或能飲食，而不能化，作痛作滿，上吐下瀉者，此乃肝木來剋土也。平其肝木，則脾胃之土得養，而前病俱愈矣。方用 [ 白芍藥三錢，當歸、柴胡、茯苓各二錢，甘草、白芥子各一錢。 ] 有火者加 [ 炒梔子二錢 ]，無火者加 [ 肉桂一錢 ]。水煎服。此方再加 [ 白朮三錢 ]，有肉食者加 [ 山楂三錢 ]，米食者 [ 枳角麥芽各一錢 ]，有痰者加 [ 半夏一錢 ]，可也。 [ 偏治 ]
- 오른쪽에 있는 병을 왼쪽에서 치료한다는 법칙을 알 수 있다. 환자가 위기(胃氣) 때문에 아프거나 비기(脾氣)가 좋지 못해 음식을 먹지 못하거나 음식을 먹더라도 소화시키지 못하고 통증이나 창만이 생기며 위로 토하고 아래로 설사하는 것은 간목(肝木)이 토(土)를 극(剋)하였기 때문이다. 간목(肝木)을 안정시키면 비위(脾胃)의 토기(土氣)가 길러져서 앞의 병이 모두 나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처방을 쓴다. [ 백작약(白芍藥) 3돈, 당귀(當歸)、시호(柴胡)、복령(茯苓) 각 2돈, 감초(甘草)、백개자(白芥子) 각 1돈. ] 화(火)가 있을 때는 [ 붉은 치자(梔子) 2돈을 ] 더하고, 화(火)가 없을 때는 [ 육계(肉桂) 1돈을 ] 더한다. 이 약

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이 처방에 다시 [ 백출(白朮) 3돈을 ] 더하고, 고기를 먹고 속이 상했을 때는 [ 산사(山査) 3돈을 ] 더하며, 곡식을 먹고 속이 상했을 때는 [ 지각(枳殼)·맥아(麥芽) 각 1돈을 ] 더하고, 담(痰)이 있을 때는 [ 반하(半夏) 1돈을 ] 더하면 좋다. [ <편치(偏治)> ]

不必吐，飽食以治之者，乃胃口寒而痛也。手按之而少止者，當用此法治之。方用 [ 人蔘、白朮各一兩，肉桂一錢，肥鴨一首。 ] 將藥入鴨腹內，煮之極爛，外以五味和之，葱椒之類，俱不忌。更以腐皮同煮，恣其飽粲食盡。如不能食盡，亦聽之，不必又食米飯也。一餐而痛如失矣。[ 飽治 ]

토법(吐法)을 쓸 필요 없이 배불리 먹이는 '포식법(飽食法)'으로 치료할 것은 위(胃) 입구가 차갑고 아픈 경우이다. 손으로 만져서 증상이 조금 사라지는 경우에 이 방법으로 치료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처방을 쓴다. [ 인삼(人蔘)·백출(白朮) 각 1냥, 육계(肉桂) 1돈, 살 오른 오리 1마리. ] 약재를 오리 배 속에 넣고 문드러질 때까지 삶는다. 추가로 양념을 더하는데 파나 산초 등도 모두 괜찮다. 그런 뒤에 두부깍질과 함께 삶는다. 이것을 마음껏 배불리 다 먹는다. 만약 다 먹을 수 없다고 해도 괜찮다. 밥도 꼭 먹을 필요 없다. 한 끼 먹으면 통증이 사라진다. [ <포치(飽治)> ]

胃與脾，雖同是屬土，而補胃補脾宜辨。凡人之能食，而食之不化者，乃胃不病，而脾病也。當以補脾，而補脾尤宜補腎中之火。蓋腎火能生脾土也。又有不能食，而食之反安然者，乃胃病而非脾病也。不可補腎中之火，當補心中之火。蓋心火能生胃土故也。世人一見人不能飲食，動曰脾胃之病，而不知胃分之虛寒，責之於心，脾分之虛寒，責之於腎也。○然則心腎兼補，予可不必更立奇

方，然而治脾胃兩虛者，用之神效。若單是胃虛胃寒者，自宜獨治心之爲妙，余所以更定一方，以佐天師之未及。方用 [ 山藥四兩，白朮、茯神、蓮肉、白芍藥各三兩，遠志二兩，人蔘一兩，菖蒲、良薑、炒棗仁各五錢，半夏、白芥子、附子各三錢。 ] 各爲末，蜜丸。每日白滾水送下三錢，飯後服。 [ 熱治 ]

위(胃)와 비(脾)는 비록 모두 토(土)에 속하지만 위(胃)를 보하는 것과 비(脾)를 보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대개 어떤 사람이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먹은 음식이 소화되지 않는 것은 위(胃)는 병들지 않고 비(脾)만 병든 경우이다. 마땅히 비(脾)를 보해야 하는데, 비(脾)를 보할 때는 신(腎) 속의 화(火)도 보해야 한다. 대개 신(腎)의 화(火)가 비(脾)의 토(土)를 기르기 때문이다. 또 음식을 먹지 못하지만 먹고 나서 도리어 편안한 것은 위(胃)가 병들고 비(脾)는 병들지 않은 경우이다. 신(腎) 속의 화(火)를 보해서는 안되며 심(心) 속의 화(火)를 보해야 한다. 대개 심(心)의 화(火)가 위(胃)의 토(土)를 기르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을 보고 걸핏하면 비위(脾胃)의 병이라고 말하지만 위(胃) 부분의 허한(虛寒)은 심(心)에게 책임이 있고, 비(脾) 부분의 허한(虛寒)은 신(腎)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 그러므로 천사(天師)께서 말씀하신 처방은<sup>2</sup> 심(心)과 신(腎)을 함께 보하는 방법이므로 내가 다시 효과 좋은 처방을 만들 필요는 없다. 그 처방은 비(脾)와 위(胃)가 모두 허할 때 사용하면 효과가 좋다. 만약 위(胃)만 허하거나 한(寒)할 때는 처음부터 심(心)만 치료하는 방법을 써야 효과가 좋으므로 내 다시 하 나의 처방을 두어 천사(天師)께서 미처 아우르지 않으신 부분을 보충하노라. 다음과 같은 처방을 쓴다. [ 산약(山藥) 4냥, 백출(白朮)、복신(茯神)、연육(蓮肉)、백작약(白芍藥) 각 3냥, 원지(遠志) 2냥, 인삼(人蔘) 1냥, 창포(菖蒲)、

양강(良薑)·산조인(山棗仁)( 볶은 것 ) 각 5돈, 반하(半夏)·백개자(白芥子)·부자(附子) 각 3돈 ] 이 약재를 각기 가루내어 꿀로 환(丸)을 빚는다. 매일 백곤수(白滾水)로 3돈씩 삼키는데, 식사 후에 복용한다. [ 〈열치(熱治)〉 ]

#### 異功散 이공산

- [ 治脾胃虛弱，不思飲食，腹痛自利。人蔘、白朮、白茯苓、陳皮、甘草各一錢。右剉作一貼，薑三片，棗二枚，同煎服。( 東垣 ) ]
- [ 비위(脾胃)가 허약하여 음식 생각이 없고 배가 아프며 설사를 하는 것을 치료한다. 인삼(人蔘)·백출(白朮)·백복령(白茯苓)·진피(陳皮)·감초(甘草) 각 1돈. 이 약재를 썰어 1첩(貼)으로 만든 뒤 생강(生薑) 3쪽과 대추 2개를 넣고 함께 달여 복용한다. ( 동원(東垣) ) ]

#### 平胃散 평위산

- [ 治脾胃不和，不思飲食，心腹脹痛，嘔噦惡心，噫<sup>3</sup>吞酸，面黃肌瘦，怠惰嗜臥，常多自利，或發霍亂，及五噎、八痞、膈氣、反胃等症。蒼朮二錢，陳皮一錢四分，厚朴一錢，甘草六分。右剉作一貼，薑三片，棗二枚，水煎服。或爲末，每二錢薑棗湯點服。( 入門 ) ○平胃散決烈耗散之劑，實非補胃之藥，能瀉土氣之敦阜，使之平矣。用之而胃氣和平則便止，不可常用也。( 丹心 ) ]
- [ 비위(脾胃)가 조화롭지 못하여 음식 생각이 없고 가슴과 배가 창만하고 아프며, 구역질이나 딸꾹질을 하고 속이 메스꺼우며, 트림을 하거나 생목이 오르며,

얼굴이 누렇게 살이 마르며, 나른하여 눕기 좋아하고, 자주 설사하는 것을 치료한다. 또한 객란(霍亂)·오열(五噎)<sup>4</sup>·팔비(八痞)<sup>5</sup>·격기(膈氣)<sup>6</sup>·반위(反胃) 등의 증상을 치료한다. 창출(蒼朮) 2돈, 진피(陳皮) 1돈 4푼, 후박(厚朴) 1돈, 감초(甘草) 6푼. 이 약재를 썰어서 1첩(貼)으로 만든 다음 생강(生薑) 3쪽과 대추 2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혹은 가루 내어 2돈씩 강조탕(薑棗湯)에 타서 복용한다. (《입문(入門)》) ○평위산(平胃散)은 강하게 소모시키고 흩어버리는 약으로, 사실 위(胃)를 보하는 약이 아니며 토(土)의 기운이 지나친 것을 사하여 고르게 만들 뿐이다. 이 처방을 쓰고 나서 위기(胃氣)가 조화롭고 고르게 되면 바로 복용을 멈추어야 하며 일상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단심(丹心)) ]

胃絶候 [ 胃爲足陽明，其終者，口目動作，善驚妄言，色黃，其上下經盛，不仁，則終矣。(內經) 胃絶五日而死，何以知之。脊痛腰中重，不能反覆。(脉經) ]

위(胃)絶候 [ 위(胃)는 족양명(足陽明)에 해당한다. 그 기운이 끊어지면 입과 눈이 떨리고, 잘 놀라며 함부로 말하고, 얼굴색이 누렇다. 수양명과 족양명 경맥(經脈)이 거칠게 뛰고, 감각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죽는다. (《내경(內經)》) 위(胃)의 기운이 끊어지면 5일 만에 죽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등줄기가 아프고 허리가 무거워 몸을 뒤척일 수 없다. (《맥경(脈經)》) ]

## 小腸腑 소장부



小腸病證 [ 中氣不足，腸爲之苦鳴。 ○小腸病者，小腹痛，腰脊控睪而痛，時窘之候，當耳前熱。 ○小腸控睪，引腰脊，上冲心，邪在小腸也。 ( 靈樞 ) ○小腸爲泄。 ( 內經 ) ○小腸有氣，則小腹痛，小腸有血，則小便澁，小腸有熱，則莖中痛。 ( 入門 ) ○小腸者，心之府也，有病宜通利，用導赤散。方見下 ]

소장(小腸)의 병증(病證) [ 중기(中氣)가 부족하면 장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난다. ○소장(小腸)의 병은, 아랫배가 아프고 요추에서 고환까지 당기면서 아프며 때때로 대소변이 급하게 마렵고 귀 앞에서 열이 난다. ○소장(小腸)에서 고환까지 당긴 것이 허리와 등줄기까지 이어지고 위로 가슴을 치받는 것은 사기(邪氣)가 소장(小腸)에 있는 경우이다. (《영추(靈樞)》) ○소장(小腸)에 병이 있으면 설사를 한다. (《내경(內經)》) ○소장(小腸)에 기(氣)가 정체되면 아랫배가 아프고, 소장(小腸)에 혈(血)이 정체되면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며, 소장(小腸)에 열(熱)이 있으면 음경 속이 아프다. (《입문(入門)》) ○소장(小腸)은 심(心)과 짝이 되는 부(腑)이다. 소장에 병이 있으면 잘 소통되도록 해야 하므로 도적산(導赤散)을 쓴다. 처방은 뒤에 나온다. ]

小腸絕候 [ 小腸絕，六日死，何以知之。髮直如乾麻，不得屈伸，自汗不止。 ( 脉經 ) ]

소장(小腸)의 기운이 끊어진 증후 [ 소장(小腸)의 기운이 끊어지면 6일 만에 죽으니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머리카락이 마름 삼대처럼 곧고 몸을 구부렸다 폼다 할 수 없으며 자한이 멈추지 않는다. (《맥경(脈經)》) ]

導赤散 도적산

- [ 治小腸熱，小便不利症。生地黃、木通、甘草各一錢。右剉作貼，青竹葉七片同煎服。( 錢乙 ) ]
- [ 소장(小腸)에 열(熱)이 있어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생지황(生地黃)、목통(木通)、감초(甘草) 각 1돈. 이 약재를 썰어 1첩(貼)으로 만들어 청죽엽(靑竹葉) 7잎과 함께 달여 복용한다. ( 전을(錢乙) ) ]

## 大腸腑 대장부

大腸病證 [ 大腸病者，腸中切痛，而鳴濯濯，冬日重感于寒即泄，當臍而痛，不能久立。○腹痛腸鳴，氣上冲胸喘，不能久立，邪在大腸也。○腸中寒，則腸鳴飡泄，腸中熱，則出黃如糜。( 靈樞 ) ○大腸爲泄。○腸痺者，數飲而出不得，中氣喘急<sup>7</sup>，時發飡泄。( 內經 ) ○大腸有寒者，多鶩溏，有熱者，便難腸垢。( 仲景 ) ○腸虛則鳴。又寒氣相搏，則爲腸鳴。( 入門 ) ○大腸熱宜瀉白散，大腸寒宜實腸飲。方見下 ]

대장(大腸)의 병증(病證) [ 대장(大腸)의 병은, 장(腸) 속이 끊어질 듯 아프며 꾸룩꾸룩 소리가 난다. 겨울에 한사(寒邪)에 거듭 감촉되면 설사를 하며 배꼽 부위가 아프고 오래 서있지 못한다. ○배가 아프고 장에서 소리가 나며 기운이 가슴으로 치밀어 올라 숨을 헐떡이고 오래 서있지 못하는 것은 사기(邪氣)가 대장(大腸)에 있는 것이다. ○장(腸) 속이 차가우면 장에서 소리가 나고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섞인 설사를 하고, 장(腸) 속이 뜨거우면 묽은 죽 같은 누런 대변을 본다. (《영추(靈樞)》) ○대장(大腸)에 병이 있으면 설사를 한다. ○장비(腸痺)는, 자주 물을 마시지만 소변으로 잘 내보내지 못하고 기(氣)

에 적중되어 숨이 매우 차며 때때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섞인 설사를 한다.

(《내경(內經)》) ○대장(大腸)에 한(寒)이 있으면 무른 대변을 보고, 열(熱)

이 있으면 대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곱똥을 본다. (중경(中景)) ○장(腸)이

허하면 장에서 소리가 난다. 또 한기(寒氣)가 맞부딪쳐도 장에서 소리가 난다.

(《입문(入門)》) ○대장(大腸)에 열(熱)이 있을 때는 사백산(瀉白散)을 써야

하고, 대장(大腸)에 한(寒)이 있을 때는 실장음(實腸飮)을 써야 한다. 처방은

뒤에 나온다. ]

#### 瀉白散 사백산

- [ 方見火門 ]
- [ 처방은 <화문(火門)>에 나온다. ]

#### 實腸散 실장산

- [ 治大腸虛寒，腹痛泄瀉。厚朴、肉豆久煨、訶子皮、砂仁研、陳皮、蒼朮、赤茯苓各一錢，木香、甘草灸各五分。右剉作貼，薑三片，棗二枚，煎服。(直指) ]
- [ 대장(大腸)이 허한(虛寒)하여 배가 아프고 설사(泄瀉)하는 것을 치료한다. 후박(厚朴)、육두구(肉豆蔻) ( 잿불에 묻어 구운 것 )、가자피(訶子皮)、사인(砂仁) ( 간 것 )、진피(陳皮)、창출(蒼朮)、적복령(赤茯苓) 각 1돈, 목향(木香)、감초(甘草) ( 구운 것 ) 각 5푼. 이 약재를 썰어 1첩(貼)으로 삼아 생강(生薑) 3쪽과 대추 2개를 넣고 달여 복용한다. (《직지(直指)》) ]

大腸絶候 [ 大腸絶不治，何以知之。泄利無度，利絶則死。( 脉經 ) ]

대장(大腸)의 기운이 끊어진 증후 [ 대장(大腸)의 기운이 끊어지면 치료할 수 없으니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심하게 설사를 하다가 설사가 멈추면 죽는다. (《맥경(脉經)》) ]

## 膀胱腑 방광부

膀胱病證 [ 膀胱病者，小腹偏腫而痛，以手按之，即欲小便而不得。肩上熱，若脉陷，及足小指外廉脛踝後皆熱。( 靈樞 ) ○膀胱不利爲癰，不約爲遺尿。( 內經 ) ○膀胱病者，熱結下焦，小腹苦滿，胞轉小便不利，令人發狂。冷則濕痰上溢，而爲多唾，小便淋瀝，或遺尿。( 入門 ) ○膀胱虛，則小便不禁，宜既濟丸。實則小便不通，宜益元散。方見暑門 ]

방광(膀胱)의 병증(病證) [ 방광(膀胱)의 병은, 아랫배 한쪽이 부으면서 아프고, 손으로 이곳을 만지면 소변을 보고 싶으나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 어깨 위에서 열이 나거나, 경맥(經脈)이 움푹해진 듯하거나, 새끼발가락 바깥 모서리와 정강이와 복사뼈 뒤쪽에서 모두 열이 난다. (《영추(靈樞)》) ○방광(膀胱)이 잘 내보내지 못하면 용폐(癰閉)가 되고, 잘 조이지 못하면 유뇨(遺尿)가 된다. (《내경(內經)》) ○방광(膀胱)에 병이 있을 때, 열(熱)이 하초(下焦)에 맺히면 아랫배가 그득하고 오줌보가 뒤집혀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며 환자가 미친 듯이 행동한다. 방광이 차가우면 습담(濕痰)이 위로 넘쳐서 침을 많이 뱉고 소변이 방울방울 잘 나오지 않거나 자기도 모르게 소변을 지린다. (《입문

(入門)》) ○방광(膀胱)이 허하면 소변을 참지 못하고 지리는데 기제환(既濟丸)을 써야 한다. 방광이 실하면 소변이 나오지 않는데 익원산(益元散)을 써야 한다. 처방은 〈서문(暑門)〉에 나온다. ]

#### 既濟丸 기제환

- [ 治膀胱虛，小便不禁。菟絲子酒製、益智仁炒、白茯苓、萆子炒、肉蓯蓉酒洗、當歸、熟地黃各五錢，黃柏、知母鹽炒、牡蠣煨、山茱萸酒蒸去核各三錢，五味子一錢。右爲末，酒麵糊和丸梧子大。空心鹽湯下百丸。(醫鑑) ]
- [ 방광(膀胱)이 허하여 소변을 참지 못하고 지리는 것을 치료한다. 토사자(菟絲子) ( 술에 법제한 것 )、익지인(益智仁) ( 볶은 것 )、백복령(白茯苓)、구자(萆子) ( 볶은 것 )、육종용(肉蓯蓉) ( 술에 씻은 것 )、당귀(當歸)、숙지황(熟地黃) 각 5돈, 황백(黃柏)、지모(知母) ( 소금에 볶은 것 )、모려(牡蠣) ( 불에 달군 것 )、산수유(山茱萸) ( 술로 찌 뒤 씨를 제거한 것 ) 각 3돈, 오미자(五味子) 1돈. 이 약재를 가루 내어 술을 넣고 쏜 밀가루풀로 오동자(梧桐子) 크기만 하게 환(丸)을 빚는다. 빈속에 염탕(鹽湯)으로 100알씩 삼킨다. (《의감(醫鑑)》) ]

#### 益元散 익원산

- [ 治膀胱實，小便不通。滑石末六兩，甘草末一兩。每三錢，溫蜜水調服，或井水服。 ]

- [ 방광(膀胱)이 실하여 소변을 보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 활석(滑石) ( 가루 낸 것 ) 6냥, 감초(甘草) 가루 1냥. 3돈씩 뜨거운 꿀물에 타서 복용하거나 우물물에 타서 복용한다. ]

膀胱絶候 [ 遺尿狂言，目反直視，此爲膀胱絶也。 ○膀胱之脉，爲足太陽。其終也，戴眼反折痙瘓，其色白絶，汗乃出，絶汗出則必死矣。( 內經 ) 絶汗詳見津液門。 ]

방광(膀胱)의 기운이 끊어진 증후 [ 자기도 모르게 소변이 나오고 미친 소리를 하며 눈이 뒤집어지거나 눈을 곧추 뜨는 것은 방광의 기운이 끊어진 것이다. ○방광의 경맥(經脈)은 족태양(足太陽)에 해당한다. 그 기운이 끊어지면 눈을 위로 치켜뜨고 몸을 뒤로 젖히며 계종(痙瘓)이 생기고, 안색이 하얗게 되며 절한(絶汗)이 나온다. 절한이 나오면 죽는다. (《내경(內經)》) 절한(絶汗)에 대해서는 <진액문(津液門)>에 자세히 나온다. ]

### 三焦腑 삼초부

三焦病證 [ 三焦病者，腹氣滿，小腹尤堅，不得小便，窘急。溢則水，留即爲脹。 ○小腹痛腫，不得小便，邪在三焦約也。( 靈樞 ) ○上焦如霧，霧不散則爲喘滿，此出而不納也。中焦如漚，漚不利則爲留飲，留飲不散久爲中滿，此上不能納下不能出也。下焦如瀆，瀆不利則爲腫滿，此上納而下不出也。( 海藏 ) ○下焦溢爲水。( 內經 ) ○三焦爲丙火之府，故其發也，爲無根之相火。( 入門 ) ○內經曰，三焦者，決瀆之官，水道出焉。蓋三焦爲上中下水穀之道路，其病宜通利大小便，宜枳角丸。方見下 ]

삼초(三焦)의 병증(病證) [ 삼초(三焦)의 병은,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오르지만 아랫배는 오히려 단단해지고 소변을 볼 수 없어 급박하다. 넘치면 수종이 되고, 그대로 머무르면 수창이 된다. ○아랫배가 붓고 아프며 소변을 볼 수 없는 것은 사기(邪氣)가 삼초(三焦)에 있어 삼초가 막혔기 때문이다. (《영추(靈樞)》) ○상초(上焦)는 안개와 같다. 안개가 흩어지지 않으면 숨이 차고 그득하다. 이것은 내보내기만 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중초(中焦)는 거품과 같다. 거품이 잘 흐르지 못하면 유음(留飲)이 되고, 유음이 흩어지지 않고 오래되면 속이 그득해진다. 이것은 위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밑으로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초는 도랑과 같다. 도랑이 잘 통하지 못하면 붓게 된다. 이것은 위에서 받아들이기만 하고 밑으로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해장(海藏)) ○하초(下焦)에서 넘쳐흐르면 수종(水腫)이 된다. (《내경(內經)》) ○삼초(三焦)는 병화(丙火)에 상응하는 부(腑)이니, 삼초에 생겨나는 병은 뿌리가 없는 상화(相火) 때문이다. (《입문(入門)》) ○《내경(內經)》에서 말하였다. "삼초(三焦)는 도랑을 터주는 관직에 해당하니 이로부터 수도(水道)가 나온다." 삼초(三焦)는 상중하에 있는 수곡의 도로이기 때문에 병이 들면 대소변을 소통시켜야 한다. 지각환(枳殼丸)을 써야 한다. 처방은 뒤에 나온다. ]

#### 枳殼丸 지각환

- [ 治三焦約，大小便不通。枳角二兩，陳皮一兩，檳榔五錢，木香二錢半，黑丑四兩，一半生用，一半炒熟，取頭末一兩半，餘不用。右爲末，蜜丸梧子大。薑湯下三五十丸。(河澗) ]

- [ 삼초(三焦)가 막혀 대소변이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지각(枳殼) 2냥, 진피(陳皮) 1냥, 빈랑(檳榔) 5돈, 목향(木香) 2돈 반, 흑축(黑丑) 4냥 ( 절반은 날것을, 절반은 익도록 볶은 것을 쓴다. 체를 쳐서 나온 만물가루 1냥 반만 쓰고 나머지는 쓰지 않는다. ) 이 약재를 가루 내어 꿀로 오동자(梧桐子) 크기만 하게 환(丸)을 빚는다. 강탕(薑湯)에 30~50알씩 삼킨다. ( 하간(河澗) ) ]

1. 胃宜 ㉠ 胃虛 ※《동의보감》↩

2. 천사(天師)께서 말씀하신 처방은 : 《석실비록》을 참고하여 번역을 보충하였다.↩

3. 噫 ㉠ 噫氣 ※《동의보감》↩

4. 오열(五噎) : 5가지 열증(噎證)의 총칭 ↩

5. 팔비(八痞) : 8가지 비증(痞證)의 총칭 ↩

6. 격기(膈氣) : 흉격(胸膈)이 막힌 증상 ↩

7. 喘急 ㉠ 喘爭 ※《동의보감》↩



## 胞絡 포락

胞形象 [ 胞者, 一名赤宮, 一名丹田, 一名命門。男子藏精施化, 女子系胞有孕, 俱爲生化之源。非五行也, 非水亦非火, 此天地之異名。象坤土之生萬物也。(東垣) ○內經曰, 胞者, 藏於陰而象於地, 名曰奇恒之府。註曰, 奇異於恒常之六腑也。○此胞, 非膀胱中盛尿之胞也。]

포(胞)의 형상 [ 포(胞)는 '적궁(赤宮)', '단전(丹田)', '명문(命門)'이라고도 한다. 남자는 여기에 정(精)을 저장하였다가 생명을 만들고, 부인은 포(胞)에서 태아를 잉태하니, 모두 생명을 만들고 기르는 원천이다. 오행(五行)에 배속되지 않으니 수(水)도 아니고 화(火)도 아니다. 천지의 다른 이름이고 곤토(坤土)가 만물을 낳는 것을 본뜬 것이다.(동원(東垣)) ○《내경(內經)》에서 말하였다. "포(胞)는 음(陰)을 간직하고 본뜻기에 '기항지부(奇恒之府)'라고 한다." 주석에서 말하였다. "보통의 육부(六腑)와는 매우 다르다." ○이 '포(胞)'는 방광(膀胱) 속에서 소변을 담는 포(胞)가 아니다. ]

胞爲血室 [ 衝脉妊脉<sup>1</sup>, 皆起於胞中, 上循腹裏, 爲經絡之海。(靈樞) ○內經曰, 女子二七, 天癸至, 妊脉<sup>2</sup>通, 太衝脉盛, 月事以時下, 故有子。註曰, 癸謂壬癸, 北方水干名也。任脉衝脉, 皆奇經脉也。衝任流通, 經血漸盈, 應時而下, 天真之氣降, 與之從事, 故云天癸也。然衝爲血海, 任主胞胎, 二者相資, 故能有子。所以謂之月事者, 平和之氣, 常以三旬而一見也, 故愆期者謂之有病。(良方)]

포(胞)는 혈실(血室)이 됨 [ 충맥(衝脈)·임맥(任脉)은 모두 포(胞)에서 시작되어 뱃속을 따라 올라가므로 포(胞)는 경락의 바다이다. (《영추(靈樞)》) ]

○《내경(內經)》에서 말하였다. "여자는 14세 되었을 때, 천계(天癸)가 이르러 임맥(任脉)이 통하고 태충맥(太衝脈)이 왕성해져 월경이 정해진 때에 나온다. 그러므로 자식을 가질 수 있다." 주석에서 말하였다. "'계(癸)'는 임계(壬癸)로 북방(北方) 수(水)에 해당하는 천간(天干)이다. 충맥(衝脈)·임맥(任脉)은 모두 기경맥(奇經脈)이다. 충맥과 임맥이 흘러 경혈(經血)이 점점 가득 차면 정해진 때마다 내려온다. 천진(天真)의 기(氣)가 내려오면 그것과 함께 임신하게 되므로 '천계(天癸)'라고 하였다. 그러나 충맥(衝脈)은 혈해(血海)이고 임맥(任脉)은 포태(胞胎)를 주관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서로 도와야 자식을 가질 수 있다. '월사(月事)'라고 부르는 이유는 건강할 때 늘 30일에 1번 월경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기가 어긋나면 병이 있다고 하였다. (《양방(良方)》) ]

月候形色 [ 經水者，陰血也，陰必從陽，故稟火色也。血爲氣之配，氣熱則熱，氣寒則寒，氣升則升，氣降則降，氣凝則凝，氣滯則滯，氣清則清，氣濁則濁。往往見有成塊者，氣之凝也。將行而痛者，氣之滯也。行後作痛者，氣血俱虛也。色淡者，亦虛也，而有水渾之也。錯經忘行者，氣之亂也。紫者，氣之熱也。黑者，熱之甚也。今人但見其紫者、黑者、作痛者、成塊者，總指爲風冷，而行溫熱之劑，禍不旋踵矣。(丹心) ]

○心主血，故以色紅爲正。月候雖不對期，而色正者，易調。(入門) ]

○經色紫者，風也。四物湯加防風、白芷、荊芥。

○黑者，熱甚也。成塊色紫黑者，血熱也。四物湯加黃芩、黃連、香附子。

○淡白者，虛也。芎歸湯加人蔘、黃芪、白芍藥、香附子。

○淡者，有水澤之也。二陳湯加川穹、當歸。一云，色淡者，氣血俱虛。八物湯。

○如烟塵水

者，如屋漏水者，如豆汁者，或帶黃者，濕痰也。二陳湯加秦艽、防風、蒼朮。  
一云，如黑豆汁者，四物湯加芩連。成塊而色不變者，氣滯也。四物湯加香附子  
、玄胡索、枳角、陳皮 ○通用百子附歸丸、琥珀調經丸]

월경의 형상과 색 [ 경수(經水)는 음혈(陰血)이다. 음(陰)은 반드시 양(陽)을 따르기 때문에 화(火)의 색을 띠었다. 혈(血)은 기(氣)의 짝이 되기 때문에 기(氣)가 뜨거우면 혈(血)도 뜨겁고, 기가 차가우면 혈도 차가우며, 기가 올라가면 혈도 올라가고, 기가 내려가면 혈도 내려가며, 기가 멎치면 혈도 멎치고, 기가 막히면 혈도 막히며, 기가 맑으면 혈도 맑고, 기가 탁하면 혈도 탁하다. 종종 핏덩어리가 보이는 것은 기(氣)가 멎었기 때문이다. 월경을 하기 전에 통증이 있는 것은 기가 막혔기 때문이고, 월경을 한 뒤에 통증이 있는 것은 기(氣)와 혈(血)이 모두 허하기 때문이다. 색이 맑은 것은 허한 데다 수기(水氣)가 섞였기 때문이다. 피가 경맥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나오는 것은 기가 어지럽기 때문이다. 자주색은 기에 열이 있는 것이고, 검은색은 열이 심한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자주색인가 검은색인가 통증이 있는가 덩어리졌는가만을 보고 모두 풍랭(風冷)으로 여겨 따뜻한 약재를 쓴다. 이렇게 하면 화(禍)를 돌이킬 수 없다. (단심(丹心)) ○심(心)이 혈(血)을 주관하므로 붉은색이 좋은 색이다. 월경 주기에 문제가 있더라도 월경 색이 좋을 때는 치료하기가 쉽다. (《입문(入門)》) ○월경 색이 자주색인 것은 풍사(風邪)가 있기 때문이다. 사물탕(四物湯)에 방풍(防風)、백지(白芷)、형개(荊芥)를 더하여 쓴다. ○색이 검은 것은 열이 심하기 때문이다. 덩어리가 있으면서 색이 검붉은 것은 혈(血)에 열(熱)이 있기 때문이다. 사물탕(四物湯)에 황금(黃芩)、황련(黃連)、향부자(香附子)를 더하여 쓴다. ○색이 옅고 묽은 것은 허하기 때문이다. 궁귀탕(芩歸

湯)에 인삼(人蔘)·황기(黃芪)·백작약(白芍藥)·향부자(香附子)를 더하여 쓴다. ○뭍은 것은 수기(水氣)가 섞였기 때문이다. 이진탕(二陳湯)에 천궁(川芎)·당귀(當歸)를 더하여 쓴다. 색이 뭍은 것은 기(氣)와 혈(血)이 모두 허하기 때문이니 팔물탕(八物湯)을 쓴다고 한 곳도 있다. ○젓물 같거나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 같거나 콩즙 같거나 누런색을 띠는 것은 습담이 있기 때문이다. 이진탕(二陳湯)에 진교(秦艽)·방풍(防風)·창출(蒼朮)을 더하여 쓴다. 검정 콩즙 같을 때는 사물탕(四物湯)에 황금(黃芩)·황련(黃連)을 더하여 쓴다고 한 곳도 있다. 덩어리가 있으나 색의 변화가 없는 것은 기(氣)가 정체되었기 때문이다. 사물탕(四物湯)에 향부자(香附子)·현호색(玄胡索)·지각(枳殼)·진피(陳皮)를 더하여 쓴다. ○월경에 문제가 있을 때는 백자부귀환(百子附歸丸)·호박조경환(琥珀調經丸)을 두루 쓴다. ]

經行有異 [ 受孕之後, 仍復行經, 名激經。 ( 全<sup>3</sup> ) ○月月行經而受胎者<sup>4</sup>, 胎盛, 名胎垢<sup>5</sup>。 ○倒經, 此因食熱物干椒, 其血亂行也。宜犀角地黃湯。 ( 驗方 ) ○逆行口鼻者, 名倒經, 先以京墨汁服止之, 次用當歸尾、紅花各三錢, 水一鍾半煎至半, 溫服即通。 ( 簡便方 ) ○一方, 魚膠切片炒、新綿燒灰, 每服二錢, 米飲調下即愈。 ( 多能鄙事方 ) ○經之一日, 忽然腹痛而吐血者, 此肝氣之逆也。用順經湯、當歸、熟地黃、牡丹皮各五錢, 白芍藥、茯苓、牛膝、沙蔘、荊芥炒黑各三錢, 煎服。一劑吐血止, 再劑經行, 三劑而永斷根。 ( 奇聞 ) ○經前一日, 大便出血者, 名歷經, 是經入大腸也。當歸一兩, 白朮、白芍藥、熟地黃、麥冬各五錢, 荊芥炒黑三錢, 山茱萸二錢, 人蔘、巴戟各一錢, 升麻四分, 煎服。三劑而安。 ( 奇聞 ) ○四季<sup>6</sup>一行者, 名居經, 俗名按季, 此婦人中仙骨也。救仙丹, 茯苓五錢, 白朮、山藥、白芍藥各三錢, 兔絲子二錢, 杜

冲、甘草各一錢，陳皮五分。煎服。(奇聞) ○一年一行者，名避年。 ○一生不行而受胎者，暗經。 ○經行中行房事，名撞紅。明石雄黃水飛三錢，好酒衝服。一次即效。(驗方新篇) ○經水斷續，或先或後，無一定期者，此肝之鬱也。用定經湯，白芍藥、當歸、兔絲子各一兩，熟地黃、山藥各五錢，茯苓三錢，荊芥炒黑一錢，柴胡五分，煎服。四劑而安。(奇聞) ○一生不循正道而行者，晚年有僻疾則難治。(得效) ○痰入胞中如懷孕狀，二陳湯二十貼服。或疑則半夏炒黃入。(祕笈)]

월경의 이상 양상 [ 임신한 뒤에 다시 월경이 나오는 것을 '격경(激經)'이라고 한다. (《금감(金鑑)》) ○임신한 뒤에 달마다 월경을 하다 출산하는 것을 태성(胎盛)이라고 하고 세속에서는 '태구(胎垢)'라고 한다. ○도경(倒經)은 생강(生薑)、산초와 같이 뜨거운 성질의 음식을 먹어서 월경 혈(血)이 함부로 흐르는 것이다. 서각지황탕(犀角地黃湯)을 써야 한다. (《험방(驗方)》) ○월경혈이 거슬러 올라 입이나 코로 나오는 것을 '도경(倒經)'이라고 한다. 먼저 경묵(京墨) 간 물을 복용하여 이를 멎게 하고, 다음으로 당귀미(當歸尾)、홍화(紅花) 각 3돈을 물 1종지 반에 넣고 반 종지가 될 때까지 달여 따뜻하게 복용하면 월경이 정상적으로 나온다. (《간편방(簡便方)》) ○또 다른 처방. 어교(魚膠)(저며 볶은 것)와 햇숨(태운 재)을 2돈씩 미음에 타서 마시면 낫는다. (《다능비사방(多能鄙事方)》) ○월경 첫째날 갑자기 배가 아프고 피를 토하는 것은 간(肝)의 기운이 거슬러 올랐기 때문이다. 순경탕(順經湯)을 쓴다. 당귀(當歸)、숙지황(熟地黃)、목단피(牡丹皮) 각 5돈, 백작약(白芍藥)、복령(茯苓)、우슬(牛膝)、사삼(沙蔘)、형개(荊芥)(검게 되도록 볶은 것) 각 3돈. 이 약재를 달여 복용한다. 1제(劑)를 복용하면 토혈(吐血)이 멈추고, 2제

(劑)를 복용하면 월경이 나오며, 3제(劑)를 복용하면 영원히 낫는다. (《기문(奇聞)》) ○월경 하루 전날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을 '역경(歷經)'이라고 한다. 이것은 월경 혈이 대장(大腸)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당귀(當歸) 1냥, 백출(白朮)·백작약(白芍藥)·숙지황(熟地黃)·맥문동(麥門冬) 각 5돈, 형개(荊芥) ( 검게 되도록 볶은 것 ) 3돈, 산수유(山茱萸) 2돈, 인삼(人蔘)·파극(巴戟) 각 1돈, 승마(升麻) 4푼. 이 약재를 달여 복용한다. 3제(劑) 복용하면 낫는다. (《기문(奇聞)》) ○월경을 3개월에 1번 하는 것을 '거경(居經)'이라고 하고, 세속해서는 '안계(按季)'라고 한다. 이것은 부인(婦人) 가운데 선골(仙骨)이다. 구선단(救仙丹)을 쓴다. 복령(茯苓) 5돈, 백출(白朮)·산약(山藥)·백작약(白芍藥) 각 3돈, 토사자(菟絲子) 2돈, 두충(杜仲)·감초(甘草) 각 1돈, 진피(陳皮) 5푼. 이 약재를 달여 복용한다. (《기문(奇聞)》) ○월경을 1년에 1번 하는 것을 '피년(避年)'이라고 한다. ○평생 월경하지 않다가 임신하는 것을 '암경(暗經)'이라고 한다. ○월경하는 중에 방사(房事)를 하는 것을 '당홍(撞紅)'이라고 한다. 중국산 석웅황(石雄黃) ( 수비(水飛)를 한 것 ) 3돈을 좋은 술에 타서 복용한다. 1차례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 (《험방신편(驗方新篇)》) ○월경이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거나, 주기가 앞당겨졌다 미루어졌다 하는 등 월경의 주기가 일정하지 않은 것은 간(肝)의 기운이 울체되었기 때문이다. 정경탕(定經湯)을 쓴다. 백작약(白芍藥)·당귀(當歸)·토사자(菟絲子) 각 1냥, 숙지황(熟地黃)·산약(山藥) 각 5돈, 복령(茯苓) 3돈, 형개(荊芥) ( 검게 되도록 볶은 것 ) 1돈, 시호(柴胡) 5푼. 이 약재를 달여 복용한다. 4제(劑) 복용하면 낫는다. (《기문(奇聞)》) ○평생 월경이 고르지 못하다가 만년에 좋지 못한 병에 걸리면 치료하기 어렵다. (《득효(得效)》) ○담(痰)이 포(胞)

속으로 들어가 임신한 듯한 때는 이진탕(二陳湯) 20첩(貼)을 복용한다.<sup>7</sup> 만약  
의심스러우면 반하(半夏) ( 누렇게 되도록 볶은 것 ) 를 넣는다. (《비급(祕  
笈)》) ]

月候不調 [ 月候不調之由, 或前或後, 或多或小。凡行後作痛者, 虛也。而小  
而淡者, 血虛也。多者, 氣虛也。其將行作痛及凝塊不散者, 滯也。紫黑色者,  
滯而挾熱也。 ( 丹心 ) 月候不調之中, 有兼疼痛者, 有兼發熱者, 其不調之  
中, 有趨前者, 有退後者, 則趨前爲熱, 退後爲虛也。疼痛之中, 有常時作痛  
者, 有經前經後作痛者, 則常時與經前作痛者爲血積, 經後爲血虛也。發熱之  
中, 有常時發熱者, 有經行發熱者, 則常時爲血虛有積, 經行爲血虛有熱。 ( 丹  
心 ) ○凡經水或前或後, 或多或小, 或逾月不至或一月再至, 皆不調之故也。  
宜調經散。方見下 ( 醫鑑 ) ]

월경 상태가 고르지 않은 경우 [ 월경의 상태가 고르지 못한 단서는 월경이 당  
겨지거나 미루어지거나 양이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것이다. 보통 월경한 후 통  
증이 있는 것은 허하기 때문이다. 월경 양이 적으면서 색이 옅은 것은 혈(血)이  
허하기 때문이고, 양이 많은 것은 기(氣)가 허하기 때문이다. 월경을 앞두고 통  
증이 있거나 월경혈이 뭉쳐 풀어지지 않는 것은 기(氣)가 막혔기 때문이다. 월  
경혈의 색이 검붉은 것은 기(氣)가 막힌 데다 열이 있기 때문이다. (《단심(丹  
心)》) 월경의 상태가 고르지 않는 것 가운데 통증을 겸하는 경우가 있고 발열  
을 겸하는 경우가 있다. 월경의 주기가 고르지 않은 것 가운데 주기가 당겨지  
는 경우가 있고 주기가 미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당겨지는 것은 열이 있기 때  
문이고, 미루어지는 것은 허하기 때문이다. 통증이 있는 것 가운데 늘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고 월경 전이나 월경 후에만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다. 통증이 늘 있거나 월경 전에 있는 것은 혈적(血積)이 있기 때문이고, 월경 후에 있는 것은 혈(血)이 허하기 때문이다. 열이 나는 것 가운데 늘 열이 나는 경우가 있고 월경할 때 열이 나는 경우가 있다. 열이 늘 나는 것은 혈(血)이 허한 데다 적(積)이 있기 때문이고, 월경할 때 나는 것은 혈(血)이 허한 데다 열이 있기 때문이다. ( 단심(丹心) ) ○월경 시기가 당겨지거나 미루어지거나, 월경 양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월경이 한 달이 지나도 이르지 않거나 한 달에 2번 이르는 것은 모두 월경이 고르지 않기 때문이다. 조경산(調經散)을 써야 한다. 처방은 뒤에 나온다. (《의감(醫鑑)》) ]

血閉 [ 月事不來者，胞脉閉也。胞脉者，屬心而絡於胞中。今氣上迫肺，心氣不得下通，故月事不來也。 ( 內經 ) 小腸移熱於大腸，爲伏瘕，爲沈。註曰，血澁不利，則月事沈滯而不行。 ( 內經 ) 經閉不行有三。一者，胃弱形瘦，氣血衰，津液不生，而致經水斷絕，名曰血枯經絕。此中焦胃熱結也。二者，心胞脉洪數，時見躁作，大小便不利，而經水閉絕，乃血海乾枯。此下焦胞脉熱結也。三者，或因勞心，心火上行，月事不來者，胞脉閉也。此上焦心肝肺熱結也。 ○又有室女童男，積想在心，思慮過度，多致勞損，男子則神色先散，女子則月水先閉。蓋憂愁思慮，則傷心而血亦竭。故神色先散，月水先閉。且心病不能養脾，故不嗜食。脾虛則金虧，故發嗽矣。 ( 良方 ) ○胞脉閉，月事不來，先服降火<sup>8</sup>之劑，宜三和湯、通經湯。方見下。 ]



혈폐(血閉) [ 월경이 나오지 않는 것은 포맥(胞脈)이 막혔기 때문이다. 포맥은 심(心)에 연결되어 포(胞) 속까지 이어진다. 기(氣)가 폐(肺)를 치받아 심기(心氣)가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월경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내경(內經)》) 소장(小腸)에서 대장(大腸)으로 열이 옮겨지면 복가(伏瘕)가 되어 월경이 나오지 않는다. 주석에서 말하였다. "혈(血)이 걸끄러워 잘 흐르지 못하면 월경이 막혀 나오지 않는다." (《내경(內經)》) 월경이 나오지 않는 것에는 3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위(胃)가 약하고 몸이 말라서 기혈이 쇠하고 진액이 생기지 않아 월경이 끊어진 경우이다. 이것을 '혈이 말라 생긴 월경 중단'이라고 한다. 이것은 중초(中焦)의 위(胃)에 열이 뭉쳤기 때문이다. 둘째, 심포맥(心胞脈)이 홍삭(洪數)하고 때때로 조급하게 뛰며,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면서 월경이 끊어진 경우이다. 이것은 혈해(血海)가 말라 생긴 월경 중단으로, 하초(下焦)의 포맥(胞脈)에 열이 뭉쳤기 때문이다. 셋째, 마음을 너무 쓴 탓에 심화(心火)가 치밀어 올라 월경이 끊어진 경우로, 포맥(胞脈)이 막혀 생긴 월경 중단이다. 이것은 상초(上焦)의 심(心)·간(肝)·폐(肺)에 열이 뭉쳤기 때문이다. ○또 처녀와 총각은 마음으로 많이 그리워하고 고민이 지나쳐서 허손(虛損)해 질 때가 많다. 남자의 경우는 먼저 안색이 좋지 않게 되고, 여자의 경우는 먼저 월경이 끊어진다. 보통 근심과 걱정과 고민이 많으면 심(心)을 상하고 혈(血)도 역행하여 고갈된다. 그러므로 남자는 먼저 안색이 좋지 않게 되고 여자는 먼저 월경이 끊어지는 것이다. 또 심(心)이 병들면 비(脾)를 기르지 못하므로 입맛이 없어진다. 비(脾)가 허하면 폐금(肺金)이 이지러지기 때문에 기침을 한다.

(《양방(良方)》) ○포맥(胞脈)이 막혀 월경이 나오지 않으면 먼저 심화(心火)를 내리는 약을 복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삼화탕(三和湯)·통경탕(通經湯)을 쓴다. 처방은 뒤에 나온다. ]

室女月經不行 [ 女子十四歲衝，任脉盛，而血自下。若過期不通，則宜紅花當歸散。方見下 ]

처녀가 월경하지 않는 경우 [ 여자가 14세가 되면 충맥(衝脈)과 임맥(任脈)이 성숙하여 혈(血)이 저절로 내려온다. 만약 이 나이가 지나도 월경이 나오지 않으면 홍화당귀산(紅花當歸散)을 쓴다. 처방은 뒤에 나온다. ]

血結成瘕 [ 衝脉妊脉<sup>9</sup>，皆起於胞中，爲血之海血。澀不行，則成瘕作痛。 ○任脉爲病，男子爲七疝，女子爲瘕聚。(難經) ○月事不行，血結成瘕，宜歸朮破瘕湯。(見下) ]

혈(血)이 맺혀 가(瘕)가 되는 경우 [ 충맥(衝脈)과 임맥(任脈)은 모두 포(胞)속에서 시작되어 혈해(血海)가 된다. 혈(血)이 걸끄러워 잘 흐르지 못하면 가(瘕)를 만들어 통증이 생긴다. ○임맥(任脈)에 병이 들면 남자는 칠산(七疝)이 생기고 여자는 징가(癥瘕)·적취(積聚)가 생긴다.(《난경(難經)》) ○월경이 나오지 않고 혈(血)이 멎쳐 가(瘕)를 만들어졌을 때는 귀출파징탕(歸朮破瘕湯)을 써야 한다. ( 처방은 뒤에 나온다. ) ]

血枯 [ 黃帝曰，有病胸脇支滿者，妨於食，病至則先聞腥臊臭，出清液，先唾血，四肢清，目眩，時時前後血，病名爲何，何以得之。岐伯曰，病名血枯。此得之年少時，有所大脫血，若醉中行房，氣竭肝傷，故月事衰少不來也。治之以

烏賊丸。方見下。]

혈고(血枯) [ 황제(黃帝)가 말하였다. "병이 들어 가슴과 옆구리가 결리고 그득하여 음식을 잘 먹을 수가 없습니다. 병이 생기면 먼저 비리고 누린 냄새가 나고 맑은 콧물이 나오며, 먼저 피를 땀고 팔다리가 차고 눈이 어지러우며, 때때로 전음(前陰)이나 후음(後陰)에서 피가 나옵니다. 이것의 병명은 무엇이며 왜 생기는 것입니까" 기백(岐伯)이 말하였다. "병명은 '혈고(血枯)'라고 합니다. 나이가 어릴 때 피를 많이 흘렸거나 술에 취한 채 성관계를 하여 기(氣)가 고갈되고 간(肝)이 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경이 적어지거나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치료할 때는 오적환(烏賊丸)을 쓴다. 처방은 뒤에 나온다. ]

血崩血漏 [ 內經曰，陰虛陽搏，謂之崩。註曰，陰脉不足，陽脉盛搏，則內崩而血流行也。 ○悲哀太甚，則胞絡絕，胞絡絕，則陽氣內動，發則心下崩，數澼血也。(丹心) ○蓋悲哀則心系急，肺布葉舉，而上焦不通，榮衛不散，熱氣在中，故胞絡絕，而陽氣內鼓動，發則心下崩，數澼血也。心下崩，謂心包內崩而血下也。(入門) ○非時血下，淋瀝不止，謂之漏下。忽然暴下，若山崩然，謂之崩中。(入門) ○崩漏不止有三。一者，脾胃虛損，下陷於腎，與相火相合，濕熱下迫，經漏不止，其色紫黑，如夏月腐肉之臭，中有白蒂，脉沈細疾數，或沈弦洪大，其熱明矣，或腰痛，或臍下痛，宜大補脾胃而升舉血氣。 ○二者，或故貴奪勢，或先富後貧，心氣不足，其火大熾旺於血脉之中，又飲食失節，其容顏似不病者，此心病者，不行於診，其經水不時而下，或適來適斷，或暴下不止，當先說惡死之言，令心不動，以大補氣血之藥，舉養脾胃，微加鎮墜

心火之藥，補陰瀉陽，經自止矣。 ○三者，悲哀太甚，胞胎絕云云，見上。（東垣） ○血崩，乃經血錯亂，淖溢妄行也。遽止則便有積瘀，凝成窠臼，不止則又恐眩暈。必先服五靈脂末（名獨行散）一錢，溫酒調下，其性能行血止血，然後用五積散（方見下），加防風荊芥，入醋煎服。一二貼後，再服五靈脂散，去古生新。如更不止，用五灰散、十灰丸散。（方見下）]

혈붕(血崩)과 혈루(血漏) [《내경(內經)》에서 말하였다. "음맥(陰脈)은 허한 데 양맥(陽脈)이 힘찬 것을 '붕(崩)'이라고 한다." 주석에서 말하였다. "음맥이 부족한데 양맥이 힘차게 뛰면 안에서 무너져 피가 흐른다." ○지나치게 슬퍼하면 포락(胞絡)이 끊어지고, 포락이 끊어지면 양기(陽氣)가 안에서 요동친다. 이것이 증상으로 나타나면 심(心)의 기운이 아래로 무너져 피 섞인 소변을 자주 본다. (《단심(丹心)》) ○슬퍼하면 심계(心系)가 당기고 폐포엽이 들리므로 상초가 막혀 영위가 흐르지 못하고 열기가 속에 머물게 된다. 그러므로 포락(胞絡)이 끊어지고 양기(陽氣)가 속에서 요동친다. 이것이 증상으로 나타나면 심(心)의 기운이 아래로 무너져 피 섞인 소변을 자주 본다. '심하붕(心下崩)'이라는 것은 심포(心胞)의 기운이 안에서 무너져서 피가 아래로 나오는 것을 말한다. (《입문(入門)》) ○월경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 피가 아래로 찔끔 찔끔 나오며 멈추지 않는 것을 '누하(漏下)'라 한다. 피가 산사태처럼 갑자기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붕중(崩中)'이라고 한다. (《입문(入門)》) ○붕루(崩漏)가 그치지 않는 것은 3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비위(脾胃)가 허손한데 신(腎)까지 손상받아 상화(相火)와 서로 합쳐져 만들어진 습열(濕熱)이 아래로 내달려 붕루가 멎지 않는 경우이다. 색이 검붉고 여름에 고기 썩는 냄새가 나며 백대하를 동반한다. 맥이 침(沈)、세(細)、질(疾)、삭(數)하거나 침(沈)、현(弦)

· 홍(洪)· 대(大)하니 열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간혹 허리나 배꼽 아래가 아픈 경우도 있다. 비위를 크게 보하고 혈기(血氣)를 들어 올려 주어야 한다. ○ 둘째, 전에 지위가 높았지만 권세를 잃었거나 부유하다가 가난해진 까닭에 심기(心氣)가 부족하게 되어 심화(心火)가 혈맥 속에서 몹시 왕성해진 경우이다. 또한 음식을 알맞게 잘 먹지 못하지만 얼굴은 병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심(心)의 병이다. 진찰하지 않아도 월경이 아무 때나 나오거나 월경이 나오다 멎다 하거나 갑자기 쏟아져 혈붕이 멎지 않을 것이다. 먼저 악화되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하여 마음을 움직이지 않게 한 후, 기(氣)와 혈(血)을 크게 보하는 약으로 비위(脾胃)의 기운을 끌어올려 기르고, 심화(心火)를 누르는 약을 약간 넣어 음(陰)을 보하고 양(陽)을 사하면 월경이 저절로 멎는다. ○셋째, 지나치게 슬퍼하여 포락이 끊어져 그렇게 된 경우이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하였다. ( 동원(東垣) ) ○혈붕은 월경으로 나올 피가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나 흘러넘쳐 함부로 돌아다니는 것이다. 급히 멎게 하면 어혈(瘀血)이 생겨서 덩어리를 만들게 되고, 멎게 하지 않으면 머리가 어지러울 수 있다. 반드시 먼저 오령지(五靈脂) 가루 ( '독행산(獨行散)'이라고 부른다. ) 1돈을 따뜻한 술에 타 먹는다. 이것은 혈을 잘 흐르게 하면서도 지혈(止血)하는 작용이 있다. 그런 뒤에 오적산(五積散) ( 처방은 뒤에 나온다. ) 에 방풍(防風)· 형개(荊芥)를 넣고 식초를 타서 복용한다. 1~2첩 복용한 뒤 다시 오령지 가루를 복용하여 오래된 피를 없애고 새 피가 생기게 한다. 그래도 멎지 않으면 오회산(五灰散)· 십회환(十灰丸)· 십회산(十灰散)을 쓴다. ( 처방은 뒤에 나온다. ) ]

赤白帶下 [脾傳之腎, 病名曰疝瘕, 小腹冤熱而痛, 出白, 一名曰蟲。註曰, 出白者, 洩出白液也。蓋白帶, 白濁之類也。(內經) ○任脉爲病, 女子帶下瘕聚。註曰, 任脉自胞, 上過帶脉, 貫於臍上, 故爲帶下。帶脉起于季肋章門(穴名), 似束帶狀。今濕熱冤結不散, 故爲病也。冤者, 結也屈也, 屈滯而病熱不散也。○赤者, 熱入小腸, 白者, 熱入大腸。原其本, 則皆濕熱結于脉, 故津液涌溢, 是赤白帶下。臍下痛, 陰中綿綿而下也。(保命) ○小腸<sup>10</sup>冤熱, 結於任脉, 自胞上而過帶脉, 出於大小腸之分, 洩出白液, 淋瀝以下, 故曰帶下。與赤白濁一般, 但不痛耳。(入門) 婦人帶下, 是第一等病, 令人不產育, 宜急治之。扁鵲過邯鄲, 聞貴婦人病而治之, 所以專爲帶下醫也。(綱目) ○婦人帶下, 脉浮惡寒漏下者, 不治。○帶與漏, 俱是胃中痰積流下, 滲入膀胱, 出於大小腸, 宜升提之。甚者上必用吐, 下用二陳湯(方見下), 加蒼朮、白朮、升麻、柴胡, 或蒼柏檳皮丸。(方見下)]

적백대하(赤白帶下) [비(脾)의 병이 신(腎)으로 전해진 것을 산가(疝瘕)라고 한다. 아랫배에 울체된 열(熱)이 있으면서 아프고 흰 것이 나온다. 이것을 '고(蠱)'라고도 한다. 주석에서 말하였다. "흰 것이 나온다는 말은 소변에서 흰 액체가 나온다는 뜻이다. 아마도 백대하(白帶下)나 백탁(白濁)의 부류일 것이다." (《내경(內經)》) ○임맥(任脈)에 병이 들면 여성에게 대하(帶下)·징가(瘕瘕)·적취(積聚)가 생긴다. 주석에서 말하였다. "임맥은 포(胞)에서 시작하여 위로 대맥(帶脈)을 지나고 배꼽을 관통하므로 대하(帶下)가 된다." 대맥(帶脈)은 옆구리 아래 장문(章門) (경혈의 이름)에서 시작하여 허리띠로 묶은 모양이다. 여기에 습열(濕熱)이 쌓여 흠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되었다. '원(冤)'이란 뭉친다·굽었다는 뜻으로, 굽고 막혀서 병으로 생긴 열이 흠어지지

않는 것이다. ○적대하(赤帶下)는 열이 소장(小腸)으로 들어간 것이고, 백대하(白帶下)는 열이 대장(大腸)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 근본을 살펴보면 모두 습열(濕熱)이 경맥(經脈)에 뭉친 까닭에 진액이 흘러넘친 경우이니 이것이 적대하·백대하이다. 배꼽 아래가 아프고 음부에서 계속 흘러내린다. (《보명(保命)》) ○아랫배에 뭉친 열(熱)은 임맥(任脈)에 맺혔다가 포(胞)로부터 위로 올라가 대맥(帶脈)을 지난 뒤에 대장(大腸)과 소장(小腸)이 있는 부분으로 나온다. 그러면 흰 액체의 분비물이 찰끔찰끔 아래로 나온다. 이것은 적백탁(赤白濁)과 같지만 통증이 없을 뿐이다. (《강목(綱目)》) 부인에게 있어서 대하가 가장 중요한 병이 되는 이유는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급히 치료해야 한다. 편작이 한단(邯鄲)을 지나다가 부인을 귀하게 여긴다는 말을 듣고 대하(帶下)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원(醫員)이 되었다. ○부인이 대하가 있을 때 맥이 부(浮)하고 오한이 있으며 누하(漏下)가 있으면 치료하지 못한다. ○대하와 누하는 모두 위(胃) 속에 쌓인 담이 흘러내려 방광으로 스며 들고 대장·소장으로 나오는 것이다. 기운을 끌어올려야 한다. 심한 경우에는 위로는 반드시 토법을 써야 하고, 아래로는 이진탕(二陳湯) (처방은 담음문에 나온다.) 에 창출·백출·승마·시호를 넣어 쓰거나 창백저피환(蒼柏檉皮丸)을 써야 한다. (처방은 뒤에 나온다.) ]

孕婦帶下 [ 方見下。室女帶下 ( 方見下 ) ]

임신부의 대하(帶下) [ 처방은 뒤에 나온다. 처녀의 대하(帶下) ( 처방은 뒤에 나온다. ) ]

五色帶下 [ 五崩何等類。天師<sup>11</sup>曰，白崩者，形如涕，赤崩者，形如絳，黃崩者，形如爛苳，青崩者，形如藍色，黑崩者，形如衄血也。( 脉經 ) ○五色帶下，由傷肝則青如泥色，傷心則赤如紅津，傷肺則白如鼻涕，傷脾則黃如爛苳，傷腎則黑衄血也。( 入門 ) ○五色帶下，宜胃風湯，方見下。伏龍肝散( 方見下 ) ]

오색대하(五色帶下) [ 5가지 대하(帶下)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스승께서 말하였다. "백대하(白崩)는 콧물 같고, 적대하(赤崩)는 붉은 비단 같으며, 황대하(黃崩)는 문드러진 참외 같고, 청대하(靑崩)는 남색을 띠며, 흑대하(黑崩)는 코피와 같다." (《맥경(脈經)》) ○오색대하(五色帶下)는, 간(肝)을 상하면 진흙처럼 퍼렇게, 심(心)을 상하면 빨간 진액처럼 붉으며, 폐(肺)를 상하면 콧물처럼 희고, 비(脾)를 상하면 문드러진 참외처럼 누르며, 신(腎)을 상하면 어혈처럼 검다. (《입문(入門)》) ○오색대하(五色帶下)에는 위풍탕(胃風湯)을 써야 한다. 처방은 뒤에 나온다. 또 복룡간산(伏龍肝散)을 쓴다. ( 처방은 뒤에 나온다. ) ]

## 完滯湯<sup>12</sup> 완대탕(完帶湯)

- [ 治白帶。非獨跌閃氣已也。行房過於縱佚，飲酒而出癡狂，加之脾虛，肝氣之鬱，濕氣沈之，火氣逼之而成。白朮、山藥各一兩，白芍藥五錢，車前子微炒三錢，人蔘二錢，蒼朮、半夏、甘草各一錢，柴胡六分，陳皮、荊芥各五分。六劑而愈。( 奇聞 ) ]
- [ 백대하(白帶下)를 치료한다. 대맥(帶脈)이 손상되는 이유는 넘어져 뽀 경우



만이 아니다. 성관계를 지나치게 방만하게 하거나, 술을 미친 듯이 마셔도 손상된다. 이런 상태에서 비(脾)가 허하고 간기(肝氣)가 울체되며 습기(濕氣)가 침입하고 화기(火氣)가 닥쳐오면 대하(帶下)가 생겨난다.<sup>13</sup> 백출(白朮)·산약(山藥) 각 1냥, 백작약(白芍藥) 5돈, 차전자(車前子) (약간 볶은 것) 3돈, 인삼(人蔘) 2돈, 창출(蒼朮)·반하(半夏)·감초(甘草) 각 1돈, 시호(柴胡) 6푼, 진피(陳皮)·형개(荊芥) 각 5푼. 6제(劑)를 복용하면 낫는다. (《기문(奇聞)》) ]

#### 淸肝止淋湯 청간지림탕

- [ 治赤帶。赤芍藥、當歸身、黑豆各一兩，生地黄五錢，阿膠珠、牡丹皮各三錢，黃栢香付子<sup>14</sup>各一錢，棗十枚。水煎服。憂思傷脾，又加鬱怒以傷肝，肝火下剋脾土，濕熱之蘊結於帶脉之間。十劑而愈。(奇聞) ]
- [ 적대하(赤帶下)를 치료한다. 적작약(赤芍藥)·당귀신(當歸身)·흑두(黑豆) 각 1냥, 생지황(生地黄) 5돈, 아교주(阿膠珠)·목단피(牡丹皮) 각 3돈, 황백(黃栢)·향부자(香附子) 각 1돈, 대추 10개.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근심과 걱정으로 비(脾)를 상하고 여기에 더해 울체된 분노로 간(肝)을 상한 까닭에 간화(肝火)가 비토(脾土)를 짓누르면 습열(濕熱)이 대맥(帶脈) 사이에 엉키게 되어 적대하가 생긴다. 10제(劑)를 복용하면 낫는다. (《기문(奇聞)》) ]

#### 退黃湯 퇴황탕

- [ 治黃帶。任脉之濕熱。四劑而愈。山藥、芡實各一兩，黃栢二錢，車前子微炒一錢，白果十枚。(奇聞) ]

- [ 황대하(黃帶下)를 치료한다. 임맥(任脈)의 습열(濕熱) 때문에 생긴다. 4제(劑) 복용하면 낫는다. 산약(山藥)·검실(芡實) 각 1냥, 황백(黃柏) 2돈, 차전자(車前子) ( 약간 볶은 것 ) 1돈, 백과(白果) 10개. ( 《기문(奇聞)》 ) ]

#### 利火湯 이화탕

- [ 治黑帶。火極似水，此命門之火，與膀胱三焦之火合，而胃氣又旺。六劑而愈。白朮、石古各一兩，大黃、茯苓、車前子微炒、王不留行、劉寄奴草、黃連、梔子炒、知母各一錢。 ( 奇聞 ) ]
- [ 흑대하(黑帶下)를 치료한다. 화(火)의 세력이 지극하여 수(水)가 원인인 병처럼 보이는 경우이다. 이것은 명문(命門)의 화(火)가 방광(膀胱)·삼초(三焦)의 화(火)와 합쳐진데다 위기(胃氣)가 왕성하여 생긴다. 6제(劑) 복용하면 낫는다. 백출(白朮)·석고(石膏) 각 1냥, 대황(大黃)·복령(茯苓)·차전자(車前子) ( 약간 볶은 것 )·왕불류행(王不留行)·유기노초(劉寄奴草)·황련(黃連)·치자(梔子) ( 볶은 것 )·지모(知母) 각 1돈. ( 《기문(奇聞)》 ) ]

#### 加味逍遙散 가미소요산

- [ 治青帶。肝經濕熱也。青者易而綠者難治。四劑而愈。白芍藥、白朮、茯苓各五錢，梔子炒、茵陳各三錢，陳皮、柴胡各一錢，甘草五分。 ( 奇聞 ) ]
- [ 청대(靑帶)를 치료한다. 간경(肝經)의 습열(濕熱) 때문에 생긴다. 푸른색을 띠면 쉽게 치료되지만 녹색을 띠면 치료하기 어렵다. 4제(劑)를 복용하면 낫는

다. 백작약(白芍藥)·백출(白朮)·복령(茯苓) 각 5돈, 치자(梔子) ( 볶은 것 ) ·인진(茵陳) 각 3돈, 진피(陳皮)·시호(柴胡) 각 1돈, 감초(甘草) 5푼. (《기문(奇聞)》) ]

### 異功散 이공산

- [ 人蔘、白朮、白茯苓、陳皮、甘草各一錢二分半。青帶則加柴胡、山梔子，赤帶則加丹蔘、當歸身，白帶則倍加薏苡仁，黑帶則加杜仲、續斷，黃帶則加石斛、荷葉、陳米。 ( 衛生便覽 ) ]
- [ 인삼(人蔘)·백출(白朮)·백복령(白茯苓)·진피(陳皮)·감초(甘草) 각 1돈 2푼 반. 청대하에는 시호(柴胡)·산치자(山梔子)를 더하고, 적대하에는 단삼(丹蔘)·당귀신(當歸身)을 더하며, 백대하에는 의이인(薏苡仁)을 더하고, 흑대하에는 두충(杜仲)·속단(續斷)을 더하며, 황대하에는 석곡(石斛)·하엽(荷葉)·묵은쌀을 더한다. (《위생편람(衛生便覽)》) ]

[ 脾土內陷，六君子湯加乾薑炮，以補脾。甚者補中益氣湯以提之。 ( 神農 ) ]

[ 비토(脾土)의 기운이 속으로 무너져내렸을 때는 육군자탕(六君子湯)에 건강(乾薑) ( 잿불에 묻어 구운 것 ) 을 더하여 비(脾)를 보한다. 심할 때는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으로 기운을 끌어 올린다. (《신농(神農)》) ]

### 俗方二物湯 속방이물탕

- [ 大八梢卵、木賊去節各五錢。五六貼而愈。通治。 ]
- [ 대팔초어란(大八梢魚卵)·목적(木賊) ( 마디를 제거한 것 ) 각 5돈. 5~6첩

(貼) 복용하면 낫는다. 대하를 두루 치료한다. ]

#### 異類五物湯 이류오물탕

- [ 大八梢、紅蛤、生鰓、海蔘、牛角胎燒存性各二兩。煎溫服，取汗即愈。  
五色帶通治。(俗方) ]
- [ 대팔초어(大八梢魚)、홍합(紅蛤)、날전복、해삼(海蔘)、우각태(牛角胎)<sup>15</sup> ( 약성이 남도록 태운 것 ) 각 2냥. 이 약재를 달여 따뜻하게 복용하고 땀을 내면 낫는다. 오색대하를 두루 치료한다. ( 속방(俗方) ) ]

#### 芩朮檮皮丸 금출저피환금출저피환

- [ 治孕婦白帶。條芩、白朮各三錢，檮根白皮、白芍藥、山茱萸各二錢半，白芷、黃連各二錢，黃柏一錢。右爲末酒糊丸梧子大。白湯下五七十丸。專是濕熱。(入門) ]
- [ 임신부의 백대하를 치료한다. 조금(條芩)、백출(白朮) 각 3돈, 저근백피(檮根白皮)、백작약(白芍藥)、산수유(山茱萸) 각 2돈 반, 백지(白芷)、황련(黃連) 각 2돈, 황백(黃柏) 1돈. 이 약재를 가루 내어 술을 넣고 쑨 밀가루풀로 오동자(梧桐子) 크기만 하게 환(丸)을 빚는다. 끓인물로 50~70알씩 삼킨다. 이 증상은 오로지 습열(濕熱) 때문이다. (《입문(入門)》) ]

#### 琥珀朱砂丸 호박주사환

- [ 治室女經水初下，一時驚悸，或感風冷，以致經水止而即患帶下。琥珀、

木香、當歸、沒藥各四錢，乳香二錢，射香、朱砂各二分半。右爲末水丸芡實大。每一丸溫酒磨服。(入門)]

- [ 처녀가 월경을 처음 할 때 갑자기 놀랐거나 풍냉(風冷)에 감촉되어 월경이 멎고 바로 대하(帶下)가 생기는 경우를 치료한다. 호박(琥珀)·목향(木香)·당귀(當歸)·물약(沒藥) 각 4돈, 유향(乳香) 2돈, 사향(麝香)·주사(朱砂) 각 2푼 반. 이 약재를 가루 내어 물로 검실(芡實) 크기만 하게 환(丸)을 빚는다. 1알씩 따뜻한 술에 갈아넣어 마신다. (《입문(入門)》)]

寒入血室 [ 月經不通，繞臍寒疝痛，其脉沈緊。此由寒氣客於血室，血凝不行，所以作痛。宜桂枝桃仁湯。(方見下) ]

한입혈실(寒入血室) [ 월경이 나오지 않는데 배꼽 주변이 차고 산통(疝痛)이 있으며 맥이 침긴(沈緊)하다. 이것은 한기(寒氣)가 혈실(血室)에 침입하여 혈(血)이 멎쳐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통증이 생겨난 경우이다. 계지도인탕(桂枝桃仁湯)을 써야 한다. ( 처방은 뒤에 나온다. ) ]

熱入血室 [ 婦人傷寒發熱，經水適來適斷，晝日明了，夜則譫語如見鬼狀，此謂熱入血室。宜用柴胡破瘀湯。(方見下也) ]

열입혈실(熱入血室) [ 부인(婦人)이 상한(傷寒)으로 열이 나고 월경이 때마침 나오기도 하고 끊기기도 하며 낮에는 정신이 또렷하지만 밤에는 귀신을 본 듯 헛소리를 하는 것을 '열입혈실(熱入血室)'이라고 한다. 시호파어탕(柴胡破瘀湯)을 쓴다. ( 처방은 뒤에 나온다. ) ]

經斷復行 [ 婦人四十九歲已後，天癸當住，而每月却行，或過多不止，宜芩心丸。( 方見下 ) ]

월경이 끊어졌다 다시 나오는 경우 [ 부인(婦人)이 49세가 지나면 천계(天癸)가 멈춰야 하지만 매달 도리어 월경을 하거나 양이 많아 멈추지 않을 때에는 영심환(芩心丸)을 써야 한다. ( 처방은 뒤에 나온다. ) ]

#### 四物湯 사물탕

- [ 熟地黃、白芍藥、川芎、當歸各一錢二分半。春倍川芎，夏倍芍藥，秋倍地黃，冬倍當歸。 ]
- [ 숙지황(熟地黃)、백작약(白芍藥)、천궁(川芎)、당귀(當歸) 각 1돈 2푼 반. 봄에는 천궁(川芎)을 배로 쓰고, 여름에는 작약(芍藥)을 배로 쓰며, 가을에는 지황(地黃)을 배로 쓰고, 겨울에는 당귀(當歸)를 배로 쓴다. ]

#### 芎歸湯 궁귀탕

- [ 川芎、當歸各五錢。水煎服。 ]
- [ 천궁(川芎)、당귀(當歸) 각 5돈.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

#### 二陳湯 이진탕

- [ 半夏製二錢，橘皮、赤茯苓各一錢，甘草炙五分，薑三片。水煎服。 ]
- [ 반하(半夏) ( 법제한 것 ) 2돈, 귤피(橘皮)、적복령(赤茯苓) 각 1돈, 감초(甘

草) ( 구운 것 ) 5푼, 생강(生薑) 3쪽.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

#### 八物湯 팔물탕

- [ 川芎、當歸、熟地黃、白芍藥、人蔘、白朮、白茯苓、甘草灸各一錢二分半。水煎服。 ]
- [ 천궁(川芎)、당귀(當歸)、숙지황(熟地黃)、백작약(白芍藥)、인삼(人蔘)、백출(白朮)、백복령(白茯苓)、감초(甘草) ( 구운 것 ) 각 1돈 2푼 반. 이 약재를 물에 달여 복용한다. ]

#### 百子附歸丸 백자부귀환

- [ 久服有孕，及治月水參差不調。四製香附子末十二兩。 ○一用鹽水加薑汁浸煮晷炒，主降痰。 ○一用米醋浸煮晷炒，主補血。 ○一用山梔仁同炒去梔，主散鬱。 ○一用童便洗過不炒，主降火。 川芎、白芍藥、熟地黃、當歸、阿膠珠、陳艾葉各二兩。右爲末，用石榴一枝<sup>16</sup>連皮搗碎煎水，打糊和丸梧子大。每百丸空心醋湯下。 ○一名百子建中丸，無石榴一味。終始忌鐵。( 廣嗣 ) ]
- [ 오래 먹으면 임신하고, 월경이 고르지 않은 경우도 치료한다. 사제향부자(四製香附子) 가루 낸 것 12냥. ○사제향부자 만드는 방법.<sup>17</sup> 향부자 4분의 1은 생강즙 넣은 소금물에 담갔다가 졸인 뒤 약간 볶는다. 주로 담(痰)을 내린다. ○4분의 1은 쌀식초에 담갔다가 졸인 뒤 약간 볶는다. 주로 혈(血)을 보한다. ○4분의 1은 산치인(山梔仁)과 함께 볶은 뒤 산치자인은 빼버린다. 주로 울체된 것을

풀어준다. ◦4분의 1은 동변(童便)으로 씻고 볶지는 않는다. 주로 화(火)를 내린다. 천궁(川芎)·백작약(白芍藥)·숙지황(熟地黃)·당귀(當歸)·아교주(阿膠珠)·진에엽(陳艾葉) 각 2냥. 이 약재를 가루 낸 다음, 석류(石榴) 1개 ( 껍질 채 찢어 부순 것 ) 를 넣고 달인 물로 풀을 쏘고 반죽하여 오동자(梧桐子) 크기 만 하게 환(丸)을 빚는다. 100알씩 빈속에 초탕(醋湯)으로 삼킨다. ◦백자건중환(百子建中丸)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석류를 쓰지 않았다. 이 처방을 복용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쇠를 피해야 한다. ( 《광사(廣嗣》) ) ]

#### 琥珀調經丸 호박조경환

- [ 治婦人胞冷無子，能使經正期<sup>18</sup>。香附米一斤，分作二包，用童便，米醋各浸九日，和淨熟艾四兩拌勻，再加醋五椀，入砂鍋內同煮乾爲度。入川芎、當歸、白芍藥、熟地黃、生地黃、沒藥各二兩，琥珀一兩。右爲末，醋糊和丸梧子大。每一百丸空心以艾醋湯吞下。無不效。 ( 入門 ) ]
- [ 부인(婦人)의 포(胞)가 차가워 자식이 없는 것을 치료한다. 월경을 규칙적으로 나오게 한다. 향부미(香附米) 1근을 둘로 나누어 동변(童便)과 쌀식초에 각각 9일씩 담갔다가, 잡질을 제거한 묵힌 쑥 4냥과 잘 섞는다. 여기에 식초를 5주 발 넣는다. 이것을 사기 그릇 속에 넣고 마를 때까지 졸인다. 여기에 천궁(川芎)·당귀(當歸)·백작약(白芍藥)·숙지황(熟地黃)·생지황(生地黃)·몰약(沒藥) 각 2냥, 호박(琥珀) 1냥을 넣는다. 이 약재를 가루 내어 식초를 넣고 쏘 밀가루풀로 오동자(梧桐子) 크기만 하게 환(丸)을 빚는다. 빈속에 애초탕(艾醋湯)으로 100알씩 삼킨다. 반드시 효과가 있다. ( 《입문(入門》) ) ]



### 調經散 조경산

- [ 一名溫經湯。治月候不調。麥門冬二錢，當歸一錢半，人蔘、半夏製、白芍藥、川芎、牡丹皮各一錢，阿膠珠、甘草灸各七分半，吳茱萸、肉桂各五分。右剉作一貼，薑三片，水煎服。(入門) ]
- [ '온경탕(溫經湯)'이라고도 부른다. 월경이 고르지 못한 것을 치료한다. 맥문동(麥門冬) 2돈, 당귀(當歸) 1돈 반, 인삼(人蔘)、반하(半夏) ( 법제한 것 )、백작약(白芍藥)、천궁(川芎)、목단피(牡丹皮) 각 1돈, 아교주(阿膠珠)、감초(甘草) ( 구운 것 ) 각 7푼 반, 오수유(吳茱萸)、육계(肉桂) 각 5푼. 이 약재를 썰어 1첩(貼)으로 삼아 생강(生薑) 3쪽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입문(入門)》) ]

### 千金調經湯《천금방(千金方)》조경탕(調經湯)

- [ 治上同。當歸、川芎、白芍各一錢，麥門冬、半夏各七分，人蔘、阿膠珠、牡丹皮、吳茱萸、肉桂各五分，甘草三分。剉作一貼，服如上法。(回春) ]
- [ 앞과 같은 증상을 치료한다. 당귀(當歸)、천궁(川芎)、백작약(白芍藥) 각 1돈, 맥문동(麥門冬)、반하(半夏) 각 7푼, 인삼(人蔘)、아교주(阿膠珠)、목단피(牡丹皮)、오수유(吳茱萸)、육계(肉桂) 각 5푼, 감초(甘草) 3푼. 이 약재를 썰어 1첩(貼)으로 삼아 앞과 같은 방법으로 복용한다. (《회춘(回春)》) ]

### 三和湯 삼화탕

- [ 治熱結血閉。生乾地黃、白芍藥、川芎、當歸、連翹、大黃、朴硝、薄荷、黃芩、梔子、甘草各七分。右剉作一貼，水煎服。( 丹心 ) ○此方乃四物湯、調胃承氣湯、涼膈散三方合方 ]
- [ 열이 맺혀 월경이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생건지황(生乾地黃)、백작약(白芍藥)、천궁(川芎)、당귀(當歸)、연교(連翹)、대황(大黃)、박초(朴硝)、박하(薄荷)、황금(黃芩)、치자(梔子)、감초(甘草) 각 7푼. 이 약재를 썰어 1첩으로 만든 뒤 물에 달여 복용한다. (《단심(丹心)》) ○이것은 사물탕(四物湯)、조위승기탕(調胃承氣湯)、양격산(涼膈散) 3가지 처방을 합친 처방이다. ]

#### 通經湯 통경탕

- [ 治月水閉。當歸、川芎、白芍藥、生乾地黃、大黃、官桂、厚朴、枳殼、只實、黃芩、蘇木、紅花各七分。右剉作一貼，入烏梅一箇，薑三片，棗二枚，水煎服。○心氣不得下通，故月事不來，宜用黃連、厚朴之類，導痰降火，則月事來矣。此藥是也。宜加黃連七分。( 醫鑑 ) ]
- [ 월경이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당귀(當歸)、천궁(川芎)、백작약(白芍藥)、생건지황(生乾地黃)、대황(大黃)、관계(官桂)、후박(厚朴)、지각(枳殼)、지실(枳實)、황금(黃芩)、소목(蘇木)、홍화(紅花) 각 7푼. 이 약재를 썰어 1첩으로 삼는다. 여기에 오매(烏梅) 1개(箇), 생강(生薑) 3쪽, 대추 2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심기(心氣)가 아래로 통하지 않으므로 월경이 나오지 않는 것이니 황련(黃連)、후박(厚朴) 등의 약재를 써서 담(痰)을 제거하고 화(火)를 내려야 월경이 나온다. 이 처방이 그렇게 한다. 황련(黃連) 7푼을 더해야 한다. (《의감(醫鑑)》) ]

### 紅花當歸散 홍화당귀산

- [ 治室女月經不通，或積瘀血腰腹疼痛。赤芍藥二兩，劉寄奴一兩二錢半，紫葳、當歸尾、牛膝、蘇木、甘草各五錢，白芷、桂心、紅花各三錢半。右末，酒調二錢服。紅花酒下尤佳。 ( 雲岐 ) ]
- [ 처녀에게 월경이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또 쌓인 어혈(瘀血)로 허리과 배가 아픈 것도 치료한다. 적작약(赤芍藥) 2냥, 유기노(劉寄奴) 1냥 2돈 반, 자위(紫葳)、당귀미(當歸尾)、우슬(牛膝)、소목(蘇木)、감초(甘草) 각 5돈, 백지(白芷)、계심(桂心)、홍화(紅花) 각 3돈 반. 이 약재를 가루내어 술에 2돈씩 타서 복용한다. 홍화주(紅花酒)와 함께 먹으면 더욱 좋다. ( 《운기(雲岐)》 ) ]

### 歸朮破癥湯 귀출파징탕

- [ 治月經不通，腹中有積塊疼痛。香附子醋炒一錢半，三稜、蓬朮并醋煮、赤芍藥、白芍藥、當歸尾、青皮各一錢，烏藥七分，紅花、蘇木、官桂各五分。右剉作一貼，入酒少許。水煎服。 ( 集略 ) ]
- [ 월경이 나오지 않고 배 속에 덩어리가 있어 통증이 있는 것을 치료한다. 향부자(香附子) ( 식초에 볶은 것 ) 1돈 반, 삼릉(三稜)、봉출(蓬朮) ( 모두 식초에 축여 볶은 것 )、적작약(赤芍藥)、백작약(白芍藥)、당귀미(當歸尾)、청피(靑皮) 각 1돈, 오약(烏藥) 7푼, 홍화(紅花)、소목(蘇木)、관계(官桂) 각 5푼. 이 약재를 썰어 1첩으로 삼아 술 조금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 《집략(集略)》 ) ]

### 烏賊骨丸 오적골환

- [ 烏賊魚骨、蘭茹各等分。右爲末，雀卵不拘數，和丸小豆大。每十丸煎鮑魚湯吞下，日三服，壓以善饌。 ( 良方 )   ○血枯經閉，四物湯加桃仁紅花。 ( 丹心 ) ]
- [ 오적어골(烏賊魚骨)、여여(蘭茹) 각 같은 양. 이 약재를 가루 내어 적당한 수의 참새알로 소두(小豆) 크기만 하게 환(丸)을 빚는다. 10알씩 포어(鮑魚) 끓인 국물로 삼킨다. 하루 3번 복용하고 좋은 음식으로 내려보낸다. (《양방(良方)》)   ○혈(血)이 말라 월경이 나오지 않을 때는 사물탕(四物湯)에 도인(桃仁)、홍화(紅花)를 더하여 쓴다. (《단심(丹心)》) ]

### 五積散 오적산

- [ 方見腰部 ]
- [ 처방은 <요부(腰部)>에 나온다. ]

### 五灰散 오회산

- [ 治失血血崩。亂髮灰、蓮蓬殼、黃絹、百草霜、棕櫚皮。右各燒存性等分，加梔子炒黑、蒲黃炒、松烟墨、血蜎，共爲細末。每三錢以生藕汁、生蘿菈汁調服，或蜜丸，米飲下五十丸亦可。 ( 回春 ) ]
- [ 피를 흘렸거나 혈붕(血崩)이 생긴 것을 치료한다. 난발(亂髮) ( 태운 것 ) 、연방(蓮房)、황견(黃絹)、백초상(百草霜)、종려피(棕櫚皮). 이 약재 각각 같은

양을 약성이 남도록 태운다. 여기에 치자(梔子) ( 검게 볶은 것 ) 、포황(蒲黃)  
( 볶은 것 ) 、송연묵(松烟墨)、혈갈(血竭)을 넣고 함께 곱게 가루 낸다. 3돈씩  
생우즙(生藕汁)이나 생나복즙(生蘿菔汁)에 타서 복용한다. 또 꿀로 환을 빚어  
미음으로 50알씩 복용해도 좋다. ( 《회춘(回春)》 ) ]

#### 十灰散 십회산

- [ 治嘔吐喀嗽血，及虛勞大吐血。大薊、小薊、柏葉、荷葉、茅根、茜根、  
大黃、梔子、棕櫚皮、牡丹皮各等分。右燒存性，出火毒，研爲極細末。用  
生藕汁或生蘿菔汁，磨松烟墨半碗，調服，五錢即止。 ( 新書 ) ]
- [ 구토하거나 기침할 때 피가 나오거나, 허로(虛勞)로 피를 많이 토하는 것을  
치료한다. 대계(大薊)、소계(小薊)、백엽(柏葉)、하엽(荷葉)、모근(茅根)、서  
초근(茜草根)、대황(大黃)、치자(梔子)、종려피(棕櫚皮)、목단피(牡丹皮) 각  
같은 양. 이 약재를 약성이 남도록 태운 뒤 화독(火毒)을 빼내고 매우 곱게 가루  
낸다. 생우즙(生藕汁)이나 생나복즙(生蘿菔汁)에 송연묵(松烟墨) 반 주발을 갈  
아 넣고 여기에 앞의 약재를 타서 복용한다. 5돈을 쓰면 피가 멈춘다. ( 《신서  
(新書)》 ) ]

#### 十灰丸 십회환

- [ 治血崩及一切失血。黃絹灰、馬尾灰、藕節灰、艾葉灰、蒲黃灰、蓮蓬灰  
、油髮灰、棕櫚灰、赤松皮灰、新綿灰各等分。右爲末，以醋煮糯米糊和丸  
梧子大，米飲下百丸。 ( 丹心 ) ]

- [ 혈붕(血崩)과 온갖 출혈 증상을 치료한다. 황견(黃絹) ( 태운 재 ) 、마미(馬尾) ( 태운 재 ) 、우절(藕節) ( 태운 재 ) 、애엽(艾葉) ( 태운 재 ) 、포황(蒲黃) ( 태운 재 ) 、연봉(蓮蓬) ( 태운 재 ) 、유발(油髮) ( 태운 재 ) 、종려(棕櫚) ( 태운 재 ) 、적송피(赤松皮) ( 태운 재 ) 、햇솜 ( 태운 재 ) 각 같은 양. 이 약재를 가루 낸 뒤, 식초를 넣고 쏘 찹쌀풀로 오동자(梧桐子) 크기만 하게 환(丸)을 빚는다. 미음에 100알 삼킨다. ( 단심(丹心) ) ]

#### 蒼柏檮皮丸 창백저피환

- [ 治肥人白帶，是濕痰。蒼朮、黃柏、檮根白皮、海石、半夏製、南星炮、川芎、香附子、乾薑各等分。爲末，醋糊丸梧子大。白湯下五七十丸。夏月去乾薑<sup>19</sup>滑石。 ( 入門 ) ]
- [ 살찐 사람의 백대하는 습담(濕痰) 때문이다. 이것을 치료한다. 창출(蒼朮)、황백(黃柏)、저근백피(檮根白皮)、해석(海石)、반하(半夏) ( 법제한 것 ) 、남성(南星) ( 잿불에 묻어 구운 것 ) 、천궁(川芎)、향부자(香附子)、건강(乾薑) 각 같은 양. 이 약재를 가루 내어 식초를 넣고 쏘 밀가루풀로 오동자(梧桐子) 크기만 하게 환(丸)을 빚는다. 끓인물로 50~70알 삼킨다. 여름에는 건강(乾薑)을 빼고 대신 활석(滑石)을 쓴다. ( 《입문(入門)》 ) ]

#### 胃風湯 위풍탕

- [ 治腸胃濕毒，腹痛泄瀉，下如黑豆汁，或下瘀血。人蔘、白朮、赤茯苓、當歸、川芎、白芍藥、桂皮、甘草各一錢。右剉作一貼，入粟米一撮。水煎

服。( 得效 ) ]

- [ 장위(腸胃)의 습독(濕毒)으로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는데 검정콩물 같은 설사를 하거나 어혈(瘀血) 섞인 설사를 하는 것을 치료한다. 인삼(人蔘)、백출(白朮)、적복령(赤茯苓)、당귀(當歸)、천궁(川芎)、백작약(白芍藥)、계피(桂皮)、감초(甘草) 각 1돈. 이 약재를 썰어 1첩으로 삼아 좁쌀 1자밤을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득효(得效)》) ]

#### 伏龍肝散 복룡간산

- [ 治衝任經虛，崩漏不止，臍腹冷痛。川芎、艾葉各一錢半，伏龍肝一錢，赤石脂、麥門冬各七分，當歸、乾薑、熟地黃、肉桂、甘草各五分。右剉作一貼，入棗二枚煎服。或爲末，米飲調二錢服。 ]
- [ 충맥(衝脈)과 임맥(任脈)이 허하여 붕루(崩漏)가 멈추지 않고, 배꼽 주변이 차고 아픈 것을 치료한다. 천궁(川芎)、애엽(艾葉) 각 1돈 반, 복룡간(伏龍肝) 1돈, 적석지(赤石脂)、맥문동(麥門冬) 각 7푼, 당귀(當歸)、건강(乾薑)、숙지황(熟地黃)、육계(肉桂)、감초(甘草) 각 5푼. 이 약재를 썰어 1첩으로 삼아 대추 2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또는 가루 내어 미음에 2돈을 타서 복용한다. ]

#### 桂枝桃仁湯 계지도인탕

- [ 桂枝、赤芍藥、生乾地黃酒洗各二錢，甘草灸一錢，桃仁三十箇。右剉作一貼，入薑三棗二，水煎服。( 丹心 ) ]
- [ 계지(桂枝)、적작약(赤芍藥)、생건지황(生乾地黃) ( 술에 씻은 것 ) 각 2돈,

감초(甘草) ( 구운 것 ) 1돈, 도인(桃仁) 30개. 이 약재를 썰어 1첩으로 삼아 생강(生薑) 3개와 대추 2개를 넣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 단심(丹心) ) ]

#### 柴胡破瘀湯 시호파어탕

- [ 治熱入血室及蓄血。柴胡二錢，黃芩、半夏、赤芍藥、當歸、生地黃各一錢，桃仁、五靈脂、甘草各五分。右剉作一貼，水煎服。 ( 入門 ) ]
- [ 열입혈실(熱入血室)과 축혈증(蓄血證)을 치료한다. 시호(柴胡) 2돈, 황금(黃芩)、반하(半夏)、적작약(赤芍藥)、당귀(當歸)、생지황(生地黃) 각 1돈, 도인(桃仁)、오령지(五靈脂)、감초(甘草) 각 5푼. 이 약재를 썰어 1첩으로 만든 뒤 물에 달여 복용한다. ( 《입문(入門)》 ) ]

#### 芩心丸 금심환

- [ 治婦人天癸過後復行，或漏下不止。條芩二兩，米泔浸 ( 一作醋浸 ) 一曰灸乾，又浸又灸，如此七次。爲末，醋糊和丸梧子大。每七十丸，空心溫酒送下，日二服。 ( 得效 ) ]
- [ 부인(婦人)이 천계(天癸)가 다한 뒤에 다시 월경을 하거나, 누하(漏下)가 멎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조금(條芩) 2냥을 하루 동안 쌀뜨물에 담갔다가 ( 식초에 담근다고 한 곳도 있다. ) 구워 말린다. 또 담갔다가 구워 말리기를 7차례 한다. 이것을 가루 내어 식초를 넣고 쏜 밀가루풀로 오동자(梧桐子) 크기만 하게 환(丸)을 빚는다. 70알씩 빈속에 따뜻한 술로 삼키는데 하루 2번 복용한다. ( 《득효(得效)》 ) ]



1. 妊脉 任脉 ※《동의보감》↩

2. 妊脉 任脉 ※《동의보감》↩

3. 全 : 《의종금감》에 같은 설명이 나오므로 "金鑑"으로 보고 번역하였다. ↩

4. 月月行經而受胎者 有受胎之後, 月月行經而產子者 ※《본초강목》↩

5. 名胎垢 俗名垢胎 ※《본초강목》↩

6. 四季 三月 ※《본초강목》↩

7. 《광제비급(廣濟秘笈)》의 설명을 덧붙인다. "또 임신한 듯 얼굴에 반점이 생기고 입덧을 하며 배가 커지고 젖이 나오지만 얼굴색에 광택이 도는 것이 다른 경우가 있다. 이진탕 20첩을 사용하면 모든 증상이 사라진다. 담(痰)이 포(胞) 속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又有如妊症, 面斑, 口厭, 腹大, 乳出, 但面色浮澤, 爲異. 用二陳湯, 二十貼, 諸病悉去, 痰入胞中而然也." ↩

8. 火 心火 ※《동의보감》↩

9. 妊脉 任脉 ※《동의보감》↩

10. 小腸 小腹 ※《동의보감》↩

11. 天師 師 ※《동의보감》↩

12. 完滯湯 完帶湯 ※《변증록》↩

13. : 《변증기문(辨證奇聞)》을 참고하여 번역을 보충하였다. ↩

14. 香付子 ㉞ 香附子 ※문맥상 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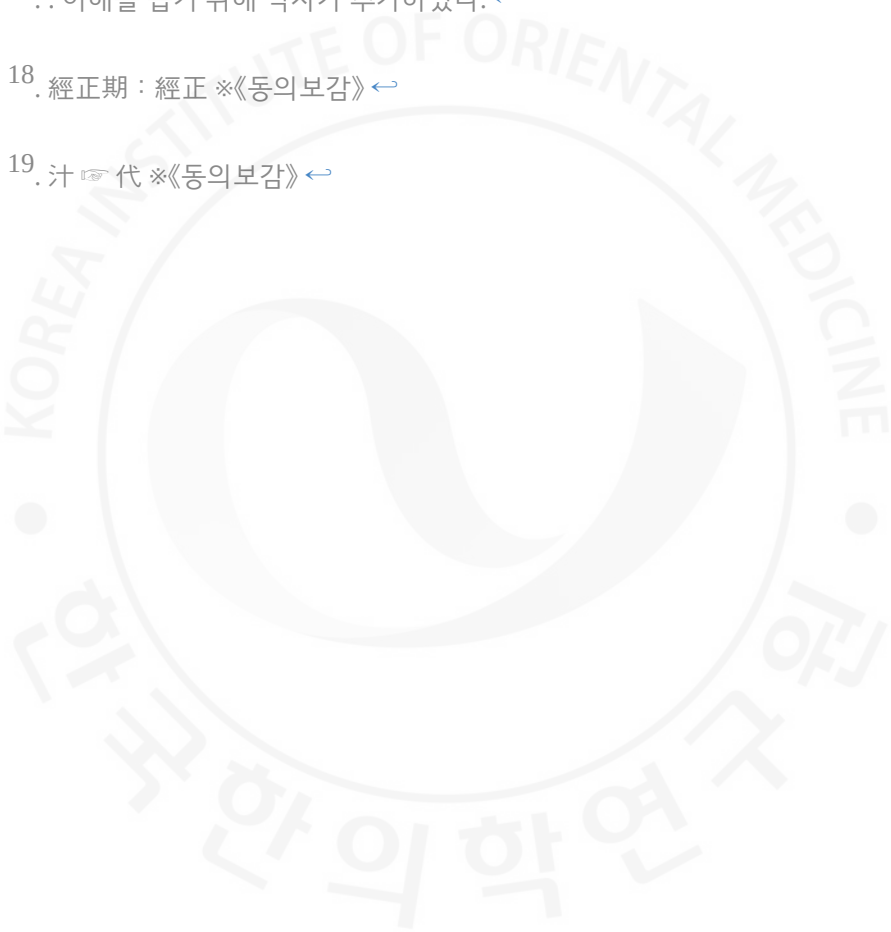
15. 우각태(牛角胎) : 소뿔 속에 있는 살점 ㄱ

16. 一枝 ㉞ 一枚 ※《동의보감》 ㄱ

17. ∴ 이해를 돕기 위해 역자가 추가하였다. ㄱ

18. 經正期 : 經正 ※《동의보감》 ㄱ

19. 汁 ㉞ 代 ※《동의보감》 ㄱ



## 蟲 충

三尸蟲 [ 中黃經曰, 一者上蟲, 居腦中, 二者中蟲, 居明堂, 三者下蟲, 居腹胃, 名曰彭琚、彭質、彭矯也。惡人進道, 喜人退志。上田, 乃元神所居之宮, 惟人不能開此關, 被尸蟲居之, 故生死輪回, 無有了期。若能握元神, 巢于本宮, 則尸蟲自滅, 眞息自定。所謂一竅開而萬竅齊開, 大關通而百骸盡通, 則天真降靈, 不神之神, 所以神也。 ( 養性書 ) ]

삼시충(三尸蟲) [ 《중황경(中黃經)》에서 말하였다. "첫째는 상충(上蟲)으로 뇌(腦) 속에 있고, 둘째는 중충(中蟲)으로 명당(明堂)에 있으며, 셋째는 하충(下蟲)으로 뱃속에 있다. 이것들을 '팽거(彭琚)'·'팽질(彭質)'·'팽교(彭矯)'라고 부른다. 충(蟲)은 사람이 도(道)를 따르는 것을 싫어하고 뜻을 버리는 것을 좋아한다. 상전(上田)은 원신(元神)이 머무는 궁(宮)으로 다만 사람이 이 관문을 열 수 없어 시충(尸蟲)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사윤회가 끝없이 반복된다. 만약 이 원신을 잡아 본래의 궁(宮)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면 시충은 스스로 소멸되고 진식(眞息)이 저절로 안정될 것이다. 이른바 '한 구멍이 열리면 모든 구멍이 함께 열리고, 큰 관문이 통하면 온몸이 모두 통한다.'라고 말하는 상태이다. 이렇게 되면 천진(天真)이 영험을 내리니 신묘하지 않게 신묘하므로 그야말로 신묘함이다." ( 《양성서(養性書)》 ) ]

九蟲 [ 諸虫皆因飲食不節，或過食腥膾生冷，以致積，久成熱，濕熱薰蒸，痰瘀凝結，隨五行之氣變化，爲諸般奇怪之形，其名有九。 ○一曰伏虫，長四寸許，爲諸虫之長，即長虫也。二曰虯虫，長尺許，貫心則殺人，即食虫也。三曰白虫，長一寸，母子相生，其形轉大而長，亦能殺人，即寸白虫也。四曰肉虫，狀如爛杏，令人心煩滿悶。五曰肺虫，其狀如蚤，令人咳嗽。六曰胃虫，狀如蝦蟆，令人嘔吐、噦逆、嘈雜，愛喫泥、炭、生米、茶、塩、薑、椒等物。七曰弱虫，又名膈虫，狀如瓜瓣，令人多唾。八曰赤虫，狀如生肉，令人腸鳴。九曰蟯虫，狀如菜虫，形至細微，居廣腸，多則爲痔，劇則爲癰、癩、疥、癬<sup>1</sup>。宜貫衆丸，久服必愈。（方見下） ]

9가지 충(蟲) [ 여러 가지 충(蟲)은, 음식을 절제하지 않았거나 비린 회나 날 음식이나 찬 음식을 많이 먹은 까닭에, 적(積)이 되고 오랫동안 열(熱)이 생겨 습열(濕熱)이 훈증되고 담(痰)이나 어혈이 뭉쳐 오행의 기운을 따라 변화하여 여러 가지 기괴한 형상이 된 것이다. 이런 충에는 9가지가 있다. ○첫째는 복충(伏蟲)이다. 길이는 4촌쯤 된다. 모든 충의 우두머리이다. 곧 장충(長蟲)이다. 둘째는 회충(虯蟲)이다. 길이는 1자쯤 된다. 심장을 관통하면 사람을 죽인다. 곧 식충(食蟲)이다. 셋째는 백충(白蟲)이다. 길이는 1촌이다. 모자(母子)가 상생(相生)하여 그 형태가 크고 길게 되는데 이것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곧 촌백충이다. 넷째는 육충(肉蟲)이다. 모양이 문드러진 살구 같다. 가슴을 답답하고 그득하게 한다. 다섯째는 폐충(肺蟲)이다. 모양이 누에 같다. 기침을 하게 한다. 여섯째는 위충(胃蟲)이다. 모양이 두꺼비 같다. 구토、딸꾹질、조잡(嘈雜)을 생기게 하고, 진흙、숯、생쌀、차、소금、생강、천초 등을 먹고 싶게 만든다. 일곱째는 약충(弱蟲)으로 격충(膈蟲)이라고도 한다. 모양이 오이 같

다. 침을 많이 흘리게 한다. 여덟째는 적충(赤蟲)이다. 모양이 날고기 같다. 뱃속에서 꾸르꾸르 소리가 나게 한다. 아홉째는 요충(蟯蟲)이다. 모양이 채소벌레와 같고 매우 작다. 직장(直腸)에 사는데 많으면 치질이 되고 심하면 나(癩)、옹(癰)、개(疥)、선(癬)이 된다. 9가지 충(蟲)에는 관중환(貫衆丸)을 써야 한다. 오래 복용하면 반드시 낫는다. (처방은 뒤에 나온다.) ]

五臟蟲 [ 人勞則生熱，熱則生虫。心虫曰蛔，脾虫曰寸白，腎虫如方絕絲縷<sup>2</sup>，肝虫如爛杏，肺虫如蚕，皆能殺人，惟肺虫爲急，肺虫居肺葉內，食肺系，故成瘵疾，咯血聲嘶，藥所不到，爲難治也。(千金) 宜服獼瓜散<sup>3</sup>。(方見下) ]

오장충(五臟蟲) [ 사람이 피로하면 열이 나고, 열이 나면 충(蟲)이 생긴다. 심충(心蟲)을 '회(蛔)'라고 하고, 비충(脾蟲)을 '촌백(寸白)'이라고 한다. 신충(腎蟲)은 가지런하게 잘라놓은 실가닥 같고, 간충(肝蟲)은 문드러진 살구 같으며, 폐충(肺蟲)은 누에 같다. 모두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유독 폐충이 가장 위급하다. 폐충은 폐엽(肺葉) 안에 살면서 폐계(肺系)를 갉아먹으므로 노채(勞瘵)를 만들어 각혈하고 목이 쉬게 한다. 약 기운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하기 어렵다. (《천금방(千金方)》) 달조산(獼瓜散)을 써야 한다. (처방은 뒤에 나온다.) ]

虫痛之症，得食則痛減，無食則痛增。以酸梅湯一盞試之，飲下而痛即止者，乃虫痛也。飲下而痛增重或少減者，非虫痛也。方用殺虫湯<sup>4</sup>。[ 白朮二兩，苦楝皮、白薇各一兩，黃連、烏梅肉、吳茱萸炒、梔子、茯苓、甘草、別里<sup>5</sup>各三

錢。] 各爲末，蜜丸。每服三錢。丸如小米大。此丸必須乘其飢餓思食之時與之，此丸服下，必痛甚。不可即與之水，蓋蟲得水則生故也。 ○大黃亦可加三錢，不加亦可。上腹痛則不宜加，下腹痛則宜加也。

충통(蟲痛)의 증상은 음식을 먹으면 통증이 줄어들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통증이 심해진다. 산매탕(酸梅湯) 1잔(盞)으로 시험하는데, 산매탕을 마신 뒤에 통증이 바로 멈추면 충(蟲)으로 인한 통증이다. 산매탕을 마신 뒤에 통증이 더욱 심해지거나 조금 감소하면 충(蟲)으로 인한 통증이 아니다. 충(蟲)으로 인한 증상에는 살충환(殺蟲丸)을 쓴다. [ 백출(白朮) 2냥, 고련피(苦楝皮)·백미(白薇) 각 1냥, 황련(黃連)·오매육(烏梅肉)·오수유(吳茱萸)·치자(梔子) (볶은 것)·복령(茯苓)·감초(甘草)·별갑(鼈甲) 각 3돈. ] 이 약재를 각기 가루내어 꿀로 환(丸)을 빚는다. 3돈씩 복용한다. 환(丸)은 좁쌀 크기만 하게 만든다. 살충환은 반드시 배가 고파 음식이 간절할 때 주는데, 살충환을 삼키면 반드시 통증이 심해진다. 바로 물을 주어서는 안되는데 충(蟲)이 물을 만나면 살아나기 때문이다. ○대황(大黃)을 3돈 더해도 좋고 더하지 않아도 좋으나, 윗배가 아플 때는 더해서는 안되고, 아랫배가 아플 때는 더해야 한다.

尙有一方，可傳於世，省事而效捷。凡人腹中不論生何虫，只消食梔子二兩，米飯爲丸，白滾水，飢時送下五錢。五日虫皆便出。皆不費錢，而又去病之捷，急宜載入者也。 [ 饑治 ]

또 다른 처방을 세상에 남기니, 임상에서 효과가 빠르다. 사람 뱃속에 어떤 충(蟲)이 있는지 상관 없이 비자(梔子)만 먹는데, 비자(梔子) 2냥을 미음으로 환(丸)을 만들어 백곤수(白滾水)로 배고플 때 5돈씩 삼킨다. 5일 동안 복용하면

충(蟲)이 모두 대변으로 나온다. 모두 비응이 들지 않으면서 병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으니 시급히 써야할 방법이다. [〈기치(饑治)〉]

### 貫衆丸 관중환(貫中丸)

- [ 去三尸九虫。雷丸一兩五錢殺赤虫，貫衆一兩二錢半殺伏尸虫，狼牙殺胃虫，白干蚕殺膈虫，各一兩。白藿蘆殺尸虫，乾漆殺白虫，厚朴殺肺虫，碓黃殺尸虫，各七錢半。右爲末，蜜丸梧子大。新汲水下五丸。三服後漸加至十丸，至二十日，三尸九虫盡滅而下。 ( 正傳 ) ]
- [ 삼시충(三尸蟲)과 구충(九蟲)을 제거한다. 뇌환(雷丸) 1냥 5돈은 적충(赤蟲)을 죽이고, 관중(貫中) 1냥 2돈 반은 복시충(伏尸蟲)을 죽이며, 낭아(狼牙)는 위충(胃蟲)을 죽이고, 백강잠(白僵蠶)은 격충(膈蟲)을 죽이니 각 1냥을 쓴다. 백곽로(白藿蘆)는 시충(尸虫)을 죽이고, 건칠(乾漆)은 백충(白蟲)을 죽이며, 후박(厚朴)은 폐충(肺蟲)을 죽이고, 웅황(碓黃)은 시충(尸蟲)을 죽이는데 각기 7돈 반을 쓴다. 이 약재를 가루 내어 꿀로 오동자(梧桐子) 크기만 하게 환(丸)을 빚는다. 새로 길어온 물로 5알을 삼킨다. 3번 복용한 뒤에 점차 10알까지 복용량을 늘린다. 20일 동안 복용하면 삼시충과 구충이 모두 죽어 나온다. (《정전(正傳)》) ]

### 獼瓜散<sup>6</sup> 달조산(獼瓜散)

- [ 療虫居肺葉內，蝕肺系，故咯血聲嘶，最難治。獼瓜爲末，溫酒調下，神效。 ( 本事 ) ]

- [ 채충(瘵蟲)은 폐엽(肺葉) 안에 살면서 폐계(肺系)를 갉아먹으므로 각혈하고 목을 쉬게 한다. 가장 치료하기 어렵다. 수달의 발톱을 가루내어 따뜻한 술에 타서 먹는다. 신기한 효과가 있다. (《보제본사방(普濟本事方)》) ]

1. 癰、癰、疥、癰 ㉞ 癰、癰、疥、癰 ※《동의보감》↩

2. 方絶絲縷：方截絲縷 ※《동의보감》↩

3. 獼瓜散 ㉞ 獼瓜散 ※《동의보감》↩

4. 殺虫湯 ㉞ 殺蟲丸 ※《석실비록》↩

5. 別甲 ㉞ 鼈甲 ※문맥상 ↩

6. 獼瓜散 ㉞ 獼瓜散 ※문맥상 ↩



# 해제

## 개요

《일금방(一金方)》은 조선 후기 김홍제(金弘濟)가 저술한 종합 의서이다. 1928년에 간행되었으며, 모두 8권 4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저자

저자 김홍제(金弘濟, 1887~?)에 대해 알려진 사실은 많지 않다. 책의 간기에 저자의 주소가 "咸南咸興郡上岐川面上中里"로 기재되어 있고, 조정운(趙鼎允)이 이 책의 서문에서 자신을 치료해 준 일화를 소개한 점으로 보아, 김홍제가 함경남도에서 의술을 펼치며 살았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 구성

이 책은 8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성은 대체로 《동의보감(東醫寶鑑)》의 목차를 따르고 있다. 권1은 내경편(內景篇)으로, 정(精)、기(氣)、신(神)、혈(血)、진액(津液)、담음(痰飲)、오장육부(五臟六腑)[간장(肝臟)、심장(心臟)、비장(脾臟)、폐장(肺臟)、신장(腎臟)、담부(膽腑)、위부(胃腑)、소장부(小腸腑)、대장부(大腸腑)、방광부(膀胱腑)、삼초부(三焦腑)]、포락(胞絡)、충(蟲)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2는 외형편(外形篇)으로, 소변(小便)、대변(大便)、리(痢)、두(頭)、면(面)、안

(眼)·이(耳)·비(鼻)·구설(口舌)·아치(牙齒)·인후(咽喉)·경항(頸項)·배(背)  
·흉(胸)·복(腹)·요(腰)·협(脇)·피(皮)·근(筋)·수(手)·족(足)·모발(毛髮)  
·전음(前陰)·부인전음(婦人前陰)·후음(後陰)의 내용을 포함한다.

권3에는 운기(運氣)·풍(風)·한(寒)·서(暑)·습(濕)·조(燥)의 내용이 담겨 있다.  
권4와 권5는 잡병편(雜病篇)에 해당하는데, 권4에는 화(火)·울(鬱)·내상(內傷)·  
허로(虛勞)·곽란(癰亂)·구토(嘔吐)·반위(反胃)·해수(咳嗽)·해천(咳喘)·적  
취(積聚)·부종(浮腫)·창만(脹滿)·소갈(消渴)·황달(黃疸)의 내용을, 권5에는 해  
학(瘰癧)·온역(溫疫)·장려(瘡癰)·옹저(癰疽)·영류(癭瘤)·저창(疽瘡)·창양  
(瘡瘍)·궤론(厥論)·제중(諸中)·오절(五絶)·구급(救急)·제상(諸傷)·해독(解  
毒)·기질(奇疾)·팔절풍(八節風)·오색사병(五色死病)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권  
6에는 부인문(婦人門)과 소아문(小兒門)이 있다.

권7은 본초(本草), 권8은 경락(經絡)과 침구(鍼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금방》은 《동의보감》의 목차를 대체로 따르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소변(小便)·대변(大便)의 내용이 《동의보감》에서는 내경편에 있지만 《일금  
방》에서는 외형편에 위치한다. 또한 운기(運氣)·풍(風)·한(寒)·서(暑)·습(濕)·  
조(燥)의 내용을 《동의보감》에서는 잡병편에 포함시켰으나, 《일금방》에서는 잡병  
편에 포함시키지 않고 외형편과 잡병편 사이에 두었다. 부인문(婦人門)과 소아문  
(小兒門) 역시 잡병편에 포함시키지 않고 잡병편 뒤에 따로 두었다.

목차상 빠지거나 더해진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동의보감》에 존재하는 내경편의  
신형(身形)·몽(夢)·성음(聲音)·언어(言語), 외형편의 유(乳)·제(臍)·육(肉)·  
맥(脈)·골(骨), 잡병편의 심병(審病)·변증(辨證)·진맥(診脈)·용약(用藥)·한

(汗)·토(吐)·하(下)·사수(邪祟) 등이 《일금방》에는 빠져있다. 반면 잡병편의 장려(瘰癧)·저창(疽瘡)·결론(厥論)·제중(諸中)·오절(五絶)·기질(奇疾)·팔절풍(八節風)·오색사병(五色死病) 등의 내용은 《동의보감》에 없지만 《일금방》에서 추가되었다.

## 의의

《일금방》은 조선의 대표 의서인 《동의보감》과 당시 새롭게 수입된 의서 《석실비록》(石室秘錄)을 융합하여 만들어졌다. 조선 후기 의서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일금방》 역시 구성과 내용에서 《동의보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중국 청대(清代) 진사택(陳士鐸)이 1687년 저술한 《석실비록》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석실비록》은 내용과 구성 면에서 독특하다. 본문은 중국 전통 의학의 성현으로 알려진 기백(岐伯)·장기(張機)·화타(華佗)·뇌공(雷公)이 등장해 가르침을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내치(內治)·외치(外治)·급치(急治)·완치(緩治)·정치(正治)·반치(反治) 등 128가지 치료법을 중심으로 목차를 구성하고 질병과 치법을 설명하였다. 이는 《동의보감》과 매우 대조적인데, 《동의보감》은 편찬자의 견해를 절제하고 기존 의서의 내용을 인용하여 인체 구성 요소와 질병을 중심으로 의학 이론과 치법을 설명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조적인 두 책을 한데 모아 만들어진 의서가 바로 《일금방》이다.

《일금방》은 조선 후기 의학자들이 《석실비록》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저작이다. 《동의보감》에 익숙해져 있던 의학자들이 《석실비록》이라는 새로운 의학 지식을 수용하여 기존 지식과 융합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는 조선 후기 의학자들이 《본초강목(本草綱目)》을 접하고 나서 《본초유함(本草類函)》(1833)·《본초부방편람(本草附方便覽)》(1855)·《본초방(本草方)》(1860?) 등 다양한 의서를 저술하며 기존 지식에 새로운 지식을 통합한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다만 조선에서 《석실비록》을 어떻게 수용하고 이해하였는지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다. 장서각에 《석실비록》의 조선 필사본(장서각 K3-347)이 소장되어 있다는 점, 필자 미상의 조선 원고본 의서 《석실방약유취(石室方藥類聚)》가 《석실비록》를 바탕으로 저술되었다는 점 등을 통해 조선 후기에 《석실비록》이 유입되었으며 일부 의학자들이 이를 관심 있게 보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 판본

번역 모본으로 삼은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古朝68-14)이다. 이 판본은 1928년 간본으로, 현재 전해지는 판본은 모두 이와 같은 간본이며 다른 종류의 간본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해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원광대학교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 간본 권두 서문 말미에는 "昭和二年陰丁卯十一月 漢陽趙鼎允謹序"라고 적혀 있다. 또 권말 간기(刊記)에는 "昭和二年十二月二十日印刷", "昭和三年一月九日發行"이라고 적혀 있다. 이를 통해 1927년 말에 집필이 완료되어 이듬해 1928년 초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권말 간기에는 또 저작자는 김홍제, 발행자는 조정운(趙鼎允), 인쇄자는 장순완(張順完), 인쇄소는 흥문당(興文堂) 인쇄소, 발행소는 조정운방(趙鼎允方)으로 명시되어 있다.

---

※ 참고문헌

- 김중권. 《一金方》(한古朝68-14) 초록/해제정보. 국립중앙도서관.
- 안상우. [고의서산책 644] 石室秘方에 대한 새로운 임상적용. 민족의학신문. 2014.
- 안상우. [고의서산책 645] 寶鑑法例 의거한 論病藥方. 민족의학신문. 2014.
- 오준호. 19-20세기 조선 의가들의 《본초강목》 재구성하기. 한국 의사학회지. 2013;26(2):1-7.
- 정지훈. 《一金方》에 보이는 溫補學說 -精, 氣, 神, 血門을 중심으로-. 한국 의사학회지. 2002;15(1):213-222.
- 차웅석. 석실비록(石室秘錄)(장서각 K3-347) 상세정보. 디지털장서각.
- 이정현. 한의학 고서 목록. 한국한의학연구원. 2019.

## 일러두기

- 책의 구성은 최대한 저본을 좇았으나 줄이 나뉘는 부분이 어색한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 없이 수정하였다.
- 원본에 제목이 없는 경우라도 가독성을 위하여 목차 혹은 문맥을 참고하여 임의로 제목을 추가하였다.
- 교감기를 제시하였고, 교감 결과를 번역에 반영한 경우는 ㊦로 표시하였다.
- 열람의 편의를 위해 속자, 이체자가 확실한 경우에는 표시 없이 정자로 입력하였다.
  - 예시) 湿 => 濕, 宜 => 宜
- 글자는 다르나 당시 통용되었던 글자는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 예시) 歛=斂, 莛=莛, 褰=褰, 郤=卻
- 입력이 어려운 글자는 파자로 입력하였다.
  - 예시)【口+八/豕】
- 본문에는 다음과 같은 약속 기호 및 표기가 사용되었다.
  - ㊦ : 판독 안되는 글자
  - [ ] : 서적의 작은 글씨
  - **임의 제목** : 원서에는 없으나 내용 이해를 위해 삽입한 제목



## 출판사항

서 명 : 국역 일금방(一金方) 1

원저자 : 김홍제(金弘濟)

국 역 : 오준호

해 제 : 오준호

발행처 : 한국한의학연구원

발행일 : 2024년 12월 10일

주 소 :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대표전화 : 042-868-9482

글꼴 출처 : 함초롬체 (한글과컴퓨터)

### 기여한 사람들

이 책의 번역을 기획하고 판본을 조사·수집하고 정본화 된 원문 텍스트를 만든 이는 오준호이며, 원서에 가까운 모습으로 eBook을 편집하여 온라인에 공개한 이는 구현희입니다.

copyright © 2024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게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전한의번역서 e-book @ 한국한의학연구원 지원과제 : (KSN1923111) AI 한의사 개발을 위한 임상 빅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 플랫폼 구축



ISBN 978-89-5970-574-0 (PDF)